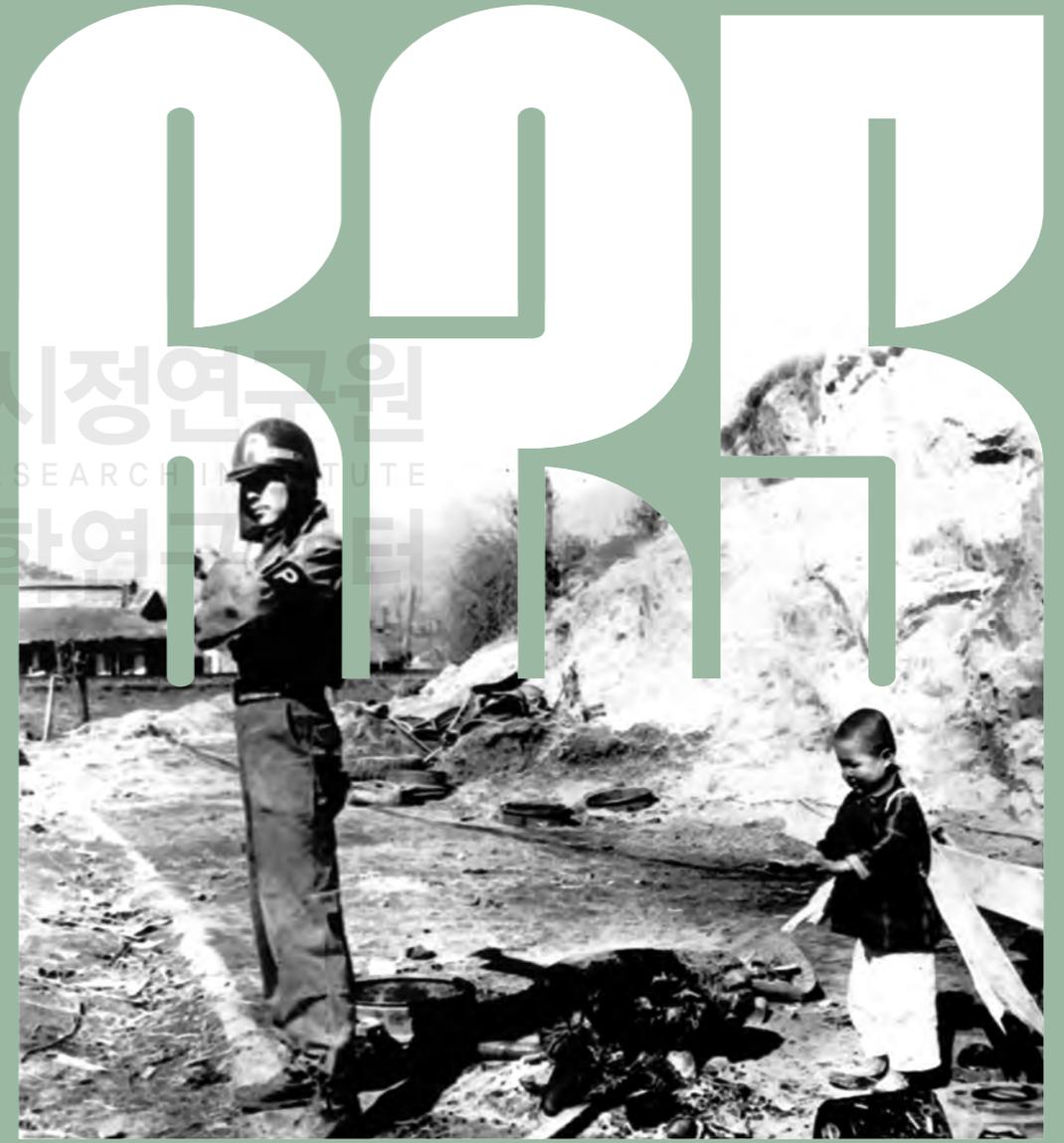


# 한국전쟁

그 기억의 파편을 모으다



한국전쟁  
그 기억의  
파편을 모으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한국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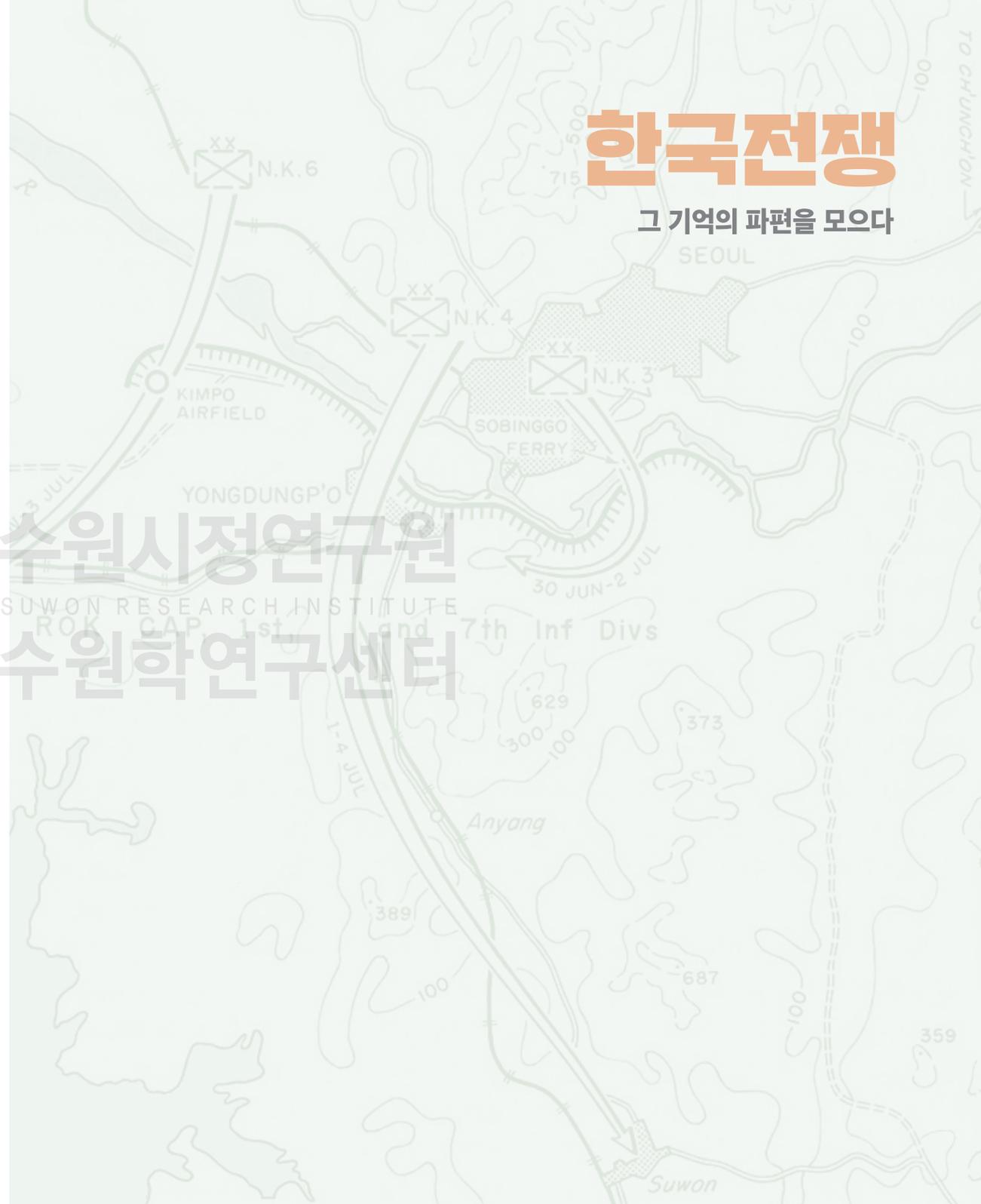
그 기억의 파편을 모으다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Contents



### 한국전쟁, 그날

- 006 전쟁의 시간                    사진 001-067
- 082 한국전쟁과 수원비행장    사진 068-083
- 106 한국전쟁과 아이들            사진 084-106



### 한국전쟁, 그 기억의 파편

- 132 첫 번째 이야기  
전방의 여자의용군, 이등상사 이복순
- 178 두 번째 이야기  
망포동 고대감집 손녀 고숙자의 눈에 비친 한국전쟁
- 228 세 번째 이야기  
살아남고 살려 주며 겪어낸 이봉균의 한국전쟁
- 306 네 번째 이야기  
이낙수가 겪은 이산과 전쟁 그리고 가산 일구기
- 358 다섯 번째 이야기  
전쟁의 폐허 위해 조용호가 쌓아 올린 일상

# 한국전쟁, 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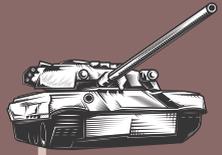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I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쟁의  
시간



# 전쟁의 시간

## 1950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6월 27일

정부와 국회, 수원으로 이동 / 맥아더 장군의 명령에 따라 미국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 수원농업시험장에 설치

6월 28일

북한군 서울 점령 / 육군본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 서울에서 수원농업시험장으로 이동



6월 29일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 바탄기로 수원비행장 도착

6월 30일

수원에 있던 전방지휘소, 군사고문단, 대사관 등 대전으로 철수

9월 28일

서울 수복

9월 26일

오전 11시 미군 정보 판단 착오 미군기 폭격으로 장안문 반파



9월 22일

제31연대 본대 수원 수복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개시

7월 5일

스미스 부대 북한군과 오산 죽미령에서 첫 전투 패배

7월 4일

북한군 제4사단 수원 점령

10월 19일

중공군 압록강 건너 참전

## 1951



1월 7일

중공군 제50군 수원 점령

1월 25일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선더볼트 작전'으로 오목천리, 수원시내, 김량장리, 양지리, 이천 선까지 진출

1월 4일

1·4후퇴 서울시민 피란

1월 16일

미 제25사단 제27연대 '울프하운드 작전' 수원 진입

7월 10일

휴전회담 시작



## 1952

2월 7일

수원시 비상계엄 해제

3월 20일

수원시청 복귀 후 본격적인 재건사업 시작

1월 27일

미 제1군단 수원의 칠보산 공격하여 점령, 수원 재탈환



## 1953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VIEW OF THE GOVERNMENT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 SUIGEN.  
場驗試事農府督總、力動原の導指産農鮮全 (勝名原水)



**003**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로 사용되었던 수원농업시험장 내 일본식 건물(수원박물관)  
1950년 6월 26일 정부와 국회는 수원으로 이동했고, 6월 27일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Douglas MacArthur)의 명령에 따라 수원에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 겸  
주한연락단(ADCOM)이 창설되었다.

**004** 서울에서 철수해 수원지구로 집결 중인 국군(임인식, 유로크레온)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고 이날 육군본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이  
서울에서 수원농업시험장으로 이동하였다.

1950년 6월 27일

1950년 6월 28일



**005 맥아더 장군과 처치 준장(국사편찬위원회 | NARA)**

미 극동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도쿄의 사령부를 떠나 북한의 남침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첫발을 수원에서 내딛었던 것이다.



**006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을 맞는 처치 준장(국사편찬위원회 | NARA)**

대전으로 피란 갔던 이승만 대통령이 수원으로 올라와 맥아더 장군과 처치(John H. Church) 준장, 무초(John J. Muccio) 주한미대사를 만났다.

**1950년 6월 29일**



007 무초 주한미대사와 대화 중인 맥아더 장군(국사편찬위원회 | NARA)

세 사람 뒤로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 창문이 보인다.



008 미 극동사령관 맥아더 장군과 국군(국사편찬위원회 | NARA)

맥아더 미 극동사령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그의 부관들과 국군 장교들과 함께 북한의 남침 상황에 대한 대처를 논의 중이다.

1950년 6월 29일



009 남쪽으로 이감 중 수원역에 도착한 인천소년형무소 소년범(국사편찬위원회 | NARA)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등에 연루되어 인천소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소년범으로, 수원역을 지나는 경부선의 경로로 볼 때 대전형무소로 이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상이 촬영되고 한 달여 뒤 대전형무소 재소자 수천 명은 산내 골령골에서 학살당했다.



010 남쪽으로 이감 중 수원역에 도착한 인천소년형무소 소년범(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0년 7월 1일



011 전방 배치를 기다리는 국군(국사편찬위원회 | NARA)



012 수원역 앞에서 전방 배치를 기다리는 국군(국사편찬위원회 | NARA)

SRI  
수원시 50년 7월 1일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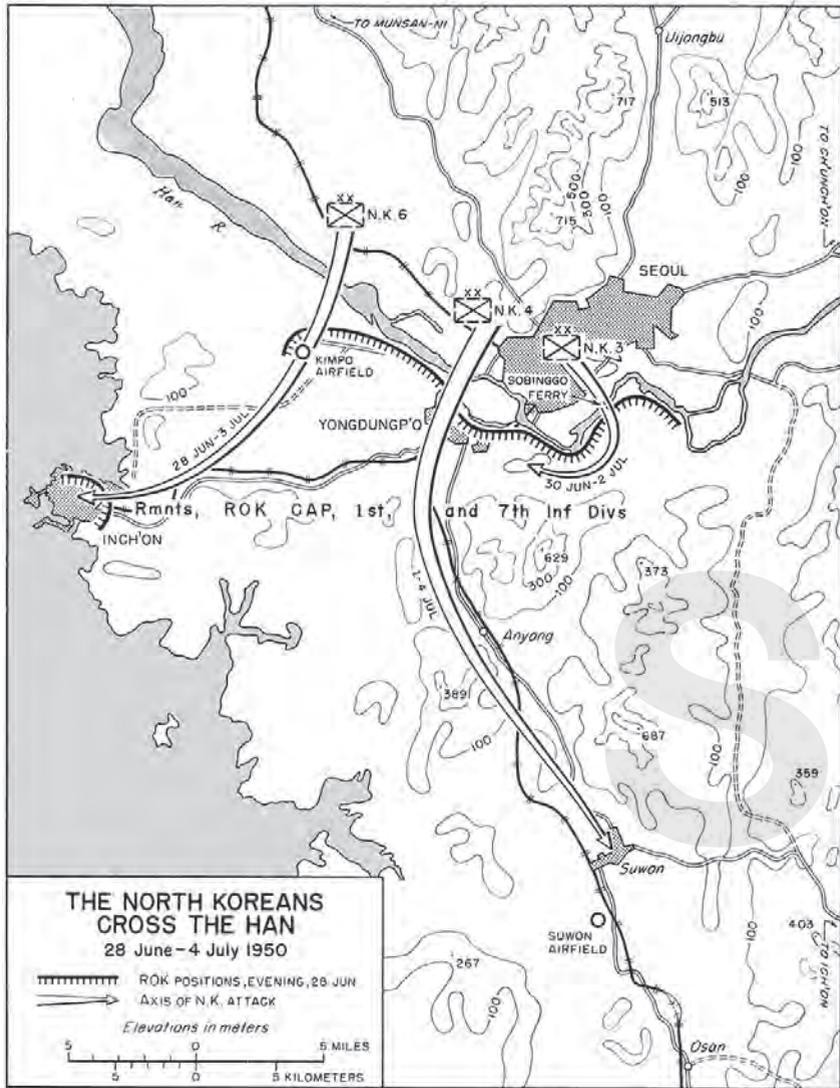
013 무개화차에 탑승한 사람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군과 경찰, 민간인이 섞여 무개화차에 타고 있다.  
사진 뒷면에는 '전방으로 향하는 국군'이라고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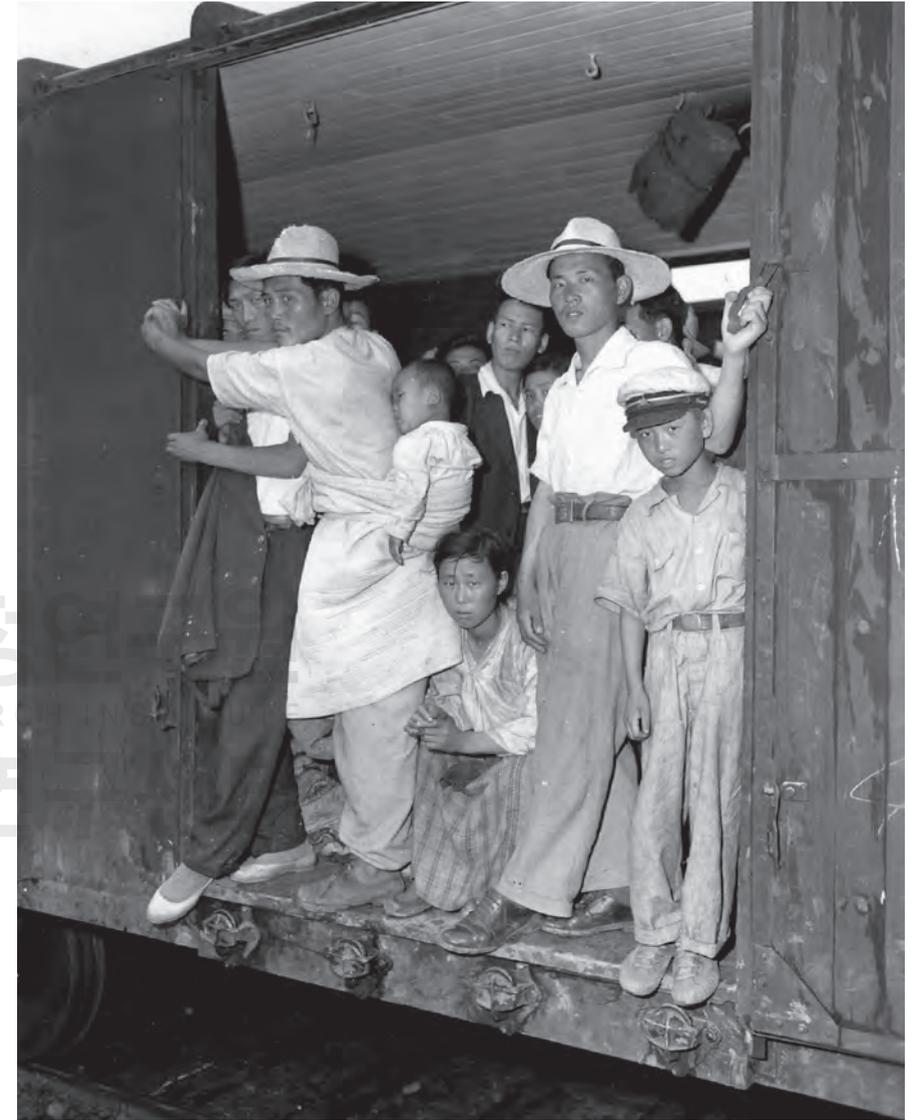
014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 수원역에 몰려든 피란민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0년 7월 1일



015 1950년 7월 4일 북한군의 수원 점령(www.koreanwar.org)  
1950년 6월 28일~7월 4일 북한군의 공격과 남하 과정을 그린 지도이다.

1950년 7월 4일



016 북한군의 남하를 피해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한 피란민(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0년 7월 5일



017 교전 중 사격 및 폭발로 파괴된 수원 부근의 모습(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0년 7월 4일 오후 5시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제203전차연대가 수원에 진입하였고, 오후 8시경 북한군 제4사단이 수원을 점령하였다.



018 폭격으로 폐허가 된 수원의 건물(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0년 7월 5일



019 폐허가 된 수원의 전방제대 사령부(국사편찬위원회 | NARA)



020 폐허가 된 수원의 전방제대 사령부(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0년 7월 5일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021 북한군과의 교전을 위해 수원 근처의 전선으로 향하는 국군  
(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0년 7월 5일



**022 인천항에 상륙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미 제7사단(국가기록원 | NARA)**

1950년 9월 15일 작전명 '크로마이트'인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어 오전 8시 월미도의 북한군을 완전히 소탕하였다. 후속부대로 대기 중이던 미 제7사단은 9월 17일부터 상륙을 시작해 수원과 오산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1950년 9월 17일



**023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복된 수원 팔달문(국사편찬위원회 | NARA)**

9월 21일 오후 4시에 장갑정찰대가 안양을 출발하여 오후 6시경에 수원에 진입하였고, 다음 날인 9월 22일 제31연대 본대가 수원을 수복하였다.

1950년 9월 22일

수원시정  
SUWON RESEARCH  
수원학연



024 미군기의 폭격으로 반파된 장안문(존 리치)

9월 26일 오전 11시 미군 정보의 착오로 미군기가 장안문을 폭격하였다.



025 파괴된 장안문 안쪽(수원박물관)

1950년 9월 26일



026 북한군을 수색하는 모습(국사편찬위원회 | NARA)

미 7보병사단 병사들이 수원에서 대피호에 숨어 있을 북한군 저격병을 수색하고 있다.

1950년 9월 26일



027 수원 남쪽의 붕괴된 다리와 북한군 탱크(국사편찬위원회 | NARA)

사진 뒷면에는 "끊어진 다리와 그 위에 있는 북한군 탱크의 모습으로, 북한군 탱크는 공군의 공습으로 다리 위에 고립되어 작전 불능 상태에 빠졌다."라고 적혀 있다.

1950년 10월 7일



원  
UTE  
터



- |                  |                |            |
|------------------|----------------|------------|
| ① 수원농림중학교 교장 최계남 | ② 수원중학교 교장 홍시운 | ③ 수원특무대 대장 |
| ④ 수원경찰서 서장       | ⑤ 수원장학사 김종인    | ⑥ 수원장학사    |
| ⑦ 학도의용대 대장       | ⑧ 수원특무대        | ⑨ 교관       |
| ⑩ 수원농림중학교 훈련 고문  | ⑪ 조교           | ⑫ 조교       |

028 국방부 정훈국 학도의용대 제1기 훈련생 기념사진(진덕영)

1950년 11월 28일



029 수원경찰서 앞 UN군(국가기록원 | NARA)

한국전쟁에 전투병을 파견한 나라는 총 16개국으로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에티오피아,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 필리핀, 호주이다.

수원시정연  
SUWON RESEARCH IN  
수원학연구



030 수원에서 제복을 입고 식사하는 그리스 군인  
(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0년 12월 28일

1950년 12월



**031 수원역 피란민(수원박물관)**

1951년 1월 7일 수원은 중공군 제50군에게 점령당했고,  
이때 수원역은 남행열차를 타기 위한 피란민들로 가득했다.



**032 공산군이 진격해 옴에 따라 남하하기 위해  
수원 근처에 모여 있는 피란민(국가기록원 | NARA)**

**1951년 1월 5일**



**033 수원역 피란민(국가기록원)**

1·4후퇴의 명칭은 공산군이 서울을 다시 점령한  
1951년 1월 4일의 날짜에서 비롯되었다.  
한강선에서 철수한 국군과 UN군은 수원과 오산을 지나  
평택에서 안성을 연결하는 37도선까지 철수하였다.

**1951년 1월**





035 수원 UN군 본부를 방문한 UN군사령부 총사령관 맥아더와 미8군사령관 리지웨이  
(국사편찬위원회 | NARA)



036 수원을 둘러보기 위해 지프차에 탄 맥아더와 미군장교들  
(국가기록원 | NARA)

1951년 1월 27일



037 수원 북쪽 전선을 방문 중인 맥아더와 미군 장교들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The Chinese Intervention』, 2000)  
왼쪽에서 세 번째가 리즈웨이, 가장 오른쪽이 맥아더이다.

1951년 1월 28일



038 수원 인근을 지나가는 UN군 전차(수원박물관)  
수원 재수복후 수원 근처 용인을 지나서 서울로 이동하는 UN군 전차이다.  
보병들이 전차 위에 타고 있다.

1951년 1월 31일



039 처참한 전투가 벌어졌던 수원 인근에서 시체를 매장하고 있는 사람들 (DMZ박물관)



040 장안문에서 엄폐하고 있는 군인들(수원박물관)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들은 추운 날씨에 방한모를 쓰고 있다.

1951년 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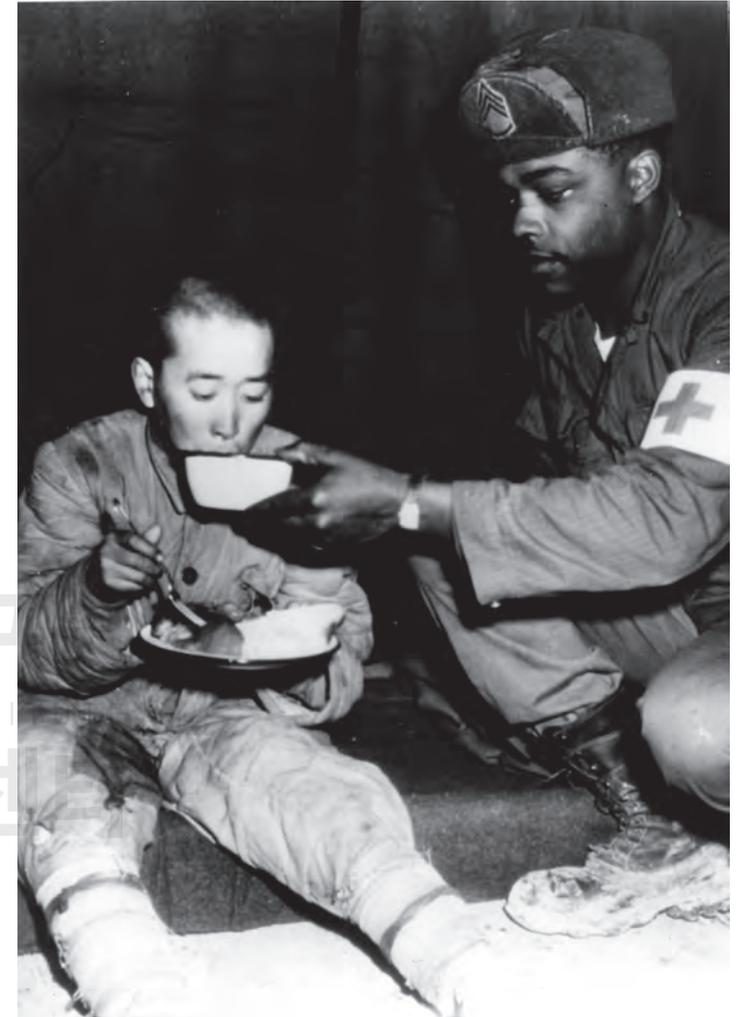
1951년 2월 2일



041 화상을 입은 3명의 여성(국사편찬위원회 | NARA)

UN군의 네이팜탄 공중폭격으로 화상을 입은 3명의 한국 여성이 수원 인근 지역 아전응급구호소에 응급치료를 받고 휴식 중인 모습이다. 네이팜탄은 네이팜(코코넛 오일의 지방산과 나프텐산에서 얻는 알루미늄 비누)을 연료로 하는 유지소이탄이다. 3,000℃의 고열로 건물과 산림·군사시설 등을 태울 수 있는 살상력이 큰 화염 무기로, 현재는 비인도적인 무기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  
SUWON RESEARCH INSTI  
수원학연구센터



042 부상당한 중공군과 미군 의무병(DMZ박물관)

튀르키예 군대가 수원 인근을 돌격했을 때 부상당한 20살의 중공군에게 미군 의무병이 커피를 먹여 주고 있다.

1951년 2월 4일



(SE2-Feb.15)MP AND HIS HELPER-An unidentified Allied military policeman directs traffic outside Suwon Thursday and keeps his back warm at the same time with the help of a Korean youngster.The 'junior MP'takes time out to warm himself between foraging expeditions for fuel.(APwirephoto)(jdc40700stf-jp) 1951

**043 연합군 MP(군사경찰)와 조력자인 한국의 아이(DMZ박물관)**

한국전쟁 외신 보도사진으로 "수원 외곽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MP 뒤에서 '꼬마 MP'가 불을 쬐고 있고 덕분에 MP의 등도 따뜻하다."고 전하고 있다.



**044 매교다리를 건너는 미군 트럭과 '꼬마 MP'(수원박물관)**

수원천에 놓인 매교다리 위로 미군 트럭이 지나고 있다. 영문표지판에 1951년 1월 6일 파괴되었던 다리를 1월 30일에 재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다리 옆 아이는 왼쪽 사진과 동일한 '꼬마 MP'로 보인다.

**1951년 2월 15일**



045 UN군이 점령한 수원 시가지(DMZ박물관)

중동사거리 부근에서 팔달문 방향으로 진군하고 있다.

1951년 2월 16일

046 수원에 주둔한 미군의 편지(수원박물관)

미군 병장 칼 스테터(Karl Stetter)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살고 있는 케이 페어랜드(Kay Fairland)에게서 2월 1일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칼 스테터는 지난 가을 한국의 51통신대대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군인으로 수원에 주둔하면서 군생활과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보냈다.

8:40 P.M. FEB. 18, 1951  
SUWON, KOREA

Dear Kay,  
Your letter of February 1 arrived four days ago, but I've been occupied with one thing and another rather steadily the past few days and didn't find an opportunity to answer as soon as I would have liked. That's only part of the truth. More important is the fact that I have alternating periods of depression and cautious optimism that this phase will soon be called to a screeching halt. The last few days have not been ones of cautious optimism & during such a time I am not in the least inclined toward observing social amenities. Hearing from you has done wonders for my morale, however, and this evening seemed like a good time to say so. I've thought about you and fairy quite often, Kay, and wondered how and what you were doing. Reading your letter made me remember again some of the good times we had not so long ago. Ah, those college days! Sound like some white-haired patriarch

at Homecoming, don't I.  
I intended to write to you and fairy soon after I left, but we got a pretty fast shuffle all the way through and didn't have a mailing address of any permanence for more than a week or two at a time. I'm still getting mail post-marked in December and forwarded from different spots half way around the world. It wasn't until I was assigned to this outfit that I was sure I'd stay put for any length of time. As a matter of courtesy, at least, I planned to answer a few letters I got from April to me, and to establish a liaison with Harry Manley. But, to date, you are the only person with whom I have any contact in New Wilmington, that may be some sort of distinction, but I doubt it. (For you & me.)  
I don't know exactly what to put into this letter, Kay, without making it read like a biography or a diary. I don't have any war story to tell & you've probably heard more than enough about the climate and geography of this place.  
Regarding Suwon, it's about 500 years

1951년 2월 18일



047 서부전선 수원지구(경기도·경기문화재단,  
『한국전쟁 60주년 사진집 1950 0625』, 2010)



048 수송 트럭을 타고 미 24보병사단 교대병력 군인들이  
장안문을 통과하는 모습(국가기록원 | NARA)

1951년 4월 2일

1951년 4월 20일



049 개성 평화회담에 참가한 UN 대표자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된 휴전회담에 참가한 UN 대표자들로, 왼쪽부터 미 공군 소장 그레이글(L.C. Craigle), 한국군 소장 백선엽, UN군 수석 대표 미 해군 중장 조이 터너(C. Turner Joy), 미 육군 소장 호즈(H.I. Hodes), 미 해군 소장 버크(A.A. Burke) 순으로 앉아 있다.

1951년 7월 16일

京畿十個郡의  
非常戒嚴解除  
의(李)국방장관의  
의

백두대간과 만주강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京畿十個郡(京畿十道)의 非常戒嚴을 解除한다. 李國相은 京畿十道의 非常戒嚴을 解除하는 命令을 發布하였다. 京畿十道는 京畿道, 仁川道, 京畿道, 京畿道, 京畿道, 京畿道, 京畿道, 京畿道, 京畿道, 京畿道이다.

수원시정연구  
SUWON RESEARCH INST  
수원학연구소

050

수원을 포함한 경기 남부 10개 군의 비상계엄해제 (『동아일보』 1952년 2월 7일)



1952년 2월 7일



051 트럭에 초인산 비료를 싣는 모습(국사편찬위원회 | NARA)

UNCACK(UN민간원조사령부) 농림국 고문(오른쪽)이 트럭에 초인산 비료를 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수원 농민들에게 나눠 주기 위하여 UNCACK에서 지원한 비료이다.



052 초인산 비료를 뿌리는 모습(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2년 3월 28일



053 한국전쟁으로 무너진 수원 성벽 앞 UNCURK(UN한국통일부흥위원회) 소속 선거감독관 (국가기록원)



054 팔달문 벽에 붙은 선거포스터를 보는 UNCURK 소속 선거감독관(국가기록원)  
1950년에 실시 예정이었던 최초의 지방선거가 한국전쟁 발발로 연기되어 1952년에 실시되었다.

1952년 4월



055 한국전쟁 중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대 수원시의원(차인순 유족)

한국전쟁 중 1952년 4월 25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대 시의원의 모습이다.  
 사진 하단에 '당선 시의원 좌담회 기념촬영 주최 합동통신 수원지사 4285.4.29.'라고 적혀 있다.



056 상이군인회 경기도지부 지방대표자회의 기념사진(한동민)

1952년 4월 29일

1952년



**057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당선자 방한 환영행사(차유순 유족)**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는 1952년 10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전쟁의 ‘명예로운 조기 종식’을 실현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2월 방한 당시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게 북진통일과 휴전반대를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이젠하워는 이를 거절하였다.



Railroad Station Suwon December 1952

**058 수원역 앞에서 휴식 중인 미군들(수원박물관)**

이동 중인 미군들이 군장과 더블백을 내려놓은 채 수원역사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수원역 건물은 1928년 조선식으로 지은 것인데,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기와지붕이 모두 사라진 모습이다.

1952년 12월

1952년 12월



059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반공포로 석방지지 총궐기대회(경기남부경찰서)

미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하였다.

1953년 6월



060 반공애국포로 석방지지 경기도 화성군 일왕면민 총궐기대회(경기남부경찰서)

反共愛國捕虜釋放支持京畿道華城郡日旺面民總蹶起大會  
1953年6月22日

1953년 6월 22일





063 수원중고등학교 북진통일 궤기대회(수원고등학교)



064 휴전협정 서명(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제159차 본회의에서 UN군 수석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중장과 북한군 수석대표 남일 대장이 3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협정서에 각각 서명한 뒤 UN군 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화이(彭德怀)가 각각 그의 후방 사령부에서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는 최후까지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끝내 본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1953년 7월 16일

1953년 7월 27일



065 한국어 번역본 만화책 『동순이와 순최』(국사편찬위원회 | NARA)

“The Red Takes a City”의 한국어 번역본 만화책 『동순이와 순최』:6·25 추억의 일편,는 1950년대 미국의 사상심리전 텍스트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만화 주인공 김용상이 북한군 치하 서울에서 겪었던 고난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용감히 대항하였으며 적색정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수만의 시민들은 이제 서울시에 자유와 민주주의 아래 다시 돌아온 그들의 기쁨을 대한민국 태극기에 실어 하늘 높이 날렸으며 이에 공산정치는 종말을 고하였다!”라는 내레이션으로 끝난다. 만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1953년 7월 27일



韓美防衛條約調印式光景  
 前列 左로부터 下 外務部長官 델레스 國務長官  
 後列 左로부터 白國務總理 李大統領 任柄稷 主韓美大使館부리크스 로버트슨國務長官補 루지UN首席代表 스티븐슨陸軍長官

**066**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식 광경을 인쇄한 화보(국립민속박물관)

상단중앙부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있고, 아래에 조인식 광경을 찍은 흑백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 둘레에 무궁화 문양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다. 하단 중앙부에 '韓美防衛條約調印式光景', '前列 左로부터 下 外務部長官 델레스 國務長官', '後列 左로부터 白國務總理 李大統領 任柄稷 主韓美大使館부리크스 로버트슨國務長官補 루지UN首席代表 스티븐슨陸軍長官'이라 인쇄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이승만 박사', '아이젠하워'라고 적혀 있다.

067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홍보물(수원박물관)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미간에 동맹 체결이 촉구되었으며,  
 1953년 8월 이승만 대통령과  
 델레스(John Foster Dulles)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방위조약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미군의  
 한국 주둔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53년 10월 1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국전쟁과  
수원비행장

# 한국전쟁과 수원비행장

1950

6월 28일

한국군에 지원할 105mm 곡사포 포탄을 실은 수송기가 수원에 도착하였다.

6월 29일

수원비행장에 첫 번째 미군 전투부대가 도착하였다.



6월 30일

오후, 수원 상공을 선회하던 미군 정찰기의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수원에 있던 전방지휘소, 군사고문단 등이 대전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1951

1월 30일

미 공군 제61병력수송비행단 소속의 수송기들이 수원비행장으로 보급품을 수송하기 시작하였다.

1953

여름

항공기의 착륙을 보조하기 위해 활주로 끝에 어레스팅 와이어를 설치하는 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수원비행장은 UN군 공군의 장거리 작전을 지원하는 중요 기지로 기능하였다.

2월 22일

미 공군 제4전투비행단장 메이어 대령은 수원비행장을 제트전투기의 비상시 기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행단 소속의 재급유 및 재무장 파견대를 보냈다.

3월 6일

미 공군 제 334전투비행 대대가 수원비행장에서 작전 임무를 시작하였다.

6월

수원비행장의 활주로의 길이는 9,000피트로 확대되고 아스팔트로 포장되었다.

1952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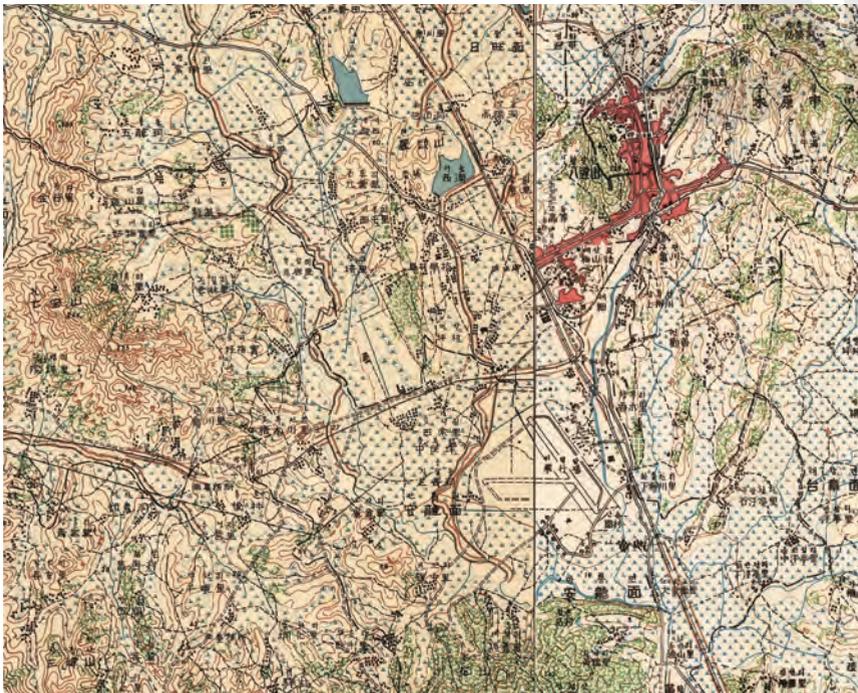


국립중앙  
MUSEUM  
INSTITUTE  
OF CULTURE  
센터

068 해방 직후 공중에서 본 수원비행장 전경(국사편찬위원회 | NARA)

활주로와 함께 비행기, 비행장 시설 등이 보인다.

1945년 9월 9일



069  
1945년과 1956년  
지도 속 수원비행장

RRI 수원시정  
SUWON RESEARCH  
수원학연



070 수원비행장 도착한 맥아더 총사령관(국사편찬위원회 | NARA)  
미 극동군사령부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전용기인 바탄(Bataan)기를 타고  
머스탱 전투기 4대의 엄호를 받으며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였다.

1950년 6월 29일



**071 수원비행장 활주도에 설치된 방공포(국사편찬위원회 | NARA)**

수원비행장은 1944년대 건설된 것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기지로 사용되었다.



**072 미 공군 C-54 수송기가 수원 비행장에 탄약을 싣고 착륙한 모습 (국사편찬위원회 | NARA)**

수원비행장은 전쟁초기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주요기지였다. 6월 28일 오전 6시에는 일본 다치카와(立川) 비행장에서 한국군에 지원할 105mm 곡사포 포탄을 싣은 C-54 수송기가 출발하였다. 이날 하루 동안 수원비행장으로 총 119톤의 각종 탄약이 도착하였다.

**1950년 6월 29일**



**073** 수원비행장 활주로 평탄화 작업(수원박물관)

소련 전투기에 의해 파손된 미군 전투기 F-51 앞쪽에 삽을 들고 활주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국군의 모습이다.

1950년 7월 3일



**074** 수원비행장에서 탄약 및 보급물자를 실은 미군의 수송기를 기다리는 국군(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0년 7월



**075** 수원비행장에 막 착륙한 C-54 수송기(국사편찬위원회 | NARA)

금요일 오후 수원비행장에 착륙한 C-54 수송기 옆에 짐을 내리기 위한 국군 트럭이 있다.



**076** 수원비행장에서 이륙하지 못하는 수송기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지속적인 포격으로 인해 미 공군 C-54, C-47, C-46 수송기가 이륙하지 못하였다. 시멘트 활주로 바닥에 탄흔이 보인다.

1950년 7월

077 수원공군기지로 귀환한 미 공군 전투기(더글라스 프라이어)

P-51 머스탱(Mustang)으로 추정된다. 머스탱은 한국전쟁 때 투입된 프로펠러 전투기로 산악지역이 많은 한반도에서 근접전투 시 저속으로 근접하여 공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한국 공군이 창설한 뒤 처음 보유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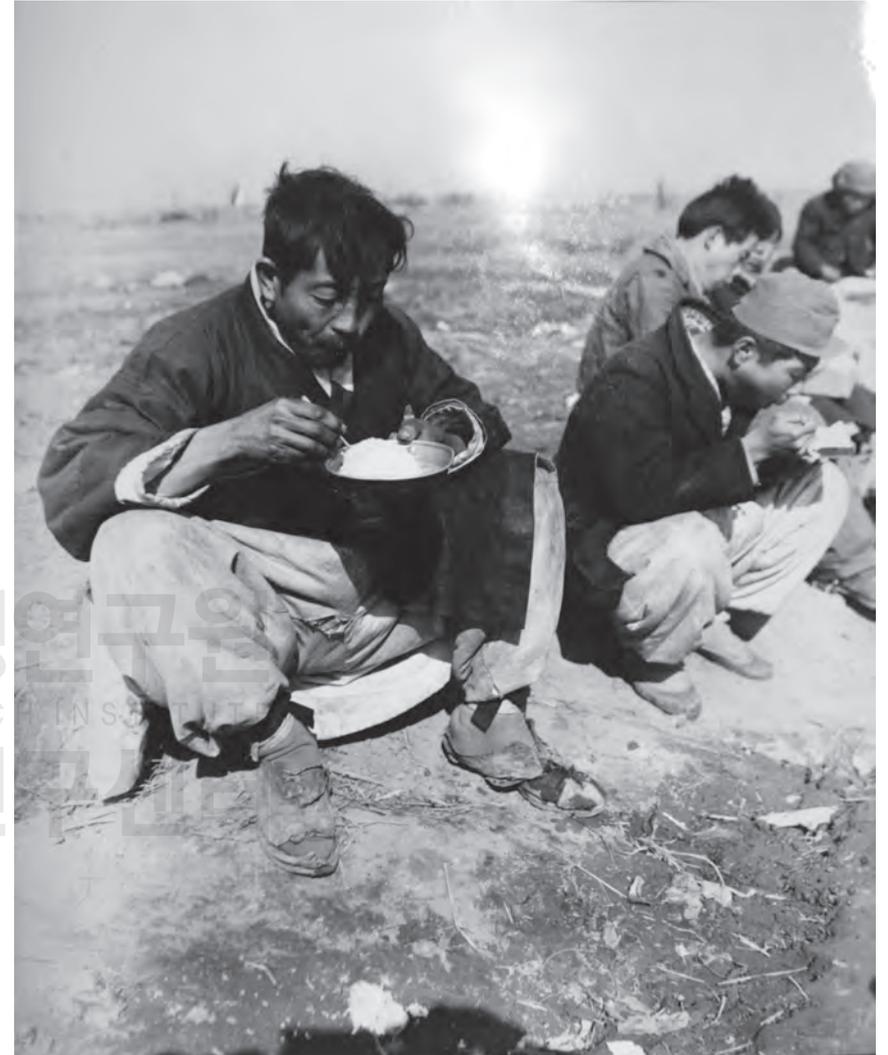
1950년



**078 한국전쟁 외신 보도에 실린 수원비행장(DMZ박물관)**

북한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수원 활주로 가동이 재개되었다. 미 공군 전투기 C-54는 총탄이 퍼붓고 있는 전장에 생필품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사진 뒷면에 영문 설명 부착되어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은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079 수원비행장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한국인 노동자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한국전쟁 중 수원비행장은 복구와 확장을 병행하였다. 1952년 6월까지 수원비행장의 활주로의 길이는 9,000피트로 확대되고 아스팔트로 포장되었다.

1951년 2월 6일

1951년 2월 14일



080 수원 공군기지(국사편찬위원회 | NARA)



081 수원 공군기지의 위장된 F-86 전투기(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1년 9월



082 수원공군기지 조감사진(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1년 12월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3년 5월 19일

CAUTION  
LOW FLYING AIRCRAFT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국전쟁과  
아이들



**084** 미군이 휴대용 식량을 먹여 주는 모습(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1년 2월 5일)

수원 북쪽 작은 마을에서 제임스 아레스(James R. Areys)상병이 휴대용 식량을 부상당한 아이에게 나눠 주는 모습이다. 이 소녀는 전쟁으로 눈이 멀고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085** 구걸하는 아이(수원화성박물관)

깡통을 들고 구걸하는 아이의 주변으로 음료를 파는 가게와 한양공업사가 위치해 있다. 사진 뒷면에는 "우리가 지프를 타고 시내를 돌던 날 오후에 우연히 이 소년을 만났는데 전혀 수줍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086 배리와 한국인 아이(수원박물관, 1951년 3월)

미 공군 배리(GEO,S Barrie)가 찍은 사진을 모아 둔 사진첩에 들어있는 사진으로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한국인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087 하우스보이 Kim(수원박물관, 1951년)

사진 설명에는 '김, 우리 부대 최고의 하우스보이(Kim our No.1 house boy suwon 51)'라고 쓰여 있다.

수원  
SUWON RE  
수원



088 양카라학원 전경(수원박물관)



089 양카라학원 원생들(튀르키예 하르비에 군사박물관)



090 양카라학원 아이들(튀르키예 하르비에 군사박물관)

1951년 6월 11일, 튀르키예 군대가 피란길에 남겨진 고아들을 위해 서둔동에 양카라학원을 세웠다. 1966년까지 운영하다 튀르키예 잔류부대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인에게 양도하였다.

수원  
SUWON RE  
수원학

양카라학원



091 튀르키예 군인들과 아일라(튀르키예 하르비에 군사박물관)



092 튀르키예 군인들과 아일라(튀르키예 하르비에 군사박물관)

튀르키예 군인들은 전투 현장에서 만난 소녀에게 아일라(Ayla)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함께 생활하였다. 아일라는 튀르키예 부대에서 함께 지내다가 군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양카라학원에서 지내게 된다.



**093** 팔달로에 개원한 자유동원(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1951년 10월 16일, 독립운동가 변기재의 아내 김양배가 팔달로2가에 자유동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하였다.



**094** 조원리로 이전한 자유동원(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자유동원은 1955년 11월 25일 팔달로에서 일왕면 조원리(현 조원동)로 이전하였다.



095

구호물품 옆에 서있는 자유동원 아이들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096 자유동원 아이들(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수원시립수원대학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자유동원



**097** 경동원에 방문한 미 제8전투폭격비행단 군인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3년 6월 30일)  
 미 제8전투폭격비행단 장교와 사병들은 7일간의 캠페인을 통해 5천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모았다.  
 기부금을 수원의 경동원에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한국 어린 아이들을 위해 UNCAACK 직원  
 (왼쪽에서 두 번째)에게 전달하였다.

수원  
 SUWON RE  
 수원



**098** 경동원 아이들과 미 제8전투폭격비행단 군인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3년 6월 30일)  
 사진 뒷면에는 “경동원(Kyongdong Nutritional Center)은 생후 6개월부터 12세 아동까지  
 수용하여 영양실조를 치료하는 곳”이라는 영문 설명이 있다.



099 아기를 안고 왼쪽에 서있는 경동원 설립자 정의순  
(국사편찬위원회 | NARA, 1953년 6월 30일)



100 한국전쟁 당시 경동원 사진(정의순)

1·4후퇴 때 피란길에서 아들, 딸 남매 모두를 잃은 정의순이  
1952년 11월 8일 신풍동에 경동원을 설립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101 화성애육원 아이들(수원박물관, 1953년)

수원박물관에 한국전쟁 시기의 사진을 기증한 미 공군 진굴드(Gene Gould)는 고아원에 자신의 고향인 미국 오리건주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의류 등 구호품을 전달하였다.



102 화성애육원 아이들(수원박물관, 1953년)

화성애육원



103 수원침례교회 고아원 아이들(수원박물관, 1953년 4월)  
수원침례교회는 교동에 있는 현 수원중앙교회로 추정된다.



104 수원침례교회 고아원 아이들(수원박물관, 1953년 5월)

## 침례교회 고아원



105 우물가의 아이들(수원박물관)



106 장안문 성벽 위의 아이들(수원화성박물관)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한 아이들이 장안문 서측 성벽 여장 위에 앉아있다.  
성벽 위 여장의 상단부분을 옥개전(屋蓋塹)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1953년 8월 24일

# 한국전쟁, 그 기억의 파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III

첫 번째 이야기  
이복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소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소

전방의 여자의용군,  
이등상사 이복순<sup>1</sup>



이복순은 1933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지냈을 정도였다.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신 듯한 아버지의 결단으로 해방 직전 봄에 한국으로 귀국, 수원에 정착하였다. 수원에서의 청소년기 이복순은 왈가닥 같은 활발한 성격을 자랑한 터에 아버지께서 서에며 주산 같은 학원에 보내 공부를 더 시키기도 하셨다.

전쟁 이전의 소녀 시절에 대한 기억을 물으면 이복순은 무엇보다 자신이 '시를 좋아하는 소녀'였다고 자처한다. 군에 입대할 때조차 바이런과 하이네, 김소월의 시집 세 권을 챙겨 갔을 정도로 문학을 사랑하는 소녀였고,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시 쓰기를 즐겼다. 군 복무시절 별명 중 하나였던 '물

- 1933년 오사카 출생
- 1945년 한국으로 귀국, 수원에 정착
- 1950년 육군 여자의용군 2기로 입대
- 1951년 1월 전방(9사단 29연대) 배치,  
8월 후방(육군본부) 배치
- 1955년 이등상사로 전역 후 결혼
- 2013년 호국영웅기장증 수여



전쟁 직후 이복순이 숨어 지냈던 수원도립병원

망초'는 1951년 2월 강원도 정선에서의 후퇴 중 부상을 당해 외병 중이던 시기에 쓴 시 「물망초」가 9사단 신문인 『승리일보』에 실리면서 이복순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7월 4일경 수원에 들어오고 이복순은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아버지도 인민위원회 인사들과 대립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보위부에서 이복순을 찾아와 '인민군을 위해 일하라'는 압박이 이어지자 어머니의 지인이었던 병원장의 도움을 받아 9·28 서울 수복 때까지 수원도립병원 조제실에 숨어 일하며 지냈다. 이 시기 병원에 숨어 지내며 인민군에 의해 다친 환자들을 술하게 보며 인민군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더욱 자라게 되었다.

## 여자의용군 지원

한편 전쟁 이전 여학생들의 교련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여자배속장교단'이 전쟁 발발 후 군에 현역으로 복귀하여 '여자의용군'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여자배속장교의 교육대장이자 초대 여군병과장을 역임한 김현숙 당시 소령을 비롯하여 16명이 여자의용군 창설 및 교육 단계에서 활약하였고, 8월 중순부터 '제1기 여자의용군' 모집이 시작되었다. 이는 정부가 대구를 지나 부산으로 남하 피난 중이던 시기였으므로 주로 대구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모집이 이루어졌다. 지원자가 합격 정원의 4배를 초과했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제1기 여자의용군 500명이 1950년 9월 1일 제2훈련소 예속의 여자의용군교육대에서 훈련을 시작하였다. 3주간의 훈련 끝에 총원 491명의 1기생이 9월 26일자로 수료하였으며, 9월 말의 정부 서울 환도에 맞춰 여자의용군교육대도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다.

여자의용군 2기 모집은 1기생의 훈련이 종료되기 전부터 계획되어, 9월 하순부터 11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모집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 여자의용군 모집은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여자로, 초급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지원자격으로 하였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여자의용군 창설을 주도한 김현숙의 임관사령장(전쟁기념관 제공)

이 매우 낮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자의용군 자체가 엘리트 계층에 속한 여성들의 사회적 의무 실천의 일환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의용군'이라는 단어는 통상 '학도의용군'처럼 비정규군으로 군사활동을 한 경우를 뜻하지만, 6·25전쟁 시기 한국 육군의 '여자의용군'은 육군의 정식 모집과 선발, 훈련을 거치고 계급을 부여받은 정규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여자배속장교와 여자의용군으로 이어지는 전쟁 시기 여군의 존재가 현재 육군 여군의 효시가 되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실제 참전자들조차도 여자의용군을 학도여자의용군으로 혼동하여 부르기도 하나, 군번 없이 자원하여 군무에 종사한 학생을 일컫는 학도의용군과 정규 훈련과 정식 임용을 거친 여자의용군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자의용군 훈련(1952년, 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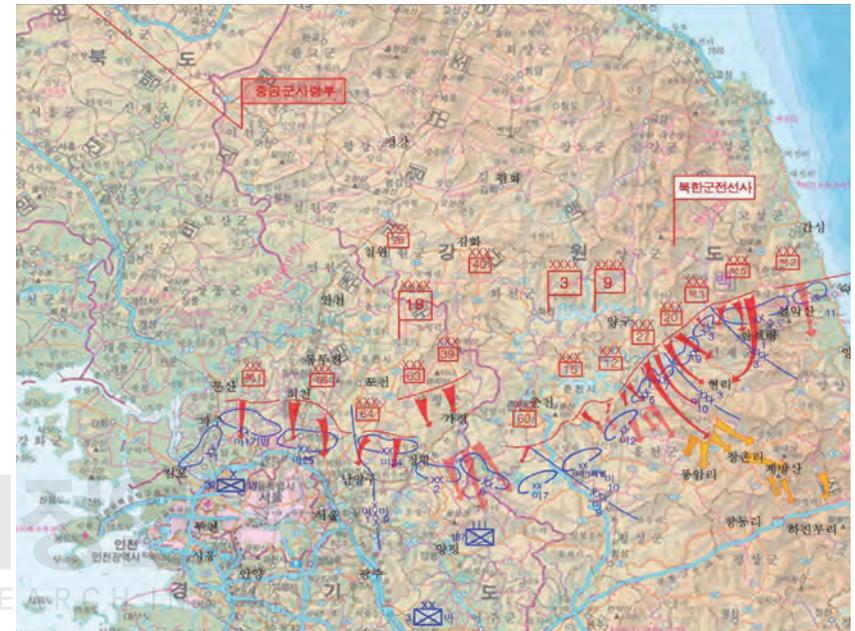
1951년 여자의용군(전쟁기념관 제공)

SRI 수원시립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예연구소

이복순은 1950년 11월 중순 여자배속장교들이 여자의용군 2기 모집차 수원에 방문하였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여자의용군에 지원하였다. 11월 말 합격 통지를 받고, 수원 지역 대한부인회의 환송을 받으며 당시 남산 밑 일신 초등학교 자리에 설치됐던 여자의용군훈련소로 입소하였다. 훈련은 12월 1일부로 시작되었고, 당초 여자의용군 1기와 마찬가지로 3주 과정의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중공군의 남하로 12월 17일에 훈련이 마무리되었다. 정부의 부산 이동과 함께 여자의용군훈련소 역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2기 수료생도 모두 부산으로 이동했으나, 이복순을 포함한 자원자 130명은 1951년 1월 중순 전방의 3개 군단, 10개 사단으로 각기 10명씩 배치되었다. 이때 이복순은 훈련소에서 짐을 옮기다 누골 골절을 입어 출발이 늦어지면서 1월 말 9사단 6625부대(백마부대)에 배속되었다.

### 전방에서의 부대생활부터 전역까지

전방 배치 후 필적을 인정받아 29연대 고급부관실 인사과 사병계에서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인사계 담당이라고는 해도 당시엔 전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시기였기에 안정적인 사무실 생활은 고사하고 매일 같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혼란 속에 전방 근무를 수행하였다. 이러던 중 2월 중순 강원도 정선 지방에서 중공군의 공격으로 후퇴하던 중에 차 사고를 당해 척추부터 꼬리뼈까지 부상을 입었다. 부상 직후 한동안 진통제만으로 통증을 견디다가, 치료를 위해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더욱 심한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가다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려서 우리 소총부대 배속받아서 빨갱이 놈 한 놈이라도 더 썩 죽이고 우리도 전사하는 게 명예로운



중공군의 5월 공세(1951년 5월 16~22일)

죽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구급차에서 내려 원대로 복귀한다.

부대로 돌아간 후 다친 몸을 이끌고 인사 업무에 전념해 4월 1일 한국군 최초의 전군 각개점호를 무사히 마치고, 공훈을 인정받아 사단장에게 1개월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휴가를 받아 본가로 돌아가 지내던 중 3군단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시작되며 중동부 전선의 국군 제7사단이 붕괴하고, 3사단과 9사단이 지휘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현리부터 속사리를 지나 하진부리까지 후퇴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현리전투(1951년 5월 16~22일)의 결과였다. 이 철수과정에서



유공표창장을 들고 있는 이복순

수많은 장병이 전사하거나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으며, 5월 19~20일 하진부리에서 수습된 제3군단 병력은 제3사단이 34.2%, 제9사단이 40.0%에 불과했다.<sup>2</sup>

한편 현리전투 중 여자의용군 2기 출신 3사단 본부중대 소속의 이등중사 권이순이 1951년 5월 18일 강원도 평창군 속사리에서 전투 중 전사하였다. 이 사건 이후 “아무리 긴박한 전쟁 중이긴 하나 여군까지 전방에 투입해서 전사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비난이 일어났다.<sup>3</sup>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방에 배치되었던 여군 전원의 후방 철수가 결정되었고, 6월부터 8월까지 전방 군단과 사단의 여군들이 차례로 대구의 제1보충대로 전속되었다. 이로써

6·25전쟁 중에 이뤄진 여자의용군의 전방 활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복순도 이 무렵 후방으로 전속되어 부산의 여자의용군훈련소에서 동기들과 재회하였다. 이후로는 인사계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결혼을 앞둔 1955년 3월, 4년 4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이등상사로 전역하였다.

참고로 이복순의 계급인 ‘이등상사’는 현재의 계급으로는 중사에 해당한다. 6·25전쟁 당시 국군의 계급 체계는 부사관 구분 없이 사병과 장교로만 나뉘었으므로 이등병으로 시작해 현재의 원사에 해당하는 특무상사까지 진급할 수 있었다. 이때 훈련소에 입소한 순간부터 이등병으로 불렸으나 계급장은 없었고, 훈련을 수료하면 일등병으로 부대에 배치되는 방식이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 구술 |

### ⊕ 시를 좋아하는 소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일곱 살에 6·25 참전한 이복순입니다. 그때 학도여자의용군을 모집하러 와서 2기생으로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다행히 논문에 패쓰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6·25 이전에 조금 궁금해요. 1950년도에는 몇 살이셨죠?** 열일곱 살이요.

**어떠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땐 공부하고, 책 보고, 그래고 있었죠. 그리고 6·25 때 나서부텨은 중국, 인민군한테 숨어있느라고. 첩에는 잘못했으면, 저는 총살감이었죠.

**조금 더, 학생이었잖아요.** 네.

**학생이었을 때 복순 할머니 궁금해요. 좋아하는 과목이나, 어떤 소녀였는지.** 시를 좋아하는 소녀였죠. 그 군에 들어갈 때 시집만 세 권 가져갔으니까요. 바이런 시집하고, 저, 하이네하고 김소월의 시집하고, 세 권 가지고 갔는데. 후퇴하다 전진

하다 할 적마다 보고 있다, 기냥 떨어뜨리고 갖고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웃음)

**혹시 아직까지 좀 외우고 계신 시가 있으신가요?** 외우고 있는 시는 푸시킨의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멀지 않아 기쁨의 날은 오려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일순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언제나 그리워지는 것이려니. 푸시킨 시예요.

**음. 그 시가 왜 할머니 기억에 남으실까요?** 그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시가요. 그때 고통스러웠었고, 제가 무명초라는 시 쓸 때, 제가 군에 들어가기 전에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부상당하는 바람에 죽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았거든요. 그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꿈이 사라졌다 하고선, 드러워서 기냥 정리로다가 기냥 생각나는 대로 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니는 그거 시 완성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인사과장님이 저를 참 귀여워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를 보시고는 “아! 이거 신문에 내야겠다.” 하시면서, 그것은 무명초라는 제목을 달고 승리일보라고, 9사단 신문에 발표가 됐어요. 그 전에는 제 별명이 꼬마병정이었거든요. (웃음) 젤 찢꼬마니까. 남자 병정은 저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명초라는 시를 써주시고, 드러누웠다가 그 과장님이 또 시로다가 답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었는데, 도이꽃 피는 마을에 복락이야 없건만, 온순하게 자라나, 무용에 힘써, 개선기 날리는 자 누구인가 하노라. 그 시 안에는 제 이름이 있어요. 도이꽃, 오얏 리(李)자, 도이꽃 피는 마을에 복락이야, 복 복(福)자, 복락이야 없건만, 온순하게 자라나, 순할 순(順)자 온순하게 자라나 무용(武勇)에 힘써, 무용이라고 하는 건 모든, 무용(無用) 아니라, 모든 일에 노력하고, 저기해른, 저기,

개선기 날리는 자 누구인가 하노라, 이복순. 그리고 써서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죠.

## ◎ 오사카에서의 유년 시절

**할머니 완전히 어렸을 때도 기억나세요? 일본에서 태어나셨죠?** 네 일본서.

**몇 년생이시죠?** 33년. 일본 햇수로 소화 8년이고. 1933년. 그런데 저는 몰랐죠~. 한국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차별을 안 받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잘 아셨고.

**여유가 좀 있으셨구나.** 그리고 한국인, 조선 거류민단? 그 단장인지 뭔지 간부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미리 도망을 이사 온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다시 오신 게 몇 년도예요?** 제가 45년도.

**45년도. 해방되던 해?** 해방되던 해에 3월 달에 온 거예요. 그니까 우리 집이 내가 떠난 담에 다 타버렸지. 아유- 그게 있는 거 다 왔으면 우리 얼~마나. 금대접이 이만한 쟁반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사니까 요릿집에서 그거 사라 그래서 아버지가 팔아주셨죠. 그때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알 수 없는 게, 겨울 밤에면 불을 다 저기해놓고 밤에만, 대학생이 와요. 모자 쓰고. 그래고선 빨리 들어가갖고, 바깥에 이렇~게 보시고, 응급실(응접실)에 거기다 불만 켜놓고. 돈을 건네주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은 뭐 독립운동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지원을 하셨구나.** 그게 아닌가 싶어서 몰래, 힐끔, 일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굽신거리는 자세와 아부하는 동작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의심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을 많이 찾아왔는데, 왜 없어졌을까? 하구. 나는 내 아버지가 뭐 한 장 쓰구 오시믄, 돈을 잔뜩 가져오셔요. 그런데 그날 밤에 대학생 망또 입고, 모자 쓰고 밤에 늦게 오시면,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막~ 한참 쳐다봐요 바깥에. 그래서 문을 딱 닫고. 그때는 방공 저기해기 때문에 어둡게 했잖아요. 응접실이 우리는 있었어요. 그 응접실 옆에 방공호, 방공호에서 자고 그래고 왔어요 우리는 폭격 때문에, 지진 때문에 더 못 견뎠어요.

**어느 쪽에 계셨어요, 그럼 일본에?** 오사카.

**그러면은 일본에 계신 동안은 어땠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날 귀여워해주셨는지. 노는 날 나하고 후카가와 에츠콘가 개하고 둘이서서 (선생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치과 의사라서 (친구네) 놀러 가면 치과 의자에 앉아서 이거 장난(치고 그랬는데), 철딱서니 없이. 그러면 (선생님네 가서도) 선생님이 빵 주시더라, 학교에서 주는 빵을. 그거 먹고 놀다가 이제, “선생님~ 우리 이제 갈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다음에 또 와라.” 그래서고. 근데 그 선생 군대 끌려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 여자 선생님이. 선생님 막 보믄, 생각해믄 눈물이 나와요.

**동네 사람들과는 어땠셨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김치 같은 것도 많-이.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하고 친해지더니 농사를 짓고 먼~~~데서 구루마(수레)에다가 총각김치 있죠, 그거 하는 무를 한~~ 리아카에다 싣

고는 먼 데서 걸어와요.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가 고마워서 그냥 계시나. 또 뭐 또 돈도 뭐 계산해갖고 (주고) 그래고. 그래고 내가 강 엄마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 김치를, 총각김치를, 일본 독은 이렇고 아가리는 커거든(크거든). 그게 이만~~한 우리 장독대에 있는 건 아가리가 작거든. 근데 일본 거는 이렇게 (커서) 거기에다가 해니까 거진 하나가 다 돼. 그니까 마늘, 우리 어머니 김치를 잘 담그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반장이고 우리 아버지는 부반장인데, 구미쵸(組長, くみちょう)라고 그랬어요. 도나리구미라고 해가지고 새마을 동네처럼. 그랬는데 그 김치를 인자 맛보시라고 갖다 드리니까. 아이고- 매웁지만 맛있다고, 그렇게 하고 먹고. 또 달라 그러시면 양재기에다가 암만 퍼줘도 (양이 많아서) 안 없어지니까. 우리 식구는 얼마 못 먹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아 옥상, 기무치, 기무치, 기무치 달래는 거야. 그래서 기무치 다 퍼다주시고.

콩나물 배급 나오면 첩에는 (일본인들이) 우리 집에 다 갖다 줬다구. 잘못 끓이면 뚜껑 열면 냄새나잖아. 비릿한 상한 냄새. 그니까 첩에는 우리 어머니가 받으시다가 양심에 가책이 되시더라. 그래서 끓이는 법을 알려주셨대. 절대 콩나물 끓일 때는 열지 말라고, 나중에 다 끓고 난 다음에 뚜껑 열고 소금을 치든지 간장을 치든지. “콩나물국에는 소금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해서 먹어.” 그랬더니 그 후부터 (우리 집에)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줘도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하고 먹게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옥상, 옥상’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 ‘오즈오짱 오즈오짱’ 그래거든요. ‘오즈오짱’ 아니면 아가씨, (오즈오짱이) ‘아씨, 아씨’래는 거. 오즈오짱, ‘모짱’ 그러면 도련님 그래는 소리. 그니까 동네 사람들도 미워 안 하고 학교 선생덜까지 다 이뻐해줬다니깐요.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 후에 (가족들을 따라 한국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내일이면 우리 짐을 부쳐준다 그러셨는데, 오늘 저녁에 와서 폭격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집이고 집이다, 그 동네가 다 없어졌어요. 뭐냐면 폭탄이 아니라 소이탄 서른여덟 개가 한 지대서 그 우(위)에서 떨어지면 사방으로 흩어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면 중부의 가운데다 떨어지면 중부가 전소되는 거죠. 그런 뉴스를 들으셨는지 원자탄 소리를 들으셨는지 우리를 빨리 (먼저) 가라고 그래서서 그냥 쫓꼬만 짐을 가지고, 당장 쓸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떠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폭격 다 당해서 다 태웠는데 우리 집만 타기만 사흘 이상 탔다 그래요.

# SR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 수원학연구센터

6·25전쟁 발발과 수원도립병원 은신 생활

**1950년 6월 25일 그 날을 기억하시나요?** 일요일이니까 기억은 나는데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 사람들, 우리 수원서는 잘 몰랐지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나 했는데 그 7월 4일인가에 수원으로 인민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 붓짐을 지고 막, 구루마에다가 끌고 그래고 왔어도 우리는 피란을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일본서 살 때 우리 친구들이 방공호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자의용군에는 왜 지원하셨나요?** 6·25가 나서 내가 죽을 뻔했거든. 그 민청하고 여성동맹, 여성동맹은 내 친구가 오지 말라고 청년, 민청에 회장은 앞에서 고개(내 친구)는 좀 뒤에 섰거든. 그래서 눈빛으로 고개 흔들면서 오지 말

라고. 뒤에는 약혼자가 대한민국의 장교였거든. 그래니까 이복서 온 사람이 약혼자가 장곤지 될지 아냐. 동네 놈이 가서 찢러가지고 할 수 없이, “너 나가, 너 대답 하나로다가 다 살 수도 있고 니가 대답을 잘못하면 다 너까지 식구 다 죽인다.” 그래니까 그 여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위해서 할 수 없이 (여맹위원장을)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좋아서 헨 건 아닌데, 그거 나는 잘 알지 그 사람을. 참 이뻐. 그랬는데 9·28수복 때 보니까 어떤 놈이 또 가서 찢른 거야. 그 여성동맹위원장 했다고. 그 약혼자가 육군 대인가? 유 대위라고 그랬었는데, (약혼자가) 그 사람(대위)이라고 그랬는데도, 인민군한테 협조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깐, 그 경찰서에서 막 고문을 하고 때리고 막 그래. 결국은 매 맞고 들어와서 죽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 생각하면 내 목숨 살려주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자기가 죽은 거지. 그래놓고 있는데 여군 모집이 있으니, 여자의용군 모집이 있어가지고 나도 인민군한테 죽을 뻔하고, 가가지고 정치보위부에서 나를 불러갔다고. 정치보위부라 그래면 우리나라의 저기 중앙정보부 같은 거야. 무서워. 그래서 오라 그래서 뭇도 모르고 갔지. 그랬더니 뭘 쓰라고 그래, 자서전을 쓰라고 뭐라 그래도 나는 한국말도 잘 모르고 그랜다고. 하여튼~ 그냥 끌고 (가려고 해서 거절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면 오늘은 가고 널 아침에 일찍 오라.” 그래서 집이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인민군 치하에서) 도립병원 원장으로 뽑힌 사람, 그 사람도 빨갱이는 아냐. 저 밤에 저기, 우리 저 왕진 와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왕진 갔다가 그 빠져나왔는데 결국은 (인민군이) “당신이 도립병원 원장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니까 할 수 없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좀 친했거든. 얘기가 잘 통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원장님께) 가서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 따님을 아침에 일찌감치 좀 도립병원 원

장실로 보내라.”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 전에 아침에 일찍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를 약국으로다가 집어넣으신 거야. 그래서 약국에서 9·28수복될 때까지 숨어있으면서 일을 했지. 약제하는 것도 배우고.

**지원하실 때, 모집하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소문이 났어. 여자의용군 2기생을 모집한다고. 그렇게 해고 소문도 나고, 뭐 학교에도 오고 기냥 그러니까 다 알게 됐죠.

### ⊕ 육군 여자의용군 2기 지원과 합격

**군에 지원한다니까 그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시골에 땅 사 놓은 것이 있으시니까 쌀 가질러 가서서 못 오셨거든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일을 도와준다고, 인민군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을 닦이고 소고 뭐든 다 끌고 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 인민군은 (인민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잘 살게 해준다 그래더니 그 농민들이 농사짓고 그랜 거를 그냥 거저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니까 (웃으며) 우리 아버지가 나서서. (인민군이) “그럼 동무가 내일 대대본부로 오라고. 아무개로 오라.”고 그래서니까 아버지가 가신 거예요, 고지식하게. 가셨더니 “아! 동무 왔냐.”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가면서 아버지한테 삼 들리고 산에 가서 아버지보고 산을 파라 그랬대요. 거기다가 총 쏘서 아버지를 물어버리랴구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에 쓴 눈만 내놓고 있는 거(복면) 있죠, 입하고. 그 사람이 오더니 아버지를 죽일려 그랬던 사람한테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무 가시오!” 그랬대요.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

돈을 다 받아다 주러 갔는데, 죽었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인민군을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9·28수복된 거예요. 그날 밤인가 그 이튿날. 그래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 의용군 지원한다고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죠. 시골에 가셨고.

**아아, 안 계셨고. 그럼 다른 가족들은. 뭐 동생들이나. 언니나 뭐, 누난데, 뭐 여자의 몸으로 괜찮겠어? 뭐 너 위험할 것 같애, 뭐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 건, 내 자유대로 할 수 있었으니깐 내가. (동생이) “누나 붙을 수 있어?” 그래서 “가봐야 알지.” 그래고 갔는데 시험을 치르고 신체검사도 다 하고 뭐 병이 없으니까, 그런 데 시험지를 순서대로 받아는 게 번호대로 받아는 게 아니라 고친 대로, 인자 어느 내 무반에서 고친 대로 놔뒀는데 106번이 인자 나온 거예요. 그래니깐 “106번!” 그래고 부르니까, (혼자 생각에) ‘나는 아직 떨었어 106번은 저 된데’ 그래서 나는 설마 나를 부르는 줄도 모르고서, 모르겠는데, 그러다 “106번!” 하니깐 (그제서야) ‘아, 내가 106번인데?’ 그래구. 빨리 들어오래, “추워죽겠는데 빨리 들어가.” 구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막 그러는 바람에 들어가서, 문 열고 “106번 불러서 왔습니다.” 했더니 “어머나~~” 해요 일제히. 키가 너무 작아서. 150(cm)이 될까말까였거든요. 그래니까 사람들이, 글씨하고 룬문(논술)하고는 기가 맥히게 어른같이 썼는데 꼬마가 들어오니깐! 진짜 같지가 않고. 이거 진짜 니가 쓴 거내요. “그럼 제가 쓰죠? 시험 답안지를 누가 써주나요?” 내가 그래. 그러더니 다 하더니 나중에 갈매기 두 개짜리 보고 잉크하고 종이하고 갖다 주라고 그러데요. 그러니까 종이하고 펜하고, 그때는 잉크 찍어서 바로 쓸 때니까. 내 이름을 딱 하고, 한문으로 딱, 딱 하고 크게 써서 내봤어요. “어머나 이거 어떡해. 진짜네!”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죠.

**논문 어떤 거 쓰셨는지?** ‘현재 여성의 갈 길’이었던 거 같애요.

**합격 발표는?** (면접 보고 나오면서) 난 가만히 내가 이제 ‘떨어졌구나, 기념 내 면전에서 떨어졌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시겠다.’ 하고 집에 와서 실망하고 밥도 못 먹었어요. 6·25 때 그렇게 배가 고프데도. 잠도 안 오고. 3일 후에 시청에 와서 이렇~게 붙여놓 테니까 그때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 그래서. 50명 뽑는데 거진 300명 가까이 왔어. 내 번호가 106번이니 벌써 배가 넘잖아. 그 아이들이 떨어진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막 울고, 손가락 깨물고서 혈서를 쓰고, 무슨 소용 있어 다 정원이 정해졌는데. “아버지가 인민군한테 뭐 총살당했다. 이복에 끌려갔다, 뭐 어떻게 끌려가, 그래서 원수 갚는다.”고 막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 안 되지 맘대로. 그래가 지구선 할 수 없이.

나는 되니까 너~~~무 좋아서, 남이 울거나 말거나 나는 좋아서, 내 친구들 막 울고 있는데. (친구들이) “너는 됐니?” 그래서 (내가) “저기 봐!” 내 거 (번호에) 빨강게 나한테는 표시해왔거든요. 106번. 내가 실망하고 잘 못 보고 갈까 봐. 그래서 좋아서. 그래서 몇 일 날 오라고, 저기 뭐 시청에서 모여서 부인회에서 환송식 해준다고 부인회에서 와서 추력 두 대에다가, 그 추운 날. 그걸 그냥 그래도 좋아서 무슨 뭐~ 이기고 돌아온 장군처럼 합격해서 좋아가지고.

### ☉ **여자의용군훈련소 생활**

**합격한 뒤에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다 거기 대한부인회에서 그 그름날인가? 그름은 탄 때. 25일경엔가 11월 20일경에 각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을 기다리느라고 있었지. 그래다가 이제 다 모이니까 1일, 12월 1일날 입소 식 해가지고. 아이고, 그때도 고생하고 배가 고파서, 아효, 2,000원 이상 가져오지 말래니까 나는 또 바보같이 그래면 안 되는 줄 알고 2,000원만 가져갔지. 판 애들은 팬티에다가 주머니를 맵길어놓고 거기다가 돈을 감춰가지고 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었는데! 그러니까 개네들은 밥을 냉기고 그러니까 찹에. 밥이 딱 줄어들리는 거야. 아효.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산을 뛰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냐 생각해봐요. 한 시간을 뛰는데. (조교가) 옥상에서 (몰래 사식 사 먹은 애들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었지. 그랬더니 “너 여기서 지금 뭐 사 먹었냐?” 그래서 “아니예요, 저 안 사 먹었어요.” “내가 위에서 봤는데!” 그래 먹은 아이들은 다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혼났어. (웃음) 괜히 나 때문에. 수도는 또 얼어서 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눈으로다가 양치질하고 얼굴에다 대니까 막 얼굴이 막 짜개지는 거같이 아프더라구. 그 체험 안 한 사람은 몰라.

**훈련소는 어디였나요?** 저기 퇴계로 있는, 지금 그게 무슨? 국제산업인가 무슨? 일신국민학교 일본 애들 다니던 학교래요. 남산 밑에 이렇게 길옆에 있는. 거기서 기숙사 했는데, 인민군 대대본부가 중대본부가 있었대나 하는데, 하필 이 우리 3중대 1소대거든 나는? 근데 거기는 유리창이 두 장이 깨져서 읊어요 참. 그래가지구 추운데 그거를 처치도 안 해주고 누이들 알아서 (하라고), 군대에서는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둘이 모여서 (담요) 한 장은 내놓고 그림 두 장씩인데 세 장밖에 안 되니까 판 애도 그렇게 하고 (창문을 막았지). 두 장씩이 준 걸 한 장씩 내놓으니까 석장이니까 하나는 배개 맵길고 하나는 깔고. 한 장만 (덮고) 자는 거야. 그렇게 하고 추워, 그러니까 옷도 안 벗고 잤지. (웃음) 아침에는 기냥~~ 인생의 목

숨은 초로와 같고 하고 노래 부르면서 가고 기냥~ 무슨 군가를 많이 부르면서 잤는데. 남산에 올라가니(까). 근데 누구는 총 가지구 (훈련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총을 만져보지도 못한 거 같은데 훈련소에서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저기 (훈련을) 해본 총을 가져갔다 그래는데. 나는 우리는 너무 키가 작아서 안 쫓는지 우리 소대는 안 쫓던데.<sup>4</sup>

**훈련소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는?** 보초. 보~초! 불침번! 그게 증~말 난리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요. 그거 때문에 낮에 머리카락 꼬집어대고 싸우는데요 얼~마나 웃기는지. 첫 시간에 아홉시부터 열 시까지고, 열 시부터 열한 시. 시계를 다 건네줘요. 그럼 그 시계대로 해서 “그 다음, 다음 해서 너까지 오늘 불침번이다. 내일은 여기서부터 니가 불침번이다.” 그러는데 이 피쟁이가 풀리니까 (웃음) 20분을 돌려놨단 말이에요. (웃음) 그러고서 짜~하고 자고 있으면, 너무 못 견디니까 (다음 순서인) 애도 또 10분을 시계 돌려, 벌써 30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일 아침에, 내일 밤에 서야 할 사람을 가서 깨우니. “애 나는 내일 불침번이야 왜 날 깨우니!!” 그러니까 “야 시계 봐 시계!” 시계 다 돌려놨는데. 그래서 막 일어나서 왜 나를 자는 나를 깨우냐고 머리카락 잡아 맵기고 둘이서 싸우니까 주변사관이 돌면서 웃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자들이 그~ 피를 부리고. 아이고 시계. (또 한 번은 누가) 자기 혼자만 더 많이 (먹으려고)! 우리 반에서 두 그릇 밥을 훔쳐서 양재기 두 사람(어치를 가져다가) 실컷 2인분을 먹고 나하고 우리 선임하사 언니하고는 나는 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숟가락씩 주면 그거 물어 먹겠다. 맨날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가서 밥 물어 온다고 나가니까 보초병들, 1기생들, 1기생들이 이렇게 나가서 바케스(양동

이) 들고 “니들 밥 없지? 밥 모지라지?” 그래서 “밥이 없어서 난리예요.” (했더니) 이 밥하고 김치하고 가져가래요. 그래서 바케스에 (밥) 반 남은 거하고 김치 반 남은 거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가만히 있으면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한 숟가락씩이라도. (그런데도) 숟가락하고 밥그릇하고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도망가고. 막~ (웃음) 뽕뽕 돌다가 보니까 밥은 다 없어지고 김치- 배고파, 이상금(김상금)이라는 애는 배고파 화가 나서 나무반에다가 (김치를) 다 쏟아 버렸어. 그거 치우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김치가 그렇게 쉽게 지워지나요. 그래서 또 그걸 주워다가 먹는 아이가 다 있었으니. 그렇게까지 훈련을 또 했어요.

### ⊕ 전방의 9사단 백마부대 배치

**군대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요.** 한 개 부대에, 9사단이면 9사단, 1사단이면 1사단, 3군단이면 3군단. 군단에 열 명씩 갔어요. 사병 아홉 명하고 인솔 소대장, 소위하고 열 명씩이 다 부대 갔어요.

**일선 부대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일선에서 남자덜이 천막에서 있으면 그 테이블 책상 위에 사과케작 위에 자고 나는 가마니 한짝 깔고 그때는 가마니가 컸거든요. 거기다가 침낭, 자루로 된 침낭 속에다가 수류탄 두 개 차고 농구화도 신은 채 기냥 그 안에 기어들어가서 쪼그리고 기냥 자는 거예요. 다리도 피지 못해서. 얼마나 추우면 그릉졌어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자고 그랬는데 하루는 글썄 비상이 왔는데 누가 장난치느라고 내 자끄(지퍼)를 여기 열

굴을 내놓고 자야 이제 숨을 쉬죠. 근데 장난삼아 이 자끄를 바깥에서 잠귀 버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비상이 붙었는데. 그래서 짙-짙 매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선 손가락 옆에 넣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가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나 수류탄 차고서 들어있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자끄를 잠귀놓고 나면 나 거기서 폭사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 안전핀 있거든요. 그거만 빼면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장난하느라 그랬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야. 장난도 하는 게 따로 있지. 그 위험한데 수류탄 차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노면 어떡하느냐고. 나 그거 죽을 각오로다가 빠져나올려고 애썼어. 만약 그냥 터졌으면 당신 우리 중대고 뭐고 다 혼나는 건데, 내가 그래도 잘 생각해서 가만가만 마음 급하지 않게 해서 살아서 나가서. 그래가지고 야단하고 일선에선 별~일이 다 있어요.

하루는, 물! 물 때문에 제일 고생도 하고. 먹는 밥은 뭐, 아주 밥 먹을 생각은 못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물어 먹을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어디가 술을 걸어 놓고 밥할 데가 없잖아요. 술을 걸어 놓고 밥을 해야 하는데, 이동만 하다 보든 전진해다 보면 또 금방 적이 막 밀고 들어오든 또 후퇴하고 수십 번도 했으니까. 그때 내가 죽은, 전진하면서 어디쯤 가는데 어떤 군인이 탁~ 나무 밑에가 이렇게 하고 드러눕는데 죽었어요. 피를 다~ 흘리고. 철모는 뒤에가 넘어지고 총은 저기가 돌아서서 그렇게 있는데 피는 기냥 몸에서 다 나온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총 맞은 데에서 다 나오잖아. 그래서 오 보아라 저 대지 위에 쓰러진 전우를, 피를 흘리며 영혼은 가고 오직 시신만 남았노라 하고 시를 쓴 것도 있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쓴 거 있는데 내달라 그러는 거 난 안 썼다고 그래고서 안 내줬는데.

## ⊕ 기밀서류를 사수하라

일선에서 부상도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하루는 비상 나팔 밤중에, 새벽인지 언젠지 몰라요. 시계도 없고 깜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원도 정선인가 어디 산골에서 그냥 비상 나팔 부니까 다들 후닥닥 후닥닥 하여튼 군대에선 그거 습관돼서 일어나면 담요를 뚜루룩 말아서. 나 시집을 세 권을 가져갔거든요. 딴 거는 안 가져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도 없어! 다 후퇴하느라고 다 잊어버리고 가고. 그래고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나가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나를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는데. 너가, 이거 총을 줄 테니까 문관 둘하고, 석유통에가. 그때는 (석유통을) 스피아깡이라고 그랬다고. 두 개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한 개씩 기름 잔뜩 든 게 이 기밀서류를 만약 중공군이고 인민군이고 넘어오는 걸 보면, (전부 태우라고.) 나보고 조심하라는 게 잠바를 뒤집어쓰면 하예요, 그 사람들(중공군)은. 우리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그니까 털로 맹길은 거니까 북실북실하잖아요. 그거를 입고 막~ 이렇게 기어오고 모자까지 그래니까 이렇~게 보면서(포복하듯이 움직이며) 이케이케이(이렇게) 숙이고 오면 몰라요. 그래니까 더 신경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여기서 전사한다. 사수하라 그랬거든. 죽어서도 막 지키라고. 군대에서는 사수라면 죽어서도 지키라는,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거니깐.

그래서 일선에서 나는 눈 30cm씩이나 쌓여있는데 그 허허벌판을 거기를 나는 죽을 각오로다가. 남자는 문관인데 계급도 없고 군번도 없는 사람인데 휘발유통에다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두 통을 하나씩 나눠서 갖고 나는 기냥 적이 오나 저~ 사망을 다 24시 나는 24시 방향으로 다 돌아보거든.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있다가 7시간인가 8시간 만엔가 트럭이 하

나가 막 흔들려서 사람 타고 있는데 금방 넘어갈 거 같드라고. '아이 저 차가 가다가 넘어지겠는데', 아이 내 앞에 사오메다(4~5m) 앞에서 딱 스드니, (여군 소대는 일선 부대에) 여자 인솔장교 소대장이 사병 9명하고 소대장하고 10명씩이 다 배치됐거든. 어우 나보고 빨리 차 타래. 아이 도대체 소대장이래는 사람이 어떻게 된 사고방식인지,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나보고, "아이 버리고 가란 말이에요? 나보고?"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나는 죽어도 오늘 전사하기로 생각하고, 만약 안 왔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인민군(한테). 왜 그러냐면 탄창에, 총에다 이렇게 탄알 담은 게 하나 딱 끼는 게 있거든? 그게 스물다섯 발인가 얼마백에 안 들었어. 그런데 한 삼십 발 정도 주머니에다 여기 넣고, 탄알 떨어지면 가서 끼워야 돼. 언제 그거 삼십 발을 하나 하나 끼워넣을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맞아 죽지.

그니까 나는 그런 거 겁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래고 애국심이 굉장했나봐 그 나이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서 우실까 하고 그 생각만 하고 눈물이 나오고,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아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그 노래만 하고. 입이 다 얼어가지고, 여덟 시간이나 속냉이(속내의)하고 군복 한 장하고 농구화니까 구두도 아니고, 얼마나 또 발은 또 시리고 그니까 발은 기냥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조금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입은 내가 손으로 자꾸 비볐지. 말도 나중에 못할까 봐. 근데 뺨 같은 데 만져보면 얼음덩어리 같았어. 그렇게 고생했는데 신문에는 그게 다 그렇게 안 나왔어.

그래 뭐 할 수 없이, 그때 소대장하고 막 싸우는데 상사가 내려오드니, "꼬마 병장, 기냥 타고 가라"고. 지금 이거, 이 차가 막차니까 이거 놓치면 오도 가도 못하니까. 상사가 있으니까는 일제시대부턴 군대 생활을 했는지 국방경비대 시대부터 했는지 하여튼, 하여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고 나보

고 타라 그래니까 사람들이 차에서 나를 막 잡아땡겨 주는데, 사람들 그 몸이 뜨듯하니까 그냥 얼었던 게 녹으면서 기냥 졸았나봐. 그래서 엄마 찾는지 뭔지도 몰라. 기절을 했는지. 빵! 하는 소리와 동시에 내가 붕 뜨던 거까지만 생각나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잖아. 친구들이. “너 죽었었어.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래?”(했더니 친구들이) 심장까지 멎고 몸은 얼고 그랬다고.

**사고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차를 안 탈라 그랬는데 안 탔으면 다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무사히 살아온 거 보면. 그랬는데 그 길을 막아났기 때문에 결국은 못 오고, 기냥 탄 차가 가서 실어왔는지 그거는 나 물어볼 정신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 나를 인자, 삼척에다가 나 혼자 놔두고 이제 부대가 막 전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패잔 빨치산들이 남구, 밤에 막 호루라기 소리 막 불고 총소리 따발총 소리 막~ 나니까 관사 주인 아주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 군인 아가씨 당신 때문에 우리 식구 다 죽게 됐다.”고. “당신 잡히든, 코 찌르고 귀 다 찌르고 뭐 손가락도 다 찢리고 그래고 죽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당하기 쉬운데 어떻게 하나.” 그래고 있는데 그 소릴 듣고서 기절해버렸지. 제대로 낮지도 못했으니까. 그래구 아침에야 눈 떠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코랑 귀랑 손가락이랑) 그대루 다 있어. (웃음)

그랬는데 친구들 그, 경리대는 나중에 가요. 그 돈 같은 거 다 실어서, 경리대는 제일 나중에 가는데, 부대는 다 갔지만. 그래서 (경리대 친구가) “야! 너 여기 있다가 엠부렌스 오면 타고 병원에 가라. 그래고선 낮거든 다시 부대로 돌아와.” 그래. 그래서 내가 “아유 어저께 너 총소리 못 들었니.” (친구가) “그래 들었어. 나도 무서웠다.”고 그래. “나보고 주인 아주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아니. 느이들 가고 나서 오늘 저녁에 나타나든 진짜 나를 갖다 인민군한테 냉겨줄(넘겨줄) 거 같애.” 그러니까 나를 좀 귀찮아도 좀 데려가 달라고. “아이 내 맘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본다고. 경리과장이 소령이거든. “거서 가서 물어봐. 될 수 있으면 나 데려다 줘. 뭐 딱 거 필요없어. 가마니 하나만 깔아 놓으면 내가 옆드려서.” 똑바로는 못 드러누우니까, 척추가 아프니까. 갔더니까 (경리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가서 한참 설교 했나 봐. 어저께 밤에 어떻게 해고 뭐, 오늘도 또 나타나든 또 그 아주머니가 넘길 기세더라고 그러니까 좀 “우리 동기생 좀 살려주는 셈 치고 데리고 갑시다. 뭐 짐 실은 것도 없으니까.” (설득한 거지.)

그래갖고 그래서 나를 데려가서 가는데 길이 험해서 옆드리고 가니까 갔지. 이렇게 해고 가면 (바로 앉아서) 못 가요. 막 여기가. 옆드려서 여기에 내 배낭에다 이렇게 해고 가는데 그 가는 길도 얼마나 고초를 받고 그래고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살아서 인자, 부대에서 며칠 있는데 (인사)과장님이 “아이 잘 왔다. 여기서 안정하고 있다가 근무하든 되겠다. 병원 엠부렌스가 오면은 너 보내줄 테니까 엠부렌스 오거든 타고 가라.” 그래더라고. 엠부렌스가 그렇게 오나요. 근데 얼마 있다가 엠부렌스가 왔는데, 엠부렌스 타고 가라고 그래더라고요 나보고.

**구급차에 타셨나요?** 아유 그놈의 엠부렌스를 보니까 문 열어논 데 벌써 피비린내가! 돼지 잡아다가 막 이렇게 쌓아놓는 것처럼, 기냥! 그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앓을 새가 있어야지. 그래서 차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해고 앉아있는데 꼬리뼈를 다쳐가지고 앉지도 못하는데 옆드리고 드러눕고 싶은데 그 날 꼬린내 맡고서 (웃음) 드러눕 수도 없고. “야, 윤화야.” 김윤화야 개는 인천서 왔어. “윤화야, 너 이렇게 해고 갈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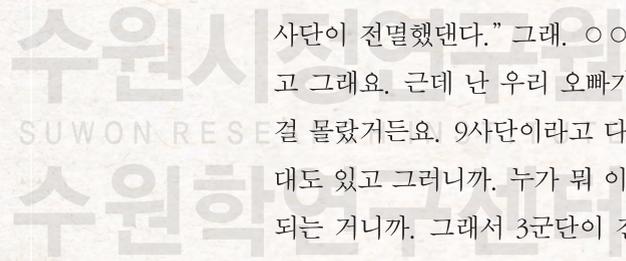
니?” 그래서 (윤화가) “아 나는 갈 수 없을 거 같애.” 그래서 “나도 못 가. 이렇게 가다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려서 우리 소총부대 배속, 배치해달라고 그래자. 그래서 빨갱이놈 한 놈이라도 더 쏘죽이고 우리도 전사하는 게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냐.” 하고. 나는 원체 전사할 각오로 있던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개도 “그래자.” 그래. 내가 내리고 저 혼차 그 남자들 틈에서 (어떻게 있겠어). 아유 그 밭꼬린내에다가 피비린내에다가 겨우내 목욕도 못 했을 거 아니야 6·25 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나. 우리도 막 나는 대구에서 하구 갔으니까 과장님, 저기 병참참모 집에서 며칠 있으면서 샤워다 깨끗하게 하고 그래구 갔으니까 괜찮은데. 아유 그래구서 내려달라 그러니까. 저기 인솔 상사가 이렇게 보더니 “부상병 한 명하고 환자 1명하고 이렇게 이름에 있는데.” (하길래 내가) “아이 나 아무데도 아픈 데 없어요! 내려주세요!” (웃음) 그랬더니 진짠 줄 알고 내려준 거야. 간~신히 걸어서 부대까지 갔더니 우리 소대장은 막 야단치지. 너 죽을라고 왔냐고! (그래서 내가) “아이 나 죽을라고 군대 들어왔어요!” (웃음) 그러가지고 (인사)과장님이 “잘 왔다. 내가 방 하나 따뜻한 데 찾아올게.” 그 과장님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 과장님이 참 동생처럼 대해주는데.

### ⊕ 특별휴가 중 들려온 3군단의 전멸 소식

**부상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때 저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책임을 완수하느라고 사월 초하룻날까지, 그 각개점호라고 있어요. 전 현재 9사단 29연대면 29연대, 28연대면 28연대 인원, 현재 살아있는 군인이 몇 명인가 그것을 기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호) 날짜는 돌아와서 과장님이 걱정

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드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헬게요.” 그래서, 일어나서, 간신히 가서, 앉지를 못해서요. (자리에서 일어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허공에 상체를 숙이며) 이렇게 헤가지고 책상에 엎드려서, 잉크를 찍어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하고 써서 명단을 완전히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월 초하루를 무사히 보낸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사단장님께서 감격하셔서 “아유 그 여군 병사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군대에선 특별휴가가 최고거든요. 특별휴가 한 달 보내라고. 그래서 그때 4월 얼마 후에 그래 갔어요. 4월 초하루에 그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사월 지나서, 고 5월 쯤쯤 전예요.

그래고 후방에 가서 있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갔다 오시더니, “야 9사단이 전멸했단다.” 그래. ○○오빠도 니 오래비도 거기서 포로로 잡혔다고 그래요. 근데 난 우리 오빠가, 사춘오빠, 이종사춘오빠가 9사단에 있는 걸 몰랐거든요. 9사단이라고 다 29연대 있는 것도 아니고, 28연대도 30연대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맨날 들여다보나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군단이 전멸했다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래서 3군단이 어디 어디냐 하면 3사단, 7사단, 9사단이 3군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3군단이 전멸했다 그래는데.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내가 막 가슴이 떨려서 ‘빨리 가야겠다!’ 하는 생각나니까. 우리 엄마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다 헌병한테 잡히면 총살이야 도망병으로 취급당해서,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나 보내줘요. 일선에 간다고 다 죽는 게 아니니까. 나 죽다 살았잖아.” 어머니가 마약 울면서 내 다리를 붙잡고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너 가면 죽는데 (가지 마라).” “아니야 안 죽고 살아왔는데, 왜 여기, 안 가고 여기서 헌병한테 잡히면 나 총살감이야. 탈영병으로 총살당해.”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모르시니까. “아이구,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낮지 않냐.”고. “아니야, 나 가야 돼.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가야 한다.”  
고. 막 고집을 부리고 어머니 우시는데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총 메고 배낭  
메고.

**부대 복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구선 행진해 나와서 추력이 가요. 군대 추력  
이. 그땐 군대 추력이 일째(첫째)니까. 손드니까, 여군이 총 메고 있어 서니  
까. 태워준다, “어디 가느냐?”고 그러니깐, 저기 원주로 간다 그래요. 그럼  
원주로 가면 거기서 갈아타면 또 되니깐 그거 뭐 군인들 돈 안 내고도 타니  
깐, 그렇게 해서 원주까지 가서 내렸어. “고맙다.” 그래고 인제 또 추력이 오  
니까 세웠어. “이거 어디까지 가요?” 그러니깐, 영월에 간다 그래요. “그럼  
영월까지만 태워주세요.” 거기 가면 어떻게든지 부대 찾을 수 있을 것 같애  
서. 그래서 영월에 내리니까 헌병대에서 도로 잡아가더라고. 큰 강당인데  
거기 영월군청? 뭔간 거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한 백여 명이 포로병처럼 잡  
혀서 있어요, 끌어안고덜!!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 탈영병이라  
그래기도 하고, 부대를 몰라서 그렇게 와서 뒤에 도망온 사람들 다 잡아넣고  
부대 찾아줘야 된다고 그래기도 하고. 어떤 헌병은 “저놈들 탈영했다.”고 그  
러는데, 저도 이제 가서 쥘 뒤에 가서 할 수 없이 꿰어앉았죠, 뭐 어떡해요,  
총 가지고. 그러더니 휴가증을 보여줬죠. “야 이 전시에 무슨 놈의 휴가냐.”  
그래. 헌병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건 사단장님의 특별 휴가예요.” 그래  
도 끝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들어도 할 수 없다.’ 그래고 있는데 저녁때 엠  
뷰런스가 왔는데 우리 9사단 엠뷰런스예요. 그 상사가 이렇게 와서, “어! 무  
명초가 웬일이냐?” 해요. 제가 9사단에서 무명초라고 다 통하잖아. 이름은  
몰라도 무명초는 알아요. 아는데 “그니까 아니 휴가 왔다가 우리 부대가 전  
멸했다 그래서 오는데, (나를) 도망병이라고 여기 잡아놓고 있는데 내가 휴

가받아서 갔다 왔다 그래도 헌병이 끝이 안 들고 날 여기다 끌어 앉혀왔다.”  
고 그랬던 그 상사니까, 얘기했어요. 아이 우리 부대 있는 여군인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니깐 내가 데려가자구 그랬더니, 중사가 뭐 상사한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계서를 써서가지고 인수증을 써가지고 데리고 가  
는데, 불도 못 켜죠. 헤드라이트 켜다가 어디서 공격당할지, 포위당할 위험  
이 있는데 어디가 적이 있는지 일선 근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나도 그  
‘정지! 누구냐!’ 소리에 간 두 번이나 떨어질 뻔했는데.

그런 데서 엠뷰런스 타니까, 봉대로다가 (상사가) “무명초는 칼빈 가지고 있  
으니까 되구, 나는 권총 가지고 있으니까 되구.” 문을 딱 닫았어요, 봉대로.  
그런데 그게 잘못 생각한 거야. 그놈들이 총 쏘면 도망갈 수도 없잖아! 문이  
잠겨서! 우리가 도망가서 대응할래도, 추력, 저기 엠뷰런스 뒤에 가서 그, 저  
걸 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그때 나더라고요. ‘그래도 하자는 대  
로 하니까. 상사가 오죽 잘 알아서 하나.’ 해서 갔는데. “우린 죽어도 셋이 여  
기서 다 같이 죽자!” 그래서 “네 같이 죽어요.” “누구 비겁하게 그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는 뭐 군대 갈 때 죽을 각오로 간 사람이고, 죽기 위해서 기밀서류를 지키  
고 있던 사람이니까 죽는 건 안 무서웠어. 무서웠으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 숨어있죠. 군복이고 뭐고 감추고 안 왔다 그래면 그만이지만, 나는 죽기  
위해서 간 거니깐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  
다면 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그거를 맨날 외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달빛에, 그 나무, 산에, 나무 사이 속으로, 헤르메트(헬  
멧)가 보여요. 헌병들은 철모가 아니라 헤르메트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  
홉 구(九)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선임하사님!” 이랬더니, “왜.” 그래.  
“저기 달빛에 비치는데 아홉 구(九)자가 보이지 않아요?” “어머 진짜 9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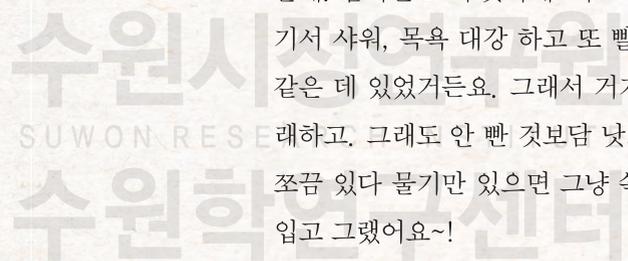
헌병이네.” 9사단 헌병이니까, 내려가서 물어봤나 봐요. 가면 별안간에 인기척 내면 놀랄까 봐서 ‘어험’ 그러고 가가지고 “9사단 헌병!” 그리고 그러니까, “네!” “여기 9사단 사단 사령부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나 9사단 엠블란스인데 그 9사단을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가시면 헌병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알았다. 조심하라.” 그러면서, 다시 차를 타고 행길을 따라서. 그냥~! 기어가다시피 했지. 빨리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빨리 간대면 헤드라이트를 켜야지 어디로 갈 줄 알고, 길이 이런데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참을 가다보니깐 또 내 눈이 밝아, 아홉 구(九)자가 또 보여요. “아우 선임하사님! 또 아홉 구(九)자가, 헌병이 또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내려가서 진짜 가서 물어보니깐, 사단본부까지 한 2km만 가면 있을 거라고. ‘야 인제 우린 살았다!’ 그러면서 헌병이. 그래서 부대 풀고 9사단 부대 있는 데 가니까 무슨 학교더라구요. 학교에 가서 내려서, “아유~!! 우리 안 죽고 살았다!!” 그러면서. “무명초 잘했어.~” 그러면서 인사하니까, “상사님도 잘 계세요.” 그리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사병도 보내고 그리고.

부대를 찾아가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군인들 얼굴이 얼굴이 아니에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이 썩까맣. 그냥 입술은 뭐 부르터가지고요~! 아마 그런 광경 누가 보면, 지금 보면 아마, 귀신이라고 그릴 거예요. 그래도 뭐~ 아이구! 너 왔다고 막 반가워서 우리는 막 끌어안고 기냥~ 울고, “야 니가 없어서 우리는 살았다. 니가 있으면 너를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가지니 너를 업고 갈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너 때문에 우리도 죽고 너도 죽을 뻔했는데, 니가 특별휴가를 가는 바람에 우리는 편히 도망을 갔지만. 너 왜 여기 또 왔어.” (웃음) “아니 전멸했다는 소리 듣고 왜 왔냐니. 부대 찾

아서 너희들 찾아왔지!” 그랬더니, “그래~” 그래더니 소대장님도 “잘 왔다.” 그래. 인사과장님이 “아이 참 역시 군인은 군인이구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날이 밝으니까. 옷덜이 막 흠투성이예요. 기냥 산에서 뒹굴르고 막 기냥~ 막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그거, 일선에 안 가봤어요. 전쟁통에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가봐서 아는데 그렇게. “야, 차순아 계순아 너희들 옷 벗어라. 내가 빨아줄게.” (친구들이) “애는 휴가 갔다 아파서 그래!” (내가) “나 다 나왔어. 집에 가서 약 잘 먹고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미안해. 너희들 고생해서 미안해.” 그래니깐, (친구들이) 별 소리 한다고. “아니야 그래도 너도 씻고 좀 그래”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망 봐줄게. 남자들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다 그래서. 남자들 오지 말라 그래고 거기서 샤워, 목욕 대강 하고 또 빨래도 내가 거기서 했어요. 계곡, 저기 연못 같은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개네들 목욕하고 그 물에 난 빨래하고. 그래도 안 뻘 것보담 낫거든. (웃음) 그러니까 그냥 짜서 넣어놓고. 쪼끔 있다 물기만 있으면 그냥 쓱 입는 거야. 난닝구도 그냥 벗어서 빨아서 입고 그랬어요~!

**혹시 그 사촌오빠 소식은 들으셨나요?** 포로를 잡혀간 거를 그 오빠의 뭐 친척 되는 사람이 이북에 간 거예요. 가난하게 사니까 쌀 한 가마니 주니까 그거 받고 간 거예요, 이북에. 금순이라고 그래는데. 그랬더니 언니 그, 금순이가 탈영시켜줘서 도망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금순이는 그거 발각되면 총살감이지. 그러가지구서는 내가 그렇게 해구선 막~ 고통 막, 중말, 이를 악물고 나는 목숨을 바치러 왔지 놀러 온 사람 아니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막 쓰고 있었는데.



## ⊕ 여군의 후방 철수와 휴전

**그리고는 한 8월엔가 부산으로 오신 거죠?** 부산을 직접 안 가고, 보충대에 있다가 부산으로 간 거 같애.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네. 보충대가 있거든.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보충대를 거쳤는지, 하여튼 한 번은 보충대를 갔든 거 같은데. 그거 언젠지. 부산서 다 만났지.

**그 51년 8월 달에 다른 분들 동기생들 엄청 많이 제대를 하셨더라고요.** 8월 달에? 후방에 와서 그랬구나. 나는 안 읽었어 그거(여군참전사 책)를. 내거 우리 사단 거 하고 그거만.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서. 그래 내 거가 제일 많으니깐, 그거 읽어보고 뭐라고 썼나 했더니만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때 그래서 주변에 동기생들 많이 그만두고 이럴 때에 혹시 어떤 마음이 좀 드셨는지.** 우리가 각 과에, 각각 따라서 나가고 저기하고 난 또 병원 생활을 23육군병원에서 7개월인가 8개월인가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우리 소대에 있는 아이들만 잘 알고 저기만 알지, 다들 얼굴덜도 몰라. 한 달 있다가 그대로 훈련 끝나고 일선에 갔으니깐. 잘 모르지.

**그러면은, 할머니 그때 나중에 휴전이 되잖아요. 휴전되고 나서도 그냥 안 그만두고 군에 계속 있던 이유가 있으세요?** 어유, 나는 제대를 안 시켜줘요. 내가 휴전을 어디서 만났나 하면 1육군병원에서. 수술하고 드러눕을 때 휴전이 됐는데 그때 백마고지여서, 9사단이 거기서 많이.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9사단이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다 노트에다, 장부에다 써놓은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다 저기 수술하고 와가지고. 위생병! 위생병! 그러니까 아이 나 좀

밥 좀 실컷 먹고 죽게, 이왕 죽을 거 배꿍고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하느냐고 밥이나 실컷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왕 갈 거니까 주라 그랬대. 그래서 그 밥을 먹고 얼마 있다 죽었대잖아. 얼마나 군인들이 불쌍했는지 알아요, 6·25 때? 아유, 아유 나도 몇 번씩 죽을 뻔했지만. 판 애들은 편히 있다가 온 아이들 많아. 사단장실, 부사단장실이고 그런 데 있던 아이들은 비서처럼, 비서겸. 그렇게 있던 아이들은 행정도. 그리고 글씨를 제대로, 한문을 쓸 줄 알아야만 (돼). 그때는 주소고 이름이고 전부 한문으로 하니깐. 그래서 어떻게 될, 보면 다 기냥 저기 있더라고, 사단장실, 부사단장실, 참모장실, 뭐 그 참모들한테 있는 데가 있어.

**할머니는 계속 인사계 하셨던 거예요?** 나는 꼭 저기, 하다 보니까 인사계만 다 했어. (웃음) 그 인사계가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 가리방(등사기)도 굽어야 하고. 그때는 복사기가 없잖아. 이렇게 기계로다가 하는 게 읍구, 컴퓨터도 읍구 그래니깐 손으로다가 기름종이에다가 빼쪽한 걸로다가 쇠를 밑에 깔아 놓고 찢어지지 말라고. 거기다가 내가 이 등사해야 하는 데다가 다~ 그거 쓰고 나면 팔 아파. 기운 안 쓰고 쓰면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하고 기계 한 바퀴(바퀴), 이렇게 하고 복사기에다 넣어 노면 거기는 글씨가 안 나와요. (웃음)

## ⊕ 여군으로 산다는 것

**여군이라고 무시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나 군대생활 하면서부터 남자덜한테 참. (남군 중에서) 나보담 계급 아래한테는 막 무시하고 여군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잡니다!” 그래고 위병소를 지나가거든요? 그럼 “야! 저 사람이 지금 지

나간 사람은 장교야 뭐야?” “아니 갈매기 세 개 중사예요.” 그래 불르라고 그래서 “중사님, 중사님!” 하고 위병(소에) 앉아서 그래. “왜?” 그래, “이리 와.” 해서 내가 “중사! 빨리 오라”고. 그리고 내 앞에 세워놓고, 당신이 여군 중대를 뭘로 아느냐고. 여군은 허수아비 서 있는 줄 아느냐고. 정식으로 신고하고 가라고. (근데 이 남군 중사가) “아이~ 그러지 맙시다. 기냥 갑시다.” (하니까 내가 화나서) “아이 그래지 맙시다, 기냥 갑시다? 당신 군인이요 뭐요? 누구 만나러 왔는데 신고도 안 하고 가냐”고, 그래. “중대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내가) “그대로 신고하고 들어가!” 그랬더니 “신고합니다! 아무개 중사는 중대장님께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해야지 그제서야 내가) “들어가!” 그 소문이 남자들 속에 가서 ‘그 참 여자 보통 아닌, 꼬만데, 보통 아니다.’ (소문이 났대.) 그래서 나는 우리 동기생이 중사로 있을 때 나는 상사로 진급했잖아. 그래서 저기 참모총장 백선엽 양반, 그 양반한테서 표창장도 여군 창설일에 내가 받은, 내가 처음 받았대요. 공로 표창장이요. 딴 사람들은 못 받았고 딴 과장들이 주는 표창장 감사장덜은 받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제대할 때도, 그, 화랑무공훈장을 준다 그래셨어요. 일선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오고 후방에서도 우리 중대가 불바다 되는 걸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손가락 세 개 시키면 피가 나도록 그 도라무깡을 들고 불을 끈 적이 있어요. 하여튼 나는 그래서 용감하다고 중대장님,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제대할 때 훈장 받으셨어요?** (친한 언니가) “너는 진짜 군인다운 생활했다. 너 같은 아이가 상을 받아야지.” 후방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상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바사바 해가지고 여군 장교라고 해가지고 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준대는 것도, “중대장님 여자가 훈장 받아서 뭘 해요. 취소시키

세요.” 바보같이. 난 바보짓 했어. “니가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잖아요, 언니가.

**6·25 때, 아까 할머니가 말했듯이 되게 험한 상황이었고. 들으면서도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 되게 여군들도 생리하는 여군들 많았을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군들은 저기는, 나라에서, 미국에서 해는 지혈대. 그거를 썼어요.

**그거를 보내줬어요? 여군을 위해서?**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지혈대가 이렇게 두껍구요. 두껍고. 여기 끄트머리에 끈 달렸어요. 그니까 이런 데 지혈하면서 묶는 건데. 처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고, 후방에 와서야 그게 있었죠. 처음에는 뭐. 저기여, 51년도에 뭐가 나오갔어요. 차차 차차 인자 유엔군도 참석하고, 미국서도 원조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면 그 지혈대 했을 때. 그래도 불편한 게 있었는지?** 저는 그거를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왜 안 써보셨어요?** 그 (맹장) 수술하기 전에는 그게 제대로 안 됐었어요. 참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면서요. 맹장 수술도 남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고 자리만 자르면 맹장 뭐 한 손가락이면 빼내는데. 요만큼 이상이었어요. 그 맹장 수술도 그랬고, 자궁도요. 애기 낳자마자 죽다 살았거든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더 낳으면 애기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으니깐 자궁절제 수술을 하라고 그래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죽고 아이도 죽는대면,

냥을 수가 없잖아요. (수술이) 두 시간이면 끝날 게 다섯 시간이 걸렸대나? 그 엉망으로, 장하고 막 엉겨가지고. 그래서 생리도 제대로 못했죠.

## ◎ 결혼과 전역

**남편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루는, 누가 나보고 그래요 웃으면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인사계님, 왜 어떤 사람이 인사계님한테 이분지일 했어요.” 그래서, “이분지일이 뭐야? 이분지일이 뭐예요.”

**이분의 일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일이 뭐지. 이분지 일. 반했어. 아우 세상에.** 그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당황하게 하고. 그니까 인사계님한테 반했대는 소리를 하기도 자기도 민망하니까 이분지일 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지일이 뭐야. 내가 그래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야!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호통을 쳤더니 아이고 웃음이 나서. 근데 자꾸 만나자고 그랜대요. 난 절대 안 만나거든요. 그 물어봐가지고 가르켜준 거를 몰랐어요. 춤에는 (부대에서 일 하던 남자 하나가) 나한테 와서 “인사계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 “나 수원서 왔어요.” 그랬지 그 사람이 뒤에서 저기 하는(얘기를 전하는) 거는 모르고. “수원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 “아 수원 우리 집이 어디어디서 지금, 그 전엔 거기서 살았는데 지금은 팔달로 어디서 산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더라고. 그래고선 끝났는데 얼마 있다가 (박 하사가) 나를 만나자 구래. 그래서 “박 하사가 나를 왜 만나자 그래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뭘 보내셨대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박 하사를 어떻게 알고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뭘 보내?” 내가 그랬더니 “글쎄 나도 몰라요.” 박 하사가 이따가 차 가지고 올

테니까. 물차지 뭐. 그 차, 수성교 밑에, 수성에 물이 여기 있거든. 수성 전에. 거기.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뭘 그 사람을 안다고 뭘 해?” 그랬더니 “아 글쎄 만나자 그러니 한번 만나서 뭘 가져왔는지 받아보세요.” 갔더니 내가 시를 좋아하구, 일본서 낳아서 일본 책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그래고 (어머니랑) 얘기를 막 했나봐. 나 부대에서도 시인이라고 소문나고, 우리 후배들은 내 방이 따로 있으니 이렇게다 책꽂이에다 대학 노트에다 써서 무슨 책 이렇게 세워놓는데, 내가 바빠서 방에 안 들어오면 점심때나 먹고 쉬러나 오지 그러니까 3교대 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몰래 노트를 갖다가 시를 베끼고 가고, 베끼고 가고 그랬대요. 나 그걸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왜 만나자 그럴까?” 하구 “한번 그래도 가보세요! 뭘 가져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그래. “아유, 장 하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니 “아이 나한테 부탁을 하니깐~ 내가 얘기해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몇 시에 나와서 이렇게 뽀뽀하고 신호를 하면, 바로 위병소에서 나가면 바로 거기거든, 나는 위병소에서 독방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냥 그래도 약속이니까, 또 또 약속하면 약속은 지키는 성질이예요. 이상한 개떡승질이래. 갔더니 “아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뭘 줬어요? 주세요 여기서.” “아이- 저기 수성교 밑으로 갑시다.” “왜요?” “이 차를 세척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가서 얘기나 하자”고. 수성교 다리 밑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진을 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보냈다고. “아니? 우리 엄마가 왜 박 하사님한테 이걸 보내줘요?” 내가 그랬더니. 또 “아는 수가 있지요.~” 아이 꽤썸한 생각도 들어가고, 챙피하기도 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그 전에 집에 외방 왔다가 하루만 자고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군인들

공짜니까. 그랬더니 “아이 어떤 미친놈이 나한테 반헛 놈이 있대.(웃음)” 웃으면서 (가족들한테) 그래고 왔는데, 어떤 군인이 키 크고 잘 생긴 놈이 왔더라. 그래서 엄마가 속으로 “아아- 애가 말하는 그 남잔가 보다.” 하고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구서 왔다.” 그러더라. 그니까 들어가시라 그랬지. 근데, 얘기를,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머니한테 큰 절을 하구 어머니(한테 내가)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는 것까지 다 사가지구 아유 그래서 내가 기냥,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 참~ 보통 무서운 사람 아니네, 내 뒷조사를 다 해봐야 그래는데 뭐일 조사를 해서 마지막에 (박 하사한테) “우리는 뭐 일본서 살다 나와서 폭격 다 맞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하나.”고 그러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래.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래. 근데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일본 문학을 좋아하신대매요?” 그 사람(남편)이 일본 문학을 참 좋아했거든요. “또 시도 좋아하시지요?” 그래 나 “아이 어떻게 아세요? 그런 걸?” 내가 그랬더니 “다 아는 수가 있지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여튼 한참 하다가 헤어졌거든요. 그래 차로다가 내 부대 앞에 같이 태워다주고 갔는데 아유 그때 박서는 잠이 안 와.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누가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랬는데 범인은 우리 취사장에서 불 때는 아저씨였어. (웃음) 나중에 그 이가 얘기해줘서 알았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사람이 참 됐더라.”고. 사람은 참, 법 없어도 살 착한 사람(이야).

**제가 영감님 성함을 모르네요.** 남편? 박봉진. 박, 봉, 진이야. 새 봉(鳳)자에 진정할 진(眞). 울산 박씨야 드물어.(웃음)

**그러면은 이제 남편 분을, 그때 수성고 밑에서 처음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 맨날 부대 오니까 왔다갔다해도 나는 지시만 하고, 여기 물 좀 담아주시고 여기도. 나는 얘기할 기회를 안 줘요. 쓸데없이 서서 내가 남자덜하게 내가 모범이 돼야 부하들도 보고 저기 하니까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몇 년?** 몇 년이냐고? 그래구선 그 이듬해 결혼했으니까. 아휴! 자기(남편)가 혼차 먼칠 맹겨서. (우리 여군) 중대장님은 나를 꼭 붙들고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제발 좀 우리 딸 좀 쫓 제대시켜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따님은 너무 저기해서 제가 데리고 있다가, 제가 그, 제대할 때 같이 제대시키겠습니다. 너무 이르면 맏길 사람이 없으니까 따님이 쟁꾸매도 일을 너무 잘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그렇다.” 아이 딸을 칭찬하는데 싫다는 사람 어딴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 그럼 중대장님한테 맏길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이 이이가 오더니 중대장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약혼하러 갈테니 휴가 달라고! 그러니 중대장님이 기가 맥혀서.

**아니 미리 얘기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유 우리 엄마한테 가서 미리 다 해놓고. 그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사진을 보이구, 우리 시아버지 한의원에 있는데 하루는 인제 우리 엄마한테 다니고, 그 길로 (시아버지가) 영등포에서 한의원 하셨거든. “야 너 잘 왔다. 너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먼저 중국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환자만 보고선 그러고 갈 테니 거기 있으라고. 그래서 앉았다가,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너 참 잘 왔다, 너 인자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때 그이가 스물여덟이었었나? 스물아홉에 헨 거 같은

데. 스물여덟에 했나? 하여튼 다 오래돼서 잊어버렸지. 그이가 내가 결혼하고 딱 50년을 살았어요. 50년 되던 해에 세상 떴거든요. 암으로다. 폐암.

## ⊕ 인정받지 못한 공로

**예전에 보훈 신청하셨다가 거절당한 적 있지 않으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게 처음에가, 20년, 아니- 2000년돈-, 2000년도일 거예요.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 되셨을 때니까. 그때 내놓으니까. 차 타고 놀러 다니다가 다쳤대요. 그니까 사실 차 타고 가서 차가 옆어져서, 그거는 내가 그 보초, 기밀서류를 지키다가. 다 얼어서 그랬대. 마지막 차로다가 타기 싫은 걸 억지로 타서, 내가 타고 싶어서 (탄 것도 아니고),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소대장하고 싸움까지 했는데. 상사가 내려와서 내 총을 뺏고 그랬죠. 그래서 신청을, 보훈병원에서 신청을 해라고. “아주머니는 국가유공잔데 왜 6·25참전유공자냐.”고. “일선에서 죽다 살았대면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래, “난 그런 거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

우리 후배가 내 과거를 잘 알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해봐서. 자기도 후방에서 다쳐서, 보훈청하고 싸워가지고 6급을 뺏다고. 선배님은 일선에서 그 기밀서류를 지키다가 반은 얼어 죽고 하다가 차가 가서, 차가 억지로 타기 싫은 차 타고 가서 그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죽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간호사가 있어서 살았지 그래지 않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 얘기를 총무과장한테 가서 했나 봐요. 그래서 총무과장이 나한테 와서, 나를 불러서 하더니만 야 단치잖아요. “왜 그런 것도 안 해고서 (6·25) 참전유공자로 했냐고 국가유공자 엄연히 될 자격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고 두 번째 헛 거는 뭐라고 또 나왔냐 하면, 51년 2월 중순께 전투하다, 전투 중 부상당해서 1육군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55년 3월 25일부로 퇴원과 동시에 제대했다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병원에 그 몇 년, 오 년씩이나 있을 정도로 부상당했다면, 그것은 진짜 국가유공자도 1급 국가유공자지, 근데 난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일선에서 완전 군인답게 산 거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셔도 아는, 그러니까 어떤 선배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후방에 앉아서도 이렇게 호강을 했는데 너는 진짜 그 썩-끄만 게 가가지고 죽을 고비만 냉기고 와서도, 국가유공자도 못 되고 6·25 참전유공자가 되고. 그게 뭐냐, 이번에 저기 하거든, 보훈청하고 어떻게 해서 해라.”고 그러는데, 보훈청 사람이 지난 아까 왔다 갔는데. “이거 또 뭐 소송해야 하고 뭐 해야 할 거예요.” 그래는데. 그거를 읽어보지를 못해서 그래. 한문으로 내가 썼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에, 작년엔가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내가 써서 냈더니 23육군병원에, 1육군병원에서 23육군병원에 이송해서 7개월 입원한 거는 나왔는데 병명이 안 나왔대는 거야. 아니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7개월씩이나 입원시켜요? 그 기록이 없는 건 자기네가 잘못이지!! 환자니까 병원에 입원시켰을 거 아니야요!

## ⊕ 나에게 전쟁이란...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고 싶은데, “할머니는 여자라서 전쟁을 알지 못해.”라고 말하면 어떨 거 같아요?** 화가 나죠. 여자라고 전쟁을 모른대면 되나요? 6·25 못 겪으셨어요? 내가 그 얘기할 거예요. 6·25 웬만한 사람은 어렸을 때도 겪었고, 피란 간 생각은 난대요. 딴 사람들은요. 그래고, 또 하나는 또 뭐예요?

하하 선생님 전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죠.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1보씩 양보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이 나라를 쥐어잡고 흔들어야겠다.' 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민 편에 서서 국민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정치에 반영한다면 이런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요. 제 잘못인가요? 생각이?

아뇨. 아뇨. 그럼 또 궁금한 게 그 당시 인민군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같은 한민족이었고, 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그랬죠. 우리는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6·25를. 그니까 이북에서는 벌써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소련이 쓰던 거 다 무기 갖다놓고, 다 해놓고 서는 우리보고는 미군 철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미군이 어리석게 철수를 했잖아요! 다! 그래니까 이북의 저기, 소련 탱크로다가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그게 아니었던데.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1 본고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내용과 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구술 면담의 일부를 본 총서의 기획에 맞게 발췌·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김엘림, 2021, 『6·25 전쟁기 여성의 참전과 그들의 전쟁 경험: 페미니스트 안보연구의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6·25전쟁사 (8):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532~540쪽; 박동찬 편저, 2016,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81~385쪽.
- 3 조봉석 예비역 중령의 서신(1993. 5. 12.), 육군본부(2000), 112쪽에서 인용.
- 4 여자의용군 1기 훈련 과정에는 실탄사격이 포함되었으나, 2기의 경우 중공군의 남하로 훈련 과정이 조기 종료되면서 실탄사격 훈련이 제외되었다.

면담자 김엘림(서울대학교 석사)  
면담일시 2020년 6월 18일 / 8월 21일 / 2021년 4월 22일  
면담장소 구술자 자택 / 공간대여시설 / 전화인터뷰

두 번째 이야기  
고 속 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태장면 망포리 고대감집  
수원학연구원

# 망포동 고대감집 손녀 고속자의 눈에 비친 한국전쟁



고속자는 1937년 태장면 망포리(현 망포동) 방죽머리에서 태어났다. 제주 고씨 영곡공파인 고속자의 친정은 '방죽머리 고대감집'으로 불렸는데, 5대조 할아버지인 고봉래의 후손들이 망포리 방죽머리 일대에 모여 살았다. 할머니에게 전해 듣기를 5대조 할아버지가 벼슬길에 올랐을 때 수원읍내에서 망포리까지 풍악을 울리며 금의환향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고광업은 수원읍내에서 동광상회라는 큰 업체를 운영하였고 일제강점기(1939년)에 태장면 면협의회원을 역임하였다.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으며, 아들 4형제는 고원옥, 고원호와 고원용, 고원섭이었고, 모두 서울로 유학을 갔다. 이에 고속자의 부친 고원옥은 학업을 마친 후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 시골집에는 증조할머니(한치분), 할아버지(고광업), 할머니(김달

- 1937년 태장면 망포리 방죽머리 출생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풍문여중 1학년
- 1954년 이화여고 입학
- 1957년 숙명여대 입학
- 1960년 결혼



망포동 방죽머리와 태장초등학교



고대감집 기와집

수원시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



마을에서 유일하게 기와집이었던 고대감집과 구슬자 고숙자(고숙자 제공)



할머니 김달성의 회갑잔치 날 모인 망포동 고대감집 가족(고속자 제공)

성) 등이 사셨는데, 한치분 할머니는 104살까지 살며 장수하였다. 작은아버지인 고원용은 공군 소령이었는데 1963년 7월 26일 긴급 합동임무를 수행 중에 충북 청원군 가덕면 상공에서 제트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였다. 고원용 소령은 1966년 4월에 순직 조종사 방위포상으로 중령에 추서되었다.

고속자의 어머니는 1930년대 군포지역 농촌계몽운동을 이끌던 박용덕 집안의 사람이다. 박용덕이 1927년에 지은 전통 한옥, 박씨고택은 현재 군포시의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고택 바로 옆에는 박용덕의 출연으로 세워진 둔대리교회가 있다. 고속자의 외가도 친가 못지않게 잘사는 집이었다.



1963년 순직한 고원용 소령(김형진 제공)

고대감집은 고속자의 증조할머니 때부터 있던 집으로,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기와집이며 수십 칸이 되었을 정도로 매우 컸다. 이 집은 정남향이었고 구조는 전체적으로 네모반듯했다. 사랑방, 안방, 건넌방, 고속자가 공부하던 방, 일꾼들 사랑방까지 방이 여러 개 있었고 광도 두 개나 있었다.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었는데 양쪽이 다 매우 넓었고, 지하실도 있었다고 한다.

고대감집은 집만 번듯한 것이 아니라 가진 땅도 많았다. 고광업이 땅을

회사하여 그 자리에 태장초등학교와 태장면사무소를 지었다고 한다. 용인 용수골에는 고씨네 선산도 있었는데, 시제(時祭)를 지내면 마차로 제물을 실어 날랐다. 나중에 삼성전자에서 선산 땅을 사가서 안성 쪽으로 묘를 옮겼다.

고숙자의 할아버지 고광엽은 밭이 넓어 지역 유지들이 자주 고대감집을 방문하였다. 고광엽은 취미로 사냥을 즐겼는데 배재고 교장과 교감이 방학만 되면 고대감집에 와서 같이 사냥을 갔다. 이렇게 손님이 신나무실쫂 도착하면 연통이 왔고,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마중을 나갔다. 손님을 대접하느라 고숙자를 비롯한 집안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해야 했다. 고숙자는 “내가 할아버지 꼬봉이었다.”고 말할 만큼 할아버지와 가까웠는데, 손님들이 집에 오면 씩씩하게 대접하고 심부름도 잘하여 귀여움을 받았다. 그때 자주 빈 고광엽의 지인으로는 이병은, 윤정원, 이재성 등이 있다. 이병은은 병점(진안리) 일대의 지주였으며, 제1대 태장면의원으로 영통리에 살던 윤정원 집에는 종종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

### 잊을 수 없는 한국전쟁 기억

고숙자의 큰고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살았는데, 하루는 큰고모 맥을 방문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전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한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전차가 멈추었고 기관사가 전차에 탄 사람들을 다 내리게 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자 기관사는 전쟁이 났으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고숙자는 한강에서부터 후암동 집까지 동생과 별벌 떨며 걸어왔다.

전쟁이 발발하고 7월 초, 고숙자 가족들은 서울에서 수원으로 피난을 갔는데 고숙자의 아버지 고원옥, 삼촌 고원용, 고숙자의 동생은 관악산 쪽으로



걸어 넘어가고 있었다. 수원에 도착하여 방화수류정을 지나 수양버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던 중 아버지와 삼촌이 인민군에게 붙잡혀 끌려갔다. 고숙자가 둘러보니 붙잡혀 간 사람들이 미루나무 앞에서 총살을 당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삼촌도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다행히도 둘 다 멀쩡히 살아나왔다. 알고 보니 내무서에 있는 사람 중에 할아버지 고허업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어서 살려준 것이었다. 그래서 고숙자의 가족은 무사히 집까지 올 수 있었다.

고숙자와 가족들은 1950년 9월 서울 수복 이후부터 수원과 서울을 오갔는데 주로 트럭을 타고 다녔다. 폭격으로 한강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에는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배를 탔다. 배를 이용하여 한강을 건널 때는 ‘도강증(渡江證)’이 있어야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고대감집 덕분에 동네가 지켜진 일화도 있다. 서울 수복 후 고숙자가 수원에 머물 때였다고 한다. 고숙자가 가게에 심부름을 갔다 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알려 주었다. 북상하던 미군들이 망포동을 지나가다 구장의 집을 찾아가 밥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구장은 워낙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에 미군들의 요구를 거절하여 미군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자신들에게 밥을 해 주지 않는 구장을 인민군 편으로 오해한 미군들은 구장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다. 그들은 구장의 집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를 불지를 걱정으로 집집마다 불을 내고 다녔고, 사람들은 냇가로 피신하였다.

그러다 미군들이 고대감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눈에도 고대감집처럼 큰 기와집은 ‘빨갱이’ 동네에 있을 만한 집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대감집을 수색하여 무기가 하나라도 나오면 동네를 싹 쓸어버리겠다고 집을 뒤졌다. 그런데 무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미군이 동네에 불을 지르기 며칠 전, 할아버지 고허업의 꿈에 집이 불타는 모습이 나왔다고

한다. 잠에서 깬 고허업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들어 몰래 무기를 모두 챙겨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묻어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동네에 더 큰 불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고숙자의 아버지 고허업은 서울시청 후생과에서 일했고, 고허업은 수원에서 경방단(警防團, 일제 말기에 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와 방호단을 통합한 단체) 일도 했다. 이렇게 지역과 관련하여 일을 하거나 역할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대피시키기도 했다. 1·4후퇴 때는 행정 당국에서 사람을 보내 고허업을 모시고 대구로 피난을 갔다고 한다.

전쟁 때 고숙자와 고대감집 여성들은 겁탈당할까 봐 집안에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숨었다. 이념을 떠나 인민군이 오면 인민군에게, 미군이 오면 미군에게 겁탈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 동네 사람들은 앞에서야 불쌍하게 여겼지만 뒤에서는 조심하지 못했다고 하며 흉을 봤다고 한다.

북한이 망포리를 점령하였을 때 마을에서 제일 큰 가옥이었던 고대감집은 인민위원회에서 만든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집 옆에 큰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은 농민위원회가 들어왔고, 사랑방은 여성동맹위원회(여맹)가 차지하였다. 또 일광문에서 쪽 나와 있는 방앗간은 내무서였다. 인민위원회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집 안에서 같이 살았던 여맹은 또렷하게 기억한다. 고숙자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여맹이 매일 사랑방에서 북한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고허업이 노래라면 아주 질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숙자가 고모들, 작은엄마들과 노래하고 싶을 때는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방문을 다 틀어 닫고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여맹에서 여자들에게 노래를 배우러 오라고 했었는데, 어린 고숙자만 가서 몇 번 배워 보았다고 한다.

이렇게 여맹과 농민위원회가 고대감집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주에 속하



할아버지 고평업

는 고대감집 가족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특히 최씨라는 일꾼이 고대감집 식구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일꾼이면 무조건 내무서 관련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씨도 내무서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고대감네와 관련해서는 다 좋은 얘기만 했다고 한다.

고대감집 근처에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전쟁 중에는 면사무소의 곡식창고를 감옥으로 사용하였다. 지주였던 고평업과 이철용은 감옥에 갇혔는데, 고평업은 주변에 많이 베풀어 놓았던 덕에 도움을 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이병은의 부친인 이철용은 인민군에게 끌려간 후 살아 돌아

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고평업은 자신이 내준 땅에 세워진 건물에 지인들이 끌려가 고초를 당한 것이 괴로웠는지, 전쟁이 끝나고 감옥으로 쫓던 창고를 때려 부숴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고숙자는 혼란스러운 참상을 많이 목격하였다. 전쟁 중 고모네 집에 도착했을 때 군인들이 사복을 훔쳐 입기 위해 고모네 집에 들어와 장롱을 털어 갔다고 한다. 또, 하루는 수원고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큰 과일들이 많길래 웬 과일인가 했더니 큰 밭에 시체들이 즐비해 있어 돌아간 적도 있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 중학생이었던 고숙자는 전쟁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 결혼 그리고 시댁 이야기

고숙자는 가족들과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서울에서 다녔다. 풍문여중과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숙명여대에 진학하였다. 대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부모님도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태장면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했는데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 학기 등록을 놓치게 되었다. 아버지한테 크게 야단을 맞았지만, 등록을 놓친 김에 학교를 그만두어 대학교 1학년으로 학업을 마쳤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29년 고숙자 시댁 가옥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고숙자는 24세에 박지원과 결혼하였다. 작은아버지인 고소령의 결혼잔치에서 고숙자를 본 중매쟁이가 친정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혼사를 성사시키려고 하였다. 친정아버지 고원옥은 딸이 많으니까 얼른 하나라도 먼저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고숙자는 내켜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뒤에 중매쟁이가 또다시 편지를 보내 왔다. 그때 고숙자는 이것도 인연이라는 생각에 승낙하여 결혼이 성사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던 탓에 고숙자는 시골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다행히 서울 가회동에 시댁 소유의 집이 한 채 있어서 고색동 시

댁에서 잠깐 살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 서울로 세간을 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시아버지 박정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장남이었던 남편 박지원이 집안의 사업과 가게를 떠맡게 되어 결국 수원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

고숙자의 시댁은 고색동 일대에서 많은 사업을 하였다. 환박정미소는 국가 지정 정미소였고, 양조장도 유명하였다. 그리고 1970~1980년대 호황을 누렸던 영신연와도 시댁에서 운영하던 공장이었다. 이 외에도 영신여중과 영신여고를 설립하여 육영사업도 펼쳤다.

고숙자가 35년을 모신 시어머니 염사춘은 호랑이 시어머니라고 동네에 소문이 났을 정도였다. 독립운동가 염석주를 배출한 집안사람답게 목소리도 크고 대장부 같았다고 한다. 고숙자의 친정도 손님 대접으로 할 일이 많았는데, 시댁도 일하는 아주머니만 7~8명이고, 한 끼에 밥을 한 말씩 하는 집이었다.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밥을 많이 해 두어 동네 사람들이 늘상 밥 먹으러 올 정도였다.

고숙자의 시댁에서 운영하던  
1970년대 벽돌공장 영신연와(고숙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소

## | 구술 |

### ⊕ 태장면 망포리 고대감집

**망포동 방죽머리 고대감집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우리 집이에요. 고광업 씨가 우리 할아버지세요. 옛날에 벼슬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5대손인가, 6대손인가 그럴 거예요. 벼슬한 할아버지가 수원서부터 망포리까지 풍악을 울리면서 오셨다 그러더라고. 우리 친정할머니가 그걸 보셨대요. 우리 할머니가 아주 대단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서(망포리) 이제 일가를 이루시고 사셨는데. 아버지 대서부터 다 서울로 올라가서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는 삼일중학교를 다니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죠?** 고, 원자, 옥자.

**고원옥 선생님, 이분은 삼일(중학교)을 다니시다가.** 서울로 배재(중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동생은 고원호가 있고, 그 밑창에 또 원용이 있고.

**망포리 고 소령이라는 분이 작은아버님(고원용)이신 거예요?** 맞아요. 고 소령을 어떻게 알죠?

**이분이 유명하시잖아요. 신문기사에도 사고 기사가 있고.** 그랬죠. 본인이 가시는 게 아닌데, 남이 그 편찮았다나, 그래서 대구를 내려가서 임무 수행을 보고 올라 오시다가 전사하셨죠. 비행기가.

**아버님의 동생 분이셨군요?** 네.

**그럼 선생님, 고봉래 씨라고 혹시 아세요?** 고봉래는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인가 봐.

**그러면 고백은 씨라고도 들어보셨어요?** 고백은 씨는 이제 파(派)가 다른가 봐요.

**파가 다르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할아버지가 5대 독자래요. 그러니까 옆에 고서방네들 있으면 그냥 다 보듬어 주셨거든. 그래서 고백운이 촌수로 따지면 할아버지라고 그랬어, 예전에.

**할아버님이라고 부르셨어요?** 네. 할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 양반 마나님이 거기서 약방처럼 하셨죠. 약방은 아니고 약포라 그러던가. 망포리에 그거 하나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양반이 간호사 노릇을 했다가 오서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고대감집이 되게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아흔아홉 칸은 아니었지만, 태장면에서 우리 집이 제일 먼저 개와집(기와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언제 적에 지은 집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지, 나는.

훨씬 이전에 지은 기와집이었으니까. 가만있어, 고봉래. 그 할아버지의 마나님이 있을 때, 우리 증조할머니 때서부터 아마. 그랬는데 그때는 다 초가집이었죠.

그럼요. 70년대까지 여기 망포리 쪽이 초가집들이었으니까. 그럼요.

저기 이사장님(고속자의 남편으로 영신여고 재단 이사장인 박지원)은 34년생이신데. 34년생이면 87세예요. 저는 84세고. 하하하.

친정인 고대감집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고광업 할아버지가 수원 읍내 거기다가 동광상회라고 큰 철물인지 뭔지를 하셨대요, 크게.

철물점을 하셨던 거예요? 철물점이 아니고 큰 공장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확실한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 나는 여기서 살지를 않고, 서울서.

계속 사셨죠? 네, 내가 초등학교서부터 효자동에 있는 청운국민학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피난 와가지고, 여기서 잠시 한 1~2년 있다가 우리 식구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죠, 이제 할머니는 여기 계시고. 우리 고광업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바깥 노인네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안 노인네들이 오래 사시고 그랬어요. 고봉래 (증조)할아버지 마나님이 한씨인데 104살에 돌아가셨어.

그 당시에 100세를 넘기신 거예요? 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전쟁 중에 (수원에) 있으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셔서 학교를 계속 다니시고? 네. 그랬죠.

그러다가 근데 숙명여대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그건 또 어떻게 알았지?

유명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1년밖에 안 다녔어요. 우리 할아버지(고광업)가 간암으로. 그러니까 왜정시대 때 토지개혁 해가지고 땅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술로 세월을 보내셨어. 그리고 여긴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도 우리 거고.

태장초등학교 부지를 회사한 거예요? 우리가 회사한 거고. 그리고 그 옆에 면이 있었어. 태장면사무소, 면사무소도 우리 거예요.

그 땅들이 다 고씨네 거였네요? 네. 고씨네 거. 그리고 그 밑창에 임씨네 게 좀 있었고.

마을회관도 고씨 집안 식구들이 땅을 회사해가지고 지은 게 아직도? 다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동생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한테 사기도 당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냥 없었어, 그 많은 재산을.

아버님이 몇 살쯤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56세인가, 57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때 우리 동생이 서른 막 지났는데, 천방지축이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좀 참견하고 이러시면 좋은데, 괜히 또 조카자식 재산 가지고 어찌고저찌고 하는 소리 들으시기 뭐하시니까 일절 간섭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원호, 고원용 다 배재 나오신 분이데, 우리 작은아버지 그 원용(고원용) 씨는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시고, 그 원호(고원호) 씨는 돌아가신 지, 94세에 돌아가셨나 그랬어. 우리 작은아버지가요. 그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큰 보일러 공장을 하셨어요. 대한보일러라고. 그래서 아주 잘 사셨죠.

**그러니까 본인도 사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조카 분들 이런 거에 간섭하고 싶지 않으셨겠네요.**  
네. 괜히 저거 하면 뭐 하고 그래서 간섭을 안 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냥 그렇게 안 좋게 다 팔아먹었지.

**그 동생분들은 지금 망포동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사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몸을 담고 있었으면 좀 저거 했을 텐데 수복하고서는 다들 올라가고, 여기 노인네들만 계신 거라니까.

**그냥 시골집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를 그렇게 지어놓고 그랬어도, 고모님들 우리 삼촌들, 이런 분들은 아마 태장국민학교를 다니셨을 거예요. 저희서부터 서울로 다니고.

**서울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70년대 중반쯤에 돌아가셨겠네요?** 아마,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고대감집은 다른 데다 파신 거네요?** 우리 동생이 팔은 거야. 우리들이 사려고 그랬더니, 누이들한테 팔기 싫으니까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리고 저희가 내 집 없어지는데 뭐가 좋아서 그거 저거 하겠어. 나중에는 궁금해서 거기가 헐렸나, 누가 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랬어도 가보지는 않았지.

**그래도 조상님 집인데 누나한테 팔지.** 누가 아니래.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벨이 꼬여서 안 팔은 거지. 동생이라고.

**혹시 집 구조라든가 이런 것 좀 기억나세요?** 그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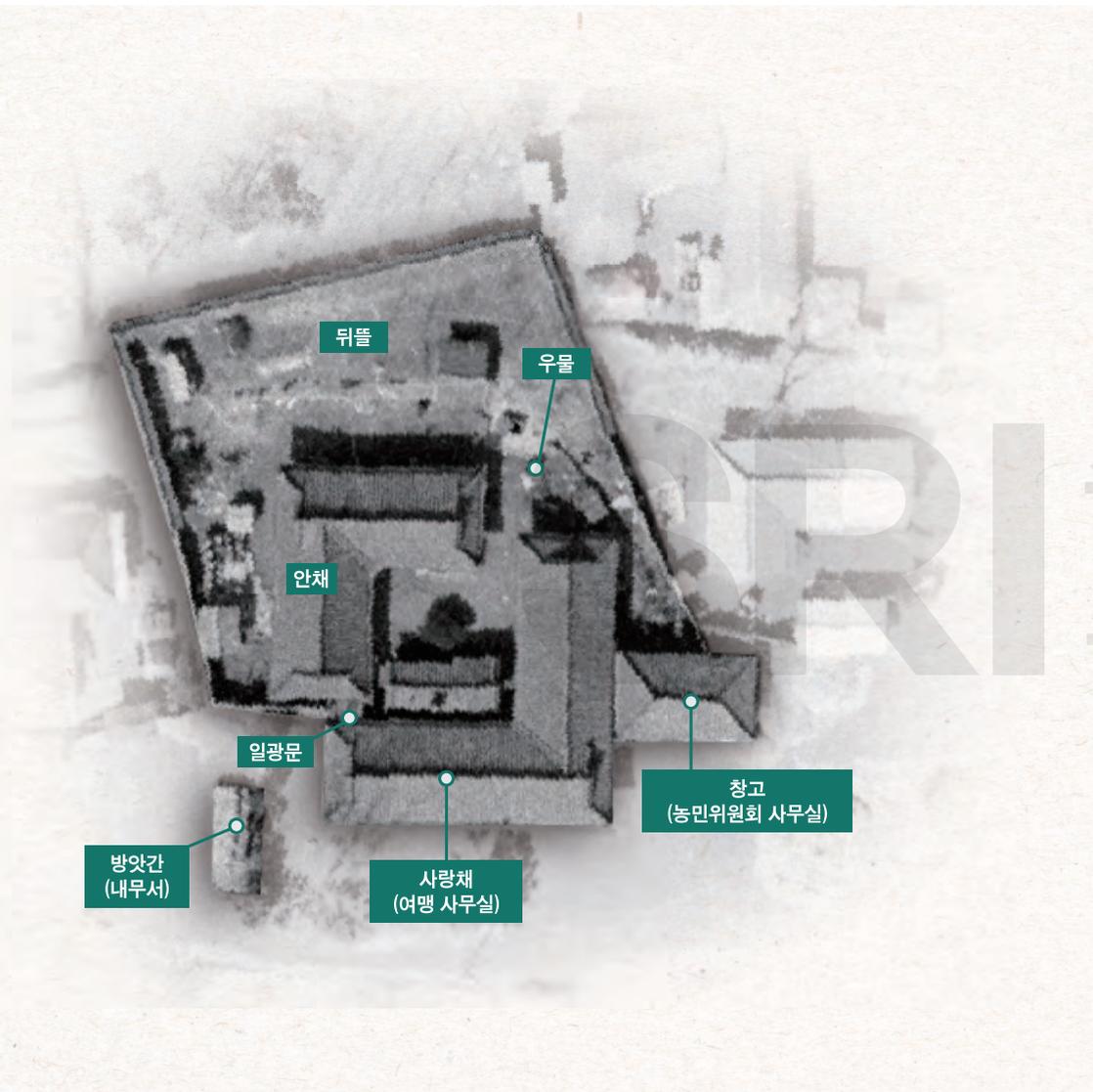
**대략 좀 그릴 수 있으세요? 대충 네모 일단.** 우리는 아주 네모반듯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모. 마당하고 안방, 부엌, 사랑채.** 다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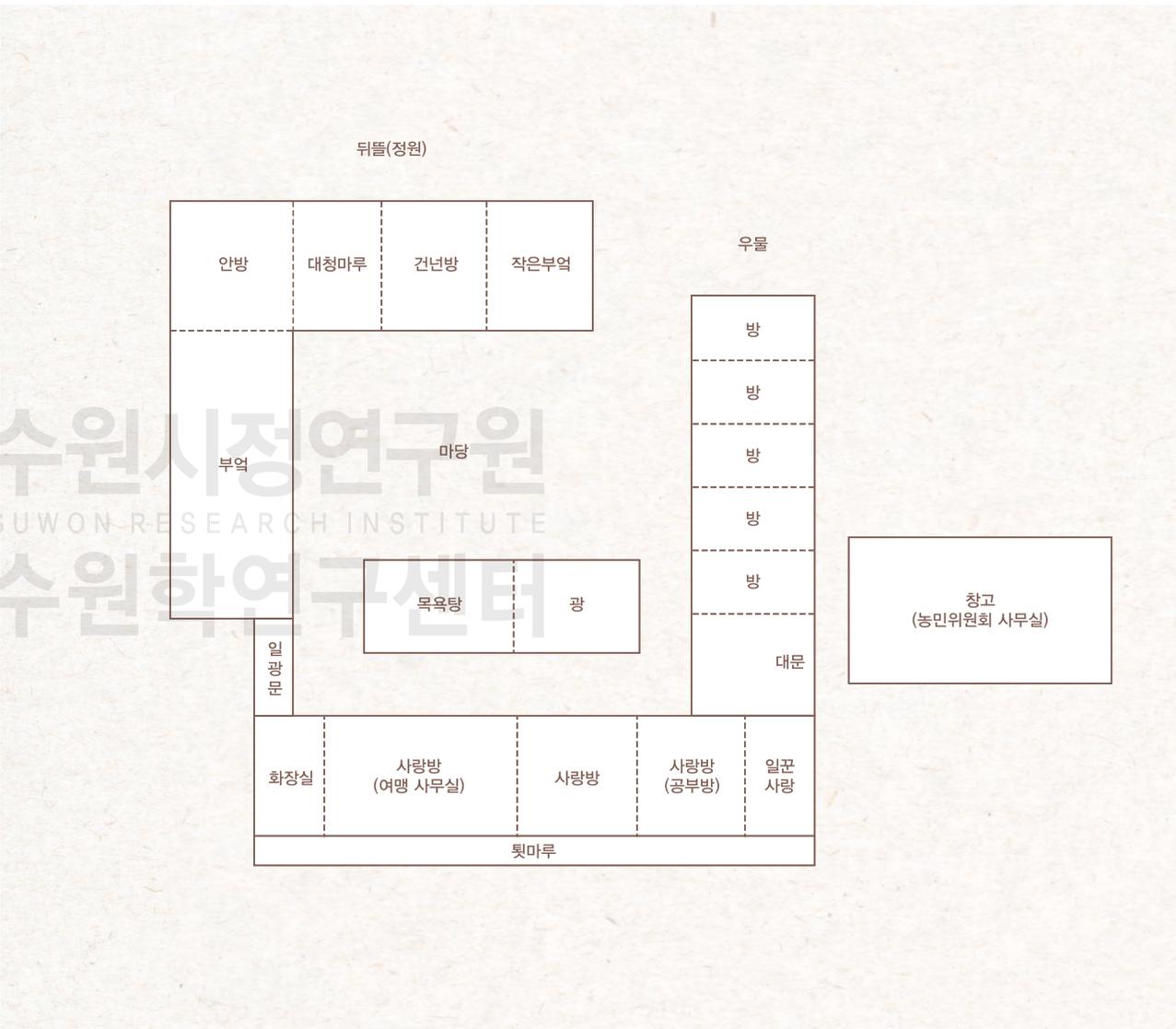
**이거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략. 네모반듯했을 때.** 네모반듯하고. 여기가 사랑방, 사랑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사랑방이 몇 개, 여기는 우리 공부하던 방이 있었고, 여기는 대문이 있고, 또 여기는 방이 하나 있고.

**방이 밖으로도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그렸지. 그리고 여기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방이 있고.



고대감집 기와집(1975년)



고대감집 내부 구조

**방, 방, 방, 그다음 이쪽에 방 하나가 있는 거죠?** 방 하나 있고.

**사랑채, 여기가 공부방이었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거기서 늘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사랑채. 이제 옛날에 할머니는 안에서 쓰시고, 할아버지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동네 분들이 와서, 글 읽고, 붓글씨들 쓰시고.

**서로 얘기도 잠시도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위낙에 발이 넓으셔서, 하여튼 태장면의 무슨 유지들이나 뭐 수원시 유지들이나 다 우리 집에서 해먹었어.

**일 엄청 많으신 집안이었던가.** 아이고. 아주 내가 일이라면 머리가 흔들리는 사람이야. 친정에서도 그렇게.

**근데 시집을 갔는데 거기도 일이 많은 집안. 아, 있는 집이니까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지.** 아니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인연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도 가더라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게 뭐지, 방이지. 방 있고 또 여기 광이 있어.

**여기에 광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 광이 있고 여기 우물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식수 우물, 그리고 뒤뜰처럼 아주 정원이 있고 여기는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 옛날에 그 저기가 이렇게 두꺼워, 지하실이.

**이쪽 방향에 있는 거예요, 지하실이?** 이쪽 방에는 이제 여기는 안방이 있고, 여기는 대청마루가 있고, 여기는 작은 방이, 건넌방이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는 이제 저기가 있어. 뭐지?

**외양간? 부엌?** 아니. 부엌이지, 이제 작은 부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원이 있어요. 아니 마당이면서 여기가 또 옛날에도 광도 있었고, 또 여기에 목욕탕이 있었어.

**목욕탕?** 네. 목욕탕도 있었어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 네모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부엌이지. 부엌이고, 여기 부엌에서 문이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그렇게 된 거 같아.

**이제 다 눈에 선하세요?** 그럼요. 내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여름방학이다, 겨울방학이다 하면 으레 여기 와서, 또 할아버지가 거기 학교를 당신이 회사를 했으니까. 나는 국민학교 2학년, 3학년이었어도 거기 언니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집에서 공부 안 한다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시골에 내려오면 할아버지가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저는 으레 학교에 가서 공부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호랑이였어요.

**무서우셨어요! 하하하.** 아주 호랑이였어.

**그러고는 여기 바깥을 이렇게 또 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뒤에 지금으로 치면 정원인데 거기 뒤뜰이지. 거기에 감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저희는 복숭아, 어렸을 때 밤이면 실컷 먹었지 뭐. 이 집에 일화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집을 짓고 났는데, 몇 달 있다 보니까 거기 능(陵) 나무를 아마 베어, 저 소나무들 있잖아요. 서까래 이런 거를 능에서 저거를 해가지고 왔나 봐요. 그런데 큰 호랑이가 다녀가더라.

**꿈에요?**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루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섬뜩한 게 느껴지더라. 이래서 이렇게 대문 쪽을 보니까, 큰 호랑이가 지나가더라.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집을 잘 짓고 그러면 그렇게 뭐가 다녀간대요. 집이 흥하면, 그래서 여기가 또 문이, 작은 문이 있어요.

**여기에요?** 응. 일광문이라고. 여긴 큰 대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반듯했죠.

**이게 그럼 정남향이에요?** 남향이죠. 여기는 또 뒷마루라고들 다 있고.

**여기에 뒷마루를 있고.** 여기서부터. 또 일꾼 사랑(행랑채)이 있구나, 여기에 또 일꾼 사랑이 있어요.

**일꾼들이 몇 명이었는지 대충 기억하세요?** 일꾼들이 한 서너 명 되죠. 그리고 옛날

에는 그분들이 다 할아버지 보고 “나리, 나리” 그러고, 할머니 보고 “마님, 마님”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하셨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배재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배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양반들이 방학만 되거나 여름방학 되면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야. 오셔가지고 겨울에는 할아버지하고 사냥을 떠나요. 지금 보니까 신나무실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언덕배기죠. 거기쯤 오시면 연통(연락)이 와.

**이제 들어오신다고 이제?** 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햇불 들고 마중 나가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웃기는 소리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대장면에서 그 집이 하나가 기와집을 지은 거니까. 그런데 뭐 그냥, 워낙에 재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양쪽에서 보초를 세워놨다고 그랬으니까.

**보초를?** 경비를 세워놨다고 그러시더라고. 한참 저거 할 때는.

**농산물도 막 들어오고 추수철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럼요. 이제 가을이 고 서방네 시제(時祭) 지낸다, 뭐, 박 서방네 시제 지낸다 이러면 저기 용인에 용수골이라는 데가 고향인가 봐요.

**거기에 선산이 다 있으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제를 지내면 마차로 제사 지낸 거를 실어 와.

**제물들을 다 실어갖고 이렇게.** 내가 시집 와서 그때가 몇 년도인가, 80년도인가 웬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고 서방네 저건

데, 거기에 이제 그쪽에 삼성이 다 차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을 팔라고 해서 산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제 후손들한테 도장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산들이 우리가 90%더래. 우리 할아버지 저기가.

**(할아버지) 명의로?** 응. 그리고 이제 도장 좀 찍어 달래서 찍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 땅을 사간 거예요?** 다 해가지고 우리는 저기 안성도 되고 (용인) 남사골이라든가. 거기다가 한 2만 평인가 얼마를 사서 선산이 그리 가서 있어요.

**여기 있는 땅들을 다 삼성이 사니까 그 대신 저쪽 안성 쪽으로 선산들을 새로 모셨구나.** 그때는 이제 그냥 똑같이, 지분을 이제 똑같이 했죠. 우리가 이제 다 회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동생이 잘못 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없앴지. 속상하게.

**좀 아깝네, 진짜.** 난 사실 이런 소리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연히 나왔네. 어쨌든 할아버지 찾는 손님이 많았는데, 이제 병점에 가면 이철용 씨라는 집이 있어요.

**이철용.** 응. 그런데 이병은이라고 그전에 화성인가 오산에, 병점에 시의원이었어요. 그 집이 또 우리 집보다 더 잘 지었어. 우리는 좀 낮게 지었는데.

**그 집은 높게 지었구나.** 조금 더 높아서 더 운치가 있지. 그런데 그 집은 아마 지금 있을 거예요. 워낙에 그 할아버지도 잘 사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할

아버지가 한 대여섯 번인가 우리 집에 노상 술에 뒤에 그냥.

**할아버지님 친구 분이 이병은, 이병은 어르신하고 또?** 또. 윤정원 씨라고. 그분은 어디서 살았냐면 영통에서 살아요. 왜, 저번에 그 나무 잘린 데 있지?

**청명단오제 했던 나무.** 응. 그쪽 어디서 살아. 내가 그 맥을 한 번 갔어. 그때는 논길, 밭길이고 그러니까 조그마니까 무섭죠. 그전엔 왜 이렇게 산에 문둥이들이 있어가지고, 사람 잡아먹는다고 못 가게 해요. 그런데 심부름 가느라고 갔는데 윤정원 씨네를 제가 갔었어요, 한 번. 그리고 또 원천에 이재성. 우리 할아버지 친구들이니까.

**그래도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내가 워낙에 우리 할아버지 꼬봉이었어요.

**하하하. 데리고 다니셨군요.** 워낙에 무서워서 데리고 다니진 않고, 제가 짹짹하게 심부름을 잘했어요. 그래서 으레 내가 큰손주니까 그분들 오시면 뒷바라지를 내가 다 하고. 거기서 심부름은 내가 다 했지.

**교유하시던 분이 더 계실 것 같은데?** 있는데, 그건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맥에 거기 계셨을 때 기억하시는 음식 같은 것 있으세요?** 우리는 할머니나 우리 엄마들 그 형제분, 저기 뭔가 동서 분들이 음식들을 잘했죠. 그래서 그냥 잔치하는 집이고 그랬어요.

**친정어머니는 어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반월 사람이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박사. 반월에 거기도 집을 잘 짓는 대궐 같은 집이 있어. 우리 외갓집에서 옛날에 거기서 영화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

**밀양 박씨인가 봐요?** 네. 밀양 박씨인데. 그 양반, 우리 친외갓집이 그 위에다 둔대리라고, 거기 교회도 짓고 그랬어요.

**둔대교회?** 예.

**지금 군포 쪽이에요?** 그래요.

**군포시로 들어가 있어요.** 네. 교회도 짓고 그랬어, 우리 할머니 외갓집에서.

**둔대교회. 초창기 교회예요, 이게. 둔대리교회.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요. 저희 집이 워낙에 그냥 잘 지내다가, 우리 동생이 그렇게 작살을 냈어. 아주 생각해 보면 불이 나지.

**망포리에는 고씨네 외에 어느 집안이 있었나요?** 임씨네도 있어. 임씨네도 그 아래 잘 사는 분이 있어.

**그래도 사실은 동네에 가장 오래된 집안이 고씨네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 ④ 잊을 수 없는 한국전쟁의 기억

**전쟁 나고 나서 피난을 오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서울서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7월 초에 이리 걸어왔죠, 관악산으로 해서 이렇게.

**아버님하고 다같이?** 우리 아버지, 우리 고 소령(고원용)하고 나하고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로 오는데, 지금 삼일고등학교 있는 데 거기, 방화수류정 있고 그런데, 수류 그제 뭐지 수양버들, 수양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이만한 것들이 있는데, 오다가 우리가 붙잡혔어. 우리 아버지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삼촌하고는 죽인다고. 근데 거기 미루나무에다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죽이더라고.

**그걸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붙잡혀 가고, 삼촌도 붙잡혀 가고 그래서 벌벌벌벌 떨었는데 살아 나오시더라고. 그래 웬일인가 했더니 거기 내무서(북한에서 경찰서를 부르는 말)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다고, “너네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보라.” 그리고 내주셨어. 그래서 살았어.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님이 정말 큰 일 많이 하셨네. 그럼 7월쯤에 이제 전쟁 나고, 서울에 한강대교도 끊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어요. 우리 친정 고모가 상도동에서 사셨어요. 6·25 나던 날 이제 놀러 간다고 내 동생하고 나하고 전차를 타고 가는데 한강쯤

오니까 다 내리래. 왜 그러냐고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랬더니 6·25사변이예요, 그날이. 빨갱이들이 내려왔으니까 빨리들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걸어서 집으로 갔어요.

**걸어서 갔어요?** 예. 걸어서 갔죠, 집을. 그때 저희 집이 후암동이였어요. 후암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후암동이면 한참 걸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고모네 집을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갔는지, 아마 배를 타고 갔을 거야. 배를 타고 건너야지 되니까.

**그러니까요.**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고모네 집을 갔는데, 6·25 때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몰라요.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오는데. 고모네 집에 들어갔는데, 적산가옥이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장롱이 다 열려 있어.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군인들이 나갈 때 사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죽을까 봐. 옷을 훔쳐 입고. 그리고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관악산으로 해서 수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죽는 줄 알았지. 이 밑창에는 임승원이네 집이 있어요.

**임승원?** 나보다 한두 살 더 먹었어.

**아직 살아 계세요, 그분?**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도 모르는데, 몇 년까지 그래도 수원 시내에서 맞닥뜨리고 그랬어요.

**방화수류정 쪽으로 쪽 오시다가 그 미루나무에서 사람 죽는 걸 보셨던 거예요, 직접? 그럼 수원 천변 양옆에다 이렇게 사람 묶어 놓고.** 응. 그런 거야. 6·25 때는 무법천지였어요. 그

리고 이 수원고등학교를 오는데, 이제 여기 태장면으로 오려면 수원고등학교 뒤쪽에서 오는데 파리가 이만해. 여름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파리가 많으냐니까 거기 바로 옆에 큰 밭이 있는데 시체들이라 그러더라고. 시체들이라고. 그래서 “그리 가지 말라.” 그리고, 저 독으로 이렇게 해서 갔어요.

**독. 어디 독?** 이제 이게 수원고등학교면 이리 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갔죠.

**매교동.** 응, 매교동 인계동 그 사이일 거예요. 내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런 건 좀 기억하죠. 다른 건 몰라도 파리가 이만한 것하고, 우리 아버지 끌려 들 어간 것, 미루나무에서 총 쏘는 것 이런 것 봤죠.

**아버님은 서울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시청에 계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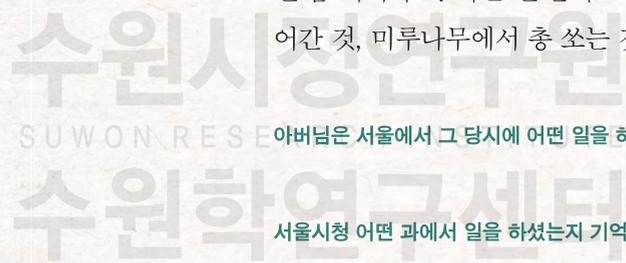
**서울시청 어떤 과에서 일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후생과인가 그래.

**그래도 진짜 큰일 날 뻔하신 거네요?** 네, 그랬어요.

**얼른 피란을 내려오기도 잘 하셨네. 서울에 있었으면.** 아니요, 그래가지고 여기 태장면에는 안 계셨죠.

**어떻게,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내려가셨지.

**대전 아니면?** 대구로 가셨을 거야.



**대구 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대구인가 어디로 가셨어요.

**할아버님.** 아 6·25 때는 그냥 계셨나봐.

**계셨고, 저기 1·4후퇴 때?** 1·4후퇴 때는 시인지 소방서인지 모시고 갔어. 6·25 때 고생하셨다고 1·4후퇴 때는 모시고 갔어. 와서. 그땐 내가 어려서 시에서 오셨는지 소방서에서 오셨는지 그건 몰라. 그런데 소방 일을 많이 하셨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경방단 그런 소방 일을 하셨어요?** 네, 경방단 대장, 이런 걸 하셨으니까. 우선 모시고 가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1~2년 정도 사셨잖아요. 저기 할아버지 댁에서. 여기 망포리에서.**

**망포리에서 사시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간 거는, 이유가?** 이제 수복이 되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랬지. 이제 수원서 그때는 버스가 없고 주로 트럭을 타고 다녔어요. 트럭을 타고 도강중(渡江證)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강을) 건너요.

**배를 타고 건너오셨어요, 그때?** 한강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그때 배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도강이지.

**그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수복되고 나서는 그랬나 봐요. 그러

니까 이 다리를 아직은 못 놓잖아.

**용산에서 타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영등포 쪽에서?** 아니요. 나는 그때 후암동에서 살았으니까 서울역인가 어디서. 모르겠어, 그런 것까지는. 수원역에서 언제든 지 기차를 타고 방학 때면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는 지지대고개에서 트럭을 타고 간 기억도 있어요.

**그 할아버님은 그럼 피난 가셨다가 수복되고 난 다음에 고향 쪽으로 다시 올라오신 거군요?** 그럼요.

**가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예. 워낙에 우리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도 못해.

**말도 타고 다니시고?** 그럼요. 말도 타고 다니시고.

**그럼 피난을 가져가지고 아까 시청인가에서 모셔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셨을 때도 수원 사람들하고 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버님도 그때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먼저 내려가신 거예요?** 몰라,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대구로 피난을 가져서. 근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동네가 다 불이 날 뻔했어요!**

**무슨 불이 날 뻔?** 9·28 때 이제 미군들이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데 여기 태장

국민학교 있는 데 여기 바로 구장 집이 있었어. 지금은 이장인가 그게?

**네, 이장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해달라고 그랬대. 배가 고프니까. 그랬는데 그 양반이 6·25 때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러니까 적군들한테 고생을 해가지고, 안 해준다고 그랬대. 그래서 미군들이 그냥 거기서 죽었어.

**그 구장이 황씨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이씨인가 그럴 거예요. 황씨 그런 사람은 나중 사람들일 거예요. 이씨일 거예요. 그 구장이 우리 할아버지(고광업)보다 좀 아래였으니까. 고광업 할아버지보다 아래였으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는 좀 위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좀 무료해서, 그 밀창에 면 아래에 가게가 있어서 그냥 앉아 있기 뭐하니까 수라도 놓자 이래갖고 수실을 사러 올라가는데, 동네사람들이 오면서 막 얼른 가라고, 얼른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기 지금 불나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밥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집이 다 우습지 뭐, 초가집이고 그러니까. 기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햇불처럼 이렇게 하는 걸, 탁!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불을 질렀구나! 국군들이요?** 미군들이 화가 나니까, 자기네는 그 고생을 하고 올라오는데, 밥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 주니까 이 동네가 빨갱이 동네인가 보다 하고.

**그래서 다 불을 났대요, 집집마다?** 응, 그리고 구장은 싸 죽이고 자기네 집 앞에서. 그래서 그냥 막 집을 가서 지금 야단났다고, 얼른 피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전에는 냇갈(냇가)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냇갈로 다들 피난을

갔어. 그래 이제 우리 집을 보고 이렇게 큰 집이 있을 턱이 없다, 빨갱이 동네인데. 그러니까 이 집에서 뭐든 무기나 뭐가 나오면 이 동네는 싹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며칠 전에 꿈을 꾸니까 불이 나더라고, 우리 집에 아주 그냥.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당신이 몰래 갖다 물어줬대.

**와! 동네를 살리셨네.** 응,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지. 그날은 이 노인네가 이제 수복도 되고 그랬으니까 시내를 나가 보신다 그래가지고 수원 시내를 나가셨어, 그날. 그랬는데 저기 신리 와서 보니까. 우리 동네가 아주 연기가 말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신리를 그때는 벌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보니까 신동이라고 써 있더라고. 거기 이제 아는 집에 가서 앉아 계시고 그랬는데.

**그럼 그 불난 것은 이제, 그래도 선생님 고대감집 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더는.** 예. 불을 안 내고.

**나머지는 마을 분들이 불을 끄나 봐요.** 자기네들이 쫓겼지. 그거는 난 몰라. 왜 그러냐면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키가 지금 이 키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위낙에 키가 커서. 그리고 그때 미군들이나 누가 오면 겁탈하고 그러니까, 작은어머니들 고모들 그냥 거기 저기 뭐가, 방공호를 파놓고 뭐 했다하면 그리 다 도망가. 그 위에 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해봤어. 여자들 도망가라고.

**마을 방공호를?** 아니야, 우리 집 안. 우리 집 안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왔다, 하면 그리 다들 뛰어가지.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뛰어가도 되는데 위낙에 키가 크니까.

**그치 들키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있어. 하하하.

**하하하. 제일 잘 뛰셨구나, 그때.** 애들이니까 뛰지. 그래서 살았는데. 그 미군들이 우리 집에서 한 달을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밥 해먹이고, 거기 아랫방, 사랑방 다 차지를 했어.

**그러면 미군이 몇 명 정도나 거기에?** 모르지, 그때는.

**그럼 미군이 상주했을 때에는 내려오셨어요? 그 방공호에 있지 않고?** 그럼요. 이제 식구들 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6·25 때는 우리 면사무소 옆에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곡식 같은 거 넣어두고 그랬는데 그게 감옥이야. 하여튼 감옥이어서 저기 병점의 이병은 씨 아버지(이철용)가 그 감옥에 가서 계셨어요.

**왜요?** 아이 자본주의니까.

**지주라고?** 응, 인민군들이 그냥 내무서에서 그 양반을 잡아다가 넣고 우리 할아버지도 잡아가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나마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내놔어. 근데 그 양반은 거기서 끌려가다가 돌아갔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이제 여기서 9·28 때 수복할 때 올라오잖아요. 이제 많이 죽었죠. 그래 거기서 그냥 끌고 가다가 뭐 어디서 죽었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다행인 건 할아버님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많이 베푸시는 분이였기 때문에.** 아, 그럼요. 베풀었으니까.

**그리고 학교도 해주시고 면사무소도 그렇고 다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그 양반들이 늘 같이 잡숫고 그러니까 의형제처럼 이랬는데, 동생이 거기서 죽었다고 그거 때려 부셨어.

**감옥으로 썼던 창고.** 감옥으로 쓰던 창고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벼 같은 거 이런 것 넣으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건 면사무소 창고가 아니라 우리 창고지.

**개인 집 창고인데 그거를 개네들이 감옥으로 쓴 거죠?** 바로 옆에 면사무소를 지어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동네 사람이고, 뭐 하여튼 태장면 사람들 그리로 다 갔다가 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이철용)가 거기서 돌아가셨지. 거기서는 안 돌아가고, 끌려가다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집은 6·25 때도 그냥 뭐 노상, 노상 뒤져가. 바로 우리 여기 집이면 이 옆에 광이 있었어요. 큰 창고가 있었지, 지금 말을 하면. 거기에 이제 벼도 심어 쌓아놓고 그러는데 거기가 농민위원회인가 그게 있었어.

**인민위원회?** 인민 뭐 하여튼, 농민인지 뭔지 있었고.



고대감집, 옛 태장면사무소와 태장국민학교(1975년)

**농민위원회 맞네. 토지개혁 한 거네요.** 그리고 우리 사랑방은 여성동맹위원회가 있었고, 우리 집에 사랑방을 여성동맹이 있었어.

**그리고 사랑방이 아까 농민위원회인가가 아까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서?** 우리 대문이, 우리 대문을 나가면 여기에 큰 집이 있어. 큰 저기 초가로 된.

**초가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응. 그게 저기 뭐, 우리 창고지.

**창고. 이게 아까 말한 면사무소 창고하고는 다르죠?** 아니죠. 다른 거죠.

**이게 지금 농민위원회가 있었던 거죠?** 네. 농민위원회고.

**그리고 여맹은 어디 있었어요?** 여맹은 여기에 있었어. 여맹은 여기를 다 차지한 거야.

**사랑방을 다 여맹이.** 응, 여맹이 다 차지하고. 이리 지나가서 여기 일광문으로 지나가면 여기 또 큰 방앗간이 있었어요.

**방앗간?** 우리가 이제 디딜방아도 해놓고, 뭐 동네 사람들 방아도 짚어주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는 내무서.

**내무서. 방앗간이. 일광문으로 쪽 나와서 이쪽에 방앗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큰 연자방아가 있었고.

**여기가 일광문?** 응, 그랬어요. 그래 여기 내무서였어요, 여기가.

**면사무소 기억나세요? 면사무소 주변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아까 면사무소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창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창고가 면사무소가 이게 앞이?** 아니 여기가 학교고. 여기가 면사무소. 우리가 여기가 이제 창고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집이 있었지. 앞에서 이제 고 서방네 우리 집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셨어. 그 노인네가 아주 대단한 노인네야 그래도.

그분 뭐하셨는데 그렇게 대단하셨어요? 아니, 그분이 대단한 게, 그 양반이 그렇게 상업 수완이 좋으세요. 노인네라고 장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로 뭐 일상? 그냥 옛날에 그 저기 뭐. 주모는 아니어도. 그 집도 꽤 컸어.

그럼 이제 전체 몇 칸 정도 되는 집이에요? 모르지.

수십 칸은 될 것 같은데? 수십 칸 되죠.

몇 평이었는데 기억나세요? 보통 마당들 시골집 마당? 마당이 넓어, 이 마당도 넓었는데 이 바깥마당은 굉장히 넓지.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는 다 우리 밭, 논 다 이래요.

그 일제 때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까 동네에서. 그럼요. 일제 때도, 내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인지 뭔지 보면 벼농사 지을 때 모 심고 그럴 때는 깃발들 들고 그냥 쪽 서서들 하고 그러더라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같이 농사지으면서 두레 같은 것 하고? 옛날에야 다 동네 사람들이 하죠. 그랬는데 왜정시대 때인데 그렇게 깃발들 들고 그렇게 하더라고, 보면.

## ⊕ 전쟁이 끝나고, 학창시절부터 결혼생활까지

이제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신 거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를 어디를 다니신 거예요? 저는요, 풍문을 처음에 중학교를 들어갔었어요. 그랬다가 고등학교는 이화여고로 갔죠.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1학년까지 다니시고? 네.

근데 어떻게 이제 박지원 선생님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저기 1학년까지 다닌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매일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다고 나가시고, 엄마 아버지가 그냥 서울서부터 여기 태장면까지 택시를 대줬는데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서 그냥 일주일도 좋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하나까 그거를 1년 내내 그랬어요. 그러다 내가 등록하는 걸 놓치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야단맞았지. 응, 등록을 어떻게든지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짓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아버님은 계속 전쟁 후에도 공무원 일을 계속 하셨어요? 네. 공무원 일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죠. 퇴직하고 면에 오셔서 제지공장을 하셨어요.

제지공장? 면이라는 게 여기 태장면에 오셔 가지고? 태장면에 그거를 다시 우리에게 인계를 했어요.

제지공장을 하셨어요. 아까 그 철물 등광상회 했던 거기 말고? 거기가 아니고, 태장국민학교 옆에 면이 있었어, 태장면.

**예. 그 옆에 제지공장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 면사무소를 우리가 다시 인수해서. 면사무소도 꽤 커요, 거기가. 우리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고 제지공장을 하셨는데 재미를 못 보셨지. 공무원에서 퇴직하시고 했으니까.

**제지공장 이름이 뭐였어요?** 몰라.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지공장을 몇 년 정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운영을?** 4~5년 하셨을 거예요.

**많은 안 하셨네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아버님이 여기 계셨겠네요?** 네.

**어머님(고숙자)도 내려오셨어요, 그럼?** 나는 고색에서 살았지.

**이미 결혼한 상태니까.** 응.

**몇 살에 결혼을 하셨는데요?** 난 24살에.

**24살에.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우리 그 고 소령 잔치하는 날 누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 소령님 결혼식 잔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아우 저렇게 훗칠한 조카가 있는데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그냥 1년 내내 그냥 우리 집에, 그땐 전화도 없고 그랬는데 장문의 편지를 써서 우리 아버지한테.

**누가요? 박지원?** 아니요, 그 중매 서는 양반이. 그래서 내가 태장면에서 살아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일만 하시고. 우리 할머니는 사실은 일은 안 하셨지. 노인네들 워낙에 대감집 마나님들이니까.

**근데 살림이 크니까 신경 쓸 게 많지.** 그리고 워낙에 뒤치다꺼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 많은 집에 시집 안 간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 고등학교 되면서 부터 그렇게 이놈 저놈이 막 집적거렸어. 키가 크니까 그런가 봐. 그래서 그냥 일 년 내내 그랬는데, 아버지는, 저희가 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치우려고. 그래서 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인연이 되려니까. 1년 있다 또 와. 그래서 이제 그냥 24살 먹던 12월 달에, 12월 29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해) 이틀 남겨놓고 저거(결혼)를 했죠.

**그럼 결혼하시고 나서 여기 고색동에서 사셨어요?** 아유, 지겹게 살았죠. 사실 난 시골로는 시집 안 간다고. 내가 서울서 계속 살고, 그래서 시골 가면 그 큰 집에 가서, 내가 친정이 큰 집이라 싫다고 안 왔는데. 이제 서울에 집이 있었어요. 박 서방네 집이, 시동생들 시누들 거기서 공부하느라고 가회동에다가 하나 해줬는데 거기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화장대 하나, 입을 것하고, 이불 이런 것만 가져왔어요. 장롱도 안 가져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세간을 내준다고 그러셔서 이제 왔는데.

**안 내주시는구나.** 안 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서울로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때.

**그냥 살림을 떠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그냥.

못 뜨죠. 응, 거기서 주저앉은 거지.

원래는 시가를 떠나려고 했었는데. 그럼요. 장릉이고 뭐고 다 안 가져왔으니까.

서울에 살던 그 짐들도 다 안 갖고 오고 잠시 내려왔다가? 그럼요. 그리고선 그냥 불박이가 된 거지 뭐. 호호호.

### ⊕ 동보연와와 영신연와 이야기

그 아버님(시아버지)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신연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알지요. 영신연와. 영신연와는 70년대에 세운 거예요. 그 전에 동보연와 있고.

네, 연와공장, 수원연와공장이라고 그땐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동보야. 동보인데, 그게 우리 건데. 우리 거였는데, 6·25 때 이제 아버님이 자식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다 폐허가 되고, 그래서 갱생보호회라고 있죠? 거기하고 이제 동업을 하셨어요. 동업을 하셨는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먹어 치운 거지.

토지나 이런 것들 소유권을 바꿔놓지 않으셨어요? 몰라 그런 거는. 내가 오니까 늘 그렇게 법원에 들락날락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동보연와 사람을 우리 집, 우리 집이 꽤 여러 채예요. 그런데 거기서 끼고 사시더라고. 그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었어.

고색동 그 집에, 원래 집에서? 원래 집이. 여기도 내가 시집을 오니까.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가 있어요.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안에 집이 다섯 채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박건유 할아버지가 그 양반이 누에 저거(양잠)를 하셨어. 그분이 여기저기 그렇게 집을 지으셨어. 집 장사처럼.

누에를 치려면? 아니야, 누에도 잠업시험장에서 우리 집에 와서 했어요. 우리 집에 워낙 큰 창고가 있더라고. 그래서 잠업시험장에서 와서, 거기 와서 누에도 하고 그랬고. 나는 하는 걸 못 봤어요.

그 안에 다섯 채나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오니까 이용균이가.

이용균 씨가 그 안에 들어와 살았어요? 응, 우리 집에서 살았어, 그런데 우리 그냥 공장을 먹어 치웠지.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데요? 이북.

피란민이었어요? 응.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청장인가 누구하고.

김친수 씨하고 친해져가지고 그걸 다시 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워낙 자식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신 것 같아.

그리고 토지소유권을 바꿔놓지 않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녀가 마지막에 재판에서. 그래서 졌구나.

네, 토지소유권이 면 소유지였어요. 어머, 나도 모르는 걸 아시네.

그래서 면 소유였기 때문에 결국은 소유권이 아니었던 거고, 건물은 전쟁 때 파괴가 됐는데 이 갱생보호회 쪽에서 건물을 새로 조금 보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이 돼서 우리 집 양반이 70년대에 영신연와를 지은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그게 노가다(노동) 일인데, 얼마나 힘든 건데 하냐고 하지 말라고, 암만 분해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 양반이 그냥 고집을 세워 하더라고. 영신연와 할 때 아주 애로가 많았어요. 이용균 씨가 거기다 못 짓게 하느라고 방해를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양반이 술 한 잔 먹고 와서 울고불고 그냥 이랬어요.

너무 애착이 갔던 거였군요? 아버지, 할아버지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응. 그러더라고. 시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이 된다고. 노인네들이 그렇게 하시고 가신 건데. 내가 오니까 그렇게 아버님이 법원을 드나드시더라고, 검찰에. 동보연와 땅이 굉장히 많았어요. 벽돌장사하면서 돈을 긁었지. 우리 하기 전에는.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호랑이지. 수원에서 우리 시어머니라고 하면 호랑이 시어머니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워낙에 남자 같으셔. 대장부예요.

그 집안이 독립운동도 하고 대장부들이 많았어요? 그 염씨네가 그래요. 그런데 염석주

인가 그 양반이 독립운동 하는데 돈 많이 대주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역사에 나와요?

네, 나와요. 요즘에 책이나 이런 거에 많이 나오세요. 그간에 염석주 선생님 자료가 발굴이 안 된 거예요. 워낙에 그 양반이 만주에 가서.

만주에서 활동하셨어요? 우리 외삼촌이예요, 큰외삼촌. 그랬는데 여기서 사람을 끌고 만주로 가서 저거를 하셨어요.

농장 만들고 그러셨다고. 그러가지고 이제 독립자금을 대고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그렇다는 소리만 들었지.

옛날에 고무공장도 하셨잖아요? 글썄, 고무공장도 동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몰라요, 그거는. 말은 들었지만은.

혹시 사업할 때 쓰셨던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남아 있어요? 아니. 양조장 같은 거 있었는데, 다 내버리고 그 양조장 항아리가 좀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환박정 미소를 한동안 안 했어요. 거기다 봐뒀더니 그냥 다 깨트리고. 그거를 귀한 것을 모르고. 그게 한 50개, 100개 이렇게 있었죠. 우린 거기다가 그렇게 구입하 내 항아리에다가, 그 막걸리 이렇게 했던 데다가 김장을 해. 내가 시집을 오니까 김장을 한 500포기를 해요.

500포기. 그리고 안의 사람들이 일꾼 아줌마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7~8명 있어. 그리고 바깥에 일꾼 아저씨들이 7~8명 있고. 그리고 나는 처

음에 시집왔는데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눈만 뜨면 동네 사람이, 뭐 동네가 몇 안 되지만, 우리 동네 작은 마을, 큰 마을에서는 이제 친척들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한 끼에 밥 한 말씩 해요. 한 말씩.

**한 끼에 한 말이요?** 응. 동네 사람들은 눈만 비비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그냥. 그리고 뭐 밥만 먹어요? 밥 퍼가지. 그럼 그릇까지 없어요.

**밥도 퍼가요?** 우리는 그렇게 없는 사람들 밥, 배는 든든하게 먹고 살아야지 된다고 그렇게 베풀었어. 할아버지, 박건유 할아버지서부터.

**그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옛날에 좀 하시지.**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이제 와서 뭘 좀 끓이려고 하니깐 냄비나 양은그릇이 없어.

**동네 분들이 다 가져 가서 가지고.** 다 가져 가고요. 그리고 이제 놋그릇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놋그릇에다가 이제 화로에다 들여놓고 뭘 끓여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냄비나 뭐 양은 그릇 없어요, 아줌마들 보고 물으면. 아유, 새댁 시집올 때, 저기 100개를 샀대, 그릇을. 10줄이니까 100개인가 보지 뭐. 그렇게 했는데 잔치가 끝나니까 없더라.

**잔치를 하려고 100개를 샀는데, 그거 10줄을 산 건데. 그 아줌마들은 누구예요. 일 봐주는 아줌마들?** 옛날에는 그냥 없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또 이제 세 명은 시집을 보내주고,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면담자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유현희(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면담일시 2020년 7월 8일  
면담장소 구술자 자택 부근 공간대여시설

세 번째 이야기  
이 봉 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일제강점기의 어린 시절

살아남고 살려 주며 겪어낸  
이봉균의 한국전쟁



이봉균은 1932년 여주 점동리에서 태어났다. 이봉균의 아버지 이현옥은 한학을 공부한 분으로, 법명은 동엽(東曄)이었으며 대처승이었다. 이봉균의 어머니는 명성황후와 같은 여흥 민씨 집안사람이었다. 이봉균이 어릴 때 외가에 가면 하인들이 마당을 쓸며 일하고, 도련님 세수시킨다고 뉘대야에 물을 떠오곤 했다.

일제 말기에 이현옥은 만주로 갈 계획을 세워 가족들을 데리고 이북으로 올라갔다. 이봉균과 가족들은 함경북도 회령 황해여관에서 1년을 살았다. 만주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결국 만주 이주를 포기하고 수원으로 내려왔다.

수원에 정착한 이후 이봉균은 화성학원과 신흥국민학교 두 군데 시험을

- 1932년 여주 점동리 출생
- 1939년경 만주 이주 포기 후 함경북도 회령 거주
- 1940년 수원 이주, 신흥초등학교 입학
- 1945년 평택에서 해방을 맞음
- 1946년 수원으로 이주하여 용주사에서 수학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방위군으로 징집
- 1951년 용주사 서무 및 양곡관리
- 1950년대 후반 세무서와 수원시청 공무원
- 1961년 5·16군사쿠데타. 군 미필로 강제 퇴직
- 1960년대 통신사 근무



일제강점기 신평국민학교

보아 모두 합격했는데 공립학교인 신평국민학교를 선택해 1940년경에 1학년으로 입학하였다. 이봉균은 신평국민학교를 다닐 때 일본인 교사에게 맞았던 일을 잊지 못한다. 당시에는 짚신 아니면 게다(일본 사람들이 신는 나막신)를 신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잘 사는 집이나 고무신을 신을 수 있었다. 이봉균은 1학년 때 신발을 넣다 한 짚이 딱 떨어졌는데 야마모토라는 일본인 선생이 줍더니 누구 신발이냐고 물었다. 이봉균이 손을 들자 야마모토가 신발로 이봉균의 양발을 심하게 때렸다고 한다.

신평국민학교 가는 길에는 수원경찰서가 있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사



일제강점기 수원경찰서

람들의 비명소리가 났는데, 소문에 의하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주전자에 고춧가루 물을 타서 코에 붓는 고문을 했다고 한다. 등학교할 때마다 고문당하는 소리를 듣고, 일본인 교사에게 맞으며 학교에 다니다 보니 어린 나이부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생겼다.

매산국민학교는 일본인들만 다니는 학교였다. 그래서 팔달산에 가면 일본 학생들과 마주치곤 했다. 하루는 큰 몽둥이를 들고 기다렸다가 팔달산에 올라오는 매산학교 학생을 두들겨 꽤 다리를 분질러 놓았다. 순사들이 누가 일본 학생을 다치게 했는지 조사하러 왔는데 학생들이 똑같은 머리모양을 하고 있어서 구분을 못하였다. 그래도 잡힐까 봐 불안한 마음에 1~2년은 후





1950년 당시 수원시청(수원박물관 제공)

인민군이 18살부터 30대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줄 세웠다. 빨간 당포바지(위는 평피짐하고 밑은 단추 따위로 여미어 딱 붙도록 만든 바지)를 입은 군인이 올라가더니 군대 갈 사람은 손 들으라고 했는데 이봉균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손을 들었다. 그래서 이봉균도 반동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수원시청(팔달문 옆 옛 수원읍사무소)까지 끌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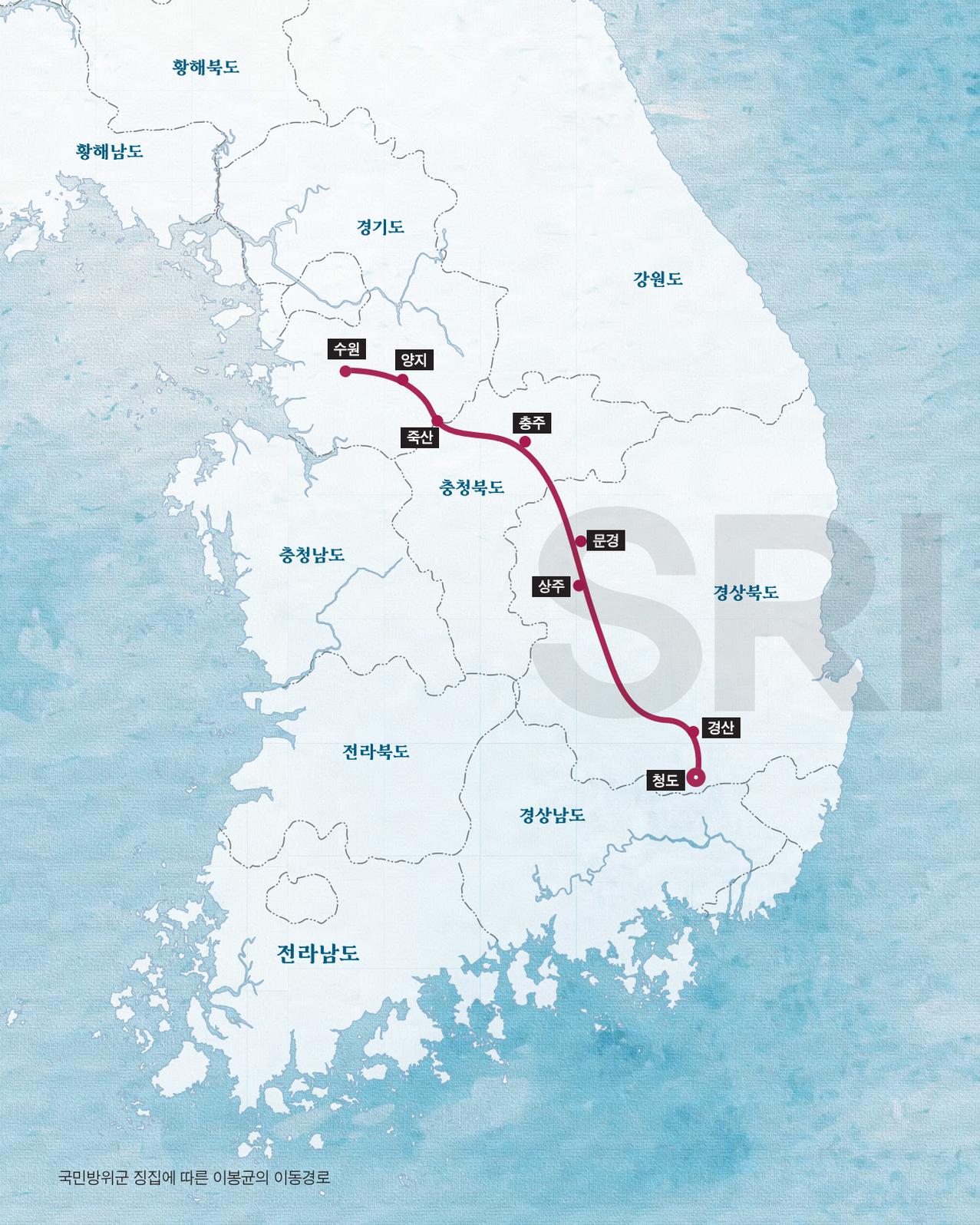
그런데 이봉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민군으로 끌려가면 죽을 것 같았다. 두리번거리다 사무실에 높은 계급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경례를 했다. 읍사무소 근처에 기와집이 쪽 있었는데 이봉균은 그 기와집 옆에 자물통으로 잠가 놓은 창고들을 가리키며 “대장님, 저 집이 우리 집인데 내가 뒤주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저녁에 오시는데 제가 이웃집에 이

열쇠 맡겨 놓으러 나갔다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이봉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갔다 오라고 허락하였다. 나가려는데 밖에 보초를 서고 있던 인민군들이 이봉균을 막아 세웠다. 다시 돌아와 그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보초 서는 인민군들의 정강이를 차면서 통과시켰다. 이봉균은 읍사무소를 나와 그대로 퇴원한 아버지를 모셔 둔 차골로 향하였다.

아버지가 수원에서 돌아가시자 이봉균은 아버지를 봉녕사 앞산에다 모셔 놓고 수리산으로 피난을 갔다. 중간에 잡힐까 봐 일부러 상복을 입고 지팡이도 짚어 상례를 모시는 사람인 척하였다. 그렇게 수리사에서 피난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때 같이 공부하다 국군이 된 친구 김종서를 만났다. 이봉균은 김종서가 인민군에 잡혀 죽을까 봐 옷도 갈아입히고 국군 군복도 없애 버렸다. 하루는 지나가던 노인이 불쌍해서 수리사에 와서 같이 밥을 먹게 했다. 그 노인은 자신이 전라남도 화순 국회의원 조국현(曹國鉉)이니 나중에 찾아오라고 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알아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지만 시혜불념 수혜불망(施惠不念 受惠不忘, 은혜 베푼 것은 잊고,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이라는 신조로 찾아가지는 않았다. 이들과는 9·28수복까지 수리사에서 함께 있었다.

### 고단했던 제2국민병 생활

중국 인민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이승만 정부는 100만 명의 청년들을 제2국민병인 ‘국민방위군’으로 동원하여 후방병력을 두텁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1950년 12월 15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을 국회에



국민방위군 징집에 따른 이봉군의 이동경로

상정, 이튿날 이 법안을 즉시 공포하여 발효시켰다.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의해 경상남북도 일원에 51개 교육대가 설치되었고 청년들이 동원되었다.

이에 12월 31일 국민방위군으로 동원된 화성군 일대 사람들은 전부 수원 공설운동장에 모이게 되었다. 공설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은 면 단위로 구분하였는데, 이봉군은 반월면 사람과 한 조가 되었다. 그 후 다시 분대, 소대, 중대, 대대로 구분을 해 일종의 방위군을 조직하였다. 1·4후퇴 직전이라 국군이 밀려 내려오니까 경기도 용인 양지에서 죽산, 그다음에는 충주, 다음에는 문경으로 이렇게 밤낮 없이 걸어갔다. 식사는 도중의 민간인 집으로 들어가 해결하였다. 일부 국민병들은 밥을 내어 주지 않는 민가에 불을 질러 버렸다. 죽산에서는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절구공이로 대문을 부수고 불을 질러 헌병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봉군은 양지-죽산-충주-문경-상주-경산-청도까지 갔다. 청도에 훈련소가 있어 그곳에 머물렀는데, 훈련소 생활은 배고픔의 연속이었다. 소금물로 몽친 주먹밥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배가 부를 리가 없었다. 배가 고파서 같은 동네에서 방위군으로 나온 최석환과 같이 훈련소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추풍령에 도착할 즈음에 도망친 사람들을 쫓아 죽인다는 소문을 들었다. 할 수 없이 다시 경산에 있는 교육대로 들어갔다. 이봉군은 교육대 분대장이 되어 분대원 통솔을 맡았는데, 무기를 청소하거나 훈련할 때 주의시키는 일을 담당하였다. 하루의 시작은 구보(驅步)였다. 하루는 너무 배고파 구보 도중 서낭당에 제사하고 남겨 둔 밥을 주워 먹다 상관에게 걸려 몽둥이로 맞으며 울면서 먹었던 일도 있었다. 구보 후에는 주먹밥을 주었고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로 반공교육이었고, 군가 부르기, 체식훈련 등도 했다. 무기 사용 훈련보다는 체식훈련이 가장 많았다. 제2국민병이라 군번이 따로 없었는데, 같이 국민병으로 갔던 최석환이 보증을 서 주어서 2014년 국가유공자 6·25



1951년 2월 대구 동천비행장(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참전용사로 인정받았다.

이봉균은 경산 교육대에 있다가 대구 동천비행장으로 차출되었다. 공군 대위가 와서 빠릿빠릿해 보이는 젊은 청년들을 뽑아 갔다. 대구에 도착하자 치킨, 과일 등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같은 부대에 반월면 출신이었던 천 상사가 이봉균에게 다가와 여기 있으면 죽게 되니 돌아가라고 은밀하게 전해 주었다. 그 이유를 묻자 이 부대는 낙하산 부대로, 부대원들은 일본 요코하마에 가서 낙하산 교육을 받은 후 전방에 투하될 예정인데, 문산이나 개성 등 전방에 떨어지면 죽게 될 것이므로 자신이 보내 줄 테니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천 상사 덕분에 낙하산 부대에서 빠져나온 이봉균은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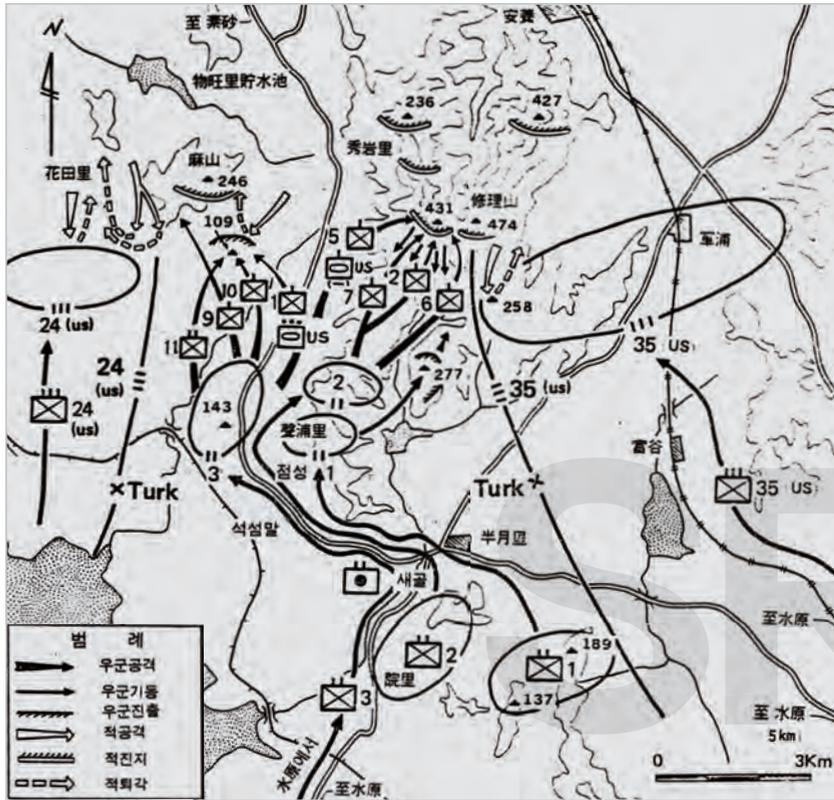
경산으로 내려갔다.

경산에 돌아와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제2국민병에서 해제되어 6월에 수원으로 올라왔다. 돌아오기 전 교육대에서는 대대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전방에 보낼 사람, 집으로 보낼 사람 등을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그때 이봉균이 피를 내었다. 독한 할미꽃 뿌리를 씻어서 엉덩이에 차고 있으면 독이 올라 치질처럼 보인다는 걸 알았다. 당시 치질에 걸리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봉균은 할미꽃 뿌리를 차고 다녀 일부러 엉덩이에 독이 오르게 했다. 그리고 신체검사에서 병이 있다고 판정받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 현역으로 간 사람들은 전쟁에서 많이 죽었다고 한다.

국민방위병에서 해제되었을 때 돈 6만 4,000원과 쌀 두 말씩을 받아 나왔다. 귀가 조치된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오는 길에 보은에서 수수떡을 사 먹었다. 그런데 그 떡을 먹고 급체를 해서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많이 부었다. 보은에서 못 버티고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간호사로 보이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후생사업차를 세우고 이봉균을 태워 주었다. 전쟁 중 신원확인도 안 된 이봉균을 오빠라고 하며 충주 도립병원까지 데려다주었다. 그 사람이 병원에서 주사도 맞히고 치료해 준 덕에 회복할 수 있었다.

### 어머니의 죽음과 절망감

제2국민병을 마치고 돌아온 이봉균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1951년 수리산전투 당시, 다리를 다친 어머니는 수리산 방공호에 숨어 있었는데 미군들이 수리산 수색을 했다. 미군들이 방공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나오라고 했는데 이봉균의 어머니만 안 나오자 미군이 어머



1951년 수리산전투 전황도

니를 공산주의자(빨갱이)로 오해하고는 방공호에 수류탄을 던져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신은 병들어 몸은 고름 투성이가 된 상황에 의지할 곳도 없었다. 너무 절망스러워 죽을 생각도 해 보았으나 동생이 자신을 찾을 것 같았다.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비행단 통역으로 가 있던



1953년 용주사 고아원 고아(수원박물관 제공)

김중서에게 연락을 넣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김중서가 미군 지프차를 가지고 와서 이봉균을 미군 병원에 입원시켰고, 입원한 이봉균은 2주 만에 깨끗이 나왔다.

그 후 이봉균은 다시 용주사에 의탁하였다. 1951년 말에 용주사에는 연합고아원이 있었다. 그때는 고아원에 피란민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고아원의 고아들이 용주사에 수용되었다. 삼일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김병호가 한일고아원, 원불교 고아원, 자혜원(용주사 기본고아원) 등이 연합한 연합고아원 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봉균은 연합고아원 양곡책임자 겸 서무로 일하였다. 연합고아원에는 고아들이 500명 정도 있었는데, 수원고등학교나 수원여고를 다니는 이들도 있었다. 이봉균은 용주사에서 1~2년 정도 있다가 세류동에 터를 잡았다.

### 결혼과 공직생활

이봉균이 용주사를 나와 하숙할 때였다. 밥을 먹는 집이 따로 있었는데 하루는 밥을 먹고 나올 때 큰 금반지 하나가 방에 떨어져 있었다. 금반지를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맡겨 놓을 수도 없어서 금반지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반지를 가만히 지키고 서 있었다. 그 후 그 집 할머니가 들어오자, 이봉균은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이봉균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눈여겨본 할머니는 얼마 뒤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며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그럴 형편이 안 되고 자리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 성의는 고맙지만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며 거절하였다. 그러다 이봉균이 이질에 걸려 몸져누웠는데 주인 내외가 방도 데워 주고 약도 지어다 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결혼 후 세류동에서 부인과 함께(이봉균 제공)



결혼 후 세류동에서 부인과 함께(이봉균 제공)

해 주었다. 이봉균은 자신을 아끼는 할머니를 생각해서 소개를 허락하였다. 그때 중매로 만나 아내와 23살에 결혼을 했다.

결혼 이후 이봉균은 세무서 시험을 봐서 세무서에서 근무하다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국가 주사 3급까지 진급하였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 세력들이 민정을 장악한 후 군 미필자들을 공직에서 퇴출시킴에 따라 이봉균은 강제 퇴직하게 되었다. 그의 국민방위군 복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에는 통신사 등 언론계에 몸담았지만, 가계경제에 어려움이 생겨 가족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다.

이봉균은 전쟁 때 어머니 시신을 못 찾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내가 존재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살아남기에 급급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 삶에서 잠재되어 있던 감정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더욱 미안하고 고맙다고 한다. 아버지로서 잘해 준 것도 없는데 다들 효자로 컸다.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이봉균은 역경과 난관에 처해도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

수원시정안위원회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소

### ⊕ 어린 시절 일제에 대한 적대감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리고 몇 년생이세요?** 출생지는 여주이고 1932년생.

**그럼 여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계속 계신 거예요?** 어려서 여주에서 나왔죠.

**수원 쪽으로 어떻게 오지게 되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옛날에 만주로 가려고, 일본 사람들의 학대가 심해서. 그때는 조선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성(姓)도 갈라고, 창씨개명 하라고 그러니까, 다 귀찮으니까. 회령까지 갔었어요. 함경북도 회령. 거기서 1년을 살다가 국경 넘어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1년을 살다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9살 때 신평을 들어갔다. 옛날에 수원중고등학교 전신이 수원상업학교고, 그 전신이 화성학원이라고 있었어요. 화성학원이 신평학교하고 수원에서 만든 대단한 관계로 상당히 컸죠. 지금 불교 포교당 밑창에 거기.

**거기 남수동 쪽에 있었죠?** 예. 거기 있었죠. 잘 아시네. 저기 밑창에는 김병호 씨가 살고 있었죠. 김병호 씨는 돌아가셨죠, 삼일학교 교장선생님.

**네. 교장선생님이셨던 분이시죠.** 네, 교인이시죠. 그리고 고아운동 하셨고 그랬죠.

**선생님 여주 고향 마을이 무슨 면, 무슨 리였어요?** 여주군 여주읍 점동리. 그니까 민중전(명성황후) 있죠? 민 중전이 우리 외가예요. 그래서 어려서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민 중전, 이미 시해당했지만, 거기를 자주 가던 생각이 나요.

**외가름요?** 예. 외가 민 중전 생가.

**생가를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다 같이 가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은 간 기억이 잘 안 나고,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가서, 그곳에 이제 하인들이 왜포 수건 여기다 동이고 마당 쓸고, 방짜 대야라고 있어요, 그 놈대야. 대야에다 물 떠가지고 도련님 세수시키라고 방에다 떠 드리고. 그런 생각이 나요.

**특별한 날이라서 가신 건 아니고?** 아니고, 가끔 친정이라고 가긴 가셨어요. 어머니가 여흥 민씨거든. 어머니 친정이 되죠.

**그럼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그냥 한학을 하셨어요.

**그 만주를 가려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신 거네요?** 예. 일본 사람들이 국경 넘어가는데 죽인다고 그러니까. 1년을 회령의 황해여관이라고 있어요. 여관에서 1년을 묵었더니 여관비도 많이 나갔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온다는 것이 여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수원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수원에 와서 이제 신풍학교를 다니신 거고요? 그렇죠.

그럼 수원에서 생계를 이어가셔야 되니까,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버님이 학자시기 때문에 노동도 못하시고 해서 (제가) 좀 어려서는 고생을 좀 한 편이예요.

그러셨겠네요. 많이 고생을 했죠. 나는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잘 못한 게 많고, 기를 때 아이들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아이들이 다 효자예요.

그럼 신풍학교 다니실 때 기억하시는 일이 좀 있으세요? 신풍학교 다닐 때에?

1940년쯤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1학년으로 들어가셨어요?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일본 선생이 야마모토라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신발을 짚신 아니면 게다라고 있어요. 막대기 깔아서 못 박아 신는 거. 고무신 신는 사람은 특수한 경우예요. 아주 재력가나 좀 탄탄한 집안에 있는 조선인들이 고무신 정도, 까막 고무신 정도 신는 건데, 내가 1학년 때 (신발을) 넣다가 신발 한 짝이 떨어졌단 말이야. 다른 아이가 넣다가 쳐서 떨어졌는지 내가 넣다가 떨어트린 건지 떨어졌는데 그 야마모토 일본 선생이 신발을 딱 주어가시고, “이거 누구 거야?” 그래서, 내 거라고 손들었더니 그걸로 양쪽 볼을 얼마나 때렸는지, 붙들어 때렸어요. 어려서도 내가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아, 일본 놈들은 진짜 고약한 놈들이구나.’

그렇게 체벌이 심했어요? 그럼요. 집에 가도 말도 못 하죠, 그렇게 맞아도. 그때 산학교가 그때 일본학교예요.

네. 일본인들을 위해 세운 학교죠. 그래서 팔달산에 가서 어쨌든 만나요. 교우해요.

일본인 애들을? 애들을 팔달산에서. 우리는 산에 잘 올라가니까. 그래 머리 전부 박박 쥐았잖아요. 그 일본에 대해서 나도 그냥 적개심이 생기는 거지, 보복심이. 내 그렇게 맞았으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아픈 기억이 있는 거야. ‘일본 놈들 나한테 한번 걸러 보라.’ 그리고 옛날에 신풍학교가 경찰서 (근처에) 있었죠. 등교할 때 그쪽으로 구치소가 있었나 봐. 돼지 잡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주전자에다 고춧가루 물 타가지고, 거꾸로 코에다 붓는 거지 뭐야.

그런 고문 받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들리죠. 그리고 학교 갈 때 들리고, 퇴교할 때 들리고 그러니까 어린 맘에도 그게 잠재의식이 있는 거여. ‘일본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우리 조선 사람들 그렇게 피해를 주는구나.’ 해가지고, 팔달산에 올라갈 때는 이만한 몽둥이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끌고 다녔어요. 매산학교 아이들 올라오면 두들겨 패는 거지. 막 패는 거야, 그냥. 패서 일본 아이들 다리를 둘을 분질러 왔잖아, 내가.

선생님 혼자 싸워가지고? 분질러 났죠. 그런데 머리를 박박 쥐고 똑같은 놈이니까, 전부 갖다 검사하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저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 정문으로 등교를 못 하고 후문으로 한 1년인가 2년을 후문으로 등교를 했어요.

혹시 걸릴까 봐? 잡힐까 봐.

그러면 팔달산에서 혼자 지나시다 일본 애들이 오는 걸 보고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무로 때리고, 일본 애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그렇죠. 그래 분질러 놓으니 까, 일본 아이들은 다 도망가는 거죠. 지들 맞으면 당할까 봐.

몇 명이 더 있었군요? 더 있었죠. 그런 일도 있었고.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애들을 불러놓고 누가 때렸는지 잡는 것은 학교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건 매산 학교 선생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형사들을 시켜가지고서 학교 와서 전부 조사를 하는데, 아픈 환자 입회하에, “싸운 놈이 어떤 놈인가 지적을 해라. 누구한테 맞았나.”

반(班)에서 이렇게 애들 얼굴을 보면서요? 아니지요. 반(班)이 아니고 그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날짜는 몰라도 낮인데, 교문으로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씩 전부, 환자는 드러누워 있고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면서, 잡으라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교문에서 이렇게 한번 돈 거예요? 그럼. 한번 그리 지나갔죠. 근데 그때는 머리를 다 박박 깎아놓고 똑같은 놈이니까 구분을 못해. 그래서 나도 애국지사는 아니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민족의 얼이 어디 한 군데, 민족이라는 양심이 어딘가 한 귀퉁이에는 있구나.’ 그걸 내가 느끼고 사는 거지.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그럼 화성학원은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화성학원하고

신평학교하고 두 군데 시험을 봤어요. 그때는 1학년도 시험을 봐요. 근데 화성학원도 붙고 신평학교도 붙었어요. 두 군데 다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화성학원보다 신평학교가 낫다 그래서 그리 간 거예요.

수원에서는 어디서 사셨어요? 그때는 남수동 살았죠. 수원에서 남수동도 살고, 영화동도 살고, 신평동도 살고, 매산동도 살고. 세류동서 오래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뭐 다른 일을 좀 하시거나 이리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어려서 기억을 하면 상당히 힘들게 사셨어요.

남수동에 거기 나무시장 있었던 것 기억나세요? 나무시장 기억나죠.

아침마다 나무시장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화성학원 앞에 지게로 쭉 지어가지고서 저 광고 쪽에서 거기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집 채우고, 솔가루도 굽고, 삭장구도, 삭장구라는 거 알죠? 삭장구가 뭐냐면 소나무 잎사귀 죽고, 잎사귀 다 떨어진 마른 가지 꺾은 것, 그걸 삭장구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해서 나무시장에 팔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있죠. 여기 지금 화성학원 자리 아신다니까 애긴데, 거기서부터 저 영동시장 저쪽으로 길가로드 쪽 천변 따라서 나뭇짐이 쭉 있었죠.

그럼 아침에 나뭇짐들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쭉 있으면 새벽이나 아침쯤에 장사가 열리는 건가요? 그때 보통 아침에, 전날 나무한 사람들은 이튿날 새벽에 오고, 그날 아침에

간 사람들은 그날 오후에 지고 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도 나무 사러 오는 사람도 쪽 있고 그랬었겠네요, 남수동 쪽에? 그렇죠. 그때는 순전히 나무를 때야 되니까. 솔가루 갈퀴로 굵은 거를 불쏘시개 해가지고, 삭장구를 많이 땀죠.

### ⊕ 용주사 불교전문 정종학림(正宗學林) 수학

몇 학년 때 해방이 된 거예요? 6학년 때였지. 6학년 졸업할 때 해방이 돼가지고 열네 살인가에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어땠어요. 해방됐을 때 상황이? 그때는 내가 평택에 있었어요. 평택 청북이라고 아시는지 몰라요?

네, 청북면. 수원서 살기 힘들니까 아버님이 그리로 가서가지고 시골로 낙향을 하셨어요.

몇 년도에 낙향하신 건데요? 그때가 내가 아마 한 3~4학년 될 거예요. 4학년쯤일 거야.

평택에 연고가 있으셨어요? 그거는 어른들이 하시는 일이라 몰랐는데요. 나야 부모 쫓아다니는 거니까. 어려서야 그거까지야 내가 모르지요.

해방이 됐을 때는 상황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게 느껴지셨어요? 해방됐을 때는 아버님이

태극기를 가지고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기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만세를 불러라. 너도.” 온 식구들이 다 부르던 생각이 나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만세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네 분들이 막 나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노인네들이 몇 사람이 봤죠.

그러면 평택에서는 언제까지 사셨던 거예요? 평택에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시다가 또 이사를 다른 데로 가셨나요? 다시 수원으로 왔죠.

그러면 왔던 당시 수원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는 내가 공부를 한학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면, 용주사에서 했어요.

용주사에서요? 불교전문강원이라고, 전문학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책이 아니고, 이건 초발심자경문 해설문인데, 15살 때 내가 이거를 외웠던 거야.

그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때 거기 주지이셨던 분이 되게 유명한 주지스님이었잖아요. 주지스님이 강대련이라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죽고, 그때는 그 양반 제자 손계조라고 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사도세자를 위해서 그 사찰을 건립했는데.

제사를 모시던 원찰이었죠. 거기 능이 두 개죠?

네. 융통하고 건릉. 그때 그곳에서 어느 분들이 선생님을 가르치신 거예요? 스님들 중에서 누구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으세요? 거기에 이제 손계조하고, 조홍준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한문을 가르쳤거든.

그러면 거기 배우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그때 한 30여 명 있었죠.

그럼 거기서 숙식을 해가면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정조대왕이 용주사에다가 절만 지은 게 아니고 1,400석에 해당하는 땅까지 줬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이면 (소작인들이) 농사지은 걸 마름들이 가지고 다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면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

공짜로 그거를 해주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때 그 스님들도 여러분이 계셨는데, 김복기라고 하는 분은 김복기라는 분은 안릉면 청년대장도 하고, 소방대장도 하고. 스님인데, 거기서 유지예요. 6·25 때 잡혀가지고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달산에 비가 있다고 그러대. 거기에 김복기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애국지사. 그 양반이 감사를 맡고, 법무 보는 양반은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되는데 불교에 태고종이라고 있어요. 태고종 총무원장까지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은 동국대학교 전신인 혜화전문학교 졸업했죠.

맨 처음에 '용주사에서 운영하는 전문학림에 들어가야겠다. 그 학교를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부모님이 '자식을 공부시키려면 그땐 그런 방법이 제일 낫겠다.' 생각하셔서가지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아버님이 불교나 이런 쪽에 좀 관련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는 분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여기 대승원이라고 있죠. 팔달산 밑창에. 거기도 그 용주사에서 공부한 분인데 황성기(黃晟起)라고 혜화전문 나왔고 동국대학교 나왔고, 강원도 고성 사람인데, 동국대학 교수로 있다가 평가교수단 아시죠, 그 평가교수단에도 들었어요. 그 양반이 작고하고 그 자제들이 주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양반 부인은 강원도 고성 사람인데, 피난 때 월남하다가 사망을 했고. 그래가지고 용주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용주사 운영이 막판에 좀 힘들게 되니까, 과수원을 하려고 이태현 박사라고 농대 교수가 와가지고 알선을 해줬어요. 와서 나무 심는 방법이라든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가르쳐 주고.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 진흥청장까지 했죠. 내가 수원 살면서 아니까 고등동 자택에 자주 출입을 했고, 저녁이면 놀러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 용주사에서 몇 년 정도 배우신 거예요? 3년 배웠죠.

주로 불교 경전에 관한 교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랑,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다른 내용은 역사 이런 것하고, 한학하고 주로 그거예요.

한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한학을 가르쳤어요? 이런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하고.

네, 불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학을 배우신 거네요? 그렇죠. 이거 말고 치문(緇門)이라는 게 있었고 서장, 도서, 선요, 절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 경을 보고 이러는 건데, 내가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때. 누구든지 왜 어렸을 때에는 좀 하기

싫잖아요. 그럼 저 화장실에 간다고, 그 출입패가 있었어요, 출입패.

**공부하는 학생들이 출입패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농땡이를 짰는데 그래도 내가 아침에 강(講)을 읽으면 내가 맨날 일등을 했어요. 근데 나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근데 나만 혼자 살아 있는 거야. 그때 나보다 몸도 좋고, 건강하고, 뚱뚱하고, 씨름도 잘 하고 공도 잘 차고 그러던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나만 현재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의 애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겠지만, 삶의 길이를 마음대로 연장은 못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양보도 좀 할 줄 알고, 사양도 좀 할 줄 알고, 너무 이득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가 버릴 것 버려가면서 사는 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약 먹는 것보다 나은 거 같아.

**그러면 아까 김복기 스님이 있었잖아요?** 그 양반은 참 뭐라 그럴까 그 애국자예요.

**청년단 활동이나 이런 거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나 거기 있을 때 그 하는 걸 봤어요.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전에 대한청년단이라고 있어요. 대한청년단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는 그 사람 지시를 다 받아야 돼, 청년들은.

**모임이 용주사에서 있었어요?** 용주사에 있었지만 그때는 전화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편(人便)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동네 나가서 일 보고 또 들어오고, 출퇴근했다고 그랬었어요. 그 자체가 그 아버지 돌아간 돌을 찾아가지고 군 포에 살고 있는데. 한의학 박사야.

**거기서 선생님은 청년단 활동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건 안 하시고?** 나는 안 했죠. 그때 태안 면장으로 있던 정돈규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스님으로 있었고, 우리보다 조금 선배여. 공부를 했었는데 그 양반은 군에 가서 소령인가 중령으로 제대했어요. 그 양반이 농대 이태현 박사라고 아까 얘기했죠? 과수원을 하려고 모신 분. 농대 원예과에 견습생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 양반이.

**용주사가 이제 과수원을 좀 운영해보려고 자기네 학생 중에 한 명을?** 그렇죠.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그분이 승려였나요?** 학생인데도 스님이야.

**그러면 한 분을 그 농대에 학생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태안면장까지 하신 분.** 정돈규. 태안면장도 하고, 화성군 병사계장도 하고 육군 소령으로 제대했나, 중령으로 제대했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해가지고 이 사회에 대해서는 감감하잖아요. 아는 길이 없잖아.

**그죠. 군인으로만 사셨으니까.** 그래 얘기가 중간에 또 잘라서 얘기하는데, (내가) 세무서를 근무하다가, 세무서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전에는 현지 조사 다니고 세무서 다니는 사람 좋아 안 했어요. 내가 ‘이거 국록(國祿)을 먹으면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다는 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행정 관청으로 옮긴 것이 시청으로 옮긴 거예요, 내가. 시청도 시험 봐서 갔어요. 초대 시장 김한복 시장 때 54년도에 갔나, 55년도에 갔나 그래가지고 내가 사회과에 있으면서 시험 봐가지고 그때 지방주사가 있고, 국가 주사가 있어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가 주사 4급 3호급까지 내가 받았어요. 근데 김진표(수원 국회의원)

아버지가 서둔동 사무장을 했던 말이야. 사무장 하다가 나중에 동장까지 했지. 그런데 김진표 아버지가 내 담당이예요.

**어떤 담당?** 내가 시청에서 서둔동을 담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 지시를 받아야 돼. 근데 나이는 나보다 그 사람이 댕살 더 먹었을 거야, 아마. 김진표는 그때 어렸었고, 서호국민학교 다녔지. 아주 옛날 이야기야. 저 싫 없는 초가집만 몇 개 있을 때야, 옛날 이야기야, 아스팔트 하나도 안 하고 진흥청 앞에 가는 길이, 농대 가는 길도 전부 마차길밖에 안 났어. 길이 넓지도 않고, 아스팔트 하나도 안 났을 때 옛날 이야기야.

### ⊕ 전쟁 속에서 살아남고 살려 주고

**저기 용주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뭐 하셨어요?** 마치고 나서 내가 어디 가 있었느냐면 이제 아버님이 위암이 생기셔서가지고 그때 독립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인민군들 오는 바람에 강제 퇴거당해가지고, 내가 의용군 1차로 걸렸었잖아요. 그때는 19살이니까 한창 젊었을 때 말이지.

**그럼 선생님이 용주사에서 공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집에 있으셨어요. 다른 일을 하시지는 않고? 일 안 했죠.**

**집에 있는데 그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님이 그때는 위암이셔서가지고 독립병원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전쟁 난 걸 어떻게 아셨어요. 맨 처음에?** 전쟁 난 것은 난 몰랐는데, 그때는 반월 살 때야. 반월면에 수리사라고 하는 절에 내가 있을 때에 아버님이 어떻게 거기에 계시게 됐어요.

**선생님 승려가 되시고 싶으셨어요?** 나는 그 생각은 없었고 이 공부만.

**공부를 계속 하실 때였구나. 계속 또 수리사에 가서 공부를 하실 때였어요?** 예. 그래 아버님 병환이 나가지고, 마차에다가 장작을 싣고 쌀 두 가마 싣고 이렇게 오는데, 날은 구름 한 점 없는데 천둥을 친단 말이야. 그래서 모 심는 사람들을 보고, “아니 날은 이렇게 밝은데 어떻게 이 천둥을 하느냐.”고 “구름도 안 켜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군. 지금 전쟁 났어. 이 사람야.” 그래서 그 날 전쟁 난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원역에 오니까 빨간 글로다가 경고 뭐 해가지고 ‘괴뢰군 남침’ 써 붙였더라고.

**수원역에 뭐가 빨간 색으로 글씨 써가지고 붙여 놓은 게 있었어요?** 있었죠. 그때는 수원역이 기와집이었어, 기와집.

**네, 맞아요. 기와지붕으로 된 한옥이었어요. 한옥이었어. 6·25 때 전부 포탄 맞아가지고 다 깨지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여기 수원서 잠시 있을 때에 쫓기 행사를 나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쫓기대회 나가면 죽어요.**

**누가 쫓기대회를 만든 건데요?** 매향동 살 때인데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땐 우리 나이도 한창이고 활동할 때 아니어.

인민군들이 쫓기대회에 막 나오라고 사람들 동원하고 그랬던 거군요? 그럼요. 안 나가면 “동무는 반동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공설운동장이 연무동에 있었어. 거기서 종일 이거(쫓기대회) 하다가 오후엔 역전까지 간 거여. 그래가지고 18살부터 서른세 살까지인가 갈래를 이렇게 갈라놓고 그러더니 빨간 당꼬바지 입은 군인이 올라가더니, 군대 갈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둘러보니까 다 (손을) 들고 나만 안 들은 거여. 그러니까 반동이라고 죽이려 들지 몰라서 (손을) 들었지요.

그게 지금 공설운동장에 모아났을 때예요? 아니면 역전까지 갔을 때예요? 쫓기대회 하고 역전까지 가서.

쫓기대회 하고, 역전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의용군으로 갈 사람 손들어라.”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열여덟에서 서른셋까지 사람들을 갈라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들었는데 나만 안 들은 거야.

몇 명이나 거기 모여 있었어요, 열여덟에서 서른셋까지가? 아이고, 수백 명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손을 들은 거예요? 아유 다 들었죠. 그거 안 들면 죽어. 그러니까 수원 남문 옆에 읍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읍사무소까지 끌려왔어요. 와가지고 돼지고기 국을 끓여가지고 주먹밥 하나씩 주고, 공작 담배 두 갑씩 주더라고.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를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무실 보니까 좀 높은 사람 있길래 경례를 했지. 거기서 보면 그 앞에 기와집이 쪽 있었는데, (그 집을) 이만한 자물통으로 뒤란(울타리 안)에서 잠가 놔놔야요. 그래 거짓말을 했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집 두지(뒤주)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열쇠)를 빼 주면서, “대장님, 저 집이 우리 집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실 것 같다. 만일에 이웃집에 (열쇠를) 내가 맡겨놓고 올 테니까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래위로 썩 훑어보더니, “동무 나갔다 오라.”고 말이지. 용감하다고 말이야. 근데 이제 밖에 인민군들이 보초를 서 있잖아. 나가니까 인민군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여. 그래 또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경례 딱 붙이고서, “아 대장님은 저보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합니다.” 이러니까. “간나 이 새끼들” 그러더니 와서 조인트를 막 까더라고. “내가 보냈는데 네까짓 것들이 뭘테 안 보내냐.”고 그래서 거기 나가면서, 저리 돌면서 그냥 튕 거지, 그냥.

어디로 도망치셨어요, 그래서? 다 도망쳐가지고, 지금 축구장(수원월드컵경기장) 있죠? 저 우만동 저 교소도 뒤에 차골이라고 있었어요, 차골. 두 집인가가 있었어요. 그리 엄호진을 친 거야.

아는 집도 아닌데 일단 그리 도망을 치신 거예요? 예. 이제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아버지를 도립병원에서 강제 퇴원시켜가지고 거기 두 집 있는데 거기다 모셔 왔으니까.

왜, 거기에 가 계신 거예요, 아버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아는 집이 있는 건 아니고? 아는 집도 아니고 그냥 피난처로 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 갈 수밖에. 그런데 뒤에서 따발총을 쏘고 쫓아오는데 이 돌이 맞아가지고 발등 찍히고 맞는 기분이 나더라고. 총만 안 맞았지 그때도 사경

을 해맨 거야, 말하자면. 죽을 고비를 넘긴 거지. 그때 나간 사람들은 어디서 죽었냐면 낙동강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핵무기 써가지고. 미국의 워커 장군이, 낙동강 전투에서 핵무기 썼어요. 인민군이고 뭐고 5만인가 10만 인가 한꺼번에 몰살당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난 거기서 죽었을 거야. 아버님이 이제 수원서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 차콜이니까 봉녕사 앞에 산에다가 모셔 놓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산으로 피난을 간 거야. 가는데 중간에 잡힐까 봐 상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지, 내가.

**상(喪)을 치르는 분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잡아가는데. 그니까 내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머리가 멍석했던 것 같아. 젊었을 때도 머리가 남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아, 맘에.

**그래서 가시다가 인민군을 만나든가 그런 건 없으셨어요?** 만나도 그 사람들 말을 못 붙이지. 그리고 난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그러면 “지금 장사(葬事) 지내고 오는 길이다.” 그럼 그만이지.

**그렇게 해서 우만동에서 반월까지는 어떤 경로로 가신 거예요?** 걸어갔죠.

**걸어서 반월로 가는 길, 그때 어떻게 갔어요?** 그때는 반월서 둔대리로 해서.

**둔대리로 해서 올라가셨어요. 군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신 거네요?** 응. 군포로 안 가고, 이쪽 반월면 소재지로 해서.

**면 소재지로 해서 그럼 수리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계속 피난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거야.

**왜요?** 인민군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김종서라고 국군 복을 입은, 국군이니까, 나하고 한 살 차이인가, 두 살 차이인가 친구여. 그런데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 저거 입고 돌아다니면 죽을 것 같아서, 빨리 불러들여가지고 내 옷을 갈아입히고, 군복을 없애버리고.

**선생님이 수리사에 계시는데?** 응.

**김종서라는 분이 수원 사시는 분이셨어요? 아니면 어디 친구셨어요?** 그 사람도 여기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공부하던 사람인데 국군으로 갔었던 거예요?** 국군으로 갔죠. 근데 저기 패잔병으로다가 돌아다니는 거잖아.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우린 쌀은 있으니까 먹여 살린 거야. 그래 국군을 하나 살리고, 또 하나 그 걸빵(걸망) 지고 다니던 노인네인데 살짝 본 건데 바짝 말랐어. 그래서 저 노인네도 불쌍한데 우리 쌀은 많으니까 어려울 때 같이 살다 같이 죽더라도, 어머니보고 저 사람도 밥 좀 해주라고 (그랬지). 불러서 오다가 그 양반 모셨어요.

**어머님도 수리사에 같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9·28수복을 했는데 그 노인네가 “내가 국회의원인데 나 한번 찾아오라.”고. 조국현(曹國鉉)이야 이름이. “그 어디 국회의원입니까?” 그러니까 “전라남도 화순 국회의원이요. 민주당.”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남의 집에서 밥 잘 얻어먹고 피난 잘 했으면

그만이지. 사기 치는 것 같아. 꼭. 사기꾼 아닌가.’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신문에 난 데 보니까, 진짜 조국현이야. 국회의원이야. 내가 오늘 이때까지도 그 집안에 연락한 적도 없고, 찾아간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혜불념(施惠不念) 수혜불망(受惠不忘)’이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잊어버리고 신세를 졌으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게 어려서부터 내 사상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 뭔가 내가 해줬으니까 뭔가 반대급부보다, 그 사람 마음에 부담을 줄 거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뭘 해줘야 되나.’ 난 그거 싫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이 9·28수복 때까지 수리사에서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죠.

### ⊕ 고단했던 제2국민병 생활

9·28수복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수복된 다음에는 내가 그때 12월 31일 날 제2국민병을 수원서 모집을 해가지고 화성군 일대(사람들)도 전부 다 (수원) 공설운동장에 모아서, 밤에.

안 갈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 안 갈 수 없었어요. 1·4후퇴가 내려오는데, 1월 4일 날 (중공군이) 서울 점령한 거 아녀. 그래 12월 31일 날 어디 가 잤느냐면 양지, 양지까지 밤에 걸어가 잔 거여. 그다음에 죽산 가서 잔 거여. 그 다음에 충주 가서 잔 거여. 그다음에 문경 가서 잔 거여. 걸어서 밤에.

밤으로만 걸어 다니신 거예요? 밤낮으로 걸었지, 밤낮으로.

12월 31일 날 모이셨을 때, 거기 공설운동장에 사람들이 다 차 있었어요? 짝 찼죠. 화성군, 수원시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젊은이들은.

모인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구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각 면 단위 로다가.

면 단위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반월 쪽 사람으로 묶여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겠 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몇 명 정도로 다시 묶어요, 선생님? 이제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군대 형태로 사람을 쪽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소대면 소대장이 따로 있는데 그럼 군인이었 어요? 방위군.

방위군에도 군대 형태의 그 조직 체계가 있었던 거예요? 응. 그니까 제2국민병 나갈 때 방위군, 우리가 일종의 방위군 소속이야.

방위군 소속. 그럼 선생님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반월 쪽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가셨던 거예요? 같이 갔지.

한 20~30명 정도가 한 소대? 한 소대 한 30명 정도 돼지.

30명 정도가 같이 이제 쪽 가는 건데, 가시면서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먹는 거는 그때는 난시(亂時)니까, 내려가면서 넌 이 집에, 넌 이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

**언어먹으라고?** 그 집에서 수령을 해야 돼, 강제로다가. 해 먹여야 돼. 안 해먹이면 그 집 불 다 질러버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기 죽산 가다가 문 안 열어 줘가지고, 절구공이로 대문 다 때려 부수고, 옛날에는 짚가리를 많이 쌓아 놔잖아요. 그것도 다 불 지르고 난리 났잖아요. 헌병대가 출동하고 난리 났었지. 문경서도 그랬고.

**그럼 그건 방위군들이 그렇게 불 지르는 거예요?** 제2국민병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성질이 좀 포악한 사람들 있잖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온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행동대가 따로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내가 제2국민병 갔다가 내가 다 죽게 됐지.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만큼씩 들어갔어. 부어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살았을 때 내가 제2국민병을 갔는데, 갔다 오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수리산도 반월서 말이지 중공군이 4만 명이 있었대. 거기다가 포격을 해가지고. 수리산도 전투가 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죽고. (어머니가) 수리산 너머로다가 가셨다가, 방공호에 계시다가 미군 수류탄에 돌아가신 거여. 왜냐면 폭격을 해가지고 다리에 맞아가지고 방공호에 숨어 있었는데, 나오라니까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어머니가 안 나와. 그래 보니까. 미군 검맹이가 “유(you) 코뮤니스트(communist)?” 그러더니 수류탄을 빼가지고 그냥 던진 거여. 코뮤니스트(communist)가 빨갱이예요,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사망하신 거여. 그래 어머니 시체도 난 못 찾았어. 그 담배촌 박달리(안양) 거기를 내가 지난번에 동생하고 갔었어요. 갔다가 산만 쳐다보고 왔는데. 나도 동생이 하나가 있지. 여든하나인가, 둘인가 그럴 거예요. 용띠인데, 군대생활을 한 35년 했지. 그리고 내가 시청에 근무할 때 내가 김한복 시장 때부터 이백일 시장 때

까지 있었거든. 그래 이백일 시장보고 추천서 써 달래가지고, 동생 군인 나갈 때 이 시장이 사인해 줘가지고 군인 나가는데, 그때 내가 간부후보생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지는 빨리 제대해가지고 대학 간다고 일반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준위 달고 병참부에 있었어요. 병참부면 물건 취급하면서 배는 안고프잖아. 근데 병참부에서 있으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지가 미사일로다 돌렸어. 그래가지고 미사일학교 나와 가지고 미국을 세 번 갔다 왔어.

**그럼 어머니가 수리산 방공호에 계시는 때 미군들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다치셔가지고 못 나오시는데 거기다 그냥 폭탄을 넣어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못 나가니까.

**그럼 그때 미군들이 이제 그렇게 수색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거고, 선생님은 이제 국민병으로 맨 처음에 아가 내려가실 때는 아가 12월 31일 날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양재, 죽산 그다음에 어디 가셨다고 하셨죠?** 죽산, 충주. 문경. 상주 함창 그쪽으로 갔는데, 그다음에 그 경산, 청도.

**청도에 가서가지고 어떻게 계셨어요?** 청도 가서 있다가 훈련소에 가 있는데.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줬어요, 훈련소 안에서?** 주먹밥을 요만큼씩 주는데, 그것도 소금물에 다 손 담갔다가 이렇게 뭉쳐주는데 살 수가 없어.

**훈련소에 몇 명이나 있었는데요?** 몇 백 명이지.

**그런 훈련소가 여러 군데 있었던 거죠?** 많았죠. 교육대가 많았지.

**근데 이제 먹는 것은 그런 식?** 근데 이제 아실런지 몰라. 시청에 있던 오광록이라고 있어.

**오광록?** 동장도 했었고, 시청에 무슨 과장도 했는데, 내가 오광록 아버지하고 같이 나갔었거든. 여기 최석환이 몰라요? 세류3동의 최석환. 아마 나하고 한 동갑인데 최석환이하고 같이 나갔지. 그래가지고 그때 배가 고파서 도망쳐가지고 추풍령까지 올라오다가 총으로 쏘 죽인다는 바람에 돌아 내려가서 경산까지 간 것 아니야. 둘이, 그 오광록 아버지하고 둘이 돌아다닌 거여.

**선생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추풍령 고개 올라오면 총에 맞아 죽는다니까, 총 쏜다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걸 올라가다 죽을 테니까, 우리 도로 내려가자. 배가 고파도 도로 내려가자.’

**그래서 다시 내려가셔가지고 어디 가셨던 거예요?** 경산 가 있었죠.

**경산에서도 교육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 교육대예요. 내가 거기 22교육대 3대대 9중대 2소대 2분대 분대장을 했는데, 109사단. 그래가지고 그때는 군번 있는 사람만 국가유공자, 군번 없는 사람도 국가유공자가 많거든, 사실. 학도병도 있고.

**네. 맞아요.** 경찰도 있고, 청년단도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 방위군도 있고. 방위군도 군번 없잖아. 그래 내가 신청을 하러서 신청을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군번이 있으신 거예요?** 난 군번 없이 신청했지.

**근데 조금 전에 분대장을 한 건 국민병 내에서 분대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국가유공자 신청할 때) 보증을 누가 썼느냐면 최석환이하고 오광록 아버지가 보증을 썼어. 그래서 이제 국방부로 해서 육군본부까지 내려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때는 106사단은 있고, 109사단은 없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그때 있었어? 하기 싫으면, 내 여태까지 안 한 것, 나 공무원도 그만둔 지 몇 십 년 됐는데, 그만둬, 하지 마.”

**109사단이 맞아.** 난 109사단이지, 죽어도. 지금도 109사단이야. 예비사단 109사단. 109사단 25연대 3대대 9중대 2소대 2분대 분대장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정부에서 혜택받을 거 하나도 없다.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지금 내가 공무원 생활하다가도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난 사람인데,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나 지금 원치 않는다. 이거 하지 말라.” 말이야. “넣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내가 그때 군대생활 했냐.” 말이지. “106사단은 있었는데 109사단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가.

**그렇죠. 마음이 상하시죠.** 상하죠, 자존심이 있는데. 고생한 사람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날 통보가 왔더라고. 대통령 명의로 해서 국가유공자로 통보가 왔다고. 그게 한 7~8년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분대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대장은 거기서 차출했는지 투표를 했는지 지명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분대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분대장은 내 분대가 아홉 명이면 아홉 명 통솔하는 거지. 내가 이제 그 무기 같은 거 이제 흑 갈 때 되면 무기 청소라든가 이런 거, 닦는 거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러면 분대장이 분대원들한테 이제 주의시키고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때 분대원들이 훈련을 받거나 이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에? 일어나면 구보를 해요.**

**그 부대 안을?** 아니에요. 밖으로 그냥 길바닥으로다 뛰는데.

**그럼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대대 사람들이. 많죠. 그 전체가 뛰는 거야. 근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서낭당이라고 있죠? 서낭당.**

**서낭당 있었죠, 네. 서낭당 보면 왜 밥도 해서 내비(내버려) 두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제사 지내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가서 그거 주먹다 먹다가, 그러면 몽둥이로다 엎드려뻥쳐 시켜 놓고 매 맞고, 몽둥이가 터져도 먹는 거여. 맞으면서 울면서 먹는 거여, 울면서. 그거 뱉어버릴 텐데. 그 생의 애착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럼 아침에 구보를 해서 들어오고? 들어오면 이제 주먹밥 하나씩 주는 거지.**

**그리고 나면 하루가 어떤 식으로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 교육을 정신교육.**

**누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정신교육 시키는 거예요? 반공주의 이런 걸로? 그렇지요. 주로 그런 걸 하고, 군가 같은 것도 부르면, 옛날 그 광복군이 부르던 노래, 다 잊어버렸는데 “백두산이 높이 서서 길이 지키고” 이러던. 조금씩 토막 기억이 있는데 지금 군대들은 그런 노래 하나도 안 하지.**

**군가 가르치고 그다음에 교육받았던 내용들 중에 기억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주로 이제 정신교육 같은 거, 아마 이런 것 했을 거예요.**

**정신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정신교육은 이제 자세한 건 다 잊었지만, 배가 고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배고파도 참아야 된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뭐 정신교육이나 군가를 배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훈련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제식훈련.**

**좌향좌, 우향우 이렇게 열을 갖추는 것? 응, 제식훈련을 많이 했어.**

**제식훈련 하고, 그다음에 총기 가지고 하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총기 가지고 훈련하는 것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거의 제식훈련이 제일 많았네요. 그러면 경산에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경산 있다가 대구 동천비행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공군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갔었어요. 거길**

왔더니 밥도 못 먹던 사람한테 치킨, 과일 같은 거 그냥 막 주고 그래서 살만하더라고.

**미군들이 있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차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위가 와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고, 머릿속에 뭐 들은 것 싶으면 뽑아 가는 거여. 저 현두종 대위여. 나 그 이름이 기억나는데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 내 배 좀 한번 찢러 봐.” 그래가지고 “죽어라.” 하고 내질렀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 봐라 내가 맞았다.” 그러면서 “합격”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비행장에 가서가지고 하셨던 일들이 어떤 거예요?** 거기 가서 며칠 있었지. 잘 먹고 며칠 있었는데, 그 반월면에 천 상사라고 있어, 천 상사. 공군 상사라고.

**반월면 사람인 거예요?** 네. “너, 여기 있다가는 죽으니까 돌아가라.” “왜 죽느냐?” 그랬더니 “이거 낙하산 부대다. 내가 아는 건 전방, 문산이고 개성이고 막 떨어트리니까 다 죽어. 모조리 죽어. 그러니까 내가 보낼 테니까 가라.” 고. 그래가지고 빼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민군도 안 나가려고 도망쳤는데, 생의 애착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경산으로 내려간 거야. 일본 요코하마 가서 낙하산 교육 받아가지고 2주 있다가, 전방에다 떨어트린다는 거야. 막 떨어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나도 수십 번 넘긴 사람이야, 죽을 고비를.

**그러면 경산에는 얼마나 더 계셨어요?** 6월 달쯤 올라왔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경산

와서 한두 달 있었나.

**그러고선 어떻게 해서 다시 수원 집으로 오지게 된 거예요? 그쪽에서 가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때에는 (경산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했어요. 육군 전방으로 보낼 사람 보내고, 집으로 보낼 사람, 귀향시킬 사람 귀향시키고 그랬는데, 그 생의 애착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비겁한 소리지만 할미꽃 있죠? 할미꽃. 뿌리가 독해요. 할미꽃 뿌리를 씻어서 이 히프에다 차면 치질 비슷하게, 의사가 보면 치질로다가. 치질은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할미꽃 뿌리를 패서 차고 다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는 그 개념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신체검사서 병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으로 보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결정을 내렸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현역병으로 다 나간 거지.

### ⊕ 귀향 그리고 용주사 연합고아원 양곡책임자

**그러면 귀가 조치된 사람들과 같이 올라오신 거예요?** 같이 올라왔죠. 같이 올라오다가 보아서 음식을 사먹었는데. 수수떡을 먹은 것 같아, 수수.

**돈이 좀 있으셨어요?** 돈 6만 4,000원하고, 쌀 두 말씩인가 줬어 거기서. 귀향시킬 때. 그때 6만 4,000원이면 화폐개혁 전이니까, 돈의 가치는 없었는데. 하여튼 배고프면 먹을 수 있을 정도야. 그래 그걸 먹고 몸은 쇠약한 데다 떡을

먹고 체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몸이 붓기 시작했지 뭐여. 그래가지고 보은에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어떤 하얀 가운을 입은 적십자 간호원 같아. 지금 생각하니 간호원 같아. 지금 같으면 이름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르는 여자가, 옛날에는 후생사업차가 있었어요. 후생사업차를 여자가 세우니까 서터라고. 우리가 세우면 안 서는데. “이 환자 좀 태워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장작 위에다 올려놨나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를) 오빠라고 그랬나. 그 차 운전대 옆에 타고 자기가 보은서 충주까지 와가지고 충주 무슨 도립병원 같은 데 가서 주사도 놔주고 치료를 해준 것 같아. 생명의 은인이지 뭐야.

**그러네요.** 그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죽게 됐는데 6·25 때 내가 살려줬다는 군인이, 수원비행장 헌병대 통역으로 김종서가.

**김중서 선생님이 수원비행장에 미군 통역으로 가신 거예요?** 응. 갔지. 내 몸이 병으로 잔뜩 고름 들었는데, 동생도 어디로 가고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신 상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의지가 할 데가 없는 거야. 삼촌도 없고. 아버지가 독자이시니까 큰집도 없고 작은집도 없잖아. 그니까 죽을 길밖에 없는 거여. 그래서 용주사 들어가자면 저수지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5~6개월 동안 입었던 속옷이나 빨아 입고 죽는다고 빨래 빨면서 물로 뛰어들어가려다가만히 생각하니 그래도 동생은 나를 찾을 것 아니야. 동생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비행단에다 연락을 했어요. 인편에다가.

**거기에 친구 있다는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응. 그랬더니 통역을 하니까 미군들 데

리고 미군 지프차가 두 대가 와가지고 나를 싣고 비행장에다 입원을 시킨 거야.

**비행장 안에 병원이 있었어요?** 미군 병원 있었지. 좋은 약만 쓰니까 2주 있으니까 살아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세류동삼거리에 이승달네 집, 이승달이라고 그 양반의 집에다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 서울 피난민이 많았잖아. 피난민 불러가지고 나를 누룽밥(눌은밥) 끓여서 먹이라고 하고 그 사람 그때 출근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분이 또 선생님을?** 날 살린 거야. 그니까 그걸 말 뭐라 그러냐면, 지은보은(知恩報恩, 은혜받은 것을 알아 은혜를 갚는다)이야. ‘내가 남한테 평상시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돌아온 거다.’ 난 이렇게도 보는 거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살렸으면 나는 죽을 길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놀리서 이만큼씩 들어갔는데, 살길이 없잖아. 그래서 건방진 얘기지만 ‘세상 사람은 어떤 난관에 처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가슴 아픈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조금 더 아플망정, 상대방이 나를 오해 하더라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인생철학이 아니냐. 난 열다섯 살 때 이거를 읽은 건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도 모르는 자가 많이 있어요. 채근목과위기장(菜根木果慰飢腸, 채소 뿌리랑 목과로 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송락풍초의차색신(松落艸衣遮色身, 송락과 초의 풀로다가 붉은 몸을 가릴 지어다). 야학청운위반례(野鶴靑雲爲伴侶, 들의 날은 학과 푸른 구름으로 벗을 하고). 고잠유곡도잔년(高岑幽曲度殘年, 높은 데 깊은 고을에서 남은 해를 보낼 지어다.). 이제 대충 이런 건데 이거를 눈감고 다 외었으니까, 난 머리는 비상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친구 분은 통역을 계속 하셨고, 선생님은 세류동에서 이제 몸을 추스르셨잖아요. 그때가 몇 살쯤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스무 살 때지. 열아홉 살 때 내려갔으니까, 스무 살 때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러면 한 51년쯤 된 거네요. 내가 용주사밖에 갈 때가 없잖아. 용주사에 그전에 있었으니까. 그리 갔더니 고아원을 전부 하더라고. 그래서 그 김병호 씨 연합고아원 원장 하고, 그 안 여러 단체의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용주사에 여기저기 고아원 하셨던 분들이 다... 아유, 많았죠.

그래서 연합고아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김병호 씨가 연합고아원 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개별 고아원들이.

따로따로 또 있고, 기억나는 다른 고아원들 있으세요? 한일고아원이 거기 있다가 수원 포교당 있죠? 그리 왔었고, 원불교고아원이 있었고, 자혜원이라고 용주사 기본 고아원이 있었고.

그럼 선생님은 연합고아원에서는 뭘 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양곡책임자로 있었어요, 양곡 쌀.

고아원 운영할 때 필요한 양곡들을 관리하시는 일들? 응. 내가 신임을 좀 받았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누가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럼요. 그건.

용주사 스님들이? 여러 분들이. 그때 누구인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뜻이 맞았길래 나한테 물자를 맡겼죠.

그러면 선생님이 용주사에 가서 “저 여기 좀 머무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죠. 허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가 좀 해라.”라고 이제 누가 얘기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서무도 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때는 거기가 안롱면이란 말이야. 근데 군에다가 매월 월말 보고를 하고 인원 보고를 한단 말이야. 근데 고아원 그때 참, 호랑이 담배 필 때야. 쌀이고 뭐고 물자 더 타려면 인원이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사 나올 때는 그 화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화산초등학교 교장이 김병호라고, 김병호 씨가 교장할 때인데.

학생을 빌려오는군요? 조사 나올 때는 학생들 불러가지고 거기다 세워 놓고, 세어가지고.

숫자를 세고. 그렇게들 해가지고. 그런 게 하여튼 기억이 나요.

그럼 서무일도 도와주시고, 양곡 관리도 해주시고 이랬던 거죠? 그렇죠.

그럼 연합고아원 학생들이 다 용주사에서 먹고 자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몇 명이나 됐어요? 그때 많았죠. 한 500명 이상이에요.

그 시기에 그럼 용주사에는 스님들이 있었고, 선생님처럼 좀 와서 의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아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개 그 정도예요.

그러면 밥 해주고 이런 분들도 엄청 많이 계셨겠네요? 밥 해주고 이런 분들은 민호식이 라고 저 평동 동장하던 친구의 장모가 했었어요. 피난민인데.

평동 동장 장모님이 피난민인데 거기 와서 밥을 해주거나 이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

평동 동장님 성함이? 민호식. 시청에도 있었지. 민호식이라고 수고(수원고등학교) 나오고 그 사람도 팔십은 넘었을 거예요. 저쪽 원천동인가 그쪽으로도 동장을 했었고. 그런데 애가 나한테는 잘 했어요. 그 민호식이 부인이 김영자라고, 그 고아원에 있으면서 수여고를 다녔으니까 그때, 옛날이야, 옛날.

그러면 당시 학교도 이제 다니게 해줬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용주사에서 수여교라 든가 이렇게 다녔던 거네요? 수여고 뭐 수원고등학교 뭐 다 다녔어.

세류동에 있다가 용주사로 오신 거잖아요. 용주사에서는 얼마 정도 계셨던 거예요? 확실하게 몰라도 한 1~2년 있었을 거예요. 있다가 이제 세류동 와서 터를 잡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 병을 앓을 때는 세류동에 있다가 병이 낫고 나서 거기(용주사)서 일을 본 거여. 일을 보다가 또 내가 이쪽에 발판이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다 머리를 돌렸는데.

## ☉ 세무 공무원에서 수원시 공무원으로

그러면 그때쯤에 이제 세무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세무서 간 거는 여기 와서 장가 간 다음에. 그때 하숙을 했었는데, 밥 먹는 집이 있었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금반지가 이만한 게 여기 방에 떨어졌단 말이여. 그래 내가 꼼짝을 못 한 거여. 그거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누구를 불러서 줄 수도 없고, 아무나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반지 주인 들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여. 그런데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보고, 이거 금반지를 여기다 놓고 내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 그 양반이. 하루는 나보고 장가를 들었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대. 그래서 지금 장가들 형편도 못 되고,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성의는 고맙지만 지금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옛날에는 그 이질 같은 게 잘 걸렸어요. 그런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병이 났는데 두 노인네가 방을 뜨듯하게 때주고, 약을 지어다주고 그렇게 지성껏 하는데 내가 눈치는 있잖아요. ‘저 양반이 나를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낮잠 자면 시장에 가서 채소 팔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생선 사다가 먹게 해주고 말이지. 내가 허락을 한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였구나? 그렇죠.

그럼 그때가 스물세 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스물세 살쯤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고 졸업한 김동천이라고 있어. 나보다 세 살인가 더 먹었는데 친구야. 근데 세무서 시험을 보러 가고 그래.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같이 갔지. 갔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내가 불

있어. 그때는 관청에 붙었다 하면 상당히 사회에서 인정해줬고, 지금 말하는 문자로 알아줬어요, 진짜.

**무슨 시험, 뭘 봤던 거예요?** 구두시험도 보고 필기시험도 보고 그런 기억은 있는데 뭘 봤는지 자세히 몰라.

**합격은 어땠든 되시고?** 합격자 발표날 가보니까.

**합격자 발표를 어디 가서 보신 거예요?** 세무서 앞에? 세무서 앞에.

**매산로에 가서 보신 거네요?** 언제쯤 와보라고 해서 계서판에 가보니까 이름 있는데, 수고 나온 김동천이라는 친구는 떨어졌더라고. 그래 친구는 학교 교편생활로 갔어요. 선생으로.

**어디 학교로 가신 거예요?** 그 양반은 경기도 내 학교 다 다녔지.

**그렇게 해서 세무서에 들어가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세무서에서 농지대장 정리.

**세무서에서도 농지대장을 정리했어요?** 예, 했어요.

**그거는 거의 면에서 사무하는 거 있었는데 왜 선생님이?** 그게 아마 재산세 매기는 데 필요했던 모양이야.

**그러면 면에서 농지대장이 오면?** 농지가 아니고 토지대장, 토지.

**그렇죠, 토지대장이죠. 토지대장을 다 기입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거 전부 쓴 것 같아, 내 맘에. 그런데 술(酒) 조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세무서에서 옛날에. 그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악수하고 인사는 하는데 뒤를 돌아서면 뒤통수에다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마음에. ‘저 사람 관청에 다니는데 세무서 직원이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관청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수원시청을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계속 1년 동안 토지대장을 정리하거나 이런 일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류 단속 나가거나 조사하러 나가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 단계까지 왔죠.

**가신 적 있으세요?** 가지를 앓았죠. 갈 것 같은 직감이 들길래, 사람이 물이 터질 것 같으면 미리 독을 막아야 되듯이, 사람은 미리 예측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가 빠질 필요가 없다.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청으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시험을 다시 치신 거예요. 이제 시청 들어가는 시험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으면 안 붙을 것 같은데, 그때는 붙었어요.

**그때도 필기시험 같은 것도 치고 그랬던 건가요?** 그랬지요.

**그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으로 치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상장 같은 거 전부 인쇄해가지고 나오지만, 그때는 붓으

로 썼잖아요. 시청에서 상장 같은 거 쓸 때는 나보고 써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써주고 그런 기억이 지금 나요.

시험을 치러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시청에서 시험 기관이 있었어요. 그때는 돌집.

돌집? 저 권선구청 자리, 돌집.

그니까 권선구청 돌집, 거기 벌써 신축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신축된 건물 전에는? 그때는 남문 옆에.

읍사무소를 시청으로 사용했어요? 읍사무소에 있었죠.

그 돌집 옆에 빨간색으로 된 일제시기 건물이 있었잖아요? 응, 있지. 거기는 의회가 있었고.

거기엔 의회만 있었어요? 응. 의회에서 내가 감사받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돌집이 생기기 전에 업무는 읍사무소였던 곳을 수원시청으로 활용을 하고, 그 빨간 색 옛날 건물은 시의회만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응, 시의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헐어가지고 없어졌는데 문화원 자리가 있어요. 거기 조그만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보건소 설치를 해가지고 보건소를 만들 때 내가 사회과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 주사들끼리. 그 청소사업 하고 이런 거 내가 주관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시험을 치러 갔을 때는 돌집이었죠? 돌집이었죠.

고등 돌집 형태의 그 시청에서 이제 시험을 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과로 배당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 업무 중의 하나가 보건소 설치, 그다음 청소와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호청 생기기 전에, 원호계라는 게 있었어요. 연금 주고, 또 상이용사들 부조금 주고, 그땐 예산도 없었잖아요. (상이군인이) 갈쿠리(상이군인의 손)로 “딱” 이거 찍으면서 돈 내라고 그러면 내가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그럼 시장실로 이 사람들은 뛰어올라가가지고 그 이튿날 출근하면 시장이 불러가지고 “인마, 내 돈 뺏겼으니까 너도 내라.”고 그렇게 어렵게 살림살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의회가 좀 더 힘이 세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시의회가 조금 막강했죠.

그때 의원님들 중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윤궁렬 씨.

윤궁렬 씨 기억하세요? 기억나지요. 윤궁렬 씨 시장으로 같이 모시고 있었는데.

그러셨네요. 60년에? 그리고 이제 이백일 시장. 이백일 시장 때 내가 그만둔 거예요.

김한복 시장님은 어떠셨어요? 김한복 시장은 그 아들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재식이라고. 김한복 시장은 여기서 그만두고 서울로 갔다가 어떻게 됐다는데, 그 양반은 조금 관료적이죠.

아까 문화원이 있었던 건물 1층에다가 이제 보건소를 설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서 초대 보건소장이 매교동 의사인데 송 모시기인데, 의사 하나 간호 하나 있었어.

**그때 보건소가 그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보건소를 만들어야겠다.'는 건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그건 아마 윗사람들이 한 거니까는 우리가 잔무 정리만 했지. 우리가 무슨 공청을 해서 “뭐 하자.” 결의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때 50년대 중반인데?** 50년대 중반이죠. 55년인가 56년인가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예, 그렇죠. 56년쯤 됐을 거예요. 시청이 56년에 새로 개청을 하니까, 그럼 56년 이후 시청 업무라든가 이런 체계가 어땠나요? 선생님은 사회과에 있었고 또 산업계가 있었잖아요? 산업과도 있었죠.**

**예, 산업과가 있었고 뭐 총무나 이런 쪽이?** 산업과장이 박해문이라고, 시장한테 밀고를 한 사람이 있었어.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매교동 출장을 나갔었는데 그날 비가 조금 왔어요. 장기를 뒀거든. 그 이튿날 갔더니 시장실에서 불러. “공무원이 다니면서 장기나 두고 말이지 그래갖고 되겠다.”고 시장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비가 와가지고 잠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어.” 그래 그냥 나왔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박해문 씨가 위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박해문이가 시장한테 가서 금방 이른 거야. 박해문 씨가 하여튼 빨랐어요.

**김한복 시장 당시 가장 파위가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파위 있었던 사람은 그때 부

시장이 이실경 씨야. 이실경 씨 부시장이고, 사회과장은 윤홍민 씨. 일본 사무라이 같이 생겼는데, 아주 관료적이지.

**거기 공무원 중에서 일제시기부터 일하던 분들도 계셨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동네 사는 이기한 씨라고 그 사람도 시청에 근무했었는데, 나보다 연세는 많이 위인데, 나 들어갈 때 주사가 안 됐고 일반 서기로 있었어. 초대 시의원이 이홍범이라고 이 동네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죽고.

**이홍범 씨는 뭐하던 분이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전에?** 이홍범 씨는 젊었을 때는 서울에서 경찰관 생활했어요. 용산경찰서 무슨 파출소에 있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뭘 훔쳤다고 누구를 잡아 왔는데 불쌍하더라. 그래서 순사가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고, 보초 서면서 총을 메고 한 바퀴 돌았대, 길을. 그니까 문을 돌았겠지. 그런데 그놈이 그냥 앉아 있는 거여. 그니까 “야 이놈아, 나도 병신이지만 너도 병신이다.” 그리고 발로 차서 내쫓았대. 그니까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착하면서, 사람이 일장일단이 있잖아. 유도리가 없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사람마다.

**그 당시에 사회과에 계시면서 상이군인들한테 그런 걸 지급하는 게 있었고, 전쟁미망인들 모아 놓고 직업과 관련된 원가 공장 같은 게 있지 않았어요, 운영하는 게? 그거는 내가 안 했어요. 내 소관이 아니었어. 모녀계가 따로 있었으니까. 나는 군경원호니까.**

**군경원호만 하셨던 거였구나. 혹시 피난민들한테 지급하는 것들, 배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억 안 나세요?** 그것도 내가 취급 안 했어요. 그건 사회계에서 했을 거야. 아마. 사회계 그땐 이동전이 사회계장인가. 그리고 이민구, 보건계장은 조한복이 했었

고, 사회과장은 윤홍범이가 했었고, 내가 군경업무계장 할 때는 지금 동수원 병원 원장의 동서 있어요. 저 최동주라고, 동수원병원 원장이 변상현인데, 손윗동서가 최동주라고 있었어. 그 사람이 거기 있었고, 또 유가족회 경기도 지부장하던 송 모인데, 그 양반이 거기 있었고, 내가 그다음에 갔을 거야, 아마.

**그러면 사회계 쪽 일을 하시다가 그다음 어떤 부서로 이동하셨어요?** 나는 얼마 안 있다가 61년도에 그만뒀으니까.

**그래도 한 4~5년은 하신 거잖아요. 계속 사회계만 계셨던 거예요? 사회과나 원호계?** 그렇죠, 계속 그 자리만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사도 됐고, 그 자리에서 계장도 했고, 직원도 데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갈 수가 없었지.

**그러면 김한복 시장 당시 도가니공장 사건 기억하세요? 대한방직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도가니공장 터로 관련돼서 사건이 크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윤금렬 씨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잠깐 있었어.

**예. 잠깐 있었잖아요. 한 1년.** 저 이백일 시장 오기 때문에 밀려난 거여.

### ⑤ 5·16군사쿠데타 이후 수원시정의 변화

**그죠. 5·16 때문에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시청 위예다가 기관총 달아 놓고 그 때 이백일이 소령 때 와가지고, (군인) 그만둘 때는 별 달고 그만뒀을걸, 아마.

**5·16 때 기억이 나세요? 이제 60년이 됐을 때 윤금렬 씨가 시장이었다가 5·16이 터지잖아요?**

**5·16이 나자마자 시청 분위기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5·16 나던 날, 시청 급사가 지금은 체계가 잡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했지만 그때는 노인네들이 했었어요. 송씨라는 노인네가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나한테 왔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총질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시청에 다 기관포 달아 났으니까 계장님 출근하지 말라.”고.

**시청에다 기관포를 아예 달아 났다고요?** 응. 기관총 달아났었지.

**어디에다가?** 시청 옥상에, 기관총 달아났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예산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다 못 주잖아. 그러니까 “상이용사들이 계장을 혼낸다고 전부 모여서 있으니까, 계장님 출근하지 말라.”고, 자전거 타고 왔더라고 급사가. 그다음에는 내가 현병들이 와가지고 지프차 타고 출근을 했어요.

**현병들이 선생님 집으로 와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다음 날인가. 왜냐하면 그 상이용사들이 전부 집결해가지고 해(害)를 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보니 전부 서류함에 봉인을 다 붙였더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돈 안 준다고 아우성치니까. 그 정부 잡은 사람들이 (내가) 나쁜 습관이나 가져서 돈 주라는 것도 안 주고 뭐 사유(私有)나 했나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만 딱 붙여 놓은 거야. 그래 난 기록 봉인 다 떼고, 전부 서류 검열하고 보니까 10원 일절 하나 뭐 까딱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해산시키고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그만둔 거여. 내가 8월 달에 그만뒀나.

그러면 그날 문제가 없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출근을 하신 거겠네요? 출근했죠.

출근을 하자마자 시 안의 윤궁렬 씨는 어떻게 되셨어요? 윤궁렬 씨는 그때 이백일 시장 오면서 그냥 유아무야 그만둔 거여.

큰 충돌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런 건 없었지. 충돌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시청 내에 직원들도 교체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과장급들이나 이런 사람들, 군인으로 바뀐 경우는 없었어요? 저기 사회과장이 나중에 신근호 씨가 와가지고, 그 양반이 부시장이 됐지.

이분이 군인이세요? 아니요. 사회과장 하다가 이백일 시장, 그때는 시장이 전권 시대야. 시장이 법원 원장이고, 경찰서장이고 뭐. 시장 말 한마디면 그만이여.

5·16 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군인 시장이 이것저것 다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맘대로야. 그냥 휘저은 거야. 그때 학교 선생 무슨 동호회를 시켜가지고 청소를 했나, 뭐 하는 것도 시청 직원이 가서 말 한마디 하면 교장이 절절 매고 말이지.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지.

군인 시장이 오면서 이제 그렇게? 그럼.

시 안에서 그러면 시장이 바뀐 거 외에 인사적인 변동은 별로 없었어요? 인사적인 변동은

오 상사라고 있었고, 하 중위라고 있었는데, 일개 상사가 그까짓 거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볼 때는. 와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검열하는 척하고, 아니꼬워도 말 한마디 못 한 거여.

군인 신분의 사람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 시장이 올 때 데리고 온 거여. 중위 하나하고 상사 하나하고 데리고 왔던 거여.

그럼 그 사람들은 와서 어떤 직책을 받은 건 아니고 개인 비서 형태로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시장이 개별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무단적으로 서류들을 막 보면서 감시하고 그런 거예요? 감시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 없는지 그냥 감시해서 어느 놈이 뭐 잘못하는 거 군대식으로다가. 그리고 아침에는 시청 옥상에 가서 그 주머니 센터, 앞뒤로다가 주머니 센터 점검하고, 주머니 전부 뒤져보고, 비리 같은 거 뭐 없나.

아침에 옥상에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조회시키는 형태인 거죠? 혁명공약 물어보고, 댓가지 막대기로 푹푹 찢러가면서 말이지. “혁명공약 몇 조 몇 항 불러봐.” 이러고, 모르면 이쪽 따로 나와 서라고 군대식으로다가 그랬다고.

그럼 맨 처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불만도 생기지 않았어요? 불만이 생겨도 그때는 서슬이 시퍼런데 어떻게 해. 뭐 불가항력이지.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거나? 아니야. 얘기도 못해, 그

때는.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말도 못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좀 걱정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막 바뀌면서?** 그때는 감히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죄가 없어도 그만두고 집에 가 애 보라고 하면 애보는 거지. 반기도 못 들어, 그때는.

**그렇게 그만두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때 하도 오래돼서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이제 4·19 같은 경우에 부정선거 때문에 발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3·15부정선거 이후에, 그때 수원시 상황은 어땠나요? 그때 선거 업무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좀 했잖아요?** 4·19 때는 아마 내가 일을 보다가 주사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주사를 하던 허용진이 계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표를 내고 잠시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의 변동사항은 잘 모르지. 그런데 그 이병욱이라고.

**이병욱 씨?** 경리 보던 사람이 이것을 좀 어떻게 작살을 냈나 봐.

**돈을 좀 받은 게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 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임의로다 썼다든가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계장이 찢리게 되니까 집에 있는 나를 부르러 왔단 말이야. 수습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장부를 한 보름 동안 내가 전부 고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경찰서 정보과가 아니고 사찰계예요. 그때 거기에 잘못되면 시장까지도 문제가 되고, 과장도 문제되고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든지 사고만 마무리가 되면 조용하잖아. 그니까 그거를 마무리할 사람은 담당자가 나다, 먼저

하던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필요해서 날 부른 거 같아.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사표 내고 안 갔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5·16이 되고 난 다음에 8월에 그만두신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8월이죠. 병역 미필로 잘린 거야. 왜냐면 군번만 못 받았지 전투 행위도 다 하고, 군대도 나가고, 훈련도 받고 다 했는데 억울하게 잘린 거지, 사실은. 근데 항의도 못하는 거야.

**그 시기에는 그렇죠.** 항의도 못 해. 왜, 61년도니까 벌써 몇 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 파란곡절이라는 건 말도 못 하지. 이 사회에서 파란곡절이라는 건 말도 다 형용을 못 하지. 애들 많이 고생시키고, 식구도 다 고생하고.

**위에서는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군 미필자는 군대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다시 공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못 가신 거죠, 나이가 너무 드시고?** 그렇지. 그때는 벌써 내가 스물여덟, 아홉, 서른 다 가니까. 갈 수가 없었지.

## ⊕ 강제 퇴직 후의 삶과 1960년대 수원 정치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그만두고 나서는 계속 사카 발질(헛발질)한 거지 뭐. 사카 발질이라고, 뛰다가 넘어진다든가 엎어진다든가, 자빠지고 아유 그러고 살은 거야. 그런데 정신만큼은 변동이 없었지. ‘내가 어떤 역경과 난관에 처하더라도 내 운명으로 알고 살아야지. 내가 이것을 역행하면, 내가 나 자신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 자신이 자신을 거부하

면 못 사는 거 아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운명이 나보다 못된 사람도 있는 것이 뭐냐면, 팔다리 없는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데, 난 사족은 있지 않냐.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태 존재하는 거지. 그거를 전부 불만으로 알고 사회를 그렇게 하겠다면 벌써 심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기도 하고, 직장도 가져보시기도 하고 이리시다가?** 내가 저 뭐 해본다고 그러다가 실패 많이 했죠. 아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회를 알려면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방법은 언론계가 좀 빠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언론계로 잠시 발 들여놨었죠.

**어디 언론?** 지금 연합통신 있죠? 연합통신이 옛날에 동화통신, 로이터통신에도 있었고, 또 경제지에도 있었고. 그래서 기사 쓰는 데 중점을 뒀지. 무슨 취재에다가 무슨 낙인을 찍거나 그런 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근무지가 어디예요?** 근무지가 동화통신에 있을 때는 서울이지.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원에도 지사가 있으니까, 수원에 무전기가 있고. 무전으로다 치고 또 거기서 무전으로 오면 무전 받아가지고, 옛날에 가리방(등사관)을 굶어가지고 통신으로 전부 내보냈잖아요.

**가리방으로 굶어가지고 통신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리방을 굶어가지고 전부 인쇄해가지고, 100부고, 200부고, 300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원 시켜가지고, 통신이니까 하루 몇 번씩 나가지. 하루 서너 번 나갔을 거야 아마.

**그 수원지사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남문 옆 우측에 평화예식장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평화예식장 건물에 있었다고요?** 응, 그 2층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언론계 쪽에서는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한 5~6년 있었나. 내가 해보니까 그 비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말단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되는 것은 대화로 전부 풀어줬어요. 다 굶으면 다 죽어요, 그 사람들.

**어디 공무원들이요. 수원시?** 행정 공무원이고 시에 있는 공무원이고 다인데 다 걸리죠, 그때는. 우리는 그렇게 나쁜 기사를 많이 안 쓰고 사회가 정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고 그랬지. 무슨 빼돌어진 기사 쓰기 때문에 인신 공격적인 기사는 나는 안 쓰는 걸로다가 아주 못을 박았어요. 기사도 많이 썼죠.

**그러면 50년대 수원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수원 세대가 전부 1만 3,000세대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1만 2,000세대인가 그것밖에 없었고. 그때는 동이 18개 동인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한 50개 동 될 걸요? 그때는 18개 동이야. 그래 갖고 그때 국회의원으로 홍길선이 있을 때고.

**홍길선 씨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나세요?** 홍길선이 기억나지요. 왜, 설경동하고 같이

붙었었는데 그 팔달산 위에 그 망대 지어놓은 거 설경동이 지어 놓은 것 아니에요. 대한방직 사장이 지어놓은 건데, 홍길선이 뭐라 그랬냐면, “저거 내가 지어놓은 거라.”고. “내가 아니면 저 설경동이 짓겠냐.” 홍길선은 그 후에 이민 간 걸로 내 기억을 해요. 설경동은 국회의원 결국은 못 했고. 그때 자유당 부위원장을 이동성이 했었는데, 쥐었다 폼다를 많이 했지. 이거(돈)를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설경동의 아들한테 따귀 맞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꾸 설경동 쪽한테 돈을 계속 요구해가지고, 이동성이 설경동 아들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 맞을 걸로 그때 들은 거요, 그때. 선경(SK그룹)도 어려웠었어요. 그 최학배 할아버지가 저기고, 최종건이가 회장을 했었고. 최종건이가 죽고 나서 최종현이, 지금은 손자가 할걸, 아마.

**최학배 씨는 어렸는지 기억하시는 게 있으세요?** 최학배는 최종건이 아버지지 뭐. 그 양반은 노인네라는 것밖에 기억 안 나고 몇 번 보기는 봤는데, 내가 뭐 깊이 사귀 정도도 아니고. 그때 선경이 어려워 가지고 이백일 시장 된 다음에 시에 이야기해서 800만 원인가 얼마 용자를 해 준 것으로 내 기억을 하고 있거든.

**김한복 시장 같은 경우 원래 수원 쪽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시장이 되려면 이제 기반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김한복 시장이 뭐를 잘 한다 내지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몇 번에 걸쳐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양반이 그 줄을 잘 타는 것 같아.

**어떤 줄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세들 손을 잘 잡는다든가, 인심을 안 잃는

다든가, 진상을 잘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겠지.

**어느 그뻐 누가 실세예요?** 그때는 자유당 때니까는 자유당이 실세지.

**당이나 이런 정치인들하고 좀.** 그렇지. 그때는 자유당의 실세가 아니면 배겨나질 못했잖아요. 그 3·15부정선거 난 다음에 부정선거 할 때 3인조, 6인조, 9인조 공개투표하는 거 그거 모르죠? 경찰관이 입회하에서 밤에 4할 사전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만약에 100명이 산다면 40명은 선거관리위원들하고 그 지역에 나가서, 밤에 전부 찍고(투표하고), 그 사람들은 투표 나와도 투표를 못 하게 하고, 나머지만 투표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투표할 때도 양쪽에 커튼 내려놓고, 찍는 거 서로 봐야 돼. 3인조가 한꺼번에 셋이 들어가서, 셋이 찍는 거 서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 일도 더 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3·15부정선거 하고 나서 내가 민주당 사무실에 뛰어 올라간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뭐하는 거냐? 자유당에선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은 왜 이런 것도 못 막고 있느냐. 부정선거한 사람만 나쁘다 그러지 말고 못 막는 너희도 나쁜 놈들 아니냐.

**그때 민주당은 누구였어요?** 그때 민주당에 윤궁렬이 동생 윤응렬이라고 있었어. 윤응렬이 그때 민주당 위원장 했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젊은 사람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말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는 살았지 않나. ‘비록 내가 가진 건 없고, 수원 사회에서 큰일 한 것은 없어도 생각만큼은 건전하지 않으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걸로 생각이 돼.

**그 민주당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어요?** 민주당 사무실이 지금 아담다방 있지?

**아담다방이요?** 중동파출소 있지. 옛날에? 조금 내려오면 아담다방이라고 있어. 2층인가, 3층인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 그 윤응렬이하고 소방서장 하던 심원조하고 친했어. 그 사람은 관재 소방서장인데 그 사람하고 윤응렬이하고 아주 아삼륙(서로 꼭 맞는 짝)이었어요. 가까웠어요. 같이 다니면서 아마 수원 정치는 그 사람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 윤응렬 씨 있고, 그다음에 아까 소방서장 했던 분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민주당에 가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윤응렬이하고 심원재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그 장세걸 씨는 기억하세요?** 장세걸이 고등동? 그 바른 소리 잘하고 시의원 했지 아마. 장세걸 씨 그 아주 그 일본말로 모노(もの, 物)여, 물건이여.

**어떤 면에서요?** 바른 소리 잘하고, 그 바른 길로 잘 가라고 인도 잘 해주고,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내가.

**시 행정이나 이런 것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니까 시 행정이고 일반 사회생활이고 뭐 그런 것 다 장세걸 씨가 하는 것 보면.

**장세걸 씨가 시의원 하기 전에 뭐 하셨던 본인지는 기억하세요?** 그분이 약간 정치적인 활동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난 시의원 한 것만 알아요. 더 이상은 몰라. 장세걸 씨는 시에서도 알아줬어요.

**어떻게요?** ‘저 사람 되면 인정을 한다.’ 이 정도로다가.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판이 좋았던 거네요. 수원시 안에서 장세걸 씨가.** 음. 정직하고 강직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김한복 씨는 어땠는데요?** 김한복 씨는 관료적이고, 점잖고 좀 이기적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윤응렬 씨는 어땠어요?** 윤응렬 씨는 윤공렬 씨의 이복동생이야. 윤응렬 씨는 좀 가진 게 많이 있었어요. 그 부잣집 아들이거든.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졌지. 나중에 우리하고 친목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박왕식이 알려져. 국회의원 했던 박왕식이 우리 친목계 총무도 했었고.

**무슨 친목계 하셨어요?** 심우회(尋牛會)라고, 찾을 ‘심’자, 소 ‘우’자. 그니까 심우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마음, 소를 갖다가 마음을 얘기하는 거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제지한다든가, 남을 터치한다는 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알자.** 내가 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심우회.

**거기엔 어떤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어떻게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서울대학 교수하고 이득성 씨, 도의원 출마했던 이득성 씨 농대 나와가지고 맨날 구속되기를 밥 먹듯 하던 사람. 대개 바른 소리 잘 하는 사람들이야.

선생님이 언론 활동하시면서 알게 된 그 모임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 후에 그만 두고 들어갔을 걸 아마.

그래도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의 뭐가 있으니까 모임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유가? 서로가 이제 평상시에 전화도 하고, 그때는 집에 전화가 있었잖아. 그걸로 돌려서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구산회라는 모임은 어떤 건가요? 우리 모임이었는데 그래도 나보다는 전부 출중한 사람들이야. 내가 여기 친목회 회장 할 때 박왕식이 총무였어. 국회의원이던 박왕식이 거기(구산회 명단) 있죠?

네. 여기 있어요, 지금 박창균 씨도 있고 김찬 씨도 하셨네요. 이분도 시의원 하셨던 분이고? 시의원 했지.

이 구산회는 누가 이름 지으신 거예요? 구산이 어디냐면 이 팔달산이 구산이에요. 그래서 구산회.

팔달산 자락 거북산이군요. 영동시장 밑에 있는, 구천동에 있는 산이 구산이에요. 이거 이득 성이가 지었을 거야.

이득성 씨가 지으신 거예요? 예. 이득성이가 그때 농대 나온 친구인데 그 하여튼 바른 소리만 해가지고.

그러면 60년대 군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민주당이 거의 힘을 못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민주당 하셨던 분들의 흐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야당 정치를 하시는 분들 윤궁렬, 윤응 렬 씨가 그런 정치를 하시다가 5·16 나고 나서, 이제 이병희 씨가 여기 국회의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민주당 쪽은 어땠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아사지경에 빠졌었지. 하여튼 수원이 비교적 민주당이 강세예요. 제1야당이 강세인데, 요즘도 그래요. 인수무과(人誰無過)리요 개즉위선(改則爲善)이야.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 피장파장이란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정당끼리 서로 잘못만 가지고 헐고 뜯고 말이지. 국민들이 보기에, 개가 똥 걸레 물고 늘어지듯 그래 싸움이나. 그건 아주 보기가 역겨운 거여. 그니까 좋은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정책을 갖다 펴야지. 국회가 국회가 아니라 난장판이지 저게 국회여, 난 그렇게 생각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비록 정당이 달라도 옳은 길이면, 상대방의 정당이 하는 일이라도 그 길을 좇아줘야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거지, 내 정당이니까 너의 말이 맞더라도 나는 내 정당 좇는다. 난 그거는 똥 걸레, 똥개들이나 하는 것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그건.

윤응렬 씨하고, 윤궁렬 씨가 정치를 접기 시작하신 게 언제쯤이에요? 그 양반들은 5·16 나고 나서는 그냥 거의 접었어요.

이병희 의원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기억하시는 것 있으세요? 그 양반은 그 중앙정보부 서울지부장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김종필의 아주 오른팔이지.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아주 직계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병희 씨가 내가 볼 때는 학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삼일중학교 야간 다니다가 군대 간 걸로다가 나는 아는데, 하여튼 인물이 좋았든지 줄을 잘 섰든지 그 사람이 옛날에 특무대 그니까 방첩대 보안대 있었지.

(이병희 씨가) 50년대 여기 수원 특무대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몰랐나요? 여기 있을 때는 몰랐지.

60년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 들어와서 그때 이제 아시게 된 거잖아요? 이병희 삼촌이 이경순이라고 영동시장에서 장사했었어요. 포목상 했었어. 근데 그 양반도 다 돌아갔을 거여.

그 아까 통역하셨다는 그분 있잖아요. 김종서 씨인가. 그분은 계속 군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여기 수원비행장 통역병으로 있다가, 평택 미군 그 CID(범죄수사대) 통역관으로 가 있었지. 머리가 그 사람이 좀 명석해요. 영어를 잘 해가지고 그 수사하러 다니고 이런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

## ⊕ 한국전쟁과 학살

50년대 전쟁 중에 수원에서 학살이라든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학살사건 그런 거는 멀리서 들려오는 얘기밖에, 내가 육안으로 보든가 내 귀로 직접 (들은 건 없어.)

들은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인민군 들어왔을 때 말 안 들으면 전부 총으로 쏘 죽인단든가, 뭐 이런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지. 그래서 내가 피한 거 아녀.

그럼 광고산에서 수원에 있었던 좌익들 학살된 얘기라든가 이런 건? 그건 못 들었어요.

그럼 전쟁 중에 인민군들이 쪽 내려왔잖아요. 인민군들 그 사람들도 이제 내무서라든가 이런 애들이 와서 자기네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그런 얘기라든가, 애네들이 와서 뭐를 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그때 매향동에 있을 땐데 박호병이라고 교육위원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데 나를 자위대에 추천을 하더라고.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동무 반동이오.”라고 총 쏘 죽이면 나는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위대에 내가 들었었어. 잠깐 들었다가 도망질치기 시작한 거 아니여. 저기 쫓기대회 나갔다가 내가 도망질치기 시작한 거 아니여. 여기서 내가 놀러왔고 거기 뿌리가 박히게 되면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다.

그 자위대가 인민군에서 만든 자위대예요?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을 추천한 거예요? 박호병이 추천을 했지.

그분이 뭐하시던 분이죠. 수원상업학교 나와서 교편 잡았었고, 수원상업학교가 수원중고등학교 전신이지. 화성학원 후신. 거기서 수원상업학교 나와 가지고 그때는 상업학교 나와 가지고 선생을 했어요. 3년 나와가지고. 수원상업학교가 3년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릉국민학교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을 애 선생이라고, 애씨. 여기 수원사랑교회 옆에 가면 애씨네들이 몇 집이 살아요.

그럼 그때 박호병 씨는 좌익 쪽으로 활동을 좀 하신 분이셨나요? 안 했지.

안 했는데 자위대 활동을 하라고. 왜 그랬냐면 그때에는 그 사람들 보게 이해하는

척해야 자기의 명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나름 남의 이름자도 좀 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추천하면, 어디 회에 서서 “내가 그 사람을 추천했어.” 어찌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했겠지. 그 사람은 공산당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럼 그 당시 수원시에 자위대 활동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좀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저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누구나 아는 사람.** 그때는 기억했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전부 월북해버리고. 내가 수리산에 있을 때 빨갱이들, 소위 말하자면 남부여대(男負女戴) 해가지고,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끼고 그랬는데 이 동네 빨갱이들이 있어.

**세류동?** 이 동네에서 월북한 사람들 있잖아.

**누구예요?** 박모 씨가 있고, 또 김모 씨가 있고, 또 의용군 나가가지고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나온 사람은 은병달이라고 우리 큰동서인데 의용군 나갔다가 포로수용소로 갔다 왔는데, 그땐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 그땐 청소부 처음 시작할 때, 리어카 여섯 대 가지고 시작했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 한 사람으로 넣어준 거야. 우리 동서를 넣어줬는데. 경찰서 사찰계에서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

**신원 조회를 했군요.** 응. 왜 빨갱이를 넣었느냐. 그러기에 “내가 빨갱이가 아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안 나가고 못 견디는 것 아니냐.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다 몰면 나라가 전부 빨개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안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 양반도 거기 몇 년, 여러 해 다녔지. 안녕리라고 있지, 안

녕리에 빨갱이가 많았어. 안녕리는 내가 용주사 거기서 공부할 때 어디를 갔다 오다 보니까 여자 혼자 벼를 베는데 딱하잖아. 그땐 젊었을 때니까 우리 친구들 서넛이 가서 벼 좀 베주자 그래서 베어줬어. 베줬는데 그 옛날에 빨갱이들 들어와가지고 용주사 주지고 뛰고 다 잡아가고 그럴 때, 우리는 괜찮은 거여.

**도와줬다고. 그 여자를 도와줬기 땀에.** 그 여자가 빨갱이 집안이야. 그래서 우린 빨갱이인지 노랑이인지 모르잖아. 여자 혼자 일하니까는 도와줬을 뿐이지. 순수하게. 빨갱이가 혼자 일하니까. 그땐 나원근이라고 경찰이 있었는데 송산리 사람이데 안녕리에다가 전부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야 된다고, 안녕리(가 빨갱이) 천지라고 말이야. 안녕리뿐만이 아니고, 잔다리고, 저기 전부 빨갱이. 저 경부선 저쪽으로 전두환이 장인이 관리했던 산(독산), 그 무슨 동네야, 거기는 하룻저녁에 제사가 삼십 몇 집이, 한꺼번에 석유로 죽여가지고.

**어디요? 안녕리예요?** 경부선 저쪽으로, 세마대 쪽으로. 오산 못 가서 그 보이잖아. 경부선 저쪽으로 보이잖아. 무슨 동네야, 거기(오산시 양산동).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 있지.

**안녕리는 어땠어요?** 아휴, 안녕리야 초대 국회의원 김웅진이 농대 나와 가지고 월북했잖아. 김웅진 할아버지, 김웅진 아버지 모두 안룡면장 하고, 유지고.

**세류동 쪽은 안녕리하고 연결돼가지고 좌익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하던 그분들이 세류동 쪽**



월북했던 사람들, 친인척도 여기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그 양반이 죽었는데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는 박창현 씨 부인이 안녕리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당신 집안이 빨갱이었냐고 내가 그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

박창현 씨가 월북한 분이세요? 아니야. 박창현이 말고 박창현의 제일 큰형이 월북을 했을 거야. 박덕근의 큰아들이 이름을 모르겠어. 또 시의원 했던 김모 씨가 있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월북했을 거야.

세류동 시의원이었어요? 예. 시의원. 김 머시긴가.

그분은 50년대 시의원 하셨던 분이세요? 아니면 90년대? 근래, 근래.

근래에 세류동 시의원 하셨던 분인가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시의원 안 해. 시의원 안 하고, 저쪽으로 이사가 사는데 개 아버지가 월북했을 거야.

그건 나중에 여기 세류동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여기 살면서 파악한 거지.

그러면 아까 언론 활동하시다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다른 일을 좀 하셨어요. 사업 주로 하셨어요? 그냥 얼치기지 뭐, 얼치기.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프고 그래도, 내가 성의껏 해주는 거야. 왜 그러느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 인수무과리요 개죽위선이 라고, 사람은 누가 완전이라는 건 없잖아. 허물이 다 있지. ‘젊었을 때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고 내가 마지막엔 잘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손도 불 들고 다니고.

전쟁을 겪으신 게 선생님 인생에서는 어떤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으세요? 우리는 전쟁에 박살 난 집인데 뭐. 참혹하지.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어머니 시신을 못 찾고 있는데 내가 아들로, 자식 노릇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잠재해 있지.

그 시기에 견뎌던 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장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뭐. 어떻게든지 내가 존재해야만 그래도 미래가 있지 않느냐. 그래 이제 난 요즘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야. 왜 그러냐면 난 지들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아버지로 잘해 준 것도 없는데, 효자들이야.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면담자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면담일 2020년 11월 3일  
면담장소 구술자 자택

네 번째 이야기  
이낙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센터

이낙수가 겪은 이산(離散)과 전쟁,  
그리고 가산 일구기



이낙수는 전주 이씨로 1936년생이며 수원 남문 아래 팔달로3가 29-4번지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 이흥선은 수원에서 방물장사를 하였고, 2남 1녀를 두었다. 이낙수의 친아버지는 이승우이지만, 어렸을 때 큰아버지인 이승화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큰아버지 이승화는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었고, 지역 발전과 사회 변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었다. 이승화는 1927년 8월 21일 화성학원 강당에서 개최된 유학생 강연회에서 '사회 발달의 경제사적 고찰'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또한 청년단체인 수원청년동맹에서 활동하였는데, 1929년 8월 25일 수원청년동맹 제1회 정기대회에서 의장으로 선거되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고, 1934년 수원청년동맹 운

- 1936년 수원 팔달로3가 출생
- 1942년 세류초등학교 입학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양정중학교 3학년 재학
- 1954년 단국대학교 사학과 입학
- 1950~1960년대 평창제빙 운영
- 1964년 결혼
- 1968~1976년 버스터미널 운영
- 1977년 삼원백화점 개점





진명유아원(수원군상태조사, 1929)

유치원 졸업 후 세류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수원에는 원래 신평국민학교 하나만 있었으나 신평국민학교의 입학 인원이 많아지자 분교로 세류국민학교를 만들었다. 1학년은 총 3반, 1반(松, 마스쿠), 2반(竹, 미타케쿠), 3반(梅, 미에부)으로 1반과 2반은 남학생, 3반은 여학생이 수업을 받았다. 이낙수는 세류국민학교 6회 졸업생이며, 8·15해방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었다. 국민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였는데, 수원의 경우 일본인 교사가 서울보다 조금 늦게 파견되어 2학년 올라갈 때 온 것으로 기억한다.

세류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에 양정중학교로 진학하였다. 학교 진학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세류국민학교 졸업반에서 5~6명 정도 서울



수원 기차 통학생(1946년, 수원박물관 제공)

로 진학하였다. 잘사는 사람은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를 보충하는 경우도 있었다. 1차 경기중학교와 서울중학교(당시 중학교는 6년제) 선발에서 낙방했고, 2차 선발에는 배재·휘문·양정 등이 있었는데 서울역과 가까운 봉래동에 위치한 양정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당시 증기기관차를 타고 서울까지 통학하였다. 수원에서 출발하면 서울역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는데 기차가 연착할 경우 역에서 도장을 찍어 주어 학교에 제출하면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수원 집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야 했다. 병점에서 출발하는 기차의 기적소리를 듣고 기상해서 황급히 역으로 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통학 시간이 길기

때문에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기차 안에서 아침으로 1개를 먹었다.

## 아버지의 좌익활동과 이낙수의 6·25전쟁 경험

8·15해방이 되면서 집안에서 운영하던 가게는 전부 문을 닫았다. 대신 아버지 이승화는 일본에서 유학할 때 보던 공산주의(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관한 책을 대여해 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수원경찰서에서 우마차를 가지고 와서 책을 모두 압수하고, 아버지를 체포해 갔다. 아버지는 유학생할 동안 사회주의사상에 심취하였고 해방이 되자 자신의 이념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체포된 아버지를 구명하기 위해 작은아버지는 인맥과 비용을 조달하여 아버지를 석방하게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행방불명되었고 다시 안성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낙수는 1946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체포되어 수원비행장부터 포승줄에 묶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사람들에게 체포된 공산주의자를 보여 주기 위해 수원비행장-팔달문-수원경찰서까지 걸어가게 하였다고 한다. 작은아버지는 다시 인맥과 재력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구명 활동을 펼쳤고, 석방된 아버지는 서울서 활동하다가 또다시 체포되어 인천형무소에 수감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인천형무소에서 풀려난 이승화는 모친을 뵈러 왔고, 이어 9·28수복 때 월북하였다.

이낙수는 양정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기억이 있다. 하교하던 길에서 만난 아버지는 그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과 함께 용돈을 건네주었다. 이는 아버지 이승화가 서울에서 체포되기 직전으로 추정되며,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수원 집에서 만난 것이 아버지와 마지막 상봉이었다.



서울피난 수원종합중고등학교 양정중학교 졸업 기념(수원박물관 제공)

아버지 친구로는 수원청년동맹에서 같이 활동하였던 이용성과 와세다대학 출신의 정치인 신익희가 있었다. 이용성은 독립운동가 이선경의 동생으로, 1960년 수원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자신을 계속 돌보아 주었다. 또한 국민학교 1~2학년 때 아버지와 신익희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모습도 기억하고 있다.

한편 이낙수가 양정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처음에는 국군이 진격해서 북한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등교하였다. 그러나 6월 28일 양정중학교에 가니 대포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북한군이 미아리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교에서는 일단 집으로 돌아



택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삼화상회 부지(수원박물관 제공)

## 수원시정인무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평창제빙과 삼원백화점 운영

가 연락이 있을 때까지 등교하지 말라고 하였다. 해산하여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내려오는 도중, 용산역에서 기차가 물을 받느라고 정차하였는데, 200m 앞에서 북한군 유격대 전진부대들이 기관총을 난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황급히 용산역 정문으로 나와 내달려서 수원에 겨우 도착하였다. 그날 밤 한강다리가 폭파되었다.

이낙수 가족은 어머니 친정인 조암과 고모네 집으로 각각 피란을 떠났다. 피란 갔다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서는 서울농대에 설치된 피난민종합학교에서 1년을 공부하였다. 그 후 서울이 완전히 수복되어 학교 운영이 정상화되어 양정중학교로 등교하였는데, 곧이어 학제가 변경되어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이낙수는 양정중학교는 37회, 양정고등학교는 2회 졸업생이 되었다.

사회주의 활동을 한 아버지를 구하느라 많은 재산을 잃었는데다가 한국전쟁으로 집안에서 운영하던 가게는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삼화제유소, 삼화타면소, 삼화인쇄소 등은 모두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되었다. 이 부지(팔달로3가 29-4)는 한동안 공터로 두었다가 택시 주차장으로 임대해 주었다.

전쟁 후 이낙수의 작은아버지는 집안경제를 이끌어 나가며 가산을 다시 일구었다. 작은아버지는 1950년대 남수동 일대에서 건축업에 뛰어들어 주택 건축과 분양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다니던 이낙수는 학교를 그만두고 평창제빙을 기반으로 집안경제를 이끌었다.

1971년 평창제빙(왼쪽 건물)과 서울-원간 직행버스정류장(수원박물관 제공)



이낙수가 작은아버지를 이어 경제활동을 시작할 당시 형님들은 군 복무 중이었다. 일본인이 운영하던 오키(靑木)상회를 불하받았던 사람이 상점을 작은아버지에게 넘겼고, 이를 이낙수가 이어받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낙수가 운영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군복무를 마친 둘째와 셋째 형님이 참여하였다.

평창제빙에서는 얼음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여름철에는 제과(아이스케키)도 판매하였다. 수원에는 평창제빙소, 최덕종의 팔달제빙, 종로 옆에 제빙공장이 있었다. 수원제빙공장은 3개의 회사 중 제일 나중에 운영을 시작하였다. 제빙기계가 없었던 시절에는 자연제빙에 의존해야 했는데, 서호 뒤 야산에 얼음 웅덩이가 여러 개 있었다. 기계를 이용하여 얼음을 생산하는 인공제빙이 시작되면서 천연빙은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낙수는 평창제빙을 10년간 운영하였는데, 사장과 공장장, 고용인 5~6인으로 총 7~8명이 근무하였다. 아이스케키는 여름철 3~4개월만 판매되었기에 계절노동자 5~6명을 고용하였다. 하지만 대기업이 제과사업에 뛰어들면서 점차 매출이 줄기 시작하였고 제빙도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당시 셋째 형님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평창제빙을 운영하였고, 이낙수는 평창제과점을 개점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택시 주차장으로 임대해 준 팔달로3가 29-4번지 땅은 요지에 자리하였는데, 서울-수원 간 직행버스가 운행되면서 경남여객과 신원여객에서 정류장 부지로 이곳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이낙수는 매회 운영수수료 10%를 받는 조건으로 1968년부터 정류장 부지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지만 1976년 수원역 부근 매산동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자 이낙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였다.

1970년대 호황기에 소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유행하였다. 이에 이낙

수는 버스정류장 자리에 백화점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건축비로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건축자금을 만들었다.

백화점 건축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세운 정우건설에 의뢰하였는데, 정우건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잘나가던 건설 업체였다. 이낙수 건물을 제대로 짓기 위해 공을 들였고, 결국 1977년 9월 삼원백화점을 개점하였다. 백화점의 점포는 260개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었다. 지하에서는 슈퍼마켓을 직영하고, 1층에서는 제일모직과 같은 유명 브랜드 의류매장을 직영하였다. 3층에는 삼원예식장을 두었고, 4층은 관리실과 이낙수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1977년 9월 삼원백화점 개점  
(수원박물관 제공)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1980년 5·18민주화운동까지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수원 중심부에 있던 삼원백화점은 학생시위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1년 정도 백화점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았다. 이때 마침 한국투자신탁에서 입지가 좋은 대로변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삼원백화점 건물 임대료 문의해 오며 따라, 1981년 건물 전체를 임대해 주었다. 그 후 2003년부터 농협에게 임대하였다가 2015년 건물을 매도하였다.

이낙수는 1995~2004년에 초등학교 동창이던 노창호와 함께 용주사 부근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부지는 나중에 한국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조성사업 지구로 수용되었다. 또한 1993년부터 수원상공회의소 상공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케이블방송국 설립 추진위원회 20명이 참가하여 30억 자본금을 출자하였지만 광케이블선 매립에 큰 비용이 소요되어, 300억 원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결국 투자금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였다.

그는 1960~1970년대 국회의원 이병희 지지 모임인 은행나무동지회 회원이었다. 파장동을 담당하여 선거 때가 되면 파장동의 지역장, 부녀회장, 청년회 구성원 등을 관리하였다. 전쟁 후 월북 가족을 두었다는 이유로 이낙수가족은 종종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였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반공주의적인 사회에서 국회의원 이병희를 지지하는 은행나무동지회는 이낙수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또한 이낙수는 친목 모임인 대지회를 가장 소중한 모임으로 여겼는데, 대지회는 1964년 결혼하면서 신혼집들이에 참석한 돼지띠(을해생) 동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으로, 명칭은 필벽의 『대지』에서 따왔다. 주로 수원 출신으로서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장 의지가 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이 외에도 수원청년회의소(JC)에서 10년 동안 활동하였고, 수



2017년 대지회 해체식

수원시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로타리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였으며, 삼일동지회에 참여하여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낙수는 자신의 삶에 대해 그때그때 생활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 열심히 열중하며 살아온 무난한 삶이었다고 술회하였다.

## | 구술 |

### ⊕ 일제강점기 집안에서 운영하던 사업체

1936년생이시잖아요. 본관이 어디세요? 전주 이씨.

그러면 선조 분은 언제부터 수원으로 들어와서 사셨나요? 내가 5대째니까. 5대조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수원으로 왔다. 그것만 알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 뭐.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은 거지. 우리 할아버지는 수원서 뭘 했느냐면 옛날에 왜 방물장사. 그거 뭐 등짐지고 왜.

물건 팔러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이요? 여기 남양, 여주, 이천으로. 그전에 차가 있어, 걸어 다니는 거지 그냥. 조금 나아지니까 당나귀 사서 당나귀에 싣고 다니면서 수원에 기반을 잡았다고, 우리가.

할아버님 성함 혹시 기억나세요? 이홍선 씨.

그러면 그때는 붓집 가지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물건 팔고 그러고 돈을 조금씩 모으시고 그러셨던 거네요. 그 할아버님 때쯤 해서 좀 그래도 돈을 좀 모으시면서 수원 쪽에서 자리를 아예 잡으

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의 또 증조할아버지도 활발하게 사업을 했나 봐. 그러니까 옛날 사업이란 게 여기 그 뭐라 그럴까?

상업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 거구나. 응, 많이 한 거지. 채래식 장사지 뭐. 등짐지고 뭐.

할아버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적에 어설프게 봐서 기억이 안 나.

그럼 할아버님한테 자녀분들이 몇이나 있었는지? 2남 1녀. 아버님 형제가 아버님하고 작은아버지, 고모 이렇게 셋이지.

그러면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버님이 이승화.

선생님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내 형제? 육형제. 형이 셋, 동생이 둘. 그런데 어머니가 딸을 못 낳았어. 아들만 셋 낳았대.

그 당시에 어르신들은 좋아하셨겠네요. 옛날에는 아들 낳으면 최고지. 우리 아버지는 아들 낳았다고 그러면 “뽀으니 가보로구나.”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응. 그랬대. 우리 아버지가 애기 낳아서 아들이라고 그러면 ‘뽀으니 가보’로구나, 아들만 여섯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기억하시는 일들, 집안 어른들이나 식구들에 관해 기억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으세요? 뭘 얘기해 줘야 되나?

처음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괜찮게 사셨던 거죠? 여기 남문 밀창에서 크게 포목장사 했지.

남문 그 시장 쪽에서? 쪽 내려오다가 지금 농협 있지? 내가 거기서 태어났어, 그 자리에서. 거기서 삼화상회라고 포목상회하고, 옆에는 삼화인쇄소라고 일본서 기계 들여다가 현대식 인쇄소도 하고.

그 인쇄소를 하신 것은 누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님이.

작은(친)아버님이 삼화인쇄소. 아버지는 구멍가게 하고, 작은(친)아버지는 인쇄소 하고, 또 옆에 잡화가게도 하고.

그곳에서 한꺼번에. 꽤 컸지. 굉장히 길고.

지금 그 위치가 아까 말씀하신 지금 남문 쪽에 있는 농협 자리, 그 건물? 그렇지. 옛날에는 그 길이 좁았어. 그거를 도로 확장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넓혔지. 그게 한 500평 되던 게 지금 전부 길로 나가고 뭐로 나가가지고 한 200평만 남은 거지. 그전에는 한 500평 됐다니까. 전면에는 그거 하고 후면에는 그 제유소, 기름 짜는 거. 옛날에는 기름 짜는 거, 왜 놓고 돌려가지고 힘에 의해서 눌러가지고 짜는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일본의 유압식 기계를 새로 들여다가, 유압으로 해서 짍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거. 그거 처음 수원서 해가지고 사방에서 구경 오고 난리 나고 그랬었지. 그것도 있고 또 삼화제면소라고 솜틀, 옛날에 왜 이렇게 오래되면

솜을 빨아다가 틀잖아, 부풀리려고. 그거를 기계로 하는 게 있었어. 일본 놈이 개발해가지고. 그 기계를 일본서 들여다가 제면소도 했었지.

그거를 다 한꺼번에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한꺼번에 했지.

그럼 포목점을 하셨고? 그다음 삼화상회? 응.

삼화상회는 그냥 잡화 파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포목점이니까.

포목점 이름이 삼화상회인 거예요? 응.

그다음에 지금 그 기름 짜는 제유소, 그다음에 그 타면소도 하셨고, 그다음에 삼화인쇄소 하신 거잖아요? 삼화인쇄소, 삼화상회, 삼화제유소. 삼화타면소 그랬지.

그러면 인쇄소는 작은(친)아버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머지는 (큰)아버님이 하신 거고요? 응.

작은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승우.

이게 시작된 게 일제시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응. 다 일제 때부터 한 거지. 왜냐면 포목상도 다른 사람은 그냥 한국 광목이니 무슨 뭐 베니 이런 거 파는데, 이거는 (큰)아버님이 일본 유학을 했었어.

(큰)아버님이 유학 가셨어요? 응.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조도전(早稻田, 와세다) 대학 정치외교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본 포목, 비단 이런 것을 수입해다 팔아가지고 대성황을 했지. 그런 물건은 못 봤으니까.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이군요? 그렇지, 그렇지. 일본 물건이지.

그리고 이런 기계나 이런 것도? 일본서 전부 들어온 거야. 이거 처음 가동할 때 일본 기술자가 와서 전부 설치해 놓고 시운전을 하는데 수원서 수백 명이 와서 구경하고 그랬다니까. 그런 기계를 언제 보나.

선생님 그게 몇 살 때쯤이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돼가지고, 이 제유소 하는데 참깨를 볶아요. 이 널찍한 가마에 놓고 이거를 돌리며 볶아야 기름이 맛있거든.

그렇죠. 고소함이 있고. 거기다가 고구마 한 두어 개 집어넣고, 고구마가 익어. 그거 꺼내 먹으면 그냥 꿀맛이여, 아주.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

## ⊕ 학교생활과 경부선 철도 통학

초등학교는 어디를 다니셨어요? 세류, 세류.

세류초등학교를 다니신 거죠? 입학한 해가 언제쯤인가? 하여튼 내가 6·25사변 날 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

중학교 3학년? 6·25사변 때가 중학교 3학년.

어렸을 때 유치원도 다니셨잖아요? 유치원 다녔지 그럼.

교동 교회, 거기 성공회. 진명유치원이었어,

진명유치원. 그때 진명유치원에 몇 명 정도가 다녔어요? 진명유치원 한 30명 됐었지? 여학생하고 해서 우리가 40~50명.

그렇게 많았어요? 일곱 살에, 1년 과정인 거죠? 그렇지.

그럼 그 당시에 유치원은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수원에 진명유치원은 한국 사람들이 주로 갔고, 매산로3가에 일본 사람들이 다니는 호우도쿠(鞆徳)유치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지? 유치원이 3개 있었어. 진명은 순전히 한국 애들만 있었어.

그때 거기 성공회교회의 수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생님들이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유치원 졸업하고 세류초등학교로 가신 거죠? 바로 다 거기로.

세류초등학교는 몇 명 정도가, 한 반에. 한 반에,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콩나물 교실은 아니었어. 1반, 2반, 3반. 60명, 60명. 65명인가 그래. 3반은 여자, 1~2반은 남자. 1반은 소나무 '송'자 송반(松班). 2반은 죽반(竹班), 여자 반은 매반(梅班) 그랬어.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셨을 때 그때 한 학년에 세 반 정도씩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

꽤 많았네요? 그것도 왜냐면 신평국민학교 하나 있었는데, 수원 인구가 증가 되면서 학생이 늘어나니까, 신평학교가 세류초등학교로 분교를 시킨 거야. 그래서 선생의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이 세류초등학교 1회야.

1회. 1회는 왜냐. 신평국민학교 다니다가 이리 분교 들어와서 넘어 와가지고 1~2년 다니다가 졸업 맡은 거야. 그래 그 양반이 졸업 맡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6회가 된 거지.

선생님은 아예 1학년부터 쪽 해서 6년을 다 다니신 거고? 다 다녔고.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일본어를 사용하셨겠네요? 그렇지. 일본 선생도 있었고 그랬는데. 4학년 때 8·15해방 됐어.

그래요? 선생님 36년생 아니세요? 응. 36년생인데 난 일곱 살에 들어갔지. 학교를 남보다 일찍 들어갔지. 36년 1월 달이, 36년 5월 이후에 탄생된 애들은 입학이 안 되고. 36년 1월 달부터 4월 달에 탄생된 애들은 입학이 되고. 같은 36년이래도 나는 달라. 같은 36년생인데 나는 6회가 됐고, 5월 이후에 탄생된 사람은 7회로 졸업이 되고 그랬어.

그럼 몇 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신 거예요? 몇 년에 들어갔다. 우리가 초등학교 몇 년에 들어간 거냐?

1942년에 1학년이셨네요? 응.

그러면 중학교는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몇 년도에. 50년에 중 3이니까 48년에 들어갔지.

48년쯤에 학교 가셨을 때 학교생활에서 기억하시는 것 좀 있으세요? 글썄. 나는 지금도 작지만 그때 남들보다 작고 좀 굉장히 어렸어. 우리 동기들 중 덩치 크고, 큰 사람들은 6·25사면 나면서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또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체격 좋고 괜찮은 놈들은 의용군으로 끌려가가지고, 저 낙동강 총알받이 시킨 거지. 우리 동기들도 거기 많이 있어. 그런데 나는 좀 어리고 작은 바람에 거기에 안 나갔지. 2~3년 선배들은 그때 많이 끌려갔어. 전부 없어졌어.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학교 통학 다니신 거잖아요? 그럼. INSTITUTE

양정으로 가시게 된 게 어떻게 해서? 수원서 북중(수원북중학교)이나 수중(수원중학교)이나 이렇게 가는데, 나는 집에도 여유도 있고 하니까 서울 교육을 받자 그래서 서울로 간 게 양정으로 간 거지. 근데 그때는 기차가 증기기관차야.

네. 증기기관차였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면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고 한참 가야 탄력이 붙어. 그래 저만치 가잖아, 쫓아 뛰어가면 잡아서 탈 수가 있다고. 그니까 수원서 출발하면 서울역까지 두 시간 반이야, 정식으로 들어가는 게. 연락하면 10~20분이 연락되는 게 많지. 왜냐면 그때 선로 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하니까. 그래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연락하면 여기서도 도장 찍어 줘.

그럼 학교 갈 적에 보여주면 지각생으로 인정 안 해. 통학생들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데 여름에는 좋지, 여름이니까. 겨울에는 겨울방학 되기 직전까지는 해가 짧잖아. 집에서 5시에 출발해야 돼. 그러면 오밤중 아니야. 그때만 해도 한참 성장기에 잠이 많을 때 아니야. 이 병점에서 기차가 출발하면서 뻑 하고 기적소리, 학생들 빨리 타라고 말이야. 이제 출발한다 이런 신호지. 그 소리가 남문 어디까지 들려.

**병점에서 나는 소리가요?** 새벽에 조용할 때 지금처럼 큰 건물도 없고 큰 공해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들려. 그때 일어나서 뛰는데, 집에서 안타까우니까 변또(弁當, 도시락)를 두 개 싸줘요. 두 개를 싸가지고, 기차에서 하나 먹고, 점심 시간에 하나 먹고. 두 개씩 싸가지고 다녔다니까.

**그러면 기차 안에서 까먹는 거예요, 하나?** 그럼. 그게 아침이지, 왜냐면 일찍 못 일어나니까.

**음. 힘드니까. 그럼 선생님만 그러셨어요? 그렇게 기차 안에서 아침을 도시락으로 먹는. 많았지. 집에서 먹고 오는 애들도 있었고.**

**그때 같이 통학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같은 시간대에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칸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타는 칸이 좀 정해져 있고 그러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 그런데 물리지.**

**학교별로 물리지 않아요? 학교별이 아니고, 친한 친구들끼리. 학교는 관계없어. 친하고 자주 만나는 친구는 한테 물려. 그때만 해도 기차가 참 열악했지. 여**

**름이면 기차가 빈대, 그냥 드글드글하고. 난방이 있어 뭐가 있어. 겨울이면 문짝들이 덜커덩 덜커덩거리고 춥고 막 열악했었다고 그때.**

**그 당시 선생님 연배쯤으로 했을 때 서울로 이렇게 통학하는 학생들은 대략 얼마 정도 됐던 거예요? 대략 얼마라고 추산하나. 꽤 있었어. 통학 기차가 천안서부터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 거야. 그 천안 애들은 오밤중에 타는 거야.**

**천안에서도 통학열차를 타고 서울로 다녔어요?** 응. 학생들도 있지만 서울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고. 천안서 타면 4시간씩 걸리는 거야.

**그럼 하루에 8시간을. 8시간이지.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 나가지고 밤늦게 들어가는 거지.**

**선생님 양정 들어가셨을 때도 시험 치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그럼.**

**그때는 공부를 좀 하신 사람들? 그때 양정이 2차 수준이야. 1차는 경기, 서울, 또 용산 뭐 이게 1차, 좀 좋은 학교고.**

**이 세 학교 정도가 제일 선호하는 학교고, 그 다음이. 이제 배재, 양정 뭐 중앙, 무슨 경동 이런 거는 조금.**

**그 다음에 2차, 2지방 정도로 여겼던 학교들. 여기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 잘했다고 그랬지.**



## ⊕ 아버지 이승화의 좌익활동과 월북

**그러면 삼화상회나 이런 게 언제까지 유지됐어요?** 아이고 8·15해방되면서 말이야, 아버지님이 그 배운 게 뭐였냐면 마르크스.

**마르크스레닌주의요?** 응.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본 유학 당사가 프롤레타리아 사상이 성황해서 교육시킬 때야.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아버님이 8·15해방되면서 가게 전부 문 닫고, 뒤에 창고에다 물건 전부 집어넣고 그 일본 학교 다닐 때 배우던 책, 자기가 보던 책 뭐 맑스레닌주의 경제학이니 이런 거. 책을 가게를 접어놓고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수원경찰서에서 말 마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가게 있던 책을 전부 압수해 가는 거라. 그 말 마차가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옛날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말 마차나 우 마차지. 말 마차가 짐을 많이 싣거든, 소보다. 한 대 더 불러다가 두 마차에 싣고 전부 경찰서로 가져갔잖아.

**아버님이 막거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 못 가져가게 막지 않으셨어요?** 언행했어.

**아버님도 언행이 되신 거예요?** 응. 그때 소위 좌익이니 우익이니 대립 시작되면서 이게 되니까. 끌고 간 거지. 붙잡혀 간 거지. 붙잡혀 가가지고 몰락이야, 그 때부터. 그래 우리 작은아버님이 기반이 있고 사람들 많이 알고 그러니까 손을 써가지고 꺼냈는데, 나오면서 없어져 행방불명이야.

**경찰서에서 꺼냈는데도 그다음에 이제.** 자꾸만 감시받고 잡혀가니까. 행방불명 됐

는데 한참 후에 안성서 체포됐다고 연락이 왔어. 경찰이 왔는데, 안성 남로당 아지트 본부, 안성 그 깊은 산골에서 굴을 파고 거기서 남로당 활동 하는 남로당 당원이지, 당 간부지 이제. 붙잡혀서 안성역까지 오는데 말이야. 여기 비행장 근처까지는 그냥 허허벌판이야.

**그럼요.** 비행장부터는 집이 드문드문 있는데 그때부터 차에서 내려가지고 고무신, 하얀 고무신 신겨 가지고 포승줄 묶어 가지고, 수원 시내 남문 아래 가지고 쪽 수원 시민이 전부, 그때 인구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한 5만 정도 안됐죠.** 8·15해방 당시에 3만 조금 넘었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며, 그냥 남문 근처에서. 거기가 귀결이니까. 이승화 잡혀간다. 전화도 그냥 기웃대고 전했지. 그때부터 집안이 그냥 몰락된 거야.

**그러면 일부러 태워가지고 잡아 오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수원시부터 그냥 빨갱이 거물을 잡았다고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를 보신 거고?** 내가 봤지. 초등학교 5학년 때야.

**그렇네요.** 1946년쯤부터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그럴 때쯤에 이제 체포됐다가 나오서가지고 안성 쪽으로 가서 안성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돼가지고 다시 들어오신 거네요. 그럼 그렇게 들어서서 경찰서로 다시 잡혀 들어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안성 쪽에서 와서 수원경찰서에 있는 거지.

**수원경찰서에 계셨죠?** 우리 아버님이 또 경찰서, 검사 뭐 이쪽에.

**다 또 부탁을 하러 다니셨구나.** 있는 땅 없는 땅, 우리가 농지가 또 많았었어. 저기 농지는 소작인 쥐가지고 소작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있는 거 없는 거 죄 팔아가지고, 이거 써가지고 꺼내 놓지. 꺼내 놔가지고 또 없어졌어. 없어져가지고 서울 가서 이제 활동한 거야. 서울 가서 활동하다. 이거 옛날 같으면 얘기도 못해. 그 이후에 수모를 많이 당했지 우리가. 서울서 체포가 됐어. 6·25사변 나기 한 6~7개월 전에. 그래가지고 인천형무소에서 이제 수감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6·25사변이 딱 나가지고 급하니까 서울, 인천까지는 형무소에 있던 빨갱이들, 거기 이런 사람들을 전부 갖다 제거시켰거든, 죽이고. 수원은 광교산의 물이 피로 빨갛다고 해. 거기서 수원형무소에 있던 빨갱이들을 전부 총살시켜 버리니까. 그런데 인천까지 와서 손을 못 썼어.

**그래요?** 다급하니까. 사변 나고 이틀 삼 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으니까. 한강 폭파하고 뭐하고 피난민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아우성치는 바람에 인천은 살아났다니까.

**그러면 풀려나셨겠네요?** 응. 풀려나가지고 서울로 갔다는데, 수원은 이제 할머니(아버지의 어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

**(이승화의) 어머니 만나러?** 딱 한 번 왔어. 딱 아침에 와서 점심 먹고, 인사하고 동네 사람들. 동네도 그새 빨갱이, 큰 빨갱이 왔다고, 그 세계에서 이제 성공한 거지. 와서 환영하고 그냥 박수치고 난리치고 준비해가지고 환호하고 그랬다고. 저녁에 수원에서 올라가고 그만이야.

**그럼 전쟁 초기에 내려와가지고 어머니 뵈고?** 올라가서 이제 9·28수복 당시. 그냥 올라가 버린 거지.

**그냥 월북을 해버리신 거네요, 그 이후로.** 여기 북진할 적에 인민군 따라서 그냥 월북해 버린 거지.

**그러면 아까 그 아버님이 여기 와서 잠깐 있었던 거 보신 거잖아요?** 그럼. 봤고. 내가 그때 서울 가서 내가 양정을 다니니까. 수원역 기차 타고 서울 가서, (양정중학교가) 봉래동에 있었거든. 서울역 뒷문으로 나가면 바로야. 학교를 금방 갔다니까. 내가 2학년 때인가, 가서 공부하고 내려오는데, 언덕바지야 길이 이렇게. 골목에 낙서돼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더라고. 그때는 몸이 좋았어. 말을 타면 말 등이 흰다고 그랬으니까. 100kg 이상 나갔으니까, 거구였지. 근데 보통 사람보다 더 말랐어, 고생하고 못 먹고 쫓아다니니까.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공부 잘하라고 요새 돈으로 한 2~3만 원 주더라고. “아이 아버님 나는 괜찮다.”고 쓰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너 배고플 때 뭐 사먹어.” 주고 화가버리더라고. 딱 한 번 봤어.

**그럼 잠깐 할머니 뵈러 오셨을 때는 아버님을 못 보신 거예요?** 그때는 봤지.

**그때 그 이후에 학교에서 한 번 더 보신 거군요?** 응?

**그때쯤이 월북하기 바로 전?** 바로 직전. 서울에서 체포되기 직전이야. 그 이후에 체포돼가지고 인천형무소에 있었다가 6·25사변이 난 거지.

6·25 전에 학교로 찾아오신 거군요. 체포되기 전에? 그리고 수원에 온 건 6·25사변 나고 북괴군이 여기에 오면서 온 거지.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본 건 6·25전쟁 났을 때 수원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 하루. 그때가 마지막 본 거죠? 마지막 본 거지.

그때 이제 왔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박수친 사람들 동네 이웃들이요? 아니면 좌익과 관련된 활동? 이웃들도 있고 좌익분자도 있고 그렇지 뭐. 이웃들이 주로.

그때 그러면 아버님과 같이 활동했던 좌익 활동. 그 이웃들은 무슨 빨갱이나 무슨 좌익분자가 아니라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 세상이 됐으니까.

어렸을 때 기억에 이용성 선생님 같은 분도 기억이 나시는 거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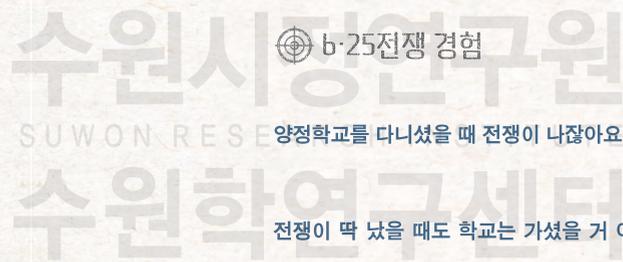
그럼 아버님하고 연결 지어서 찾아왔던 분들이나 친구 분들, 후배 분들 아님 선배 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이용성 씨는 구천동 브라운관광호텔 근처에 사는 바람에, 우리 지금 있는 탁고(託孤, 고아의 장래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함)가 되는 바람에 자주 놀러 오시는 거 많았어. 그거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한 가지 왜정 때 신익희 씨, 신익희 씨가 조도전(와세다) 출신이야.

그래요? 그래서 신익희 씨가 우리 아버님보다 몇 년 위이신가 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삼화상회 운영하면서 정착하고, 수원서 유지로 있는 거지. 그런 바

람에 한 번 오신 걸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하고 있는 거를 본 기억이 나.

신익희 씨도 그때 연결이 좀 돼가지고. 신익희 씨하고 연결이 됐나 봐. 하여튼 동창인데, 동기 동창은 아니지만 조도전 동문이니까.

그때 아버님이 사업체 운영하는 거 외에 다른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만났던 사람?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 상공인들 모임 하는 것을 어렵듯이 본 것 같아요. 왜정 때.



양정학교를 다니셨을 때 전쟁이 나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났다니까.

전쟁이 딱 났을 때도 학교는 가셨을 거 아니에요? 갔지. 갔고 26일 날 갔고, 27일 날 간 거지. 27일 날 덜렁덜렁 가니까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니까, 9시에 학교 등교인데 9시 한 10~20분 전에 우리가 도착이거든 정식으로 가면. 가니까 운동장에 전부 모여 웅기종기하고 말이야. 선생님들도 전부 운동장에 나와 있고. 6·25 때 벌써 27일 날이야. 6월 27일 날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라디오로 전쟁 났다는 것은 뉴스로 나왔지.

그전에 알고는 있었고? 응. “남침을 한다. 그런데 우리 국군이 막 진격해서 그냥 물리쳤다. 물리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갔는데 보니까 평평 대포 소리가 나. 학교 갔더니. 북괴군이 미아리까지 들어왔대, 탱크부대가 미아리가

지 들어왔다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 그러더니 포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교장이 쫓아 나와서, 우리가 그때 양정이 서대문경찰서 관할이거든.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지. “일단 집에 돌아가 있고, 다시 무슨 연락이 올 때까지는 등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돌아서서 서울역에 와가지고 기차 타고 수원역으로 올라온 거지. 그때 지금처럼 기차도 많지 않았었어. 통학차 있었고 화물열차나 좀 있었고 그랬는데 마침 이쪽 남쪽 내려가는 화물차가 있더라고. 화물차에 짐을 많이 안 싣고, 부산에 짐 실으러 가는 차인가 봐. 빈칸이 많아. 그때 화물차 일고여덟 개 뭐.

**일고여덟 량 정도 되는?** 응. 많이 끌지 못해. 증기기관차는 힘이 없어서. 보니까 사람들도 옹기종기 뭐 많지 않고, 한 칸에 5~6명 7~8명씩 타고 있더라고. 그거를 올라탔지. 타 가지고 용산에 오니까, 왜냐면 증기기관차는 기차역마다 서가지고 물 공급을 받아야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가니까. 용산은 물 받느라고 썼나 보다 하고 서는 거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한 200m 앞에서 부르륵 부르륵 하는 기관총 소리가 나더라고. 쫓아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인민군들이, 유격대 전진 부대들이.

**벌써 내려왔어요?** 청량리서 이 용산까지 나오는 선로가 있었어. 거기는 뭐 하러 타고 다니냐면 왜 선로반들이 선로 수리하거나 점검하러 다닐 때 사람이 여기에 대여섯 명씩 타고 여기다 기차 깔목도 싣고 연장도 싣고 죽 그러고 다니면서 기차선로 점검하는 사람들 있어. 그거 하는 게 있었다고. 거기에 한 20~30명 싣고 데려가가지고 거기 세워 놓고 그 앞에서 차에다 대고 사격을 하는 거야 이제. 유격 사격이지 뭐. 그래 나를 살리라고 쫓아 나와 뛰어 용산역 정문에 와가지고 그냥 내달려서 수원까지 왔다니까.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오다 도랏쿠(트럭) 있으면 도랏쿠 집어타고.

**용산에서 걸어서 내려오셨어요? 화물차.**

**기차를 못 타시니까, 내려가지고?** 그럼. 막혀, 거기서 유격 부대가 거기까지 와서 딱 막혀 있는데 기차가 스톱 되는 거지 뭐. 그날 밤에 한강다리 폭파시킨 거야. 그만큼 다급했었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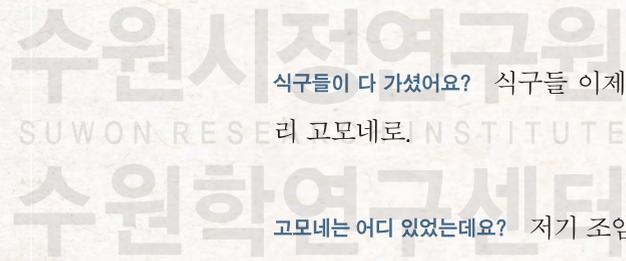
**그럼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와가지고 그다음 날인가 시골로 피난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지.

**식구들이 다 가셨어요?** 식구들 이제 한 때는 어머니 친정으로 가고, 한 때는 우리 고모네로.

**고모네는 어디 있었는데요?** 저기 조암에 있었고.

**어머니 친정은 남창동이었는데 그럼 다른 곳에 뭐가 있었어요?** 아니. 원래 외가가 오산 조금 외진 데에 있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살았다니까.

**형제분이 몇이세요?** 형제가 원래 육형제인데 제일 큰형은 저기 뭐야, 인민군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민위원회 일 하는 바람에, 그때 우리 큰형은 나이가 좀 있었잖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6·25사변 나가지고. 거기서 나가라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 나가서 거들었다고 부역자가 된 거지. 부역자가 돼가지고 9·28수복이 되니까, 안 가도 되는 건데,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가버렸어. 인민



군들 후퇴하는 대열에 끼어가지고 가다가 양평인가, 아니 가평 산에서 인민군 뭐 피난민들 섞여서 있는데 미군 폭격기가 와서 막 폭격하는 거야. 거기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후에 한 10년 후에 어머니가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그 결과가 나온 거야. 10년 동안 안 죽었을 거다, 사방에 찾으러 다니고 수소문 했는데 수소문이 되나 뭐. 그리고 둘째 형님은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셋째 형님은 69세까지 살았나. 그리고 내가 넷째고. 내 밑창 다섯째, 여섯째. 다섯째는 죽고 여섯째하고 나하고 둘만 남았어.

**다 남자형제셨어요?** 어머니가 딸을 못 낳았대. 낳으면 아들만 낳았대.

**그러면 형제분들은 학교를 어디까지 공부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큰형은 중학교만 나오고 둘째 형은 수원고등학교가 옛날에 수원상업학교였어. 거기 다니다가 6·25사변이 나가지고 제주에 끌려가가지고, 대구에 있다가 상업학교 출신 나오라 그래서 끌려서 바로 경리병이 됐지. 그래가지고 육군본부 경리감실에 있었어. 셋째 형은 육군에 있다가 제대해 나왔고, 셋째 형은 휘문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은 양정, 셋째 형님은 휘문 그다음에 밑에 동생은?** 밑의 동생은 수원농고 나오고, 국민대학 나와 가지고 바로 선생 했지. 지금 막내도 선생 하다가 저기 정년 했고.

**막내 분도 서울로 학교 다니셨어요?** 아니, 수원서 다녔어.

**그때는 중학교가 몇 년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입학할 때는 중학교 6년제야. 그런데 3학년 때 이제 1·4후퇴해서 부산 가서 있다가 올라와서 보니까 수원농대 옆

에 잠사부라고 있었어. 거기 피난민종합학교라고 생기더라고. 그래 내가 거기를 다니다가 서울 수복되며 서울 양정학교 올라가니까 그때 중고등학교가 분리되는 거야. 6·25사변 직후에, 수복 직후에. 그래서 고 2회야.

**양정고.** 응. 중학은 37회고, 고는 2회. 이제 우리 하나 위가 1회, 내가 2회가 된 거야.

**그럼 선생님은 이제 3년 다니시고, 양정고등학교 2회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지.

**그럼 고등학교도 기차 통학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수복 이후에 중학 3년 고등학교 3년 그게 수복 이후에 분리된 거야. 그래서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1학년 말기가 된 거지.

**자동으로 그렇게요?** 응. 고등학교 1학년 말 거기서 몇 개월 하다가, 2학년 3학년 2년 다니고 졸업 맡았지. 내가 양정고등학교 2회야. 중학교는 37회고.

**근데 졸업하시면서 단국대학교를 들어가셨잖아요?** 고려대 썼다가 떨어졌지. 동국대도 떨어졌지. 단국대 3차야. 거기는 등록만 하면 돼. 그 단국대학 다니다가 2년 다니다가 자퇴하고 나와서 사업 시작한 거지.

**그럼 (대학을) 1년 반, 2학년쯤 다니셨을 때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걷어 치고, 사업을 시작한 거야.

◎ 평창제빙과 삼원백화점 운영

삼화제유소, 삼화타면소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운영하고.

해방 후에도 이 사업체를 유지하셨었어요? 아니.

다 문 닫은 거예요? 응.

그러면 그때 여기 농협 자리, 이 자리도 파셨어요? 그 집터도. 아니.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4년 전(2014년)인가 팔았지.

원래 선생님이 가지고 계속 운영은 하셨었어요? 내가 거기서 장사도 하고.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거기 사셨을 때 큰댁, 작은댁 식구들까지 다 같이 사신 거네요? 같이 살았지. 옛날에 같이 살았지.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오래 사셨어. 몇 년도인가. 굉장히 오래 사서 갖고 내가 (할머니) 장례 전부 모셔 드렸는데.

(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 경제를 유지하던 것은 어느 분이 그거를 유지하신 거예요? 집안 경제는 그전에 있던 그 잔여 농지라든가 무슨 이런 게,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버틴다고. 한 1대는 그걸로 버티다가 평창(제빙)이 이제 제삼자가 하던 건데, 그 양반이 속초 어항지방으로 가야 여름 장사가 잘 된다고 그리 이전하면서 우리가 다른 데 있는 자산 하나 팔아가지고 평창 자리를 샀어. 사가지고 그거를 인수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평창을 하기 시작했지.

그러면 작은아버님이 집안 경제를 꾸리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그 뭐라 그러나 닥치는 대로 한 거지. 사업이라고 뭐 일정한 고정사업은 없었고, 작은아버지가 또 남수동 일대에 집을 지어서 많이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왜정 때 하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업들은 그냥 8·15해방되면서 전부 접은 거지.

그때 그 사업들이 굳이 왜정 때만 잘 되고, 해방 이후에는 안 되는 사업들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아버님 그 붙들려 가면 빼내고 그런 경비로 쓴 거지. 그리고 그 건물이 어떻게 됐냐면 1·4후퇴 후 수복 때 올라와 보니까 전부 잿더미야. 전부 폭격 맞아가지고 잿더미 돼가지고 빈 땅이야.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 내려왔을 때 상황이 어떠셨어요? 내려왔을 때 상황은 그때 형님들도 군대에 있었고, 내가 평창제빙 제과점을 시작하면서 막 한 1년쯤 하나 까 형들 제대하고 내려와가지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했지.

그럼 형제분들이 같이 운영을 한 거예요? 그거를 했지.

그때 같이 운영하셨던 형님이 몇 째 형님이었나요? 둘째하고 셋째인데 내가 인수하고 한 1년 좀 못 돼서 제대해서 전부 나왔지. 그래 같이 합세해서 했는데.

평창아이스케키는 어떤 걸 파는 곳이에요? 제빙 공장하면서 부수적으로 아이스케키

도 만들었지. 아이스크림 하면서, 평창아이스케키 만들었지. 평창아이스케키 하면서 수원서도 날렸어.

**평창아이스케키 공장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도 했던 거잖아요?** 판매도 하고 외판원들이 왜 지고 있잖아. 통에 달린 거, 아이스크케키 이러는 거. 몇 십 명을 데리고 있었고. 또 자전거에다 이런 박스에다 300개, 500개 싣고 자전거에 싣고 말이야 용인, 남양, 사강, 여주, 이천까지 쫓아가서 팔고 오고. 그때만 해도 길이 좋아? 비포장도로 털털거리는 길을 그런 길을 자전거나 좋아? 왜정 때 쓰던 고물 고치고, 고치고 쓴 걸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일당이 되니까, 하루 벌이가 되니까 그걸 해가지고. 내가 또 평창아이스케키도 한 10년 했어.

**그게 시기가 50년대, 선생님 20대에 평창아이스케키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20대 중반?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그 백화점 자리 빠진 쪽이야 바로. 도로 맞은편. 남문서 내려가면 바른 쪽에. 그게 건물이 일본 사람이 하던 거야.

**일본 사람이 그런 과자점이나 제빙 이런 걸 하던 거예요?** 제빙 저기 뭐야 빙과.

**왜정 때부터 거기가 빙과 만들어 팔던?** 응. 일본 사람이 하던 거야. 그거를 8·15해 방되면서 그걸 적산을 불하받은 사람이 우리한테 팔은 거지. 그 일본 사람이 하던 사람 이름이 청목이야, 청목.

**오키(靑木)상회.** 그 양반이 그거 하면서 세류동에다 과수원도 했던 모양이야. 뒤에 가보니까 뒤에 과수원 과수 창고가 있더라고.

**세류동에서 과수원?** 응. 수원비행장 앞이 이 일대가 옛날에 전부 과수원이었어.

**그러면 선생님 제빙 그제 있고, 아이스크케키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는) 도매인가요? 소매인가요?** 이게 평창 있는 건물은 전면에 아이스크케키 기계를 여기다 놓고 아이스크케키를 만들어서 점포에서 팔고, 애들 공급도 해주고. 얼음 공장이 이 뒤에서 생산된 걸 대량으로 실어서 이렇게 날라가지고 공급해주고 그런 거지.

**그제 어디까지 공급이 됐어요? 지역으로는.** 수원 지역만 했고, 나중에는 오산비행장 그 미군부대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음이 필요하니까 와서 하루에 10장만 다오, 10관짜리 20관짜리 있는데 20관짜리 10장만 다오. 뭐 20장만 다오. 오토바이 조그만 거 소형화물 트럭이 있었어, 옛날에. 거기다 싣고 가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 수원 지역만 주로 파는 걸로 돼있고.

**이때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직원이 나하고 공장장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한 대여섯 명. 그래가지고 한 7~8명이 한 거지.

**그렇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아이스크케키 판매하는 것은 아르바이트생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르바이트생은 없고 아이스크케키 만드는 철이 한 철 아니야? 한여름쯤에 그때는 일할 사람 얼마든지 있었지.

**그렇게 평창을 평창아이스케키를 얼마나 운영하신 거예요?** 내가 10년 하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버스정류장 건너편에 백화점 자리 그리 운영이 되면서 이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 직장에 다니는 형님이 “그럼 내가 내려가서 그거 할게.” 그래서 그 형이 내려와서 이거 운영하다가 그 양반이 한 7~8년 했다. 7~8년 하면서 삼강아이스케키가 나왔어. 소문은 이병철 씨 형님이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현대식 일본에서 기계 들여다가 대량 생산해가지고 포장도 위생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전부 공급이 되네. 구멍가게마다 전부 아이스박스 놓고 공급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아이스케키 공장이 전부 전멸이야. 60년대 중반 이후 접은 거지. 제빙은 계속했어.

**제빙은 1년 내내 하시고? 그럼.**

**그러면 아이스케키는 아까 삼강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사양산업이 됐고, 제빙 공장들은 그래도 좀 더 갔나요? 그 이후에 대형 냉동창고, 대형 제빙시설 현대화 시설로 자동화된 게 많이 나와 가지고 경쟁이 안 됐지.**

**그래서 형님도 사업을 접으셨어요? 접었지. 거기 안 돼가지고 거기 뒤에 창고로 이용하고 전면에는 뭘 했냐면 평창제과점이라고 있었어.**

**그 자리에서 제과점을 하셨어요? 평창제과점도 꽤 오래 했지. 한 7~8년 했나?**

**그러면 선생님은 팔달로3가 29-4번지 거기에서 주차장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주차장을 하신 게 몇 년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68년도부터.**

**68년.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가 빈터였던 거네요? 그렇지. 그동안은 뭐 했냐면 택시 주차장이 있었어, 택시. 택시가 7~8대가 쭉 있으면 전화가 오면 “이리**

오세요.” 그러면 쫓아가서 택시 영업, 세를 줬었지. 그리고 이제 직행버스가 오는 바람에 그거를 내보내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한 거지.

**그럼 계속 택시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다가 68년에 이거를 바꾸기로 하게 된 계기가 뭐가 있으셨어요? 그 직행버스가 그 안에 조그만 공지(空地)에서 하던 게 비좁으니까 택시 주차장을 (직행버스 정류장으로) 썼으면 하고 묻는 것 같더라고. 경남여객과 신원여객 합동으로 서울 직행버스 노선을 탄 거야. 거기가 그때 황금노선이었어. 그리고 수원 푸른지대에서 딸기 날 적에 말이야. 그 계절에는 수원서 딸기 차가, 푸른지대 딸기 먹으려고 놀러, 바람 쐬러 딸기 먹으러 많이 왔었어. 한때는 거기 줄을 서면 말이야. 빙 영동시장 한 바퀴 빙 돌아서 옛날에 화춘옥이라고 알아? 화춘옥까지 꼬랑지가 물고 나갔었어. 그럼 난리난 거지. 오면서 보면 빙빙 돌러가지고 그거 10년 하는 동안에 내가 재미 좀 봤지. 거기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백화점을 지은 거야.**

**주차장 대여 임대하고, 표 10% 받아내는 걸로? 표 파는 걸로 10% 떼고, 여기 판매원 두 사람 인건비만 줬어. 다른 것은 다 경남, 신원에서 정리한 거고. 배차니 현장 정리니 뭐고 두 사람만 두고. 딱 10년 했어. 76년까지.**

**왜 그 자리에다 백화점을 지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때 참 대한민국이 70년대에 호황기 때야. 경기 좋아질 때인데. 근데 그때 뭘 지을까 하고 여러 사람 자문도 받고 하다가 결론이 그때 소형백화점이 한창 유행할 때야.**

**수원소령센터 그런 계열의 것들이 수원 남문 쪽에 유행할 때였죠? 응. “백화점 해보자.” 해서 그 백화점을 짓겠다고 조감도하고 딱 해서 붙이니까 뭐 사방에서 문의**

가 오더라고. 그 임대 좀 다오. 뭐 좀 하자, 뭐 좀 하자. 백화점도 대성공이야.

**분양은 성공하신 거네요?** 분양도 했고, 직영도 좀 했고.

**선생님이 직영하시던 것도 있었어요?** 직영도 했고, 일부 분양도 했고. 그리고 내가 그때 돈이 있었으니까. 그때 그 건물을 내가 2억 1천 만 원에 지은 건물이거든.

**삼원백화점을 2억 1천 만 원에.** 2억 1천 만 원인데. 그것도 참 되려니까 정우건설에서 지었어, 정우건설이라고, 정우개발이 뭐 하는 회사냐면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명예퇴직하고 나와 가지고 건설 회사를 한 거야. 그 전문 분야인가 봐,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육군에 있는 모든 건설, 토목이고 뭐 전부 그 사람이 했지. 근데 그때 정우개발 회장이 김정렬 씨가 있었어. 김정렬 씨는 박정희 대통령도 김정렬 씨한테 함부로 못 했었다니까. 자기 육군 상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수원 이 북문 위에 있는 전화국을 거기서 짓는데, 정우개발에 내가 올라갔지. 수원에 이거(백화점)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 지어줄 수 있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전무라는 친구가 쓱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 수원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도 수원 출신이에요, 수원농고 나왔어요.” 전무가 그래. 근데 그 친구도 육군사관학교 직원으로 있다가 그 사람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같이 옷 벗고 나와 가지고 그 회사를 꾸린 거야. 그때 그거 할 때 정우개발이 펄펄 날을 때야. “선배님 염려 마쇼, 수원 전화국도 짓고 그러니까, 짓는 끝에 하나 이거 조그만 거 하나니까, 성심성의껏 지어줄 테니까 염려 말고 맡기시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2억 1천 만 원에 계약해서 지은 건데.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전기 분야는 파트를 전기 전문가한테 전기 전업사한테 주는 모양이라.

**하청을 쥐어 댈죠.** 전기만. 근데 젊은 놈이야. “나 전기 공사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러 왔더라고. “사장님 전기에 대해서는 아주 틀림없이 일급으로 헤드릴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근데 전기자재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우리가 검열을 해야 할 텐데, 내가 뭐 알아. 모르니까 수소문 끝에 전기 기술자를 하나 구했어. 소개해가지고 전업사 하는 친구를 하나 구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네가 전기 시설하는 것을 총 감독을 좀 해다오. 건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기인데 틀림없이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 염려 마시라.”고. 그때 전기 제품이 한창 KS마크 나올 때인데 전부 KS마크로 인증받아서 A급만 쓰게 해라. 또 이놈한테도 그리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 회사 끝날 때까지 40년을 같이 있었다니까. 아 착실해. 새벽에 근무 나오고 전부 점검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하잖아? (삼원백화점이) 수원서는 전기시설이 제일 잘 돼있습니다.” 그때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건물에서 40년 동안 전기 관리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삼원백화점이 했을 때 한 260개 정도의 점포가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260개 그 정도 됐지.

**그럼 분양을 주고 선생님이 직영한 것은 뭐였어요?** 직영한 거는 슈퍼. 일반 가게도 메이커 제일모직에서 나오는 거, 라보떼 이런 메이커 거는 직접 내가 직원들 뒤편하고 직영했지. 직영하고 1층을 하고 지하까지 했는데, 3층은 그때 예식장을 했어, 예식장. 삼원예식장이라고. 두 개 해가지고. 예식장 하다 보니 손님이 많이 오긴 하는데 주차장이 없잖아. 대형버스가 그 중동파출소 앞에 딱 세워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한 1~2년 해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고, 다른 데 외곽에 또 예식장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3층 예식장을

접었지. 1년 해먹었지. 1년 동안 재미 좀 봤어 그래도.

**예식장 3층에. 이게 총 몇 층짜리 건물이었어요?** 3층에 4층인데, 4층은 일부만 4층이 돼있지.

**그럼 지하, 1층 2층 3층인데 3층은 예식장으로.** 4층 일부에 관리사무실 겸 내 사무실이 있었지.

**그리고 지하는 선생님이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운영하셨던 거예요?** 응. 저기 슈퍼.

**슈퍼를 지하에 두고, 1층에는 아까 제일모직이나 그런 여러 것들. 분양돼서 들어왔던 업체들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주로 뭐였어요?** 액세서리, 무슨 뭐 이런 거지. 내복 뭐 이런 거.

**그렇게 운영하시다 3년 정도 하시다가 아까 말했듯이.** 77년도 추석 전에 9월 15일에 지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77년 가을, 78년, 79년 한 3년 한 거지. 그런데 대통령 시해사건이 있잖아.

**79년에 10월 26일.** 10월 26일 날. 그때 한 3년 동안 기반이 잡히나 보다, 밥은 먹겠다, 자리 잡힌다 하는데 시해사건 나가지고 사회가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원에 그때 농대 하나밖에 없었어, 대학이.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남문에 농대 학생들이 200~300명 물리면 중동서가 있는데 전경들이 또 200~300명 쯤 모여. 모이면 대학생들이 그러더라고. “전두환이 물러나라. 전두환이 물러나라.” 난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 그때 전두환이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것을 대학생들이 정보를 듣고

제지하려 하는 거야. 그럼 남문에서 내려와. 중동파출소 전경들이 올라 와. 그럼 우리 있는 그 백화점 건물이 센터가 되는 거야. 그 곤봉이고 뭐 최루탄 터지고, 그러면 대학생 놈들이 백화점 안으로 그냥 1층, 2층, 3층 도망 다니느라고 사람 있는데 진열장 이런 데 막 숨고 이 전경들은 곤봉으로 막 진열장 깨지고 난리치는 거야. 계엄하니까 깝 소리도 못하는 거지. 이것만 시작된다면 셔터 내리고 문 닫고 그냥 직원들 전부 지하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거를 계속 하니까 장사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하다 보니까 12·12사태 이후까지 쪽 나오는 거 아니야. 1년까지 거의 1년 장사가 뒤집힌 거지. 그래 뒤집어엮고 있는데, 세를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한국투자신탁이 녹산빌딩 그 앞에 건물에 있었어. 그게 “이쪽(대로변)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갓다 써라.” 그래 쥐가지고 그리 나와 가지고 한국투자신탁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

**임대를 주신 거군요, 건물은?** 임대를 줬지.

**그래서 아예 이거를 임대를 준 거잖아요, 투자신탁에다가. 그 투자신탁에서 계속 여기를 운영했던 거예요?** 2003년도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농협으로 바뀐 거예요?** 응. 그렇지.

**삼원백화점을 그렇게 건물을 임대를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게 80년대 초반인데 다른 사업을 좀 하셨어요?** 다른 사업은 별로 안 했어. 안 하고 노창호하고 자동차 학원을 하자고 해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응. 8년 했지. 그리고 93년도인가 내가 (수원상공회의소) 상공위원이잖아. 상공위원들 몇몇 사람들이 뭐 케이블방송국 설립 추진 위원회가 형성되는데 거기 한 번 가보자고. 가니까 한 20명 모였더라고. 우리가 상공위원들 셋이 갔나, 넷이 갔나. 그래 보니까 지역방송이 케이블방송이라고 설립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지역 주민,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추진돼서 한 것이 수원케이블티브roadcast이 설립된 거야. 그래가지고 상공위원 둘이 들어가고, 사무국장 하는 친구하고 셋이 들어 갔나. 다른 사람 열한 사람인가 열두 사람이 창립총회 가가지고 출자를 하는 거지. 처음에는 30억을 자본금을 해가지고 출자를 했는데, 300억 가져도 안 되겠더라고.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거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전부 팔아버렸지.

### ⊕ 지역사회 활동과 친구들

**평창아이스케키부터 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지역 네트워크, 지역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업하면서 별도로 가입해서 활동했던 게 있잖아요?** 그럼. JC(한국청년회의소, Junior Citizens), 20대 후반에 입회해가지고, 40세면 OB(old boy)로 넘어가. 한 10년 이상 내가 착실하게 했지. 그때 내가 거의 막내다시피하니까 전부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 하고 그랬지. JC 40에 퇴임을 한 후에는 수원 로타리클럽에서 선배들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수원로타리에서 같이 봉사하자.” 로타리는 매주 주회야.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요?** 응. 한 달에 네 번씩. 뽕센데다가 내가 40에 입회했는데

보니까 그때 60~70세 된 분들로 구성돼 있어. 수원은 지금 로타리가 많지. 그때 그거 하나 있을 때야. 대선배들이 한 700~800분이 계신데 뭐 회식이라 이래 봤자 술 들기도 부담스럽고, 그런데다가 매주 모이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렇죠. 사업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매주 모이는 게 일이 크죠.** 글썄 말이야.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따라서 잘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좀 있다가 이제 삼일동지회에서 유고(諭告, 타일러 깨우침)가 온 거야. 삼일동지회도 입회야. 삼일동지회 입회하고 보니까 내가 제일 막내야 또. 40대 중반인데.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쫓 하다가 내가 67세인가, 68세 그때 삼일동지회 회장이 됐지. 내가 몇 대 회장인가. 전대 회장들은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이지.

**삼일동지회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무실이 이제 내 위에 있던 양반이 2001 아웃렛 있는 데, 옛날 시장하던 자리.

**청과물시장.** 거기 2층에 있다가 나보고 회장하라고 그냥 지목을 하고 선배들이 한 5~6분이. “아! 선배님 못 합니다. 이제 나도 내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하라고 난리 치는 바람에 하라고 강제로 뒤집어쓰우고 내한테 그냥 삼일동지회 회장을 시킨 거야. 보니까 엉망이야. 거기 있는 사무실 그 뭐 한마디로, 그때 얼마 컸나. 대표실도 그만두고, 사무국장 있는 양반도 시에 계시다 정년퇴임한 건데 그만두게 하고 우리 사무실로 옮기고.

**삼일백화점 사무실로?** 거기서 쫓 했지. 우리 관리사무실 하는 양반보고 이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승인 좀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 매월 열고 또 삼일절 행사 준비 딱 하면. 삼일절 행사를 어디서 했냐면 내가 상공위원이니까 상공회의소 그 지금 회의실이 참 좋아. 새로 건물도 짓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4월 12일이 창립기념일이야. 그 팔달산 정상에 삼일기념탑이라고 있어. 그거는 창립총회 때 만든 건데. 공구리(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공구리가 부식돼가지고 엉망이 됐더라고. 그래 내가 회장 되면서 딱 보니까 모양새가 나쁘더라고. 근데 그 뒤에 명단 보니까 수원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야 전부. 그러다 4월 12일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심재덕 시장이 당선돼가지고 시정을 처음 시작할 때 첫해에 내가 초대 했지. “아 선배님이 하는데 가봐야죠.” 하고 왔더라고. 왔는데 경기도지사가 그때 이인제 씨가 도지사하다 대통령 출마한다고 나가고, 부지사 하던 친구가 우리보다 7~8년 후배인데, 나하고 굉장히 친해졌어.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런 양반인데, 그이가 이제 도지사 대행을 할 때야. “여보, 이거 이런데 시에서 관리 책임을 우리가 위탁을 했거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깐 이거 대리석으로 해서 쪽 입히는 걸로 연구라도 해보쇼.” 했더니, “선배님, 서류로 올리세요.” 그래서 서류로 해서 그때 3,100만 원 해서 대리석으로 쪽 입힌 거야.

**그기단이요?** 응. 기단하고 그 옆에 쪽 둘레가 전에 시멘트였거든.

**정당 활동도 하셨어요?** 정식 당원이라기보다는 이병희 의원하고 잠깐 굉장히 친했거든 가깝고. 이병희 의원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외곽 조직으로 은행나무동지회라고 있었어.

**은행나무동지회 회원이셨군요?** 그럼 거기 회원에다가 아주 착실한 회원이었었지.

**은행나무동지회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 25명 정도인가. 수원에 동이 몇 개 있지?

**그때가 한 26개?** 그 정도. 동 단위 하나씩. 그래가지고 은행나무동지회 선거 때면 파장동 담당으로 내가 가서 기부하면서 운동을 해줬지.

**25명 정도가 선거철이 되면 동별로 한 명씩 맡아서 (선거운동을 하셨군요). 선생님은 어떻게 파장동에 가서 활동을 하셨어요?** 파장동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수원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학교 다니던 사람들도 몇 있었고. 그래서 파장동에 가서 선거를 몇 번 치렀지 거기서. 한 서너 번 치렀지.

**국회의원 선거를 몇 번을 치르신 거네요?** 그럼.

**이병희 의원 선거를 거의 다 지원해 주신 거네요?** 이병희 의원이 그때 7선 의원이니깐, 세 번인가 네 번 했을 거야.

**당시 선거운동이라는 게 인맥을 가지고 하잖아요?** 인맥, 동 단위별로 당 조직이 있어.

**동 단위별로?** 각 동 단위로 지역장이니 무슨 부녀회장이니 청년회들 그 멤버들을 데리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였네요?** 응, 만나러 다니고 같이 하고, 그때 선거 자금을 막 쓸 때 아니야?

네. 선생님은 한편으로 사업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이병희 의원을 지원하고, JC나 로터리 같은 사회단체 활동을 하신 거예요? 수원 지역에서 선생님의 네트워크가 이런 바운더리(boundary) 안에 있었던 거죠? 대지회는 어떤 모임인 거예요? 대지회는 말이야, 64년도에 내가 결혼했거든. 남창동, 옛날 기독교병원 자리 알아? 그 끄트머리가 일본 가옥이 하나 있었어. 그거를 그때 돈으로 35만 원인가 사가지고 결혼하면서 바로 살림났어. 그때 내가 신접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었어 우리 집에. 호기심도 있고 색시가 와가지고 밥도 된장찌개고 이런 거 잘해서 같이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그랬는데. 자주 모이고 그랬었지. 그러다 “야 우리도 이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모임 하나 만들자. 그 대신 돼지띠들만 해서 동기회, 수원 지역 친한 사람들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돼지띠들만 모임이야. 올해생들만 모였는데 그 친목회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거냐. 돼지회라면 보기에 좀 이상하니, 그때 당시에 펄벅이 지은 『대지』 그거가 한참 많이 읽고, 대지 그 한참 유행할 때야. 그래 대지회라고 하자. 그 이후에 대지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뭐 그래서 대지회가 된 거야. 64년도 20명에서 시작했어. 돼지띠 20명에서 수원 출신들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연결돼서 친한 친구들끼리 했는데 결국은 다 돌아가고 여섯인가 일곱 남았나. 그리고 그나마 또 이사 가고 뭐 외국으로 가고 해가지고 20명이 많이 바뀌었어, 도중에.

중간에 교체되는 분들이 생기고,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3년 됐나, 해체했지. 이제 도저히 늙어서 활동도 거부해지고 저기 하니까 해체하자고 그래가지고 해체했어.

선생님 인생을 정리한다면 어떤 삶이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평을 하면 열심히 살았고, 무난하게 살지 않았다. 큰 굴곡 없이. 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보는 게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으셨던 것 있으세요? ‘큰 욕심도 없었고 큰 욕망도 없었고, 그때그때 내 생활을 만족하고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할 거야. 큰 욕심을 낼 수 없는 게, 그 욕망이 없었지 내가. 크게 배운 것도 없고 큰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주어진 거에 한해서만 열심히 열중하고 살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시간이 오래됐어요. 힘드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면담일 2018년 11월 6일 / 11월 15일  
면담장소 수원학연구센터

다섯 번째 이야기  
조 옹 호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전쟁의 폐허 위에 쌓아 올린 조옹호의 일상(日常)



수원군 일왕면 정자리가 고향인 조옹호는 1936년생으로, 부친 조재훈은 포목점인 광덕상회를 운영하였다. 수원중학교 2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하였는데, 6월 25일 오전 10시 점포에 설치해 둔 라디오를 듣고 새벽에 전쟁이 터진 것을 알게 되었다. 조옹호 가족은 6월 27일 피란길에 올랐고, 울전동을 지나 반월면 쪽으로 걸어가던 중 오후 2시쯤 북한 비행기인 야크기 2대가 수원역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때 미군이 사용하던 무스탕 비행기가 나타나 북한 야크기와 교전을 펼쳤는데, 북한 비행기 한 대는 도망가고 다른 한 대는 시흥 수리산에 추락하는 광경을 보았다.

반월에서의 짧은 피란생활을 마치고 수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조옹호의 부친은 봉변을 당하게 된다. 조옹호의 외사촌형인 조광현은 1946년 수원농고

- 1936년 수원군 일왕면 정자리 출생
- 1940년 부친이 광덕상회(영동 11-6번지) 개업
- 1943년 세류초등학교 입학
- 1950년 수원중학교 2학년 때 한국전쟁 발발
- 1955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야학교사 활동 시작
- 1962년 재건국민운동 수원시 촉진회
- 1972년 대한체육회 총무과장



아버지 조재훈이 운영하던 광덕상회(조웅호 제공)

수원  
SUWON R  
수원



학창시절 조웅호(조웅호 제공)



고향 정자리 풍경(조용호 제공)

(제7회)를 졸업하고 서울농대에 다니던 수재였다. 조광현은 서울농대에서 사회주의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인물로, 본가인 반월이 학교에서 멀었기 때문에 조용호 네 집에 기거하며 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자 고모부인 조재훈을 데리고 가서 폭행을 가했다. 조용호는 이때의 경험으로 ‘빨갱이’를 싫어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용호 가족은 향남면 행정리 돌내로 피란을 갔다가 9·28수복 이후 수원으로 왔다. 북한이 점령하였을 당시 마을마다 리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활

동하였는데, 동네에서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이나 머슴들이 인민위원장을 하면서 우익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이나 지주, 경찰 등을 죽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다행히 조용호의 고향 동네인 정자리에서는 경찰 출신인 조재섭이 인민위원장을 맡은 덕에 마을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을 없었다고 한다. 정자리는 평양 조씨 집성촌으로 80여 호가 사는 큰 마을이었다. 조용호와 일가 친척인 조재섭은 북한이 마을을 점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협조할 건 하되 평양 조씨 일가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 모로 노력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마을 주민들은 조재섭을 변호해 주었고 결국 경찰로 복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용호는 북한 점령 당시 인민군들이 학생들을 모아 놓고 가르쳐 준 인민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수원시정안연구원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 기차 타고 떠난 피란길 그리고 피란살이

전쟁이 발발하자 수원에는 수많은 피란민들이 몰려들었다. 수원역을 통과하는 기차에는 피란민들이 가득했고, 기차 지붕 위까지 사람들이 올라타고 가다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었다. 조용호 가족은 1·4후퇴 때 또다시 피란을 떠났다. 미군 열차 화물칸에 몰래 타고 10시간 정도 달려 밀양까지 가니 새벽 2시였다. 밀양역에 내려 눈에 띄는 밀양여관에서 머물렀는데,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던 형과 만나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형은 부산에 가족들이 살 집을 마련해 두었다. 피란민들을 위해 부산 천마산 꼭대기에 지어진 주택으로, 마당이 없고 길옆에서 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나오는 조그만 집이었다. 부엌 옆에 방이 붙어 있는 7~8평짜리 일(-)자



집이 20여 채 있었다. 조운호 가족은 6~7개월 정도 그곳에서 피난살이를 하였다. 조운호 가족은 부산에 머물며 국제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다. 피란민들이 맡긴 헌옷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목돈이 없어 점포를 내진 못하고 남의 가게 추녀 밑에 줄을 매고 옷을 걸어놓고 팔았다.

수원으로 돌아올 때는 살던 집을 팔아 뱃삯을 마련하였다. 육로는 전시 상황이라 차편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고장으로 완도에서 3일 정도를 묵어야 했지만, 다행히 가족 모두 무사히 인천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 강통과 수숫대로 건물을 지어야 했던 시절

부산에서 일주일이 넘게 걸려 겨우 수원에 도착하였지만, 자신들의 터전인 수원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부친이 운영하던 광덕상회 건물은 모두 무너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조운호 가족은 고향 정자리에 머물며 가게를 다시 지어야 했다.

전쟁 중이라 건축자재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목재도 온전한 것이 아니며, 철재도 없어 드럼통을 주워다 두들겨 펴서 사용하였다. 무너지고 불탄 건물에서 쓸 만한 기왓장이나 목재를 주워 와 기둥이나 서까래를 만들었다. 벽은 강통을 잘라 겹쳐서 세우거나 수숫대를 노끈으로 묶고 거기에 흙을 채워 붙였다. 강통을 쓰는 건 그나마 돈이 있는 집이었다. 1952년에 설립된 중앙극장도 드럼통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세류동과 연무동·남수동 등에는 피란민촌이 형성되었는데, 수원에 거주



전쟁 후 새로 지은 광덕상회(조운호 제공)

하던 피란민들은 대부분 흙집에서 살았다. 땅을 파고 지붕만 덮어 그 안에서 살림을 꾸렸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땀감을 구해야 했다. 수원중학교도 피란민들이 교실의 목재를 뜯어다 붙을 때서 학교 건물이 벽돌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이에 학교 교사를 복구하는 4~5개월 동안 수원중학교 학생들은 매산동에 있던, 설립자 홍사훈의 건물에서 칠판 하나 갖다 놓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후반이 되어야 제대로 된 자재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영동시장은 대부분 관갓집이었고, 광덕상회만 기둥을 세워 건축허가를 받은 점포였던 적도 있다. 다들 비만 겨우 가릴 정도로 지어 놓고



전쟁 직후 팔달문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좌측 하단에 보이는 중앙극장 지붕은 드럼통 철판을 펴서 만든 것이다.



1954년 재건축 후 영동시장과 시장 낙성식(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장사를 했는데, 1953년 영동시장 화재로 판잣집 형태의 점포가 모두 불타버렸다. 깡통집이 불탄 후 1954년 영동시장을 재건하면서 제대로 된 건축자재를 써서 상가 건물을 짓게 되었다. 교동에 신축된 수원시청사도 UN의 원조를 받아 1956년에 겨우 지어질 수 있었다.

1955년 조용호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 당시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120원이었는데, 수원 시내버스 요금이 130원이었다. 조용호는 운행거리도 짧은 수원 시내버스가 130원을 받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이에 조용호는 수원시청에 가서 직접 부시장한테 요금산정의 문제점을 따졌고, 부시장이 조용호의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요금을 110원으로 내린 적이 있다.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센터

### 광교산에서 학살된 줄 알았던 좌익 여학생의 생존

하루는 조용호가 서울역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떤 승객이 자신에게 “너 연호 동생이지?”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조용호가 기억을 되새겨 보니 수원여고에 다니던 이욱자였다. 이 시기는 잘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딸들을 고등학교에 보내는 것은 드물었던 시절이었다. 이욱자는 1950년에 수원여고 3학년에 다니던 수재로, 누나의 동기였다. 또한 의사촌형인 조광현과 이욱자는 알고 지내던 사이로, 두 사람은 사회주의 활동을 함께하던 좌익계 학생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욱자도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였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때 이욱자를 비롯하여 체포된 좌익인사들은 광교산으로 끌려가 사살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조용호는 총살된 줄 알았던 이욱자를 갑자기 버스에서 만나게 되어 너무 당



1950년대 일상을 회복해 가는 수원(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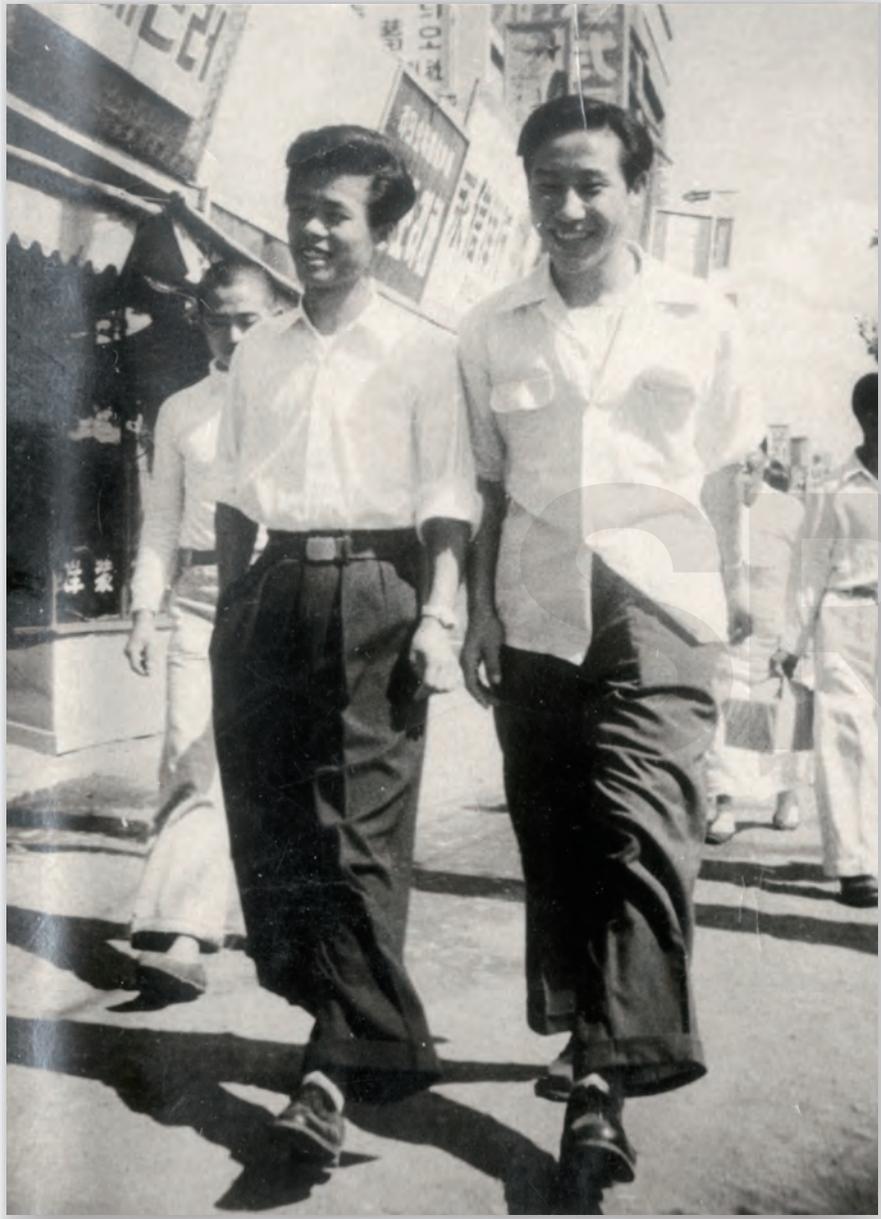


시외버스 정류장(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역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황하였다.

이옥자는 수원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전쟁 당시 체포된 이옥자는 광고산에서 총살될 위기에 놓였으나, 형을 집행하던 헌병이 이옥자에게 반해 총을 쏘지 않아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헌병은 기절한 이옥자를 들쳐 업고 도망갔고, 결국 이옥자는 생명의 은인인 헌병과 결혼한 후,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친정인 수원을 오갔다고 한다. 반공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라 이옥자를 간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겼다. 하지만 그 헌병이 이옥자를 전향하게 하였으며, 전쟁 후에 이 사실을 군에 알리고 대위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접었다.



대학생 시절 조웅호(조웅호 제공)

### 야학교사 활동과 재건국민운동

조웅호는 대학 시절부터 10여 년 동안 야학교사로 활동하였다. 야학 활동에 뜻을 함께하는 수원 출신 대학생들과 함께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켰다. 나중에는 팔달산에 수원소년직업학원을 설치하고, 형편이 어려워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였다. 수원소년직업학원은 경찰서에서 떠돌이 아동들을 선도하기 위해 만든 야학으로, 중학 과정 인가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조웅호는 수원소년직업학원에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 건물 신축과 야학 운영비 조성 등



수원소년직업학원 수업(조웅호 제공)



1962년 수원소년직업학원 학생들의 소풍(조웅호 제공)

을 주도하였다. 남영우 수원시장에게 청을 넣어 교동에 학교 터를 마련하였고, 수원 미군부대에서 폐기하는 항공사진 필름을 기부받아 학교 운영비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수원소년직업학원 출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제자리를 찾아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편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발발하고 수원시장으로 이백일이 부임해 왔다. 이백일은 지방행정을 장악하기 위해 수원시청 위에 기관총을 걸어놓

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재건국민운동이라는 관 주도 국민운동을 전개했으며, 재건국민운동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고자 재건국민운동본부를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구로 배치하였다. 1961년 6월 30일자로 재건국민운동 시·군·구·읍·면 촉진회 회칙(준칙)과 이·동 촉진회 회칙이 제정·시달되어 지구조직활동이 시작되었다. 지부 산하에는 각급 행정구역 단위마다 촉진회를 두었다. 조웅호는 재건국민운동 수원시촉진회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조직이 해체된 후 대한체육회 총무과정으로 이직하였다.

이백일은 수원시장을 역임한 후 수원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백일 시장은 2년(1961년 5월 24일~1963년 2월 1일)도 안 되는 짧은 재임기간에 여러 면에서 실정을 거듭하였고, 수원 지역유지들은 이백일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에 이백일을 대신할 인물로 쿠데타 세력 중 이병희 중앙정보부 서울지부장을 선택하였으며, 이병희를 찾아가 출마를 권유하였다. 이후 조웅호는 이병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정치적 지지자로서 활동하였다.

⊕ 친인척들의 관계도 갈라놓는 전쟁

한국전쟁 때 수원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14~15살 짜리가 정확한 기억은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야. 그래서 희한하게 수원에 대한 역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정확한 수원 인구 통계는 알지 못하지만 (1949년) 수원시가 될 때 5만이 넘어가지고 수원시가 된 거거든. 그리고 수원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 안하고, 이쪽 우만동 쪽하고, 역전 쪽하고, 세류동 여기만 수원이야. 수원 북문 밖도 화성군이었고, 영화동 저쪽도 광주군이었고, 수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니까 수원시 자체의 인구는 얼마 없었어요. 내가 1936년생인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인구가 내 기억으로 2만밖에 안 됐었거든. 그니까 지금 백삼십 몇 만이니까 수원이 장족의 발전이 됐는데, 그때는 도청소재지도 아니었어. 그래도 수원이 시(市)이기 때문에 수원이 제일 교통의 요지가 되고, 그때 수원에서 제일 발달된 게 우시장, 그다음에 나무시장, 장사하는 분들이 여기가 집결지니까. 그래도 상권의 중심이 팔달문 주변 지금 영동시장, 팔달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제일 활발하게 됐던 거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수원에 학교가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있었고.

그때 여기가 빨갱이가 제일 많았던 데가 수원이야. 그니까 얘기를 지금 할 게. 당시에 서울농대가 있었잖아? 하여튼 사상적으로 수원에서 조금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거의 빨갱이였어요. 근데 왜 빨갱이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빨갱이가 아니라, 그 빨갱이는 일본을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애국자적인 면도 있었던 거야. 그니까 중국하고 소련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게 일종의 독립운동, 하여튼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김일성이가 이복을 살리니까 그쪽으로 다 들러붙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먹고산다고 땡땡거리던 사람이 다 월북했잖아. 그래서 내 외사촌형이 빨갱이야. 조광현 그 양반이 수원농고를 나왔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그니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양반이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몇 년 차이가 되나? 그때 난 초등학교 다녔어. 지금 살아있으면 94살 정도 됐겠지. 그래 우리 평양 조씨가 아니라 창녕 조씨야. 그러니까 아버지 처남의 아들이지. 근데 서울농대도 들어갔어. 그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광현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했어. 우리 아버지는 비록 학교도 안 다니고 장사하는 양반이지만 이상하게 현실주의자야. 그니까 이복이 싫다 그랬던 분 중의 하나야. 근데 광현이는 알고 보니까 경기도 빨갱이 총책이었어. 지금 말하지만 서울농대 학생들 그 테모 사건이 있었는데, 난 지금도 기억이 나. 광현이가 농대 학생이니까. (경찰과 우익 계열 학생들이) 빨갱이들을 때려잡는다고 농대 기숙사를 쳐들어갔는데 미리 빨갱이 애들은 조금 전에 다 휴가를 가버리고, 모르는 놈들만 거기 있다가 돼지게 맞은 거야. 우리 아버지는 우익 편에 서서 하니까 “이놈이 괜찮은 놈이다.” 그랬는데, 6·25 딱 터지니까 빨갱이 총책이야, 애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6·25 난 지 며칠 만에, 우리 아버지가 고모부인데 갖다 패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광

현이 형이지만 형님 소리도 안 하고 나쁜 놈이라고, 밥 먹여서 학교를 그렇게 보낸 지 고모부를 .... 우리 아버지가 그때 뭐 대단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시골집 여기서 장사하면서 (사신 분이야). 그래서 빨갱이가 난 싫은 거야, 지금도. 인간미도 없는 놈들이야. 그때 그 남학생 여학생 모임에서 저녁이면 수원 시내에 전부 김일성이 사진, 인민공화국 기가 꼭 그냥 붙어.

**전쟁 전이에요?** 전쟁 전 얘기지. 그때는 경찰이 수원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 경찰들이 지나가며 그 벽보 떼느라고 밤새는 거야. 근데 난 봤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오바(오버코트)를 입어, 여기 이렇게 풀을 넣어. 그래가지고 한 놈이 풀을 싹 지르고 가. 그럼 한참 있다 빠라 가진 놈이 벽에 척 붙이고 가는 거야. 근데 경찰이 낮이면 와서 떼고. 그렇게 수원이 살벌했었어. 그때 당시 6·25 전 소위 말해서 빨갱이 사단 나기 전, 6·25 터지기 전이야. 다 월북했지. 월북한 사람들이 수원에서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들딸이여.

**조광현 씨는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반월면 (건건리) 삼천리. 반월면 삼천리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어. 거기 조씨네가 지금도 살아. 창녕 조씨네들.

**반월 사람인데 이제 서울농대 다니니까, 고모부 집에 와가지고 숙식을 했었던 거네요?** 응.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조광현 씨가 농대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농대에서. 그 학생 저거(운동)를. 그래가지고 6·25 나고 나서 그 동생들도 둘인데, 하나는 인민군 자원 입대해가지고 전사했고. 삼천리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거든. 막냇동생은 홍현이라고 나이도 물론 어렸지만.

**조홍현 씨가 막냇동생?** 응. 근데 개는 빨갱이 물은 안 들었어. 광현이는 월북해 가지고 이북서 좋은 자리 했잖아. 그이 어머니(외숙모)도 “아들이 빨갱이니까 언제고 이북서 쳐내려오면, 우리 아들 한 자리 할 거야.” 그 아주머니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

**조광현 씨 어머니가 여맹(여성동맹) 활동하셨나요?** 그런 건 안 했었는데, 그냥 아들에 대한 모정이지. 사상을 떠나서 아들이 빨갱이니까. 그 집에서는 막내 홍현이가 살아남았는데, 나보다 두 살 위 형인데 결혼해서 딸만 둘을 낳았어. 그래서 그 집은 딸 시집보내고 나니까, 그냥 손이 끊긴 거지.

**선생님 고향이었던 정자동은 해방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정자동 쪽은 내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기서(수원읍내) 살았으니까, 고향을 1년에 명절 때나 가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니까 1년에 몇 번은 가도 거기에 대한 건 잘 몰라.

**농지개혁이 됐었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선생님네 집도 거기에 땅이 좀 있지 않으셨어요?** 있었지.

**그러면 농지개혁이 되거나 그러시진 않았어요?** 농지개혁이 돼서 뺏긴 것도 있었지. 정부에서 몰수를 한 거지.

**선생님 집은 소작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학자신데, 그니까 재산이 없던 집이야. 그니까 우린 그 농지개혁해서

땅을 그렇게 바친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그때는 유일하게 우리 집에 라디오가 있었어. 장사했을 때. 그때 라디오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100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을 때야. 라디오가 귀했어. 그니까 6·25가 아침 새벽에 전쟁이 났잖아. 근데 우리가 한 10시쯤 뉴스로 알은 거야. 근데 그 안에 뉴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 나도 듣지는 않았으니까. 그래 사람들이 난리 났대. 그래서 “그럼 라디오 틀어 봐.” 그래 라디오를 트니까 이제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북한에서 제일로 먼저 공격한 곳 중에 하나가 수원역전 아니야. 그 내용 모르지?

네.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7일 수원으로 내려오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양반은 그때 수원을 거쳐 아마 더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수원역에 내려왔다 그래서 27일 한 2시쯤 이북 비행기 야크기가 두 대가 수원역을 저기(폭격)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공군은 아주 빈약했는데 그래도 미국 비행기가 있었어. 무스탕이라는 비행기야. 이렇게 날개에 휘발유 두 개를 양쪽에 단 무스탕이라는 비행기. 우리 수원에서는 본 적도 없어. 그 비행기가 와서 개들 비행기 둘하고 수원역전에서 교전을 한 거야. 교전을 해가지고 한 대는 도망을 갔고, 한 대는 여기 수리산에 떨어졌어. 시흥 수리산에 추락했어. 그게 6월 27일 낮 2시야. 내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처갓집 동네로 간다고 우리를 데리고, 수원역 별관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된 거야.

그걸 보셨어요, 직접? 봤지, 직접 봤지.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지. 보지 않으면 그거를 어떻게 알아.

육안으로도 미국 비행기, 북한 비행기가 구별이 될 정도였어요? 그럼. 미국, 우리나라 비행기 무스탕은 컸고, 개(북한)들은 야크기라고 아주 조그만 거.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라고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냥 아주 날렵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공군이 야크기 같은 게 있었어요. 크지 않고 조그맣고 사람이 혼자 타나 들밖에 못 타는 비행기야. 전투기.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나서 피란을 가시다가 보신 거예요? 응.

피란을 이제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걸었지.

수원역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반월이라니까, 아까. 수원역은 저 앞에다 두고, 지금으로 하면 성균관대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지. 울전으로 해서 반월로 간 거지.

조광현 씨 집 있는 데로 피란을 가셨어요? 그래 거기서 있었지. 며칠.

선생님하고 누구누구가 같이 가신 거세요? 그러니까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거기 있다가 수원으로 다시 온 거야. 근데 광현이가 그동안에 싹 변해가지고 인민군 대장이 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팬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수원에서 못 살겠다.” 해서 그 처남댁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반월이 아닌) 다른 데로 피란 갔었지.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외갓집, 우리 할머니 친정이 지금으로는 저기 제약단지 있는 데 향남면 (행정리) 돌내라는 동네가 있어. 돌내. 이제 거기

서 피란 생활을 하다가 9·28수복 되면서 다시 우리는 올라왔지.

**선생님도 아버님하고 같이 피란을 가셨던 거예요?** 응, 같이.

**전쟁 때 정자리는 어땠어요?** 그때는 동네 빨갱이라는 게 있었어. 동네에 좀 못사는 사람, 머슴이라는 게 있었어. 그놈들이 빨갱이 위원장 차고, 개인감정으로 죽이고, 아 그때는 참 살벌했었어. 근데 정자리에는 조재섭 씨라고 이 양반이 경찰이면서 자기가 인민군한테 “협조할 건 협조하자.” 그리고 “우리 조서방 네 건들이지 말라.” 이 양반이 그렇게 했던 분이야. 그래서 우리 동네는 하나도 죽고 죽이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까지 오면서, 집안이 화목하게 지내잖아. 그때 아마 죽이고 죽었으면, 아버지 웬수니 할아버지 웬수니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 우린 그게 없었어. 근데 다른 집안에는 그게 많았어. 우리 고향은 그렇게 조용했었지. 다른 데는 살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우리 동네는 조재섭 씨가 경찰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잘 생겼어, 체격 좋고. 옛날에도 여기 수원에 보건약국 바로 앞에 과리양장점이라는 양장점도 하시던 분이야. 근데 6·25가 딱 나니까 그때 그 양반이 아마 스물대여섯 됐겠지. 이 양반이 자기 스스로가 인민위원장 직함을 차고, 인민위원장 노릇을 한 거야. 경찰관이.

**경찰인데?** 경찰인데. 우리 정자리는 그때 당시에 수원에서 제일 큰 동네야. 가구 수가 70~80호가 사는 큰 동네인데도 한 명도 집안 간에 이게 없었어. 좌우 갈등이. 이 양반이 다 조정을 해서. 6·25 때도 그냥 인민군한테 협조하는 척하고 다 도와줄 건 하고, 또 인민군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척만 했다. 첩자를 한 거다.” 나중에 그래서 이 양반 도로 경찰로 복직이

돼. 그래서 그 양반이 대단한 분이었어. 그니까 개들이 낙동강이 이제 며칠 있으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아주 짝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전에 같으면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부드럽고 아주 잘 해주던 사람이 ‘너희들 오늘부터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짝. 그러니까 조(씨)가 그때 여물 때야. 조를 세게 해. 그래서 그거 세어가지고 거기서 몇 프로를 내리는 거야.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논이면 논, 밭이면 밭 한 덩어리에 농산물을 얼마 해서 얼마를 내라.” 대한민국에서는 그랬어. 그런데 인민군이 그렇게 하는 척하다가 낙동강전투가 그때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니까, 그냥 짝 애네들이 변해가지고 “저녁에 안 나와? 안 나오면 넌 반역”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에 나가면 그거 있잖아? 장백산 줄기줄기 그거.

**노래를 배웠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끄트머리 모르겠어.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국, 이렇게 나가는 거. 잊어버렸어. 하여튼 지금도 그 노래는 지금 이북서도 그냥 그대로야. 내가 몇 년 전에 이북 갔었잖아. 그래가지고 평양 그 개선문에 장백산 줄기줄기 그게 쓰여 있었어. 내가 우리 친구하고 “여성 동무 우리 저 노래 알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십니까?” “알죠.” 그래 “어떻게 아세요?” “우린 배웠어요.” 그랬더니 “한번 불러 보시라요.” 그래서 했더니 여자가 “선생님은요 여기 사진 찍어 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게 해. 그 노래 불렀다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하하.

**그럼 선생님한테 노래를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였던 거예요?** 인민군이 가르쳤지.

인민군이 직접 노래를? 그럼 인민군이 직접 가르치는 거야. 인민군 내무서원들, 거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그랬어.

## ⊕ 기차 타고 떠난 피란길 그리고 피란살이

수원에 이제 전쟁이 나자마자 피란민들도 많이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보셨던 기억나세요? 봤지, 제일 기억나는 것은 기차야 기차. 기차에 지금으로는 인산인해라고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기차는 꼭 차서 들어갈 틈이 없고, 기차 지붕 위, 떨어져서 죽는데도 거기서 사람이 수십 명씩 거기서 서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굴 지나갈 때 목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랬다 그랬어. 그리고 나도 1·4후퇴 때 는 그 미군 열차 그거 타고.

수원역에서 미군 열차 타셨어요? 응, 미군 열차 타고 화물칸이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장비 실은 거기로 몰래 탑승하는 거지.

뚜껑 없는 화차? 없는 거지.

선생님하고 누구누구 가신 거예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님, 사촌 형님, 그리고 누가 갔어. 하여튼 고향에 있는 사람 한 다섯 명 정도가 갔어.

같이 떠나자, 해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내려가신 거네요? 아니지, 이제 떠나는 거는 나하고 사촌형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넷은 한 날 떠났고, 우리 형님은 그 전에 먼저 내려갔었고.

그러면 미군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가셨어요? 밀양에 내렸지. 밀양.

얼마나 걸러가지고 내려가셨던 것 같으세요? 지금 생각하니깐,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오후쯤 타가지고 부산에 가니까 캄캄한 밤 한 2시 정도 던가, 그 정도 돼서 내린 걸로 기억해.

한 12시간 정도 타셨던 거예요? 그럴 거야. 그래서 하여튼 10시간은 넘어가고 밤 2시니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부산은 덜 추워도, 밀양 추우니까 우선 눈을 띄는 여관에 가서 이제 하루를 잤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형님이 먼저 가 있었으니까, 형님이 그 이튿날 찾아왔는지, 찾아갔는지 하여튼 형님을 만났어. 전화기는 없을 때니까 어떻게 연락이 돼서 만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 멧쟁이셨어. (형님이) 부산에 천마산이라고 그 꼭대기에, 옛날에는 천마산이 무슨 단광이었어. 그러니까 광부들이 집을 지었는데 어떤 집을 지었냐면 일(一)자 집이여. 집이 한 20채가 있는데 마당이 없어. 길옆에서 문 열면 부엌, 부엌 옆에 올라가면 방, 지금으로 말하면 한 7평, 7~8평, 10평도 안 됐을 거야. 그런 집이 쪽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하나를 팔고 가는 거를 우리 형님이 그거를 (샀어.) 부산 토박이 허 영감이라는 분인데, 허 영감 내외가 자식이 없이 살았어. 근데 그때 내가 15살일 때 그 양반이 40 중반 때인데, 그 양반이 그 집을 소개해 거기서 한 4개월 살았었지. 그래서 내가 먹고살 만하길래 불들이 엄마 생각이 나서 가서 고기 좀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못 찾았어.

불들이 엄마? 응.

그럼 한 4개월 정도 그 집을 임대 형태로? 아니야, 돈 주고 산 거지.

그럼 올라오실 때 다시 팔고 올라오셨어요? 몇 곱 넘겨 팔았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배를 타고 인천으로 해서 이제 왔지.

배를 아예 장만을 하셨어요? 아니. 뱃삿을 낸다고.

그 배는 부산을 통해 남해안 거쳐서 서해안으로 해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응,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거지.

바로 들어오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올라오는 재주가 없을 때니까. 올라오는 것은 차편이 없으니까. 기차나 이런 게 군대시절이니까는 통과시키지도 않는데, 유일하게 배는 통제가 안 됐어.

육로는 육군이나 이런 데서 다 통제를 해서 군수용으로만 사용하니까. 응. 그러니까 배만 통용이 돼서 배를 탔지. 그래서 배를 가지고 한 1주 이상 왔지.

그 배는 일반 민간 선박이에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배. 오다가 또 배가 고장이 나서 완도에서 수리하느라고 한 3일 있었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완도에 가서 시장 안에 그 집을 추억해서 찾으려고 보니까 수리한 데 못 찾았어. 그때도 완도 그 여인네 집도 우리 피란민이라고 자기 집을 내서 그냥 돈 안 받고 채워 줬어. 그래 고마운 분이지. 근데 내가 바보같이, 그때 좀 똑똑했으면 주로나 이런 걸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경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하니까 그때서 고마운 걸 느껴 찾아가니까, 그때 세월이 (흘러서 찾을 수가 없었어.)

인천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인천서부터는 수원까지 걸어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인천 시내는 거의 걸은 거고, 그때 인천서 수원으로 트럭을 탄 것 같아, 트럭.

트럭을 얻어 타셨던 거예요? 응. 수원으로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들어왔더니 수원 상황은 좀 어땠어요? 여긴 쉽게 말하면 폐허지 뭐. 여기 시내에 집이 하나도 없었어.

전쟁 때 다 파괴돼 가지고요? 응. 근데 누가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우리 집이 유일한 초가집이었는데,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불이 나서 우리 집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기 다 타서, 6·25 이후에 내가 제일 먼저 집을 지었잖아.

그러면 그 인천항에 갔다가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벌써 다 파괴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당장 어떻게 사셨어요? 이제 고향집, 정자리에 집은 있었으니까. 그래고 우리가 부산 가가지고, 좀 꾸무럭거리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잖아.

뭐 하셨어요, 장사는? 지금으로 하면 국제시장에서 옷 장사했지. 피란민들이 와

서 먹고살게 옷 팔면 이제 피란민들이 이것저것 우리에게 맡겨.

옷들을 맡겨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옷들을, 헌 옷들? 응, 헌 옷. 그거를 내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3만 원, 그러면 그 옷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여자가 나한테 2만 원만 달라고 하면 내가 이제 1만 원 수고비를 받았지.

선생님이 옷을 장사하셨으면 아버님이나 형님들도 다른 장사를 좀 하셨어요? 그니까 그 옷 장사하셨지. 돈이 없으니까 추녀 밑에다가 이제 줄을 하나 이렇게 띄우고, 이제 거기다 옷을 걸어 놓고 이제 팔았지. 이것 좀 말아 봐.

그거를 그 가게 점포 주인들이 허락해 주면? 그럼.

추녀 밑에다가 이제 노점 같은 것을 약간 만들어. 노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옷만 걸어놓고. 응,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그냥 사는 거야. 국제시장에는 노점을 차리는 자리가 없고. 그때만 해도 부산이 어떠냐면 사람에 아예 치여 죽어. 죽는다고 그럴 정도로 많았었어.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야 시장. 아주 국제시장이 바글바글 했으니까 그냥.

한 년 정도 그럼 장사를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던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 돈 번 거 가지고, 우리 여기 집 지을 때 지붕, 도라무깡(드럼통) 그거 뚜껑은 내가 돈 냈지. 우리 아버지 줬지.

이게 한 5월 달에 다시 오신 거예요? 1·4후퇴 때 가셨으니까. 1·4후퇴 때 아니지. 1·4후퇴 전에 갔으니까. 한겨울은 부산서 난 거지. 그니까 꽤 오래 있었네. 4~5개월 된 게 아니네. 그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1월 달쯤 간 거 같아. 기억이 눈을 밝고 갔으니까 11월 말께 가가지고, 그 이듬해 한 6~7개월은 살았구나. 그래도 꽤 오래 살았네.

### ⊕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을 다시 짓고

그럼 (수원) 오셔가지고 이제 정자리에 있으면서 여기(영동) 집 짓고, 가게 짓고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응.

필요한 물건,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수원이 상권이 형성되니까, 시장은 좀 형성이 됐던 거야. 쉽게 말하면 5일장이라 그래가지고, 4일과 9일 날은 수원으로 여기 인근에서 다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서로 물물교환 하고 그랬지.

그때 목재나 이런 걸 가지고 다시 가게를 만들고 그랬던 건가요? 목재라는 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목재가 아니라. 어디서 집 무너진 거 그런 목재고, 이 벽은 도라무깡 두들겨 가지고 퍼서 깡통이지, 깡통. 요만한 콜라병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것을 겹치고, 겹치고, 겹쳤어. 이래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겹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없어졌지만 중앙극장 있잖아. 중앙극장 처음 지을 때도 그 깡통 도라무로 해서 지은 극장이여, 그게.

그때 그게 유일한 건축자재였으니까.

아니 어떻게 짓는 거예요? 그 당시 집 짓던 과정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집 짓는 것을 말하면, 무너지고, 불타고, 깨지고 그랬지만 기왓장이나 이런 것도 성한 것은 성한 대로 고르잖아. 그걸 집합시켜가지고, 이제 기둥도 되고 하나의 서까래도 되고, 목재소라는 것은 없었고. 그니까 재활용하는 거지.

그래도 기둥은 세워야지요? 기둥이야 다 흰 기둥으로 한 거지.

다 기둥들 세우고, 그다음에 흙이나 이런 것도 좀 사용하나요? 그럼 그땐 다 그러지.

벽은 이제 흙으로.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옥수수 수수대 있죠, 수수대. 수수대를 이렇게 노끈으로 묶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수수깡을 붙여. 그리고 거기다 흙을 붙이는 거야.

깡통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벽, 지붕 같은 데다? 지붕도 하고, 그건 돈 많은 사람이 한 거지. 깡통 같은 걸 사용하는 건 돈이 있는 집, 그건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잣집에서나 샀지. 그거 생각을 해봐. 이만한 걸 수백 개를 올려붙여서 한 장을 만들려면. 그 노임비가 얼마야? 이게 지금 두 분은 상상도 못 해.

중앙극장 지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인데도 그랬어.

나중인데도요? 응. 근데 왜 그때 그걸 그랬냐면 중앙극장을 지을 때 수원시제향군인회가 그걸 지었어요. 그니까 이놈들이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게 가가지고 강제로 얻어 온 거지. 지들이 상이군인이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뭐 그런 일화가 있었어.

그러면 그때는 깡통이 붙어 있는 집은 되게 잘 사는 ... 그거는 지금 말하면 고급 빌라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원도 거의가 흙집이었어. 땅 파고, 지붕만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우리 집 앞에도 몇 집이 그런 집 있었어. 저 땅에다 흙을 파가지고, 위에 지붕만 덮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살림하고 살았었어. 많았었어, 수원에. 세류동 같은 데는 거의 다 그렇게 살았어.

피란민들인 거죠, 거기는? 거의 그렇지. 피란민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그 후에 (피란갔다) 와서 이제 자기 집들을 짓기 시작했지, 이제. 하나 둘씩.

피란민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도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내 여기는 다 불타 없어졌고, 수원서 변두리 쪽에는 집이 드문드문 있는 데는 불이 안 난 거야. 그래 거기서 사는 거지. 변두리에서.

전선이 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학교를? 다녔지. 나는 그때는 수원중학교 다녔지.

수원중학교 2학년 때 전쟁이 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 학교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피란민들이 교실을 다 뜯어다 불을 뺏기 때문에 학교가 빈 벽돌집이야. 그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면 개인 집 마당에서 돌에 앉고 칠판 하나 갖다 놓고 공부 배웠지.

개인 집이면 누구네 집에서 배우신 거예요? 그니까 학교 설립한 그 흥씨 집안이 매산동에 건물이 있었어.

매산동 쪽에서. 그러면 수원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 아니야. 학교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 데니까.

그래서 매산동에 있는 흥씨 집안 건물 마당에서 배우셨어요? 응.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꽤 걸렸지 아마. 한 4~5개월 이상 공부했을 거야. 그 안에 학교 복구를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지.

이 건물이 설립자 분 덕이예요? 아니면 교장 덕이예요? 설립자지. 흥사훈 씨네 집 같아.

수원중학교나 수원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나 재학생들 중에서 전쟁 나가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분들을 다 기억을 (못 하지). 지금 수고에서 나한테 2년 선배들이 몇 사람이 살아 있는데, 수원고등학교 가면 명단이 있어. 지금도 살아 있어, 그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 보라는 거야. 난 직접 전쟁은 안 했으니까.

## ⊕ 광고산에서 총살된 줄 알았던 좌익 여학생의 생존

1955년에 대학에 입학하셨죠?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서울 시내버스가 내 기억으로 120원인가 했는데 수원은 130원이야. 근데 “거리도 짧은데 왜 130원을 받느냐.” 그래서 내 대학생 때 수원시청에 쳐들어갔어. 그랬더니 시장은 못 만나고 부시장이 있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수원노인회 회장도 했어. 그 사위가 수원시 주택과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따지니까 부시장이 “학생 말이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지는 바람에 130원 받던 걸 110원 만들었어. 내 공로여 그거. 그래가지고 나는 버스를 1년에 탄 적이 몇 번 없어. 지금도 내가 걸음이 빠른 이유가. 수원역전까지 몇 분 거리야, 여기 딱 2킬로야. 보건약국에서 2km 가는 데 몇 분이던 가는 줄 알아? 빨리 걸으면 13분.

차보다 빠르시네요. 하하하. 근데 시내버스가 생긴 후에 시내버스가 15분 간격으로 다녔거든. 그래 하나 놓치면 기다리느니 가는 게 빨랐어. 그래 새벽 5시에 눈을 감아 줄면서 그냥 (걸어갔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석탄 기차야. 그니까 병점에서 기관사가 뽅, 뽅 소리 울리면 여기 수원까지 들려. 병점인니까. 그럼 그때는 기차가 빨리 달려야 40km 정도야. 그래 몸 빠른 사람은 뛰어올라 타고 그랬었어. 기차가 출발해가지고 속도를 못 낼 때 우리는 차가기를 기다렸다가 기차가 떠나면 한참 있다가 올라타고 그랬어, 장난으로. 내가 젊을 때부터 너무 극성스러웠어.

근데 대학 다닐 때 버스에서 누굴 만나. 수원여고 그 양반이 그때(1950년) 3학년이야. 이옥자 씨가 수원여고 3학년인데, 지금 나이로 아흔하나, 살아계실 수도 있어. 광현이가 농대 다니면서 이옥자를 수원여고 빨갱이로 만들

려고 세뇌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옥자가 완전히 빨갱이로 전향이 된 거야. 전향이 돼가지고 여맹위원장이 돼서 이제 6·25가 딱 나니까 경찰에서 옥자를 잡아서 광고에서 총살을 시켜. 근데 애가 옥자가 나한테는 누님이지. 누님의 친구. “김일성이 만세” “탕” 하고 죽었어. 근데 깨고 나니까 어떤 남자가 업고 가는 거야. 이거 실화 얘기여.

**진짜요?** 소름 끼치지. 실화 얘기라니까. 그래가지고 업고 가는데 남자가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다른 놈은 다 죽고 옥자만 안 쏜 거야. 이게 실화, 소설 같은데 수원 실화야. 그래 옥자는 “김일성 만세” 하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기절한 거지. 애를 헌병이 업고 피란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옥자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나 하나가 김일성을 위해서 뭐 하면 뭐 하느냐. 내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다.’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해. 근데 애가 헌병인데, 근데 나중에 부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대학생 때인데 서울 남대문 밖에서 수원 가는 버스를 탔는데, 딱 한 자리 비었는데, 예쁜 여자가 앉아. 그래 내가 앉았는데 궁금하잖아. 나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 예쁜 여자가 앉았어. 여자가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너 연호 동생이지?” 이러는 거여. 그렇다니까. 난 (이옥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여. 그리고 빨갱이 한 거 아니까.

**깜짝 놀라셨겠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이거 경찰에 간첩으로 신고해? 근데 옥자 누님이 “나 사실은 여차저차 해서 지금 대한민국 헌병 장교, 대위 장교 부인이 됐는데 친정에 비밀로 왔다가는 거야.” 그때만 해도 수원에 친정이 있어가지고. 여기 옥자 집터가 지금 저기 설령빌딩, 무슨 바람난 물고기 고기 파는 집 그 빌딩 아래가 그 옥자네 집이었어, 기와집.

**그분 아버님은 뭐 하시던 분이세요?** 그거까지는 내가 모르지, 그때 내 나이 어렸을 때고.

**그 살게 됐던 과정이나 이런 걸 그분한테 직접 들으셨어요?** 그 광고산 학살 이야기를. 그렇지. 그 여자가 얘기해줘서 알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나한테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알은 거지. 그래서 여기 수원 와서도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 진짜. 이거를 경찰에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내가 고민했다니까. 그때만 해도 여고를 다니는 게 수원에서 몇 사람이 많지 않을 때야. 그래서 여고 다닐 정도면 집안도 어느 정도 좀 잘 살았겠지. 여자가 이렇게 평등하지 않을 때니까 아버지가 딸들은.

**학교 안 보냈죠.** 재밌지, 드라마 같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은 그 이후로는 수원에 잘 안 내려왔겠네요? 그 후에는 내가 못 만났지.

### ⊕ 1960년대 재건국민운동

**시청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했죠?** 내가 62년도에 거기 근무를 했었거든, 시에서.

**62년도에 박정희 시절에.** 이백일 시장이 시장했을 때. 나는 거기서 공직생활 한 3~4년 했다. 하다가 거기서 꼴탱이 하기 싫어서 수원문화원에 근무를 좀 했지.

문화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응. 수원문화원에서 도서실장을 했었잖아. 지금 보전소 자리. 그게 예전에 목조건물이었어. 거기 다니다가 이제 집에서 취직 하라고 해서 72년도에 대한체육회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큰소리치고 좋은 자리에 있었지.

50년대에 공공기관들도 이제 조금씩 다시 복구를 하고, 중앙극장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50년대 막 복구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서는 그때 김한복 시장이 있었을 시점이잖아요. 응, 김한복이가 초대 시장이지. 그때 당시에는 읍장이나 시장이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지금으로는 동장만도 못한 거지. 사람들이 5만이고, 전쟁 통이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별게 없었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그때는 군인들이 와서 시장을 했잖아. 소령들이 와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백일 시장이 나를 임명해준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고마운데, 수원으로 볼 때는 시장 안 했으면 좋은 거지. 그니까 이 사람이 그때 수원시청에 기관단총을 걸어놓고 집을 주면서, 저는 그 뒤에 태호정이라는 요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집애들하고 술 쳐먹고, 난리치면서 공무원들 때려잡았지. 정말 때려잡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영동시장에 순찰을 하는데, 지금 대한약방 그 자리 옆에 어떤 여자가 그때 당시 연탄을 때니까, 연탄재를 둘 데가 없으니까 가게 앞에다 내놓은 거야. 저 집 앞에 연탄재 놓는 게, 지금 그게 무슨 죄야? 근데 이 시장이 지나가다가, “저년이 저러다 불 났 년”이라고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영동시장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시장 했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싶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수원)시장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원 유지들이 이 사람은 안 되니까, 이병희라는 사

람을 찾아가서 이병희가 육군 대위였는데, 정보부 서울지부장 할 때야. “당신이 수원으로 와라.” 근데 이 양반이 용인 사람이거든. 지금으로는 동백지구. 그니까 수원으로 데려와가지고 이백일을 국회를 못 나오게 하고 이병희 씨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지. 그래서 이백일이가 수원에 한을 품고 떠난 사람이고.

이백일이 왜 기관단총 놓고 그랬어요? 요정 위에다가 기관총을 달았다니까. 개인 지붕에다가. 지금으로 하면 위세 과시한다고 그럴까.

인심을 많이 잃었겠네요? 많이 잃었지, 이백일은.

이병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여기에서 특무대에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좀 알고 있어가지고? 수원 유지들은 알고는 있었지.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서 53년에 영동시장이 불 나고 복구가 되잖아요? 영동시장은 상황이 어땠어요? 영동시장은 다 판자촌이었어. 시장은 전부 다 그때는 피란민들이 판자촌, 지금으로 말하면 비만 겨우 가릴 정도로. 그때 대부분 다 타고 없었고, 지금 내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옛날 수원극장 그건 안 탔잖아. 그거 하나 안 타고, 여성회관 앞에 옛날 건물 부국원, 그건 목재가 아니니까 불이 안 난 거지.

그럼 50년대 후반에 선생님은 서울로 학교 다니시고 그러시니까 수원을 잠시 떠나있어서 그 당시 상황들은 좀 ... 모르지, 그때는.

60년대 돼가지고 이백일 시장 시기에 이쪽에 오신 거잖아요? 응.

그때는 시험을 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공무원시험을 치신 거예요? 아니, 나는 물론 초급공무원이지만, 재건국민운동 수원지부 공채로 이제 들어온 거지. 이백일 시장이 임명한 거니까 그거는 시험 봐서.

그때 설경동 씨가 이백일 시장 당시에 수원 재건국민운동 기금을 주었잖아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야. 향교도 다 불타 없어져서 새로 지은 거 아니야. 다 그 양반이 낸 거야. 그걸 짓고 수원 성 안 아스팔트 그 양반이 다 한 거고.

성 안 아스팔트가 그때 설경동 씨가 돈을 낸? 개인이 한 거야. 그때만 해도 진흙 길이었어. 국가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지금으로 하면 저 팔달산 꼭대기에다가 소방탑이라고 해서 화재 나면 이렇게 (소방방송을 했어). 그래서 문화원에서 거기다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수원 시내에 우리가 방송했어. 방송한 게 수원문화원 지금 그 자리에서, 개가 저 이름이 방씨인데. 그 아버지가 방구현 씨라고 옛날에 시의원을 했었어. 구천동 사셨어. 방구현 씨 큰 딸이야. 방구현 씨가 50년대에 돌아가셨어. 방구현이 또 셋째 딸이 남창학교 앞에 2층 집에서 빼어로를 했어. 내가 술 좋아하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다, “자네는 어디 사람이야?” “수원 사람이예요.” 그래서 “수원?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방모라고 해. “그럼 너 아무개 아니?” “제 아버님을 아세요.” 그래서 어려워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안 다녔지.

선생님이 재건국민회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재건국민운동. 이제 동에 나가서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말 그대로지 ‘재건’, 길 넓히고 농사짓는 거 개량하고, 꽃밭 만들고 그런 거. 그때 국민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진짜 다 애국자들이었어.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워낙 박정희라는 사람이 큰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영구집권을 하려는 무슨 소동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야당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그래서 야당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럼 군인들이 손을 떼고 민간인이 한 게 누구냐면 저 서울농대 교수였던 유달영 씨가 이제 한 거잖아. 근데 유달영 씨가 학자니까. 여주 양반이야, 유달영 씨가 참 훌륭한 분인데, 이 양반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자기는 대학교 교수를 했는데도 마나님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여자하고 만나. 그 마나님을 그래도 교수 부인답게 교육을 시킨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본부장이 됐는데 보니까 밀창 사람들은 다 군인들 아니야. 민간으로 왔어도, 전역하고 왔어도 군대 기질이 그대로니까 다 거짓 보고를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안 한 것도 했다 그니까 우리한테도 66년인가 65년까지도 그냥 위에서 없던 것 실적을 만들어내래. 그냥 무조건 써만 내래.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는데.

안 맞는구나. 농로 개설을 갖다가 대한민국 전체 길이보다 더하게 부풀린 거야. 그니까 박정희가 “아니 대학교 교수가 숫자를 그렇게 몰라요. 대한민국 땅이 요만한데, 어찌 그렇게 넓혀요. 말도 안 되지.” 실제로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10평인데, 도로를 11평으로 만들었다는 게 말이 돼. 안 되는 소리를 이 양반은 적어 주는 대로 그래가지고 본부장이 그 다음 날로 잘리셨지.

그러면 재건국민회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66년까지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안 굴러가기 시작했던 거네요? 응.

근데 이제 재건국민회 거기에 사용되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거는 다 시에서 대줬지.

저기 공공에서 나오는 비용들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민간으로 갔어도 시청 소속이야. 시청 공무원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 중 그 후 시청에 잔류해서 근무한 사람도 많아.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떠났지.

그때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두 사람만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하나는 도에 무슨 계장으로 있다가 이모 씨인데 농고를 나왔고 세류동에 사는데 개가 나보다 한 서너 살 어린데, 개가 지금 살아있고, (또 하나는) 나보다 서너 살 위인데, 그분은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식사 대접은 했는데, 수원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다 돌아갔어.

그때 재건국민회 회장 혹은 의장이라고 할 거는 시장이 하는 거고요? 시장이 하다가 민간으로 와가지고, 저기 초대가 매산학교 교장으로 있던 양반인데, 내가 존함도 잊어버렸네. 그분이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누구였나면 여기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 독립병원장 하던 이병직, 내가 있을 때 모시고 있던 분이야.

이병직 의원이 60년대부터 벌써 지역 활동들을 하셨네요. 예.

## 수원소년직업학원 야학교사 시절

선생님 어디에서 야학 교사활동을 하셨어요? 수원에 내가 아는 데 다 가서 했어. 나는 수원직업학교라고 그걸 만들고, 그걸 내가 했었지. 근데 처음에는 경찰이 글 모르는 애들 데려다 가르쳐서 하다가 그게 넓어져가지고, 생활이 어려워 중학 과정을 못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학 과정을 가르쳤지. 그래서 내 가르쳤던 애 중에서 잘 된 놈은, 우리나라 유명한 박사 나오는 데 뭐지?

카이스트. 카이스트. 거기 박사도 내가 하나 만들었지. 수원에 그 수원농고 서무과장인가, 개 김 모 개도 내가 가르쳤지. 용인 전화국장 하던 사람도 내가 가르쳤지. 저녁도 굶어가면서 밤 10시까지.

그게 재건국민회 활동 하시던 그 시점에 같이 하셨던 거예요? 응, 같이.

그럼 직업학교는 수원역 쪽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여기 팔달산. 처음에는 어디 있었냐면 요기 지금 백병원 그 뒤에 무슨 공장이 있었어. 거기서 했었어. 퇴근 해가지고 저녁 10시 넘어 끝나면 배고프니까, 막걸리 한창 먹을 때니까, 돈이 없으니까, 토끼집에 가서, 셋이 가면 2인분 시켜 놓고 먹었으니까.

토끼집은 어디 있던 거예요? 토끼집은 처음에는 천문옥이라고 여기 있었어. 지금 삼영약국 골목으로 가는, 지금 수원 팔달문시장 상인회 그 옆에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 여자가 돈 좀 벌어가지고 금성나사라고 남문 옆 가도(街道)에서 했어.

간판 자체가 토끼집이에요? 토끼집이야.

그럼 야학에는 몇 분 정도 선생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반이 하나였어요. 애들이.

한 반, 몇 명? 그래도 숫자는 많았어. 한 60명 넘게 있었어.

꽤 됐네요. 근데 교실이 컸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선생 한 네다섯 명 정도가 가르쳤지.

대학생들이셨던 거예요? 그러지.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그 공채하기 전에 야학교 선생을 했으니까. 다 무보수로 한 거야. 신던 신발 모아서 갖다 주고, 고구마 찌다 먹이고. 나도 그거 보면 참 좋은 일 많이 했어. 이제 내가 지금도 눈물이 나는 게 그 애들을 시켜서, “학교를 짓자. 그래서 흙벽돌을 좀 짚자.” 그래가지고 저기 삼일고등학교 있는 그 뒤 독립 담 있는 데서 흙을 받아 벽돌을 짚어서 이제 거기다 굽는데, 그때 애들이 밥을 먹는데, 도시락 뚜껑만 열었다 닫았다 해서 가보니까 밥을 싸 오래도 밥은 없으니까 이놈이 빈 도시락만 가져오고, 열었다 닫았다 먹는 척을 해. 그래 내가 눈물이 나잖아. 마누라한테 “고구마라도 사서 삶아라. 애들 먹이자.”고. 내 처가 많이 해먹었네.

직업학교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거죠? 중학 과정 가르쳐 가지고, 개들이 그 때 당시에는 그래도 야간학교를 다닌다고 정부에서 중학교 나온 자격을 인정했어.

자격을 인정해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개들이 수성고등학교 2회로 들어갔잖아. 아! 남연준이다. 남연준이라고 그 부인이 김승희라고, 글썄 내가 그때 막 결혼하고 났는데, 이것들이 18살인데 연애를 하는 거야. 그래 큰일 났잖아. 근데 젊은 애들 불붙으니까 이건 선생이 때는 재주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가을소풍을 농대 뒷산을 가서 양쪽 부모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내 까놓고 얘기를 했어. “이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열여덟이면 다 컸으니까. 부모들이 여기서 결정해라.” 부모들이 거기서 “사돈 합시다.” 그래가지고 OK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그때 스물한 살인가 두 살 때 결혼을 하겠다고 나한테 주례를 서 달래. 근데 그때 나 머리 뺏뺏 쥐고 다닐 때거든. 머리로 없는 사람이 주례를 설 수가 없어서 내가 수원교육장 그 양반한테 “선생님 주례 좀 서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글썄 나보다 애들 먼저 낳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놈이 나중에 용인 전화국장까지 했어. (남)연식이라고 그 동생은 수원축구협회 회장도 했어.

그럼 이 집 식구들이 수원 쪽에서 그래도 좀 자리를 잡고 살던 분들이네요? 응, (김)승희도 수원시청 공무원도 하고, 내가 가르친 애들이여. 그래도 수원지역에서 다 훌륭한 자리 했잖아. 그래 나만 보면 지금도 “아유 선생님” 그래. 어려워 해. 그것들이 벌써 지금 일흔 서넛 됐지.

수원문화원에서 하시다가 체육회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대한체육회. 내가 28살 때 장가를 안 가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28살 되던 해 우연히 우리 누님이 자기 가르친 선생 중에 관찮은 여자 있다고 해서, 청주사범 나온 여자를 만나. 그래가지고 3월 달에 만나가지고 6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3개월 만에 벼락 결혼을 한 거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야학이나

가르치고, 돈 버는 짓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공무원 초임이 4만 원이야. 60년대에 4만 원이야. 근데 그때는 공무원이 지금처럼 계급도 여러 개가 아니고, 공무원 그러면 그냥 다 초임이 똑같았어. 4만 원. 그리고 이제 조금 오래 있는 사람들은 4만 5,000원. 그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났을 때야. 그리고 당시에는 국장이라는 말도 없을 때고. 과장도 없을 때지 그때는 아마 계장인가 그랬던 건가 했을 거야. 그래 4만 원 가지고 그게 쌀 80kg짜리 두 가마야.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쌀 80kg이라야 아마 36만 원, 두 가마라야 한 70만 원, 지금 한 70만 원. 그때는 그거 먹고 살았어.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살았어. 그땐 물가가 싸서. 짜장면 한 그릇에 30원, 20원 그럴 때니까 4만 원 가지고 먹고살고 그랬었어. 그리고 또 그때 공직에 있다고 웬만한 자리 가면, “여 이리 오슈.” 그리고 짜장면은 으레 얻어먹는 거고. 설렁탕은 조금 나온 사람한테 얻어먹는 거고. 그래도 그때는 공직생활을 보람 있게 했어. 그래서 지동에 거진 내가 전부 가서 가갸겨겨 가르쳐가지고 할머니들이 전부 다 까치, 너구리 가르쳐가지고 내가 문맹을 깨쳐줬지.

**지동 쪽에서도 야학을 하셨어요?** 저녁이면 한글 공부하려고 어느 집에 모여. 그럼 가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야.

**그것도 재건국민 활동하실 때?** 아니야. 재건국민회 그 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야학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동학교, 인계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서둔초등학교, 과장초등학교, 수원향교, 직업학교 일곱 군데를 내가 가르쳤으니. 그걸 차가 없으니까 다 자전거 타고, 눈 많이 오는 날은 그놈의 눈길에 자전거 타고 미끄러지고, 아휴. 진짜 누가 나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동이나 인계동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개인 집에 누구 모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했어. 야학, 야학.**

**저녁 때 학교 시설에서? 응.**

**그럼 지동은 지동국민학교에서 했겠네요?** 응. 내가 이룰테면 월요일은 지동학교, 화요일 날은 인계초등학교, 수요일 날은 신곡초등학교, 목요일 날은 서둔초등학교 이렇게 다닌 거야.

**선생님 혼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사람들이 많았지. 여러 명이었지. 그때 내가 기억으로 한 대여섯 명이 했지.**

**그럼 그 대여섯 분이 수원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 중심이 됐던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전부터 좀 친분이 있던 분들이세요?** 아니지. 야학에서 만난 사람들이지.

**야학으로 만났는데 하면서 운영방식이 각 요일별로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를 예로 들으면, 무슨 한국지리를 가르쳤어. 그럼 어떤 애는 국어를 가르쳤어. 어떤 애는 영어를 가르쳤어. 수학을 가르쳤어. 이렇게 다 그 분야별로 달랐지.**

**그럼 이분들이 매개가 된 게 직업학교에서 만나서 확장이 된 거예요?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재건국민운동 거기서 만나가지고 재건국민운동 하던 사람 중에 뜻 맞는 사람이 “우리 봉사를 하자. 우리가 국가에서 녹을 먹는 만큼 우리도 사회에 봉사하자.”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저녁도 굶어가**

면서, 그때도 먹고살기도 그런데, 누가 빵 하나 사주는 사람 없을 때야. 그러면 그 젊은 놈이 그냥도 배고픈데 몇 시간 동안 떠들고 나면 (얼마나 배고팠겠어).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잖아. 그거를 십 몇 년을 했으니.

**언제 그만두셨어요?** 내가 체육회 간 뒤에 관뒀으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영우 시장한테 얘기해서 팔달산에 터를 내가 보증을 서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십 몇 년을 봉사해서 학교를 만들었더니 친구가 그걸 다 팔아먹었잖아. 우리가 열 몇 명이 고생하면서 학교 짓고, 그 돈을 또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돈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난 그래서 내기라는 걸 안 해 지금도. 내 손이 희한하게 뭘 하면 돈이 붙어요. 내가 특별강사를 가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불러다가 특강을 시켜. 10전투비행단 공군 소령인데 개를 불러다가 특강을 시켰더니 이놈이 처음에는 애정을 가졌는데, 어느 날 미군부대에 항공촬영 필름이 있는데 미군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처분해 버리니까 미군한테 가서 “나 수원직업학교 선생인데 그거를 날 주면 그거를 팔아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해라. 그래서 미군이 OK를 했어. 그래가지고 필름을 공 소령을 쫓아.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걸 서울 남대문에서 어떤 놈한테 팔았어. 그때 120만 원이면 지금 1억 2,000도 더 되는 돈이야. 30cm 잘라서 파니까, 필름으로 쓰니까. 그 필름이 그때 일본 후지필름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돈으로 120만 원에 이놈이 팔았어. 우리는 몰랐지. 근데 서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직업학교에서 날 찾아와서 탄로가 난 거야. 하루는 학교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그러더니 나한테 물건을 달래. 그래서 무슨 물건이냐. 별안간에 물건을 달라니까. “왜 그 좋은 물건을 특정인에게만 주냐.”고 그래서 내용을 얘기하라고 했지. 그래서 공 소령을 불렀지. “너 명색이 소령이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영관

급이야, 고급 장교야. 그런데 고급 장교가 불쌍한 애들 핑계 대고 니가 돈을 끌려 해. 너 죄 지어라 새끼야. 어떻게 할래, 이 새끼야.” 벌벌 떨면서 “120만 원 그대로 가져올 테니 제발 좀 없던 걸로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이제 직업학교를 만든 거지. 근데 그걸 어떤 우리 친구 놈이 다 팔아 처먹어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만든 돈인데. 그래가지고 직업학교에 돈이 생기니까, 그 돈 가지고 시내버스도 샀었잖아. 수원 시내버스를 샀었잖아.

**운행하는 거예요?** 응. 돈 현찰 갖고 있으면 뭐 해. 그니까 수원여객의 주주가 돼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잡았지.

**그래서 그 수입으로 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응. 그런데 공 소령한테 나만 죽일 놈이 된 거 아니어.

**그 다음부터 공 소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았지. 나를 아주 웬수처럼 여기는 거지. 직업학교도 못 나오고, 창피하니까. 근데 자기가 한 것이 있으니까.

### 1950~1960년대 수원 솔집 풍경

**50년대부터 10전투비행단이 있었잖아요?** 비행장 쪽에 10전투비행단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공군이 강릉에서 수원으로 많이 지원을 왔지. 강릉비행장에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수원이 준 전시시대니까. 수원비행장이 최고로 여길 때니까.

강릉비행장에서 비행사들이나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공군 파일럿하고 수원의 토박이들하고 싸움도 많이도 했지. 그때는 파일럿들이 금지가 있잖아. 그니까 개들이 수원에 오면 요정에서 다 판을 치는 거야.

술 먹으러 와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폼 나게 노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수원의 건달들이 “야 이 새끼야, 어디서 이것들이”

우리 바닥에 와가지고. 응. 그래 싸움도 나고. 그래 또 재미난 얘기는 그때는 어려우니까 술집에 여자들이 많았어. 예쁜 여자들이 참 많았어. 누가 “야 나 수원지방 검사야.” 그러니까 “야 검사는 뭐 대단하냐. 난 판사야.” 그래가지고 맥주병으로 막 서로 던지고 난리쳤어.

그때 수원 요정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집 옆에도 요정이었고.

남문 이 시장 이 주변에. 이 옆에도 노씨라는 사람이 요정을 했고, 대원옥 자리 거기가 무슨 요정 자리야. 그거하고 이 시장에는 큰 요정이었어.

그게 60년대? 50~60년대 초까지.

이때까지 종로하고 남문 쪽에 요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종로 저 위에 차서방네 기와 집 자리 거기가 있었고.

차 서방네 기와집 자리면 어디예요? 차 서방은 누구예요? 수원체육회 사무국장 하던, 공 잘 차던 차준만이라고, 차준만이 아버지 건물.

한국관? 한국관.

성 안의 한국관도 유명한 거였어요? 응. 한국관 거기에 있고, 이쪽에 시장 안쪽에 그 집은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도 큰 요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도 잊어버렸어. 지금 거기를 뭐라 그러더라. 천 무슨 식당, 그 앞 골목에 큰 식당이 하나 있어. 그 집에도 나 자주 갔었는데.

몇 개 정도가 유명했던가요. 한 네다섯 개 정도 됐던 거예요? 그때는 네다섯 개밖에 없어.

50년대, 60년대 이제 술 먹으러 가면 돈 많이 가지고 이제 요정을 가는 거잖아요. 여긴 좀 돈이 있어야 가는 곳인 거죠? 응.

아까 그 토끼집이나 이런 막걸리 집은 싼 거고? 그건 제일 하질.

그럼 우리가 실비집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실비집은 일반 식당이지. 요정이라는 소위 말해서, 여자들이 와서 술 따라주고 같이 춤추고 뭐 그냥.

춤도 취요? 한 상 딱 나오는 거잖아요. 요정에 가면? 그니까 그 요정이 변해서 나중에 카바레라고 하나 잘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50년대 시청 앞에. 한국회관이라는 게 있었어.

태호정. 태호정도 음식점 겸 요정이었어. 거기도 여자들이 술 따라주고 그 했어. 근데 태호정은 수원 최고급 요정이었지. 수원 제일 비싼 데고, 우리 같

은 사람은 태호정에 못 갔어. 수원에서 돈 많은 유지들만 가는 거지. 우리는 나이가 어리니까 거기 못 가지.

50년대 수원에서 생산하는 약주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셋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로얄극장 자리가 셋별 공장 터야.

유명했어요? 수원 사람들이 찾는 술이 셋별 술.

고색양조나 수인양조 같은 경우는? 거기는 박지원 씨가 만든 건데, 수원주조합회 같은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합동으로 양조장을 만들어가지고, 공동판매장이 여기 있었어. 특판점이라고 시장 안에 대리점. 박지원 씨네 거기서 만든 것도 여기 와서 팔았지.

그럼 여기에 특판점을 설치해서 술은 다 같이 파는 거였어요? 그렇지.

1950년대 수원의 여러 분야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면담자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유현희(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면담일 2020년 10월 19일

면담장소 수원비독협회 사무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조사 및 집필

김엘림 서울대학교 석사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자료 정리

김미엽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손예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화보

최인경 수원시정연구원 주임

수원학구술총서 3

## 한국전쟁

그 기억의 파편을 모으다

####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수원

경기도 수원시 수인로 126

T. 031-9220-8058 H. <http://www.suwon.re.kr>

#### 디자인

경인M&B

#### 인쇄

디자인공감

#### 발간등록번호

11-B552980-000020-01

#### ISBN

979-11-6819-079-5 94300

979-11-6819-078-8 (세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